
기본 성경 교리

Don Fortner 지음

박영호 옮김

© Don Fortner 2007.
All rights reserved.

My desire is not to restrict, but to further the use of the materials in this book. Any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 prior permission.

Don Fortner
2734 Old Stanford Road
Danville, KY 40422

© Don Fortner 2014.

모든 권리는 보호됨.

나의 갈망은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 있는 자료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사전 허락을 받고, 재생산하거나, 검색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있고, 어떤 형태, 어떤 방법 즉, 전자적, 기계적, 사진복사, 녹음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Don Fortner
2734 Old Stanford Road
Danville, KY 40422

(역자주: 여기에 인용된 한글 성경 말씀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킹제임스흠정역 성경에서 인용된 것이다.)

서문

우리는 많은 사실이 전파되고 있으나, 진리는 거의 전파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도행전 16:16-17에 점치는 영을 가졌던 여인이 이런 예시로서 제시된다. 그 여인이,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때, 그녀는 사실들을 말하였다. 그들은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이 말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 사실들을 말하는 것과 진리를 말하는 것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

기본 성경 교리는 그 제목에서 사실에 머물고 있다. 성경은 오직 한 교리—그리스도의 교리—만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리는 많은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로서 함께 서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 교리는 본질적이며, 만약 이 교리 중 어떤 것이라도 생략되거나 분리되면, 그것은 더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다. 이 책에서 Fortner 목사는 훈훈하고 읽기 쉬운 문체로 하나로 통합된 전체로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 지면들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완전함을 보게 되므로 가르침과 격려를 받았다. Fortner 목사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특별히 필요하다. 나는 이 지면들을 읽는 독자들이 크게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하나

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단순히 사실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Todd Nibert 목사

Todds Road Grace Church

Lexington, Kentucky (USA)

Foreword

We are living in a day when many truths are preached, but little Truth is preached. The woman, who was possessed with a spirit of divination in Acts 16:16-17, serves as an illustration of this. When she said, “These be the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which shew unto us the way of salvation,” she spoke truths. They were the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who did show the way of salvation. There is no error in that statement. But she never spoke the Truth! There is an infinite difference between speaking truths and the Truth!

Basic Bible Doctrine stays true to its title. The Bible has only one doctrine — The doctrine of Christ. The doctrine of Christ consists of many doctrines, which stand together as the doctrine of Christ. All of these doctrines are essential, and if any of these doctrines are omitted, distorted, or separated, it is no longer the doctrine of Christ. Break one link in the chain, and the whole chain is broken. In this book Pastor Fortner clearly presents the doctrine of Christ as a unified whole, in a warm and readable style. In these pages, I was both instructed and encouraged by seeing the completeness of the salvation that is in Christ Jesus. What Pastor Fortner says regarding the redemptive work of Christ and the regenerating work of the Holy Spirit is particularly needed in our day. I

believe those who read these pages will profit greatly. If God is pleased to bless it, we will not merely learn truths, but the Truth!

Pastor Todd Nibert

Todds Road Grace Church

Lexington, Kentucky (USA)

역자 서문

이 책의 저자인 Donald S. Fortner 목사는 침례교 목사로서 성경의 기본 진리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많은 저서를 썼다. Fortner 목사는 성경의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느 편으로 치우침이 없이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 특히, 이 책인 '기본 성경 교리(Basic Bible Doctrine)'는 성경 전체에서 제시되고 있는 진리를 하나 하나 알기 쉽게 평이한 필체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지녀야 할 성경의 진리들을 잘 정리한 이 책은 교파의 다름을 떠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저자의 첫 한글판을 출판하게 되면서, 먼저 이를 기꺼이 허락한 저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출판에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드린다.

1.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시편 11:3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사람들은 흔히 교리에 관련한 어떤 말이나 교리 연구에 거부감을 표시하는데, 이는 그들이 교리가 불필요한 투쟁이나 분열의 원인이라는 그릇된 상상 때문이다. 실제로 교리의 통합이 없다면 결코 어떤 통합도 가질 수 없다. 교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전부는 아니지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복음교리는 모든 신실한 믿음의 기초이며, 모든 실질적 위로의 근본이고, 모든 경배와 순종과 헌신을 위한 감화이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교리를 토론하지 말자. 단지 복음을 견지하자.” “교리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말자. 주만 경배하자.” “교리를 가르치지 마라. 단지 그리스도만 전파하라.” 이것은 마치 농구팀 코치가 선수들에게, “선수들, 배스킷이나 공이나 코트의 아우트라인을 염려하지 마라. 그냥 농구만 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배스킷이나 농구공이나 선이 없이는 농구를 할 수 없다. 교리가 없는 복음과 예배와 기독교는 있을 수 없다.

교리의 연구는 그것이 기초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시편 11편 3절에서 다윗은,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

랴?”라고 물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다.” (딤후 2:19)고 깨닫고 있다. 하지만 이 캄캄한 배교의 시대에 사악한 종교인들이 지식도 이해도 없이 어둠 속에서 행보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렸다.” (시편 82:5)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강조하여야 한다. “교리”는 금기어가 아니다. 성경의 교리에 대하여 말할 때 단순하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리는 중요치 않은 것이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교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요하다. 복음 교리는 구원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어둠 가운데에서 뛰는 것이 아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하여 가르침 받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의 교리에 반한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계시에 관한 문제이다(로마서 16:17-18, 디모데전서 4:16, 요한이서 1:9)

건강한 교리는 또한 신성한 행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도덕적이고 교리가 없는 종교적 행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리가 경건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딤후 6:3).

이 비참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의 평안은 성경의 교리를 거머쥐는 것에 지대하게 달려 있다(롬 15:4).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죄물과 효험 있는 성령의 은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삶에 직면하고 대처해야 하는 힘과 평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교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 혼이 지어진 기초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파괴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한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으며, 변치 않을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기초가 있다. “하나님의 기초는 확실하다.” (시 119:89; 사 40:8). 우리 믿음의 집은 인간의 철학 같은 흘러가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확고한 반석인 하나님 자신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

그 기초들이 모든 모퉁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성도들에게 한번 공급된 믿음을 위하여 진정으로 분투하여야 한다(유 1:3-4).

만약, 이 어둠의 날들 가운데 성경과 성도들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하여 분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

침(교리)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도로 충만한 가운데 연구하고 구하여야 한다.

교리의 연구는 그것이 기초가 되며, 우리가 연구하는 교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가 믿는 교리,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믿는 그 교리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교파적 신조도, 교회 고해성사도, 교리적 논쟁도, 신학적 논문도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가르침들이다. 우리의 혼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신성한 계시가 없이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다(벧전 1:21).

그것은 신성한 빛 비춤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전 2:13-14). 가르치려는 사람이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 모두 성령의 교리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다. 만일 그분이 우리의 교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르침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진실한 교리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 지면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 처음에는 쓸데 없어 보이고, 아마도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 진실된 교리에 대한 많은 근원이

있다. 기이할 정도로 무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성경이 교리의 원천이 아니라고 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은 성경이 최우선적인 근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교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바라보지 않는다. 심지어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만 참된 교리를 위한 유일한 근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로 거의 없다.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많은 사람이 그들의 교리를 성경과 전통 위에 세운다. 그들의 전통에 따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만든다. 사람들이 그들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 모두에 세우고자 할 때마다 그들은 곧 말씀보다 전통을 더 선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게 만든다(마15:6-9; 16:12; 막 7:7, 13).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신조 위에 세운다. 거기에는 합당한 위치가 있고 신조와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사용 되는 반면,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가장 선하기조차 한 신조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굳게 서야 한다. 성경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신조는 교회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놓여지고 짜여진 가르침이다. 교회 신조가 성경의 교리에 반할 때나 그것에 어떤 것이라도 첨가 될 때마다 거짓된 것으로서 거절되어야만 한다.

많은 사람이 성경의 평이한 서술들과 성경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추정된 직한 것들에 입각하여 그들의 교리를 세운다. 개신교들 가운데 “필지의 교리”라 부르는 교리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대부분의 이단에게 거의 모든 책임이 있다. 성경의 평상적인 서술과 성경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추론되어야 하는 그들의 생각에 기초하여 교리를 세우려 시도 할 때, 그들은 두 개의 기초—모래 위와 다른 반석—위에 세우려 한다. 결과는 붕괴이다. 죄 많은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는 기초에 대하여 이유를 들고자 할 때, 성경 교리를 넘어서는 터무니 없는 생각에는 그 한계가 없게 된다.

지금과 같은 은사주의적 헛된 생각의 시대에는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에 기초하여 그들의 교리를 세운다. 체험은 신앙을 위한 기본이 아니다. 사울은 엔돌에 있는 마녀의 집에서 실질적인 체험을 하였지만(삼상 28:7), 그 체험이 우리 교리의 근본이 아니다. 또한, 좋은 나쁜든 우리 자신의 체험도 아니다.

Martin Luther는 분명하게 말하였다. “매일 기적을 내린다 할지라도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그 어떤 가르침도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교리의 유일한 근본인 신성한 진리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리, 곧 성경의 가르침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결코 표현

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생각과 의견들을 누릴 권리조차 없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감히 언급해서는 안 된다(사 8:20, 딤후 3:16-17).

모든 진실된 교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교리이다. 신실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침 받은 것을 그대로 가르친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성경, 곧 구약과 신약의 교리이다. 단지 신약의 교리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교리는 성경의 교리이다. 성경은 하나의 교훈, 완전 유일의 교리를 포함한 한 권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구약은 단지 조금 덜 분명하지 않고 충만함이 없을 뿐, 신약과 전적으로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구약은 예표(豫表:type)이다. 신약은 대형(對型:anti-type)이다. 구약은 약속과 예언이다. 신약은 실현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구약은 감추어진 신약이다. 신약은 드러난 구약이다.”

사도행전은 우리 주의 승천과 높여지심 후 처음 삼십 년 동안 신약 교회 사역의 감동받은 역사이다. 그 감동의 역사 가운데 사도의 교리와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사도들의 선포에 대하여 읽는 매시간(모든 37가지 관련된 말씀들), 선포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었다. 사도행전 내에서 주어진 종합된 모든 복음의 교리는 실로 신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구속의 성취를 중심으로 한 것과 사망으로부터 부활로 인

한 그 성취의 확증을 중심으로 한 교리의 감동된 체계를 계시하고 있다. “사도들의 교리”는 그들이 곳곳에서 전파한 것이며, 다섯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1. 만유 위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행 2:23; 4:26-28; 13:26-30)
2.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행 3:13-18)
3.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한 구속의 성취는 그분의 사망으로부터의 부활로 확증됨(행 1:22; 2:24, 32)
4. 은혜만으로, 믿음을 통하여, 행위에 의하지 않은 구원(행 2:28; 3:16; 4:12; 5:11; 16:31)
5.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행 15:10-11). 히브리서 8:1-2와 로마서 10:4 참조.

성경 교리를 어떻게 연구하여야 하는가?

성경 연구에 대한 최선의 방법에 관하여 그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라도 세우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잘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그들의 연구 방법을 바꾸라는 권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든지 간에 교리를 연구하면서 따라야 할 몇 가지 법칙과 지침이 있다.

-
1. 모든 교리는 맥락을 따라서 연구하라.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의 증거를 찾는 방식으로 연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부정직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우리가 가진 교리를 입증하려고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교리를 얻고자 성경에 접근한다.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알기 원한다면, 주제가 제시된 그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가며, 관련된 본문을 그 단락들의 빛 가운데 해석하여야 한다. 공정함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락을 분명한 단락으로 해석하도록 해주지만, 애매한 단락으로 분명한 단락을 해석하게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자. 믿는 자들의 침례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면, 창세기 17장이 아닌 로마서 6장을 보아야 한다. 주의 만찬에 대한 성찬식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요한복음 13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아야 한다. 성경이 이혼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로마서 7장이 아닌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야 한다. 성경이 구속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알기 원하면, 요한복음 3장이 아니라 로마서 5장으로 가야 한다. 예정하심에 관하여 관심이 있다면, 에스겔서 33장이 아니라 로마서 8장과 9장 그리고 에베소서 1장으로 가야 한다.
 2.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를 굽히자. 어떤 희생이 따르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
-

라도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 어떤 교리나 실행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책 가운데 계시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품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3. 가능한 정도까지 성경의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교리를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 명확함과 신실한 설명을 위하여 성경에서 분명하게 사용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주권, 만족, 삼위일체, 대속물, 등.) 그러나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하여 요구 받는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경 교리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다. “암호”로 제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다. 자신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하여 세계 구석구석으로 당신을 안내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당신을 세계로 여행시킨다면, 그의 교리는 아마도 위조된 것이다.
4. 성경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많거나 더 적은 중요성이나 중대함을 교리에 첨부하지 마라. 성경의 지배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은혜로 만으로 믿음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메시지이다. 성경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힌 그분이다(눅 24:27, 44-47; 요 1:45; 행 10:43). 만약 사단이 그분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우리의 초점을 잃게 한다

면, 사단은 그 날로 이긴 것이다.

5.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라.” (딤후 2:10). 우리 삶을 우리의 교리에 순응하기를 크게 관심하자. 교리와 의무는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진리는 우리 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성격과 행동이 복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의 교리는 실로 무의미하다.

모든 교리를 두 가지의 간단한 질문으로 시험해 보라. 첫째, 누가 영광을 취하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둘째, 교리가 당신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며 안식하도록 하는가? 모든 진실한 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낮추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쉼 곳을 찾기 위함이다.

2.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2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그 선포 때문에 간접적으로 제시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포함된 매우 높은 뜻이 있음을 이해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그 어떤 것이며, 존중되고, 귀히 여기며, 읽히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될 책이라는 것이다. 그 책은 가정의 커피 테이블이나 교회에서 집회용 탁자를 치장하기 위하여 꾸미는 장식품으로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성경의 전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을 믿어라. 성경에 복종하라. 머릿속에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라. 가슴 속에 성경을 저장하라. 삶에서 성경을 보여라. 그리고 성경을 세상 가운데 심으라. 이 축복의 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분명히 그러하다.

성경의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연구하기 전에, 성경이 실로 신성한 근원과 감동되고 무오하며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거머쥐어야 한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어떤 것도 믿을 권위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사실 오늘날 모든 종교인 가운데 불분명함과 불안정함과 혼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와 교리와 행위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깨닫기 실패하는 데 있다.

세속적 세상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종교적 세상의 이단

과 공상과 무신론과 무지를 직면할 때, 우리 기초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교리적 영적인 무지는 항상 영적 속박으로 인도한다(사 5:13).

많은 서적이 신성한 근원과 감동과 무오함에 대한 성경의 주장이 부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을 기술 해 왔다.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성경에 대한 네 가지 신뢰하는 점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당신의 영혼을 축복하리라는 것과 하나님의 책이 심지어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소중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1. 성경은 영감을 받은 절대 확실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성경 그 자체가 하는 주장이다. 우리는 그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체 모두를 거부해야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인간의 혼을 속이고 해치는 끔찍하게 악한 거짓말이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같은 논리가 신성한 근원임을 주장하는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코란이나 몰몬경이나 근대 자칭 예언자들의 주장들은 인간의 혼이 파괴되는 악한 속임수로서 거절되어야만 한다. 성경은 영감을 받았고 절대 확실하며 무오하고 완전하며 충만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한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인 것을 보기 위하여 성경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

- 성경은 신성한 근원을 주장한다. 성경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죄

로 가득한 인간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나, 절대 확실한 영감을 받았음을 주장한다(딤후 3:16-17; 히 1:1; 벧후 1:21).

- 성경은 그것으로 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필연적인 계시임을 주장한다(롬 10:13-17; 벧전 1:23-25).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영이시다.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은 그분이 만드신 것들로부터 입증되며, 따라서 모든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그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계시로 그분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분이다.
- 성경은 택함 받고 구속된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믿음과 영원한 구원에 부름 받기에 충분하고 효험 있는 방법임을 주장한다(사 55:12; 딤후 3:15; 히 4:12; 약 1:18).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불변성을 주장한다(사 8:20; 계 22:18-19).

영감에 대하여 논할 때, 성경이 그것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때로는 영감을 받음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논쟁할 때가 있다. 그것은 정말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기록할 때 그들은 성령에 의하여 감동 받고 감화되었다. 그러나 영감을 받지 않았다.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기록하도록 채용되었으며, 영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은 성경도 조심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결점들이다. 성경은 약하고 죄 있는 인간들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런 약함과 죄들과 인간성은 성경의 무오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저자들의 글을 통하여 그들의 성격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성격이 성경의 완전함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 성경은 영감을 받았고 무오하며,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그러한 말씀 임을 주장하고 있다.¹

믿는 이들 가운데, “성경에 기술된 모든 장소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발견에 배치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나는 항상 이렇게 반문한다. “당신이 말하는 그 기록이 어느 것인지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논쟁은 종결된다. 나는 과학자임을 주장하지 않는다. 더욱이 과학을 공부한 학생도 아니다. 하지만, 조금도 모순의 두려움 없이 이 주장을 하겠다—성경에 기술된 것과 과학적으로 인정된 사실들 사이에 단 한 점의 모순도 없다. 성경과 과학적 이론들 사이에 지대한 갈등이 있으나 성경과 사실 사이에는 전무하다. 과학적 이론들은 지속적으로 변하며 지속적으로 상호 모순을 낳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사실들과 성경의 사실들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 있다.

¹ “성경을 훌륭한 책으로서 극찬하는 동시에 그 무오함을 부인하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다.”

2. 신성한 근원과 영감에 대한 증거와 주장들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다.

영감에 대한 많은 내부 증거 가운데 몇 가지만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외부의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일일이 들지 않겠다. 이런 혼란스럽고 비통한 세상 가운데, 성경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가르침들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 있기에, 내부 증거들은 부인론자들을 반박하고 우리의 혼을 안심케 할만큼 충분하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셨다. 그분이 세상에 거하실 때, 구약의 유효함에 대하여 입증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하지 않으셨으며, 다만 참조하셨고 인용하셨으며 자세히 설명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살아내셨다. 사실, 그분은 이단자들에 의하여 가장 자주 공격을 받는 구약의 두 권의 책에서 매우 의도적으로 인용하셨다. 신명기와 이사야서이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사탄이 그분을 시험하려 할 때 매번 인용하셨던 구절들이 있는 책이다(신 8:3; 6:16; 6:13; 눅 4:4-12). 이사야서는 그분께서 대중을 향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으로 그분 자신이 메시아임을 천명하실 때 언급한 책이다(사 61:1; 눅 4:16-21).

둘째, 성경의 유일성은 곧 가르침의 단일성을 말하며 그 신성한

근원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책은 그 계시하는 바와 가르치는 바에 있어서 다른 모든 책과 전적으로 다르다. 이 진리의 샘에서 한 번 마셔본 사람은 각각 특징적인 다른 것을 맛보았다. 성경은 할 수만 있다면 분명한 것들을, 즉 다른 어떤 책도 말할 수 없고 하지 않았을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 성경만이 창조 가운데 계시되고 모든 인간의 양심에 인쳐진 것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하나님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계시를 제공한다. 성경은 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고 거룩하며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심을 말해주고 있다.
- 성경만이 사람의 근원과 그 죄성과 하나님을 인지함과 불멸의 인식을 제시하여 준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어떤 시도도 아무런 만족을 주지 않는다. 사람의 글에 불과한 어떤 책도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묘사를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 성경만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순종과 사망과 부활의 필연성에 대하여 계시하고 기술하고 있다.
- 성경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의 양심을 만족하게 하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과 체계를 계시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롬 3:24-26)은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로 대속물에 의한 구속과 그로 인한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의를 만족하심이다.

어느 정도 조심성과 철저함으로 성경을 읽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단순히 사람이 그 근원인 책일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

셋째, 성경의 가장 현저한 특징을 다룸에 있어서, 솔직함과 진실성은 그 신성한 근원의 증거이다. 모든 사람의 일대기는, 그 주제가 어떤 약함과 과오를 노출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변명하거나 그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길을 모색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유명한 인물들의 경우, 그 위대한 생애를 기술할 때, 다른 종류의 그림을 그리며, 매우 어두운 면을 그린다. 성경은 노아가 술취한 것을 가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롯의 근친상간, 모세의 분노, 아론의 우상숭배, 다윗의 살육과 간통, 제자들의 불신, 베드로의 타락, 혹은 바울과 바나바가 분열하는 갈등 등이 있다.

넷째, 성경의 완전한 조화와 유일함은 그 신성한 근원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위로와 확신의 커다란 원천에 관해서 그야말로 반박할 수 없는 논쟁이다. 만약 나의 증조부를 만나야 한다면,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이 땅 속에서 살아 나와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덜 놀라운 것이다. 이것을 주의하여 들어 보라.

성경은 세 가지 언어(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사십 여명의 저자가 서로 분리된 두 대륙에 살면서, 16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다. 일부는 궁전 안에서, 일부는 감옥 안에서 엮었다. 어떤 부분은 대도시 교육을 잘 받은 자에 의하여 기록되었고, 다른 부분은 양치기나 어부에 의해서 기록 되었다. 일부는 전쟁 중에, 전염병 가운데, 혹은 위험 가운데 기록되었으며, 다른 부분은 황홀한 기쁨 가운데 기록되었다.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사실상 모든 삶의 행보 가운데 있었다. 심판관, 제사장, 왕, 선지자, 수상, 목동, 서기, 어부, 그리고 군인들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다양한 환경과 조건과 직업과 다양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산출하도록 하는 일이 주어졌으며, 한 권의 책으로 서 있다. 그 모든 부분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으며, 오류가 없고 모순이 없다.

“국적이 서로 다른 사십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음악적 문화의 정도를 가지고 어떤 웅대한 성당의 오르간 앞에 와서 오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어떤 충돌도 없이 66개의 다른 음을 치는데 그것들이 합하여질 때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장대한 오라토리오의 주제곡을 낳았다고 상상해 보라. 이 사십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의 뒤에 한 지휘자의 생각, 한 사람의 위대한 음향 지휘자(Tone-Master)가 있었음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각기 다른 파트에서 연주하는 엄청나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지만 선율과 화음을 낳는 어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으면, 이 많은 연주자의 뒤에는 작곡가의 개성과 천재성이 있

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신성한 학원의 홀에 들어서며 모두 완전하게 조화를 이뤄 일치된 소리를 내며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천상의 합장을 들을 때, 그 음악을 쓰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 A.W. Pink

성경의 존재에 대한 오직 한 가지 온전한 표현이 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1:21)

다섯째, 그 글자 하나까지도 그대로 성취된 성경에 주어진 많은 예언은 정직한 사람들이 성경의 신성한 근원을 깨달을 것은 요구하고 있다. 예언은 그것이 지나가기 전에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성한 계시의 산성 실험이다. 주 하나님 자신은 성경을 통하여 성취된 예언을 보여 주신다(신 18:22; 사41:21-23; 뱀후 1:19-21). 점성술사나, 손금 읽는 자나, 기타 마법사들은 종종 사람들을 놀래 키는 일반적인 예측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고 일반적인 예측이 아닌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측을 말하며, 그것들이 성취됨에 있어서 그 진실성을 확고히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구약의 예언의 중심 주제이셨다(시 22; 사 53). 그러나 구약 안에는 정확하게 성취되어진 그분에 관한 구체적 예언들의 많은 서술이 있었다(사 7:14; 미 5:2; 행 13:29).

유대의 어린 왕, 요시아에 관한 예언은 여로보암의 시대에 예언되었으며, 350년 후에 성취되었다(왕상 13:2; 왕하 23:15-16). 다른 여러 성취된 예언들이 성경에 대하여 전혀 익숙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트집을 잡는다 해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열린 책이다. 그 진리들은 학자들의 언어로 기술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보통 언어로 기술되었다. 성경은 사람을 위한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성도들, 교황이나 제사장이나 학자들이나 성직자들에게 아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 감추어지거나 비밀 암호로 기록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열려있다. 만일 복음이 분명치 않게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책에 분명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분명치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고후 4:4).

3. 성경의 영감과 무류(無謬)한 교리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내포한다.

만약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권위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가르침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말씀하는 모든 것이 사실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며, 순종되고 복종되어야 한다. 그 말씀은 숨김 없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 쪽에는 하나님의 거

룩한 말씀 앞에서 영의 다루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가르침 받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무엘과 함께 외쳐 말해야 한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삼상 3:9).

이 성경은 신성한 근원의 것이므로, 그에 대한 우리 이해 역시 하나님의 은사이다. 매번 성경을 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밝히고 빛비추어 우리 이해를 열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시 119:18; 요 16:13-16; 고전 2:11, 14).

4. 성경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유는 그 위대한 가치와 유용함과 유익함의 암시를 준다.

성경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비유를 주의깊게 연구하는 것은 흥미롭고 유익하다. 성경은 등잔이나 빛으로 비교될 수 있다(시 119:105; 잠 6:23). 성경은 거울이라고 부른다(고후 3:18; 약 1:25).

성경을 들여다 보면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본다. 죄로 가득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잃어버린 바 되었고, 폐허가 되었고 완전히 무력한 존재이다. 성경은 물두멍이나 세숫대야로 비유된다(엡 5:26; 시 119:9; 요 15:3). 성경은 떡이나 우리 혼을 위한 양식으로 비유된다(요 23:12). 굶주림을 위한 떡이며, 아기의 젖이고, 장성한 자를 위한 질

긴 고기이며, 이 세상 가운데 쓰디쓴 체험을 하는 자들의 삶에 꿀과 같이 달콤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경은 녹이고 따뜻하게 하며 위로가 되는 불꽃이면서 부서뜨리기 위한 망치로 비유된다(렘 23:29). 성경은 성령의 검이다(엡 6:17; 히 4:12). 성경은 복음 전파로 심겨지는 좋은 씨라고도 한다(눅 8:11; 전 11:6; 시 126:6).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울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7-10)

3. 하나님의 존재

창세기 1: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어떤 선지자나 사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경우는 없었다. 영감을 받은 모든 기자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예상하고 있다. 나 역시 같은 추정을 하겠다.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모든 시도는 빛이 빛이고, 불은 불이며, 얼음은 차갑고, 열은 뜨겁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와도 같이 불필요한 것이다.

이 장에서의 머리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선포다. 하나님의 존재는 수 많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John L. Dagg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발하는 빛인 계시록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를 독립적으로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이 그러하다. 하늘과 땅, 낮과 밤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자연현상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성경을 본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한 말씀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자연현상들 위에 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 따라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공과를 시작하고 마칠 것이며, 그분의 존재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다른 어떤 자료에다 호소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한 곳부터 시작하겠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적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존재 혹은 계심은 모든 것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종교의 기초이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교는 헛된 것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이나 실행 모두를 판단하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 (John Gill).

하나님에 관한 연구에 접근할 때, 인간의 생각을 점유할 수 있는 그 어떤 주제보다 가장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접하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해할 수 없으면서 기쁘고 유익하고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 가득한 논제인 만큼 무궁무진한 주제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심,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어떤 특별한 방면들이 몇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인간을 깨우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물질로서의 우주

시편 19:1-6과 로마서 1:18-20을 보라. 하나님은 결코 그분 자신에 대하여 증인이 없게 두지 않으신다. 분별력과 사고력을 갖고 하나님의 땅 위에서 살아갈 권리를 누려왔던 인간이라면 누구나 창조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셨다는 그분의 증거를 보고 들었

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자신들을 신으로 경배하였던 이교도들에게 한 말이다(행 14:15-16).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창조 시 모든 인간에게 보여졌다. 하나님의 책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관한 이 세 가지 점들을 알 것을 선포한다. (1) 하나님은 계신다. (2)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3)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역사를 통하여 인류가 발견된 장소에서는 어디서나 이 세 가지 점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줘 왔다. 이 천연적인 지식은 불충분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항상 오해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분의 음성이 매일 낮과 밤으로 들리는 그분의 창조하신 땅 위에 있는 피조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지혜로우시다는 것과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창조는 전 인류에 의해 소유된 빛의 근원만은 아니다. 성경은 전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혼에 그분의 형상으로 인치셨고 인간의 양심에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셨기 때문이다(롬 2:14-15).

인간의 양심

사람은 창조주의 만지심에 의하여 천연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다. 모든 인류는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다. 모든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은 계시며,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며 죄를 심판하실 것을 크게 외치고 있다.

로마서의 첫 번째 장이 말씀한 바로는, 본성에서 모든 인간은 “의롭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다.” 그것은 이렇다면, 인간은 그것을 끌어내리고 억누르고 거절하려 하지만, 그 진리에서 도망칠 수 없다.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인간은 공개적인 무신론자나 근본적 우상숭배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훈련과 교육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문명은 결코 야만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 없었다. 단지 읽고 쓸 수 있는 옷 입은 야만인으로 바꿀 뿐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모든 인간을 세 가지로 확신시켰다. 그것을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전능하고 거룩하며, 그들은 죄가 있고 죄 사함을 위한 희생이 필요하고, 따라서 심판 가운데 거룩한 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죽지 않는 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본성의 빛 비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모든 인간을 변명치 못하게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으로 이끌지 않는다. 성령은 우리에게(롬1:18-20), 창조와 양심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게 하지만, 그것이 결코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자들은 본성적으로 복음의 빛을 조성하지 않고, 오직 심판과 정죄를 위한 근거만 만든다.

인간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빛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인간은 타락하고, 왜곡되었고, 영적으로 죽었으므로 결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않을 것이며,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인간은 그들 자신 위에 더 큰 정죄를 쌓아 올리면서 그들이 소유하고 왜곡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취한다(롬 1:18-32).

로마서 1:18-32를 읽으면서, 인간이 퇴보하는 순서를 분명하게 주지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도록 기록되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남겨졌을 때 인간이 가는 길이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자신의 상상 속의 하나님 모습에 꿰어 맞춘다. 우상숭배는 엄청나게 투명하지 않음과 병적인 애착과 자신들의 생각의 보편적인 수용이 뒤따른다.

모든 인간은 마음이 삐뚤어졌고 타락하여 범죄하고 죄들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주어지고 인침 받은 천연적인 빛보다 더한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 자신을 그분의 기록된 말씀으로 피조물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다.

성경

시편 19:7-11과 디모데후서 3:16-17을 읽어보라. 알 수 없는 축복을 받은 남자들과 여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받도

록 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축복은 신뢰 할 수 없을 지 모른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어떤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그분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그분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알게 하며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죄인들을 구속하셨다(롬 10:9-17). 하나님은 그분과 만나고 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그분을 경배하도록 허락하시는 복음 교회들을 세우신다(마 18:20). 이 위대하고 위대한 은혜의 관대하심에 더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죄인들이 또 다른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그분 자신을 알리기 위한 도구가 되도록 하신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가 복음의 빛을 진 모든 자에게 대하여 빛진 자였음을 말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롬 1:14-17). 모든 구원받은 죄인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빛을 값에 있어서 스러져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좋은 소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가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기쁨심 안에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창조의 빛과 하나님을 인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갖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식으로부터 온다(요 1:1-3, 14, 16-18; 17:3; 히 1:1-3).

성육신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이 하셨던 성육신의 말씀이다. 그분의 인격 안에서 그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분리하여 하나님을 알기란 죄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총체이며, 성령의 모든 본과 그림의 총만이고, 모든 선지자의 전갈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총만이 거한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존재하심의 표현과 계시가 있다. 만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역사와 방법과 인격을 찾고 연구해야 한다(요 14:6; 9).

이 안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복음의 전파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알 수 없고, 그리스도도 알 수 없다(벧전 1:23-25; 롬 10:13-17). 하지만, 단순한 복음 전파로는 결코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지식을 전할 수 없을 것이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남 가운데 믿음의 은사로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운행에 의해서 뿐이다(히 11:1-6; 엡 2:8-9)

믿음의 체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은 선택 받은 자들 가운데 창조되고 그들 위에 부여되었으며, 그분의 성령의 역누를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인한 거듭남 안에서 구속 받은 죄인들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사이고 운행하심이다(엡 2:8; 빌 1:29; 골 2:12). 믿음의 은사는 복음 전파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에게 전달되고 역사한다(고전 1:18-24). 이 믿음의 은사로 각각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는 성령의 내주하는 기름부음을 받게 된다(고전 2:12-16; 요일 2:20-27).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은 슬프고도 슬픈 인간 타락의 증거이다.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리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은 개개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 안에서 본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그들 자신이 확신할 수 없으면서도, 그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매우 경멸한다. 그들은, “우리를 떠나라. 당신 방식의 지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슬프고도 저주스런 상태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인간의 혼을 효

과적으로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남이다(요 3:3-7).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 심지어 진실된 믿는 자들 사이의 생각 속에서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참담하고 최악에 가득한 질문과 의심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들은 사탄이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를 괴롭히고 파괴시키려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런 괴롭히는 생각들에 대한 유일한 치료는 은혜이다. 그와 같은 사악한 생각들을 위한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한 성실한 연구이며, 마음에 그런 것들을 은혜롭게 적용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조심스럽게 나타내라. 늘 기도하고 자신감 있게 모든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으라. 모든 길에 있어서 기도에 충실하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인지하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엿드리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라. “우리가 습관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의 존재를 의심치 않게 될 것이다.” (John L. Dagg).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믿음의 겸손함 가운데 걷자.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네 배꼽에 건강이 되며
네 뼈에 골수가 되리라.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잠언 3:5-10)

4. 불가해한 삼위일체 비밀

요한일서 5: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의 교리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

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편하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대부분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들이 왜 믿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보여줘야 한다는 것에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

물을 필요도 없이 분명히 성경적 가르침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거부하는 수 많은 이교도 이단들(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교도 이단들이다.)에게 기도하며 타락하고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단일화 시대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사실들을 부인하는 교파와 교회와 목사들이 많은 사람에게 의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타협은 비성경적이고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하나님, 혹은 그 신성한 인격들(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삼일 안에서 경배하며, 각각의 분을 우리가 구원받도록 한 분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앙망하고 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죄로 인하여 죽을 자들이 성삼위의 비밀을 이해하기란 매우 불가능한 일이다. 누구라도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들은 무한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성삼위의 교리는 실로 불가해한 비밀이다.

비판론자, 회의론자, 그리고 이교도들은 그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자랑하지만, 그들의 자랑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태양이 빛나는 것을 부인한다고 생각지 않겠지만, 비록 거의 없겠지만, 만약 있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빛나는 가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사실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것들 가운데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결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나는 왜 황소가 초록색 풀을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란 버터를 만드는 하얀 우유를 제공하는 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않지만, 나는 우유를 마시고 버터를 먹는다.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인성의 복잡성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없다. 생물학자도 심리학자도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밀을 거머쥐지 못한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동물이란 생명체 가운데 최상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디서도 사람과 같은 동물을 발견할 수 없다. 왜?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 즉 인성 3분법으로 말씀하고 있다. 우리 각자는 물질의 몸과, 이성적인 마음과,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혼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의 개체, 하나의 인격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의 다원성 개체이고, 삼일 개체이며 삼위이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함께 둘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나는 답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은 안다. 아무도 인성의 복잡한 신비함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보고 관찰하는 것이다.

인성과 관련하여 그것이 사실이라며,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더욱 더 사실일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결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분명 그분의 존재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지 않겠다. 내가 이해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누군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려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이다.” 이 공과에 있어서 유일한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것이 위로와 격려로 총명한 교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성경 교리

성경은 분명하고도 틀림이 없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추측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신학적 추측이나 역측의 관점이 아니다. 요한일서 5:7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삼위일체의 교리를 선포하고 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분명히, 이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장소만이 아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삼일의 존재이심과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시고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심을 드러내시고 있다. 모두 만유 안에 계시고 영원히 공존하신다.

우리가 신성한 인격의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할 때, 동등한 세 분이 계시나 서로 분리된 하나님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 인격체 안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의 신성한 인격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성한 삼위일체는 한 분의 신격 안에서 이들 세 분의 인격의 연합이므로 세 분 모두 본질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시나 개체성에 있어서 세 분의 인격이다. A.H. Strong의 “한 분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In the nature of the one God)”라는 저서에서, “세 분은, 세 가지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세 가지 영원한 특징들이며, 이 세 분은 동등하다.”라고 쓰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인가 아닌가? 오직 그것만 문제일 뿐이다.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 교리를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라.

삼위일체는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기초를 둔 교리이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시고 스스로 계시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분 하나님으로서 제시되시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격 안에서 복수의 인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으로 제시되고 있다(신 5:4, 창 1:1-2, 26). 구약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신격의 세 분 인격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 그리고 주의 천사로서 많은 경우에 있어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는 가장 흔한 히브리어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엘(EI)'이라는 단어이다. 구약성경에서 수천 가지의 조합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것이다. '엘(EI)'의 복수형으로 '엘로힘(Elohim)'이 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한 번 사용된 단어이다. W. A. Criswell은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 방법에 있어서의 중요함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창세기의 첫 번째 장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서른두 번 사용되고 있다. 모세 오경에서는 엘로힘이 오백 번 이상 사용되고 있다. 구약성경 안에서, 엘로힘은 오천 번 이상 사용되고 있다. 창세기의 서른두 번 전부에서, 모세의 기록 가운데 오백 번 이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오천 번 이상 가운데 예외 없이 엘로힘은 단수형 동사와 사용되고 있다. 복수형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고 엄청난 경이와 비밀을 가리키고 있는 엘로힘은 단수형 동사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

그 사실이 제시하는 것은 분명하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삼일 하

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삼일 하나님은 실재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하나님도 없다.

신약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여 삼위일체의 교리를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교리를 입증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실의 문제로서 선언되고 있고, 성도들 가운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수용되고 믿는 하나의 사실로서 선언되고 있다. 이는 거의 일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성육신과 관련하여(마 1:20-23).
- 주님의 침례와 관련하여(마 3:15-17).
- 최고의 위임과 관련하여(마 28:19-20).
- 주님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한 주님의 약속과 관련하여(요 14:16).
- 사도 축도와 관련하여(고후 13:14).

신약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과(롬1:7),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과(히 1:8),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행 5:3-4) 선포하고 있다. 하지만,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신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일관된다(눅 1:35; 요 14:26; 15:26; 갈 4:6; 엡 1:17; 2:18; 3:14-16; 4:4-7; 5:18-20; 6:17-23; 벧전 1:2; 유 20-21; 계 1:4-6). 의심할 바 없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교리이다. 흑자는 날카롭게 선언한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신격의 모든 총만이다(요 1:18); 아들은 체현된 신격의 모든 총만이다(요 1:14-18); 성령은 피조물 위에 즉각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총만이다(고전 2:9-10).”

나는 삼위일체 교리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성이나 논리로부터 하나의 어떤 주장도 산출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다. 삼위일체교리는 유한한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것을 거부하는 놀라운 것으로 가득한 비밀이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본성이나 논리 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근거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분명하게 안다.

복음 교리

신격 안의 세 인격 모두는 동등하게 은혜롭다. 이것은 성경이 에베소서 1:3-6의 첫 번째 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위대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 영원하신 신격의 세 인격체가 동등하게, 그러나 인격 가운데 구별되기 때문에 신성한 인격의 모든 세 분은 은혜 안에서 동등하나 은혜의 운행 가운데 구별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앞에서 모든 은혜의 샘이 되셨다(엡 1:3-6). 은혜의 약속 안에서 구속을 제시하시고, 계획을 만드시고,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구원하실 백성들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

지였다. 그분은 그분의 쫓겨난 자들이 그분께 다시 되돌아 올 수 있고, 그분의 존재로부터 결코 내쫓기지 않을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시간의 총만 가운데”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그분이 선택한 자들에게 은혜의 중매자 혹은 중보자가 되게 하였다(갈 4:4-6).

아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통로이다(엡 1:7-12). 모든 은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온다. 이 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열네 번이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 그리고 죄인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은혜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면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면 하신다.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면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성육신이며,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들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자들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합하도록 예정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된 자들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으신 자들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속 받은 자들인가? 우리는 그리스

도 안에서 구속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용서받은 자들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됨을 입은 자들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

당신은 이것을 아는가?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미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않도록 하라. 죄인들의 구원 가운데 은혜와 의를 함께 가져온 것은 십자가 위에서 행한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공휼과 진리가 함께 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춤하는 것”은 그분의 피, 오직 십자가의 피로 인함이다(시 85:10). 기쁨에 겨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묵상하는 것에 빠진 John Bunyan은 다음과 같은 황홀한 글을 썼다 ...

“오, 그대 축복받은 자의 아들이여! 은혜가 영광스런 당신을 드러냈군요. 은혜가 하늘로부터 당신을 이끌었군요.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그토록 무거운 죄를 지게하고, 그토록 무거운 저주의

짐을 당신이 짊어지게 하였군요. 당신의 옆구리에서 피 흘리심으로 은혜가 끊어 올랐군요. 은혜가 당신의 눈물 안에 있었군요. 은혜가 당신의 기도 안에 있었군요. 은혜가 당신의 가시면류관이 씌워진 이마로부터 흘러내렸군요! 은혜가 당신의 손을 찌른 못과 당신을 찌른 가시로부터 나왔군요! 오, 여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군요! 죄인들을 기쁘게 한 은혜로소이다! 천사들을 놀라게 한 은혜로소이다! 마귀들을 경악하게 한 은혜로소이다!”

모든 은혜의 샘은 하나님 아버지이다. 모든 은혜의 매개체는 아들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행정관이다(엡 1:13-14). 그리스도의 피를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분은 전능한 능력으로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한다(시 65:4; 110:3; 요 16:8-11). 그분은 선택 받은 자에게 은혜의 전능한 운행으로 믿음을 준다(엡 2:1-9; 골 2:12).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영존하는 영광에 인친다.

구속은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에게 효과적으로 성취되었다. 그것은 효험 있는 부르심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구속 받은 모든 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된다(히 9:12-14). 변화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은혜로운 운행 없이는 어떤 죄인도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들을 취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이신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격려하고, 아들이 구속한 자들을 되찾으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놓은 선한 목자가 잃은 바 된 양들 각각을 선한 목자께로 인도한다(요 10:11). “그분은 가장 큰 용기를 얻어 가장 악취 나는 영적 문둥병자를 씻으신다. 그분은 죄로 멀어버린 눈을 뜨게 하고 죄로 막힌 귀를 뚫으신다. 축복의 성령은 아버지의 은혜를 계시하며 아들의 은혜를 적용한다.” (C.D. Cole)

신격 안에 있는 세 분 모두의 인격은 동등하게 은혜롭다. 세 분 모두 동등하게 찬양받으실 만 하다. 실제로, 성삼위의 세 인격은 성경 안에서 함께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항상 구속과 은혜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예외를 발견할 수 없다.

“모든 축복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아래의 모든 피조물은 그분을 찬양하라!
위에 계신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하늘에 속한 주인들이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찬양하라!”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시내 산 위에서 계시면서, 천둥 번개를 입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임하실 것만 같이 바로 그 산이 흔들리도록 나타나시는 것은 너무도 두려웠다(출 20:18).

때로는 아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가운데 나타나실 때처럼 홀로 나타나신다. 그 때 그분을 멸시하고 거절하였던 남녀들이 그들에게 무너질 산을 향하여 울 것이며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구원 받을까 하여 공포 속에 기도할 것이다(계 6:14)

성령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같은 때에 홀로 나타나신다. 그분을 모독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들은, 타락한 자들로서 영원한 심판 속에 남겨질 것이다(마 12:31-32). 삼위 가운데 한 인격이 홀로 나타날 때마다 결과는 심판이다.

그러나 세 분의 모든 거룩한 인격이 우리 앞에 함께 제시될 때, 결과는 항상 긍휼과 은혜와 구속과 구원이 있다(엡 1:3-14; 계 1:4-6).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 존재는 그분의 모든 속성 가운데, 그분의 모든 영광 가운데, 그분의 인격의 삼위 가운데 그분의 선택하신 자들의 영존하는 구원을 위하여 임하신다(렘 32:41; 롬 8:28-32).

격려의 교리

성경 안의 어떤 교리도 삼위일체의 교리 이상으로 신실하게 믿는 자들 가운데 합일을 더 강력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추측의 추상적인 주장도 아니고, 어떤 교리적 미묘함의 무익한 주장도 아니다. 이것은 가장 신중한 성별이며 합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깊은 존경과 겸손을 계시하여 줄 것이라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주제이다.

우리가 침례 받는 가운데, 당신과 나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대중 앞에서 맹세하였다(롬 6:4-6).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헌신과 약속을 공적으로 선포하였다.

성삼위에 대한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려는 갈망을 우리 안에 일으키도록 하자(요 17:20-22). “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본성에서 하나이며 사랑 안에서 하나이고 목적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의 연합 가운데 응답 받을 날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겠는가?” (J.M. Pendleton)

신실한 모든 믿는 자는, 삼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연합하기를 성실하게 힘써야 할 것이다. 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수고 가운데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 전력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목적 안에서 진실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빌 2:2-5).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엡 4:32-5:1),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자들은 서로에게 인내하는 것과 서로를 지극히 높이는 것과 서로를 용서하는 것과 서로를 품는 것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배워야만 한다. 곧 우리는 영광 가운데

데 하나가 될 것이다(요 17:22; 엡 4:1-6).

5. 주의 이름

시편 9:10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 이름들이 자녀들에게 제시되었다. 때로는, 인생의 철저한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나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사람의 이름이 바뀌거나 이름이 그를 설명되기도 한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다. 아담은 “붉은 땅”을 의미하는데, 그가 땅의 흙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것을 가리킨다. 야곱은 “속이다, 대신하는 자”를 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셨으며, 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라는 뜻이다. 모세는 “건져지다”를 뜻한다. 그의 이름은 바로의 딸이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주어졌다.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에게 관해서도 같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의 언어로는 어떤 단어도 그분의 이름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그분 자신을 알도록 하는 몇 가지의 단어나 이름

들이 있다. 성경 내에서 하나님께 적용되는 이름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특징을 묘사하며 위대한 속성들을 계시하고 그분의 구속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이름과 그 의미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성경 안에는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는 열 가지의 특징적인 이름이 있다.

1.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계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발견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제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ELOHIM)”이다. “엘로힘”의 의미는 “경배하다”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분은 경배받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진실한 경배와 찬양과 존경과 신뢰의 유일한 대상이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비록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복수로 제시되고 있다. 그 중요성은 분명하다. 우리는 한 분의 영광스러운 존재 안에 계신 세 분의 구별되는 인격,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한다(요일 5:7).
2.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엘(EL)” 혹은, “엘리(ELI)”이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주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으며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벤허(Beth-El)”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이다. 여기 우리

주께서 부르셨던 말이 있는데, 그분이 외치시며, “엘리, 엘리, 라
마사박다나? (Eli, Eli, lama sa-bach-tha-na?)”라고 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까?”라는 말이다(마 27:46). 이 이름, “엘”은 “강한, 또는 전능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3. 다음은, 하나님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2절에서 “엘리옴
(ELIOM)”이라는 이름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다. “엘
리옴”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고와 위엄의 표현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이 적어
도 하나의 본이었는데, (만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분의 많은
사전 성육신의 나타남 가운데 한 분 가운데 아니라면),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불리셨다(눅 1:32). 엘리옴은 영원 안에
거주하시는 높고도 고귀하신 한 분이다.
4. 하나님은 또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샤다이
(SHADDAI)”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전능자
(Almighty)”라고 번역 할 수 있다(창 17:1). “샤다이”는 “하나님
모든 충만”을 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닌 그 이상을

표현한다. 이것은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약속들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을 표현하고 있다. 엘샤다이 (El-Shaddai)는 구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시며 그분의 백성 위에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5.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서 한나가 깊은 탄식 중에 “만군의 주(**THE LORD OF HOSTS**)”라고 부르는 것을 본다. “만군의 주(The Lord of Sabaoth)”은 우리 하나님이다(사 6:3, 약 5:4). 이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능의 표현이다. 만군의 주는 “하늘의 군대 안에서와 땅의 거민들 가운데 그분의 길을 소유하시며, 아무도 그분의 손길을 막을 수 없고, 또 그분께 당신이 하는 것이 무엇이나? 고 말 할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 자신의 힘을 신뢰하였습니까? 우리의 분투는 패배할 것입니다. 의인, 곧 하나님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이 우리 편에 있지 않았든가요? 그가 누구일까 물어보았습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만군의 주 그분의 이름이고, 세대에서 세대로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쟁에 분명 승리하십니다!”

1.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ADONAI**)”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는 “약속된 언약의 씨를

주시다”라는 뜻이다. “아도나이”는 “조물주(the Cause)” 또는 “조력자(the Support)”을 의미한다. 진실로 아도나이는 우리 하나님께 적합한 이름이다. 그분은 만유의 원래 명분이셨다(롬 11:36).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지탱하시고 유지하신다(히 1:3). 또 그분은 그분의 성도들을 그분의 의의 오른 손으로 받쳐주신다(사 41:10).

2.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주님은 모세에게 “에제(EJEH)”,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나타나셨다. “에제”는 우리 하나님이자 구원자의 불변하심을 가리킨다(말 3:6; 히 13:8). 우리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으시며,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은 영원하게 한결 같으시다(말 3:6; 히 13:8; 약 1:17). “나는 존재한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3. 신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흔히 계시하고 있는 단어는 “주(LORD)”인데, 그리스어로 주는 “Kurios”와 “Despotes”라고 번역된다(벧후 2:1). “주”는 주권적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통치, 권능, 권위, 그리고 만유에 대한 소유권을 가리킨다.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왕을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행 10:36; 고전 8:6; 엡 4:4). 이 특정한

단어는 종종 “주인님(master)” 혹은 “선생님(sir)”으로 번역되는데, 존칭으로 남자에게 적용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이름이 그리스도께 적용될 때에는 만유 위의 주로써 그분의 통치와 권위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는 또 모든 믿는 자가 그들의 주로써 그분께 기꺼이 굴복할 것임을 나타내기도 한다(눅 14:25-33).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주권적 군주이시다(벧후 2:1). 그분은 우리의 주이시다(요 20:28).

4. “하나님(GOD)”으로 신약 성경에서 번역된 단어는 “**Theos**”이다. “Theos”, 곧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며, 만유를 보시고 만유를 아시는 분이시고, 만유를 처리하시는 분이다. 빛이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다. 그분께서는 완전한 명확함으로 만유를 바라보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뜻을 따라 만유를 처리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들 아홉 가지 이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 자존하시며, 자족하시며, 형언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임을 말해 준다. 이 위대한 하나님은 두려움을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며, 그리고 순종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거룩한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우시다. 이런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자. “오로지 누가 빛 가운데 거하는 불멸을 소유하

였으며, 아무도 그 빛에 접근할 수 없으며, 누구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인지!” 나는 노쇠하고, 죄로 충만한 육체를 가진 변덕스런 사람이다. 내가 만일 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위대하게 전능하고 영광스러우며 거룩하신 분, 그분의 주권적 능력은 마른 풀이 불타오르는 땅 위에서 소모되는 것보다 더 속히 나를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면 죄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설 중재자는 없는 것인가? 헛되게 그의 혼을 결코 들어버리지 않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죄를 변호하기 위하여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단 말인가? 그렇고 말고 계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사,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대리자가 계신다! 그분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 번째 이름 아래 지속적으로 계시되고 있다.

5. 하나님의 영광스런 구속의 이름은 “여호와(JEHOVAH)”이다.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자(Savior)” 또는 “구조자(Deliverer)”를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본질적으로 “존재하다(to be)”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지금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한 분임을 선포하신다(계 1:4). 그분은 구원과 구속과 분별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주 너의 하나님”(신 28:58)은 헛되게 취해서도, 속어로 사용해서도, 또 경박하게 말해서도 안 된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출 20:7). 그분의 백성에게 구속을 주시고 그분의 언약을 영원한 것으로 명령하신 그분은 우리로부터 숭배 받으셔야 한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외롭도다.” (시 111:9).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미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찬양하고 확대하자. “오 주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내가 영원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음이니이다.” (시 86:12-13).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위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 115:1).

6. 여호와 —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이름

시편 9:10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이다. 이는 혼자만이 필연적이고 스스로 계신 존재이신 그분의 이름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낸다. 이 이름은 “존재하다”를 의미하는 어원으로부터 왔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계 1:4). 이 이름은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합당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시 83:18).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은 때로는 피조물에 적용되나, 여호와라는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사용된다.

A.W. Pink의 “성경의 신성한 영감(The Divine Inspiration of the Bible)”은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Elohim)과 여호와(Jehovah)”의 구별된 사용을 보여주는 유익한 언급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이름들은 구약에서 수천 번 발견되지만, 결코 헛되게 채용되거나 번 갈아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이름 각각은 절대적인 중요성과 영역을 갖고 있으며, 서로 대체하는 경우 수많은 구절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은 파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예로써, 하나님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나타나

지만, 창세기 2장에선 '주 하나님'만 사용된다. 만일 여기서 이 신성한 명칭이 뒤바뀌었다면, 결과적으로 결점과 흠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의 명칭이나, 반면에 '주'는 언약의 관계를 의미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보여준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용되고, 창세기 2장에서는 '주 하나님'이 적용되고 있으며, 구약의 나머지 모든 부분을 통하여 이 두 가지의 신성한 명칭이 처음에 언급된 그 의미로 분별하여 조화롭게 사용되고 있다. 한두 가지의 예로써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엘로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에 따라 명령하시는 창조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같은 구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는 것을 보는 데(창세기 7:15, 16), 여기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약속의 관계에 근거하였다. 나아가 골리앗을 만난 다윗은, “오늘 주(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다윗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엘로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 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여호와)께 속한 것이니즉 그가 너희

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삼상 17:46,47)고 말했다. 다시 더하여,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주(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엘로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역대하 18:31). 그리고 그것은 구약을 통하여 전체에 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성격의 어떤 특정한 방면과 그분의 선택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역사를 제시할 때 다른 표현과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구약 성경 내에서 이런 여호와의 명칭에는 열네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1. **여호와 이레(JEHOVAH-JIREH)** — “주께서 공급하심.”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이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창세기 22:14)
2. **여호와 라파(JEHOVAH-RAPHA)** — “주는 치료자.” “이르시되,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

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출애굽기 15:26)

3. **여호와 닛시(JEHOVAH-NISSI)** — “여호와 우리 깃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닛시라 하였으니”(출애굽기 17:15)
4. **여호와 메카데쉬(JEHOVAH-M'KADDESH)** — “주 너희를 거룩케 한 분.”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키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출애굽기 31:13).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레위기 20:8)
5. **여호와 라아(JEHOVAH-RA-AH)** — “주 나의 목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23:1).
6. **여호와 호시누(JEHOVAH-HOSEENU)** — “주 우리를 만드신 분” “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시편 95:6).
7. **여호와 엘로히누(JEHOVAH-ELOHEENU)** — “주 우리 하나

님.”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도다.....그분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분의 증언들과 규례를 지켰도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이 창안한 것들에 대하여 보복하셨을지라도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9:5, 7, 8).

8. **여호와 엘로헤카(JEHOVAH-ELOHEKA)** — “주 네 하나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2, 5, 7).

9. **여호와 엘로하이(JEHOVAH-ELOHAY)** — “주 내 하나님.”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스가랴 14:5).

10. **여호와 샬롬(JEHOVAH-SHALOM)** — “주 우리 평강.”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 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사사기 6:24).

11. **여호와 체바훗(JEHOVAH-TSEBAHOTH)** — “만군의 주.”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사무엘상 1:3).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29). “보라, 너희 발에서 곡

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 쳐서 숨겨 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야고보서 5:4).

12. **여호와 헬레온(JEHOVAH-HELEYON)** — “주 지극히 높으신 분.” “내가 주의 의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시편 7:17).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시편 47:2). “주여, 주께서 온 땅보다 높으시므로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높여지셨나이다.” (시편 97:9).

13. **여호와 치드키누(JEHOVAH-TSIDKEENU)** — “주 우리의 의.”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예레미야 23:6).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며 그것을 부를 때 쓸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예레미야 33:16).

14. **여호와 샴마(JEHOVAH-SHAMMAH)** — “주가 거기에 계

심”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만 팔천 갈대더라. 그 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가 되리라.” (에스겔 48:35).

7. 하나님의 속성

요한복음 17:3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에 계시된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 특징 내에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구원의 가능성이나 영생의 가능성 혹은 진실한 그리스도교의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신성한 특징들을 알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알고, 그분의 본성의 완전함을 아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에 속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지 않는 자들은 잘못된 신앙에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 하셨다. 하나님의 특징과 속성을 아는 것은 참 종교의 바로 그 기초에 있는 것이다.

믿음에 필수적인 지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존재의 특징을 알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무한히 거룩하신 특징에 대한 개념을 갖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구주에 대한 필요성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가올 진노와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에 떨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탈출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으로부터 탈출하는 불이 아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께 가기 위한 길이다. 영생, 참 그리스도교, 참 구원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천연적인 느낌이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과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다(요 1:1-3, 14-18).

하나님의 속성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들은 그분의 본성을 온전케 함과 그분의 존재의 특징들이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신성에 대한 본질적 형질의 특성들

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 들여다 볼 때, 이들 속성들 가운데 하나라 할 지라도 그분께 속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들은 신격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분류하는 많은 방법을 갖고 있다. 어떤 이들은 말로 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한다. 말로써 전할 수 있는 속성들은 이성적 피조물들(천사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지혜, 능력, 의로움, 사랑, 긍휼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말로 전할 수 없는 속성들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들로, 무한, 불변, 전능, 전지, 편재 등이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본성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것들은 이를테면, 예를 들어, 영원함과 전능함을 하나님의 본성적인 속성으로 보며, 거룩과 의와 진리는 도덕적 속성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려는 또 다른 생각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성경이 결코 그렇게 분류하려는 시도는 없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엄청나게 숭고하여 하나님을 분석하려는 시도나 그분의 본성을 심리학자처럼 사람의 마음을 분류하듯이 나누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대신에, 단순함을 갖고 경건히 찾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속성을 예시하는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하여 간략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각각의 본문을 보고, 그 맥락 가운데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충분히 묵상하여 각자의 혼을 적시기를 바란다. 열거되는 항목은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합하여 조망 할 수 있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는 진실성, 편재(遍在)는 무한함, 그리고 선하심은 사랑을 요하는 것 등이다.

자존(Self existence) — 하나님 전능자는 독립적이고 근본적으로 그분 자신 가운데 생명이 있다. 그분의 존재는 소멸하지 않는다.

시편 36:9; 이사야서 41:4; 요한복음 5:26; 사도행전 17:24-25; 로마서 11:35-36; 창세기 1:1; 출애굽기 3:14

영성(Spirituality) —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은 단지 일반적인 영(spirit)이 아니시다. 그분은 성령(Spirit)이시다. 그분은 우리처럼 육신이나 지체를 갖고 계시지 않다. 그분은 순수하시며, 파생되지 않으신 영원한 성령(Spirit)이시다.

창세기 1:2; 신명기 4:15-19; 시편 139:7; 이사야 60:1; 에스겔 37:14; 요엘 2:28-29; 요한복음 4:24; 사도행전 17:28; 로마서 8:9; 15:1; 고린도전서 2:11; 고린도후서 3:17; 빌립보서 3:3; 히브리서 12:9

유일성(Unity) — (삼위일체)하나님 안에는 세 인격이 있지만,

이 세 인격은 한 분이시며 이 삼일 하나님은 그 곳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3; 신명기 4:35,39; 6:4; 사무엘상 2:2; 사무엘하 7:22; 열왕기상 8:60; 열왕기하 19:15; 느헤미야 9:6; 시편 86:10, 이사야 44:6-8; 45:22; 예레미야 10:10; 요엘 2:27; 스가랴 14:9; 마가복음 12:29; 요한복음 17:3; 로마서 1:21-23; 고린도전서 8:4-6; 갈라디아서 3:20; 에베소서 4:6; 디모데전서 2:5; 요한일서 5:7(참고 킹제임스버전)

영원성(Eternity) — 하나님의 영원성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은 항상 계시며, 시간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영원하신 “나는 존재한다.” (“I AM”)이시다.

창세기 21:33; 출애굽기 15:18; 신명기 32:40; 역대상 16:36; 느헤미야 9:5; 시편 90:1-4; 이사야 44:6; 48:12; 57:15; 예레미야 10:10; 예레미야애가 5:19; 다니엘 4:3, 34; 미가 4:7; 하박국 1:12; 로마서 1:20; 16:26; 디모데전서 1:17; 히브리서 1:10-12; 베드로후서 3:8; 요한계시록 4:8-10

불변성(Immutability) —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변하실 수 없는 분이다. 성경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할 때, 그분께서 만물을 변케 하시지만 그 어떤 것도 그분을 요동하거나 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분의 존재 안에서, 그리고 그분

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보호이다.

출애굽기 3:15; 민수기 23:19; 사무엘상 15:29; 시편 33:11; 잠언 19:21; 전도서 3:14; 이사야 14:24; 에스겔 24:14; 말라기 3:6; 로마서 11:29; 히브리서 6:17-18; 야고보서 1:17

편재(遍在)(Omnipresence) —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하나님 존재의 모든 총만 가운데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은 편재하시며, 만유를 그분의 존재로 총만케 하며 그분의 존재 가운데 만유를 인지하신다.

창세기 28:15-16; 신명기 4:39; 여호수아 2:11; 열왕기상 8:27; 시편 139:7-10; 잠언 15:3, 11; 이사야 66:1; 예레미야 23:23-24; 아모스 9:2-4, 6; 사도행전 7:48-49; 17:27-28; 에베소서 1:23

전지(全知)(Omniscience) —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언제나 만유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전지는 하나님의 예지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전지는 하나님의 존재의 한 속성이다. 예지는 그분의 은혜의 한 행사이다.

창세기 18:18-19; 25:23; 출애굽기 3:19; 신명기 31:21; 사무엘상 2:3; 열왕기상 8:39; 열왕기하 8:10, 13; 역대상 28:9; 시편 94:9, 11; 139:1-16; 147:4-5; 잠언 15:3, 11; 이사야 29:15-16; 40:28; 예레미야 1:4-5; 16:17; 에스겔 11:5; 다니엘 2:22, 28; 호세아 7:2; 아모스 4:13; 나훔 1:7; 스가랴 4:10; 마태복음 6:4, 6, 8, 18; 누가복음

16:15; 사도행전 15:8, 18; 로마서 8:27, 29; 고린도전서 3:20; 디모데후서 2:19; 히브리서 4:13; 베드로전서 1:2; 요한일서 3:20

지혜(Wisdom) —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고 가능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계획을 성취하신다.

시편 104:24; 잠언 3:19; 이사야 28:29; 예레미야 10:12; 다니엘 2:20-21; 로마서 11:33-36; 고린도전서 1:24-25, 30; 2:6-7; 에베소서 3:10; 골로새서 2:2-3

전능(全能)(Omnipotence) —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능하시다. 가장 진실되게 아는 것은 그분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분의 뜻, 그분의 역사, 그분의 목적은 거부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1:1; 17:1; 18:14; 출애굽기 15:7; 신명기 3:24; 32:39; 사무엘상 14:6; 역대상 16:25; 역대하 20:6; 욥 40:2, 9; 42:2; 시편 33:9; 135:6; 이사야 40:12-15; 예레미야 32:17; 에스겔 10:5; 다니엘 3:17; 4:35; 아모스 4:13; 5:8; 스가랴 12:1; 마태복음 19:26; 마가복음 10:27; 누가복음 1:37; 18:27; 로마서 1:20; 에베소서 1:19; 3:20; 골로새서 1:16, 17; 요한계시록 15:3; 19:6

거룩(Holiness) — 하나님은 절대 도덕적으로 순수하시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거나 죄에 관대하시지도 않으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거룩함이 없이는 어떤

것도 행하지도 되지도 관계하지도 용납하시지도 않는다. R.L. Dabney는,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의 본성의 선별되고 연합된 영광이다.”라고 했다. A.A. Hodge는, “무한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함은 그분의 신격의 왕관이다. 거룩은 이 왕관으로 나타난 종합적인 영광이다.”라고 했다.

출애굽기 15:11; 레위기 11:44-45; 20:26; 신명기 32:4; 여호수아 24:19; 사무엘상 2:2; 사무엘하 22:31; 에스라 9:15; 시편 5:4; 111:9; 145:17; 이사야 6:3; 43:14-15; 예레미야 23:29; 에스겔 39:7; 다니엘 9:7, 14; 하박국 1:13; 스가랴 8:8; 말라기 2:17; 마태복음 5:48; 누가복음 1:49; 요한복음 17:11; 야고보서 1:13; 베드로전서 1:15-16; 요한일서 1:5; 3:3; 요한계시록 4:8; 15:3-4

의(Justice) —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언제나 의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게서 의로움을 요구하시며 언제나 그들을 의롭게 대하시며, 절대적 기준 위에 엄격한 의로 다루신다. 하나님은 결코 의롭고 옳은 것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않는다.

창세기 18:23-32; 출애굽기 20:5-6; 신명기 7:9-10; 10:17-18; 24:16; 역대하 19:7; 느헤미야 9:23; 시편 9:8, 16; 89:14; 잠언 24:12; 이사야 9:7; 45:21; 예레미야 17:10; 32:19; 예레미야애가 1:18; 에스겔 18:1-32; 33:18-20; 다니엘 9:7, 14; 나훔 1:3; 스바냐

3:5; 누가복음 12:47-48; 사도행전 10:34-35; 17:31; 로마서 3:24-26; 11:2, 5-11; 갈라디아서 2:6; 6:7-8; 에베소서 6:8-9; 골로새서 3:25; 히브리서 6:10; 베드로전서 1:17; 베드로후서 2:9; 요한일서 1:9; 유다서 1:14-15; 요한계시록 16:17

선(Goodness) —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자비, 사랑, 긍휼, 은혜, 오래 참으심, 인내, 관용, 그리고 친절하심을 포함한다.

창세기 19:16; 출애굽기 34:6-7; 민수기 14:18; 신명기 4:31; 7:7-8; 사사기 2:18; 열왕기상 8:23; 열왕기하 13:23; 역대상 16:34; 역대하 30:9; 느헤미야 9:17, 31; 시편 23:1-6; 25:8-10; 86:5, 15; 잠언 22:23; 이사야 63:9; 예레미야 3:12; 31:3; 예레미야애가 3:22-23; 에스겔 33:11; 다니엘 9:9; 호세아 11:1-4, 8,9; 요엘 2:13; 요나 4:2, 10, 11; 미가 7:18-20; 나훔 1:7; 스바냐 3:17; 스가랴 9:17; 말라기 1:2; 마태복음 5:45; 19:17; 누가복음 1:50; 6:36; 요한복음 3:16; 사도행전 14:17; 로마서 2:4; 5:8; 8:38-39; 고린도후서 1:3; 13:11; 에베소서 2:4, 7; 데살로니가후서 2:16; 디도서 2:11; 3:4-5; 야고보서 5:11; 베드로전서 1:3; 베드로후서 3:9; 요한일서 3:1; 4:7-10, 16

신실(Faithfulness) — 주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 하며, 의지할 만 하고, 모든 것에 진실하시다. 그분의 명령은 확실하다. 그분의 약속은 분명하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유 안에서, 만유와 함께, 그리고 언제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 34:6; 민수기 23:19; 신명기 4:31; 31:7, 9; 여호수아 21:43-45; 23:14; 사무엘상 15:29; 사무엘하 7:28; 열왕기상 8:24, 56; 시편 105:8; 119:89-90; 이사야 25:1; 49:7; 예레미야 4:28; 예레미야애가 3:23; 에스겔 12:25; 16:60, 62; 다니엘 9:4; 미가 7:20; 누가복음 18:7-8; 요한복음 3:33; 로마서 3:4; 15:8; 고린도전서 1:9; 10:13; 고린도후서 1:20; 데살로니가전서 5:24; 데살로니가후서 3:3; 디모데후서 2:13; 디도서 1:2; 히브리서 6:18; 10:23; 베드로전서 4:19; 베드로후서 3:9, 13; 베드로후서 3, 4, 8; 요한일서 1:9; 요한계시록 15:3

8.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복음 11:13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얼마나 기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임을 가르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자 아버지이신 분이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세 분의 하나님의 인격 각각이 이 한 문장 안에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데 실패하지 마라.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미 성경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를 분명하게 보았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도 실수가 없이 계시되었지만, 보잘 것 없는 우리의 두뇌로는 미치지 못할 교리이다. 엄밀하게 그것은 아주 관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교리이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교회 역사를 통하여, 이단들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해 왔다. 공개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기술적으로 왜곡해온 많은 수의 이단들이 그리스도 안의 많은 형제에 의해서 품어졌다.

신격 안에 성모 마리아(우리처럼 다만 은혜로 구원받은 한 죄인)를 포함시키려는 천주교신자들 가운데 몇몇이 있다. 몰몬과 러셀라이트(Russellites: 여호와의 증인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부인한다. 이단들 가운데 다른 종파들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단지 한 하나님의 다

른 표현일 뿐이라고 가르친다. 어떤 자들은 가증스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그들 자신이 신성하게 된다고 까지 가르친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항한 그런 이단들에 의한 의문이나 반대에 대하여 모두 일일이 대답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도록 돕기를 원한다. 만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시는 각각의 역사들에 대하여 어떤 것도 이해한다면, 영원한 신격 가운데 세분의 신성한 인격 각각을 이해하고 인격들을 서로 분명하게 구별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이나 성령이 아니다. 아들은 아버지나 성령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들이나 아버지가 아니다. 각각은 서로 구별된다. 하지만,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다(신 6:4; 속 14:9; 막 12:29; 엡 4:5; 요일 5:7).

어떤 역사는 세분의 신성한 인격 모두에 의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역사는 각각의 신성한 인격 한 분에만 특별하게 기인하는데, 각각은 영원한 신격 안에서 구별되는 인격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분된 역사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한다.

보통 삼위일체의 인격을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라고 말한다. 아버지 하나님을 첫 번째 인격으로 부른다. 아들 하나님은

두 번째 인격,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세 번째 인격으로 부른다. 어떤 자들은 무지하게도 아버지 하나님은 신격 가운데 으뜸되는 인격이고 아들과 성령은 두 번째 가는 하나님들이라는 의미로 상상한다. 성삼위의 세 인격들은 모두 서로 동등하며 서로 공존한다. 이 분리(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인격들로)는 단지 우리의 우둔한 두뇌로는 무한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으로 어떤 순서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이루셨고,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열다섯 가지에 대해 보이고자 한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아들의 영원하신 아버지 이시다(요 1:14).

이 위대한 비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된 것 이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에서 영원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이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들의 아버지이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시기 시작했거나,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시기 시작했던 때는 결코 없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원 가운데 계신 아버지의 영원 안에서 탄생하신 아들이다. 그 대상에 대하여 그 이상으로 더 알 수 없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심오한 비밀이라 이해할 수도 없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는 척 하지 않겠다. 하지만 엄청난

경이로움과 함께 그것을 수시로 숙고한다.

2.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였다(히 1:1-2).

만물의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인한다. 그분은 여기에서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설명된다. 그것은 아들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 의해 사용된 단순한 도구였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아버지와 아들께서 함께 만물의 공통 요인이고 창조주라는 것이다.

3. 모든 섭리의 행사를 명령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은 기뻐한다(롬 11:33-36; 사 46:9-11; 단 4:35).

시간이란 배의 선장이시고, 배의 키를 잡고 계시며 만유의 경로를 조정하시는 그분은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목적의 지도에 따라 그들의 예정된 운명으로 향하게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때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의지할 것은 이것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나의 아버지께서 이를 행하셨다.”는 것에 의지할 수 있을 때, 그 외에 의지할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자신감 있게, 대부분의 비극적인 상황들을 직면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은 옛 하나님(엘리)과 함께, “그분은 주이십니다. 그분께 선하게 보이는 것을 하

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한다(삼상 3:18).

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섭리 가운데 만유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주권적 예정하심에 안에서 그분 자신의 은혜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그것을 행하신다.

예정에 대한 성경 교리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모든 것을 예정하신 분은 하나님,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은 이를 영원부터 행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선택된 아들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바꾸시지도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는데, 모든 것을 예정하신 분이기 때문이다(엡 1:11; 롬 8:28-31).

5. 예정 안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그것을 실행하심은 영원한 선택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다(엡 1:3-6; 살후 2:13-14; 벰전 1:2).

여기 다시 신격 내에 있는 서로 구분되는 인격들의 나타남이 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하셨으며, 성령의 성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데 이르게 하셨다.

6.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찾으신 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영광스런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진리를 모두 지속시키고
높이시고 계신다.**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나 의는 만족하기를 요구했다. 공홀로 우리를 예비하셨다. 그러나 진리는 말씀하기를, “죄지은 혼은 죽으리라.”고 하였다. 은혜가 외치기를, “용서하라.” 그러나 거룩함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받아들이기에 완전해야 한다.”라고 고집하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 (기꺼이 사람으로 사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 죄물로 죽으신)을 바라 보셨으며, 아버지 그분 자신께서 기꺼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으며, 그분의 선택된 자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것이다—“그를 건져 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고 하셨다(욘 33:24; 시 89:19-29).

“사랑은 나의 혼을 구속하는 길을 찾으셨고, 사랑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길을 찾으셨다; 사랑은 나의 주를 부끄러움의 십자가로 보내셨고, 사랑은 길을 찾으셨다 — 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7.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그분의 아들과 함께 언약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이 언약은 “영존하는 언약”이라고 부른다. 흔히 그것은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영원 안에서 하

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맺은 것이었다. 우리에게 대한 그 언약의 유익함과 축복에까지 배려되었으며, 그것은 조건 없는 언약이다. 주 하나님은,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다. 이 영원한 은혜로운 언약은 분명한 언약이며, 절대 확고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의 모든 축복을 보장하신 언약이다(렘 31:3, 31-34; 32:38-40; 삼하 23:5).

언약과 은혜로운 축복과 그 안에서 약속된 구원에 대한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의 대속물로서 복종하는 것이었다(히 13:20). 그분 편에서는 조금도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분은 기꺼이 복종하셨다. 그분은 복종하실 수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언약의 피인 그분의 피를 흘리실지라도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셨다.

8. 우리의 혼을 위한 속전을 찾으셨으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의 손에 그분의 선택하신 자들을 넘기신 것은 마치 양을 목자의 손에 넘김과도 같으며,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이 영광스럽게 됨을 신뢰하셨다(요 6:39; 엡 1:12-13).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과 구원자인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맡기시고 아들의 손에 우리 혼의 구원을 맡기셨다면, 우리의 소멸치 않을 혼과 우리를 염려하시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여야 한다. 만약 아버지께서 아들을 신뢰하셨다면, 아들은 믿을 수 있는 구주이다.

9. 나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하셨다(요일 3:1-2; 갈 4:6-7).

John Gill은,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특권이다. 그것은 성도가 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아들이 되는 것이다. 천사들과 성도들, 그러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은 종들이다. 구속 받고 용서받으며 의롭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더 좋다. 노예로부터 구속하고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는 것은 커다란 은혜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군주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는 것보다 그들을 더 무한히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 아담이 죄 없을 때 갖지 않았고 하늘의 천사들도 갖지 않았던 존귀함을, 창조로 인하여 아들들이었지만 양자가 되지 않았던 그들에게 준다.

10.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 삼으셨으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엡 1:3-6).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이 받아들여지는 문제에 대하여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붙잡기를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이고 영원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뜻한다. 그분은, “받아들이기에 온전하여야 한다.”고 선포하신다.

11.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들로 우리를 축복하셨음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이다.

주 하나님은 아론, 그분의 대 제사장에게 상징적으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할 것을 명하셨다(민 6:23).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며 맹세하셨기 때문이다(민 6:27).

12. 그분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자 한다면, 이것을 붙잡기를 힘써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을 주셨다(고후 9:15; 사 49:8; 요 3:16; 롬 5:8; 8:32; 요일 4:9-10).

아버지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 안에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은 시간의 총만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의로움을 총만케 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갈보리에서 속죄물과 대속물로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거듭남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때 부활 영광 가운데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13.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을 모든 그분의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신다. 그분은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 중 일부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거나 다른 자들로부터 그분의 영을 되찾아 오지 않으신다.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선택 받은 모든 자와 그분의 언약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증보에 근거함에 따라 구속된 모든 자에게 주신다(갈 3:13-14; 요 14:16; 16:8-15). 성령은 모든 선택 받은 자와 모든 구속 받은 죄인에게 거룩자로서, 설득자로서, 위로자로서, 강하게 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깨우치는 자로서, 빛 비추는 자로서, 인도자로서 그리고 인치심으로 주어진다.

1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비롭고 효과적으로 선택하신 죄인들을 가르치시며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오도록 하신다(요 6:44-45; 딤후 2:11-14). 그리고 그분

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구하도록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을 가르치신다(잠 3:5-6).

15. 우리를 그분의 전능하심과 주권적인 능력으로 생명의 길과 영광 안에 두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벧전 1:5).

우리의 최종적 구원과 인내와 보호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우리의 해법이 아니라 그분의 해법에 의한 것임을 아는 것을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전 3:14; 빌 1:6; 살전 5:24)

“그 분은 강으로부터 나를 지킬 것이니
그 물이 나의 발 위로 넘쳐 흐르는구나.
그 때 그분은 나를 안전하게 품으실 것이고,
그 곳에서 나의 구주를 만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된다니 이 어떤 특권인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올리우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여, 그 이름을 경배하나이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롬 8:15-17).

9. “그리스도의 교리”

요한2서 7-11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의심할 필요도 없이, 요한이서 7-11은 특별히 적그리스도이기에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의 문장은 단지 성육신의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의미로 해

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과 신격과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성육신의 필요성과 성육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구속 역사의 효능과 하나님-사람으로서 그분의 찬양과 주권의 영광을 부인하는 모든 설교자와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적그리스도들이다. 다시 말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주권적이고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을 왜곡하는 그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자는 속이는 자들이요 적그리스도들이다. 그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도 안 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 있어서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들은 그리스도이다. 성경의 가르침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라고만 하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의미이다.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바 진리이시다.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이 말씀하는 분인 살아계신 말씀이시다. 성경의 모든 교리와 가르침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우리 구주를 계시하시고 높이시며 우리를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다.

단순한 종교로부터 진리를 분리하는 것은 한 분 인격,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이다. 그것은 어떤 자들에게는 사소하고 낮은 구

절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이 교리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 특징의 중요성은 더는 강조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주장에 문제를 발견한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것은 과도한 단순화이다. 교리를 설교하지 않고 성경을 설교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항상 설교할 수 없다.”고 계속 들었다.

그 반대의 첫째 부분은 사실이다. “교리를 설교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설교할 수 없다.” 나는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치거나 교리 설교자가 되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 말씀 교리는 단순히 가르침을 의미한다. 분명히 가르침이 없이 가르칠 수 없다. 가르치는 것은 세뇌시키는 것이다. 교리를 설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를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교리를 설교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혀 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언제나 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예외를 두고자 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눅 24:27, 44-46; 요 1:45; 5:39; 행 10:43).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한 것(행 20:27)과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쓴 것(고전 1:23; 2:2)은 두 가

지 방법으로 같은 것을 말한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회의 초기 연도에 있어서 영감을 받은 그 역사 가운데, 말씀 전파, 설교하다, 설교하는 이란 단어가 서른일곱 번 사용되고 있다. 그 말들이 사용될 때마다, 설교하는 주제는 한 인격,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경전이 아니라 인격이었다(행 5:42).

진리는 어떤 면에서 끼워 맞추기 퍼즐과도 같다. 끼워 맞추기 퍼즐은 많은 수의 조각으로 되어있으며,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 만일 어떤 하나의 조각이 없으면 퍼즐은 완성될 수 없다. 하지만, 그 퍼즐의 가치가 개별 조각에 있지 않고, 모든 조각이 올바른 배열로 연결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그림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한다. 비록 맞춰지지 않은 퍼즐 조각이 하나로 조합되었을 때의 재질과 같더라도,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른 것이다. 맞춰진 퍼즐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며, 그 그림을 즐기게 된다. 맞춰지지 않은 퍼즐은 단지 한 통의 두꺼운 종이 조각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유사하다. 그것은 많은 부분으로 되어 있고 각각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조각들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합쳐질 때 창조되는 형상에 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전체가 맞추어질 때 우리에게 주 예수의 형상을 공급하는 거룩한 퍼즐 조각들이다. 어떤 사람은 이 퍼즐의 여러 가지 개

별적인 조각들을 강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뛰어난 전문가가 될 테지만, 그것들이 창조하려고 설계된 형상은 전혀 볼 수 없을 수 있다.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나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요한복음 5:39).”라고 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조각들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형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지하였다. 우리 시대에 있는 대부분의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바리새인들과 매우 닮았다. 끼워 맞추기 퍼즐 조각을 가지고 노는 무지한 아기들과도 같이 그들은 성경 말씀의 조각들을 가지고 놀면서 지나칠 정도로 소모되고 있다. 만일 누군가 일어나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을 확실하게 제시하면, 퍼즐을 가지고 노는 아기들처럼, 그들은 조각들을 끄집어 내기 시작한다.

전파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며,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나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없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베드로의 말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한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지 않은 것이다(벧전 1:23-25).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람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염려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다른 어떤 사람과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들 모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눈에는 눈을 본다(사 52:7-8).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한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말할 때,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 전파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분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며, 이로써 선택 받은 죄인들이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도와 그 뒤를 잇는 자들의 목표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모든 성경의 기록을, 그분에 대한 계시와 그 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며, 다만 진리의 조각들에 만족하지 않고 각각의 조각들이 어떻게 퍼즐로 맞추어지는지를 배우고 선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 이러한 성경의 이해와 이와 같은 전파는 일곱 가지의 특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울 것이다.
- 1.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운동이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모든 조직은 세 단계를 거친다고 말했다. “사람(설립한 사람), 운동(그 사람이 발생시킨 영향력 아래에서 지속시키는 조직), 그리고 유적(설립자의 이름을 담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 그의 이상과는 거의, 혹은 전혀 연관을 갖고 있지 않은 죽은 조직)”이다. 루터주의는 그 설립자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루터교인들 중 Martin Luther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장로교는 John Calvin과 관련되어 있지만, 장로교인들 가운데 Calvin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개신교와 침례교회의 설교자들은 C. H. Spurgeon과 John Bunyan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신실한 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운명으로부터 교회를 보존하는 유일한 것은 “사람”(이 경우,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이 세대에서 세대로 그분 자신을 지속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이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취하여 그분이 택한 자들에게 보여주며 새 세대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다음 세대로 복음의 역사를 가져가기 위한 한 세대의 여세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각 세대는 전혀 새로운 역사이며,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그것을 기초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이다.

2.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전하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들을 건조

하고 생명 없는 설교로부터 구할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염소는 그들이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상관하지 않는다. 양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임을 발견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떡이며,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들의 혼을 공급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다. 그리스도가 전하는 자의 주제이고 메시지일 때 그의 메시지가 더욱 흥미롭거나 더욱 독창적이거나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더 호소력 있게 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어떤 양도 갈망할 수 있을 만큼 독창적이고 흥미롭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전하는 것에 대한 염소의 생각이 무엇인지로 우리 자신을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3.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최선이고, 실로 교회를 정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복음전파는 누가 양이며 교회를 정케하는 지를 드러낸다. 내가 가는 곳마다, 종교인들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걱정거리가 양의 도덕성과 교회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교회 훈련의 일에 그들이 두는 관심에서 드러난다. 성경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이 일을 매우 잘 성취할 것임을 가르친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경건의 내용과 동기를 제공한다(엡 4:17-24). 경건치 않음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반대가 된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는 은

혜 가운데 성장이 그 결과로 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주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회개한 믿는 자들을 그 지위로부터 제거함으로써 교회를 정화할 것이다(고전 1:18). 우리가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또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구별할 능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그분의 우화에서 다루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그대로 두어야 하고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것도 그분께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그분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 지루해 할 것이며 조만간 떠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전하는 것에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회중 가운데 염소 무리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부풀어 오른 지식”, 그리스도가 없는 가르침은 그것이 얼마나 진실할지라도, 지식의 느낌으로 사람들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염소들이라 할 지라도, 만약 그들의 지식이 자부심을 가져다 준다면 진실된 교리를 허용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진리를 아는 것은 자부심을 위한 어떤 틈도 남겨두지 않으며, 오직 진리가 계시되었다는 부담감만 남는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교회는 정화된다.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정하게 하신다.

4.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의 약속을 받는다(사 55:11).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말했던 “말씀”이다(요 1:1). 이사야서 55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실 것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 의도하신 어떤 목적이든지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하시고, 실패가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도록 주어진 모든 일을 완전히 성취한 우승자이셨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도 포함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확대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5.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전하는 자를 자부심으로부터 보호하고 듣는 자들을 우상숭배로부터 보호하도록 돕는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듣는 자들은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얻어지는 결과에 기뻐할 것이나, 그 결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다. 설교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일 지라도, 비록 그들을 통하여 행해진 일들이 그들에 의해서 이뤄졌고, 비록 개혁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Calvin이나 Luther 같은 사람들이었음에도,

Spurgeon이 성전을 채웠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영광 가운데 어떤 슬픔이라도 있다면, 어떤 것이든 성취하였지만, 이제 그 이름들이 거꾸로 되어 버린 그런 과거의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발견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면, 그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대학들에 대해 놀랐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 의하여 이뤄진 그 어떤 일도 그 사람과 함께 죽어야 하고, 또 그럴 것이다. 결코 사망하지 않을 그분의 역사를 전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 하심을 기뻐하실 것을 기도하자.

6.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어떤 선한 것을 하게 할 유일한 메시지이다(고전 1:21).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선포함(preaching)”으로 번역된 말은 그 선포되는 것의 내용에 강조를 두고 있다. 선포되는 “어리석음”은 그리스도 혹은 “십자가”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필요한 존재이다. 만일 그들에게 그분이 없었다면, 죄인들에게 줄 그 어떤 좋은 것이 없으며,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주어서 가치가 있을만한 것은 없다.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석탄에 부어라! 주권적이고 변치 않는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전하라. 그 죄인들이 '그를 못박으라' 혹은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든 외칠 때까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쏟아 부으라.”고 말하겠

다.

7.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분을 영광스럽게 한다.

전하는 자가 감히 더 적게 목표로 하는가? 나는 나의 전파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도하지만, 죄인들의 그 어떤 것이 나타나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존귀하게 되며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한다.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하는 자들이 같은 느낌을 갖지 않는가? 각각의 믿는 자가 진리의 간증과 관련하여 같은 느낌을 갖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보장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친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을 전할 모든 육신에 속한 유혹을 부인 할 은혜를 주실 것임을 기도한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자랑스런 육신에 전적으로 비합리적이고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까지 이 형식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오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이것은 나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으로 가능케 되어 쓴 것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의 결정이며 나의 확고한 약속이다. 나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

량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전 2:2; 갈 6:14; 롬 1:15-17)

10.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21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니라.”

성경에는, 그 자체 속에 전권을 이루는 한 단어, 전체 성경의 총합이자 본질인 한 단어, 모든 진리를 통합하는 한 단어가 있다. 그 단어는 “그리스도(Christ)”이다. 그분은 피조 되지 않았으며, 살아계시고, 영원한 말씀이며, 그분을 아는 것은 영생이다.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고 거듭

나게 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 긍휼로 선택한 질그릇들 안에서 계시되고, 거룩한 말씀을 구원 하심으로 알게 될 때, 그들은 “능히 지혜롭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딤후 3:15). 우리가 믿음 생명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고,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되며, 영광스러운 인격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종결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술했던 것과 같은 말씀으로 인도된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총명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 2:2-3).

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우리 주님 자신이 하신 선포, 완전한 하나의 비밀과 영원한 신격 안에 계신 인격의 하나됨은 수정같이 분명하다(요 10:30; 14:7-11). 그것은 간결하지만 강조하여, 요한일서 5:7에서,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셋은 하나이다.” 라고 선포되고 있다. 성경은 또 이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다. 성 삼위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만이 보이는 여호와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 안에서만 보이고 알 수 있다(요 1:18; 골 2:9).

Robert Hawker는,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보이는 여호와인데, 단 한 분의 집행자이고 통치자이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방법의 효과적인 원천이시며, 본성과 섭리와 은혜와 영광의 모든 부분 가운데 교회에 계시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오직 보이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의 복종은 아담 타락과 범죄함으로부터 회복되는 유일한 수단이다.” (행 4:12).

성경에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믿거나 성령을 믿으면 구원 받을 것이라고 결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행 16:31)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사실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대로 그분의 백성의 구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아무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없다.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체현이며 계시이고, 그분만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이다.

마태복음 1:21에서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과 역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본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을 읽거나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이유를 알기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천사가 요셉에게 보여준 계시는 틀릴 수 없다.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오신 것은, 어떤 특별한 임무로 특별한 것을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은 “그 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은 그분이 오셔서 수행할 아버지의 뜻이었다(히 10:5-14; 요 6:39). 이것은 그분이 오셔서 총만케 하실 언약의 조항이었다(히 13:20; 사 49:8). 이것은 그분이 오셔서 순종하여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요 10:16-18).

내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생각할 때 경이로움과 존경심 안에 빠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여자의 씨가 되셨다. 만유의 주이신 분이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거절당할 종과 비탄함과 슬픔을 아는 사람의 형체를 취하셨다. 시간의 총만함 안에서 그분은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죄인들의 처형 장소에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나를 놀라게 한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후 8:9; 9:15).

이 예수는 누구인가?

당신은 살아가는 동안 예수에 관하여 들어보았을 것이다. 아마

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 할 것이다. 이것은 잘못이다.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 거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 보통 교회에서 경배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사람의 상상 속에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허구이고, 우상이며, 인간의 타락한 생각 속에 어두운 숲 속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하나로 새겨 만든 잘못된 신일 뿐이다. 우리 주님 자신이 이 날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 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하셨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고 할 것이다(마 24:24, 23).

그것이 이 질문을 매우 중요하게 만든다. 이 예수는 누구인가? 누가 성경의 그 그리스도인가? 만약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받아들여 졌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신뢰하고 경배하여야 한다(요 17:3). 만일 틀린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무리 신실하다 할 지라도, 잃어버린 자이며, 사탄의 기만 아래 있는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 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기록된 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여 주도록 하겠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의 두 번째 인격이며, 모든 방면에서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한,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다(요일 5:7). 믿는 자들은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은, 그 이름이 예수인 사람이 만유 위에 영원히 축복받을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분은 단지 한 분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분도 아니며, 나아가 하나님의 피조물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체현하신 하나님이다(요 1:1-3). 그분께 모든 신성한 속성들이 속해 있다. 그분은 만유의 창조주이며, 만유의 지지자이며, 만유의 통치자이며, 만유의 처리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이다(요 1:18).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다 전혀 못한 분이라면, 우리에게 구주가 없다. 그분은 한낱 사기꾼이고 가짜이며 험잡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우리의 죄들을 대신할 대속물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사람,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났던 그 사람,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골 2:9).

이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죄인들의 대속물이다. 그분은 중재자이며, 보증인이고, 대표자이며, 증보자이고, 대속물로 복종하십시오.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해토록 하신 분이며, 그분 없이는 우리

는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 질 수 없다.

하나님의 책을 이해하는 열쇠는 대속의 복음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속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어린양이 죽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있었음을 의미한다(계 13:8).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으로 영원부터 축복을 받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다(엡 1:3).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서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은혜와 구원을 받은 영존하는 언약의 보증인이다(딤후 1:9). 그분은 우리 대신 모든 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롬 5:19).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백성들 대신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었다(갈 3:13; 고후 5:21). 그분은 하늘에 계신 대변자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중보 하신다(요일 2:1-2).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우리의 대속물로 의의 심판대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로서 계실 것이다(렘 23:6).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이라면, (사실 그러하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로 행하기 위하여 받아들인 모든 것이 효과적이고도 완전하게 그분 자신의 전능한 팔로 성취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분이 구속하기 위하여 찾아

온 그 사람들은 구속을 받았다. 그분이 의롭게 하고자 취하셨던 자들은 의롭게 되었다. 그분이 구원하려고 취하신 모든 자는 분명히 구원 받았다. 기록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을 것이다.” (사 42:4)라고 되어 있다. 이 예수, 성경의 그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의 백성의 구주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다 (고전 1:30; 골 2:10). 이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의 효험 있는 구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예수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우주에 속한 주권적 군주이다(요 17:2). 의심할 필요 없이, 그분은 그분의 영원한 신격의 덕목에 의해 만유의 군주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한 보상으로 인자로서의 이 통치의 지위를 받았다(행 5:31; 롬 14:9).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겠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죄인의 유일하며 만유를 충만케 하는 효험 있는 대속물이다. 그분은 그의 백성의 구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에 속한 주권적 군주이다. 만일 당신이 경배하는 그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당신의 그리스도는 틀린 그리스도이며,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상상 속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그의 백성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구원할 그 백성들은 누구인가? 그분이 구원하러 온 그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그의 백성들이었다. 천사는 말한다. “그는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백성이 될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그분이 구원하기 전부터 그의 백성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그분의 백성이었다(시 110:3; 요 10:16).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다. 만약 사람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고 선포하는 자들은 그들 가운데 한 줄기의 영적 빛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는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이 그런 독단론에 반대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정녀에 의한 출생과 그분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그분의 대신하는 속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분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분의 속죄의 영광스러운 속죄를 부인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

하며 격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은 완전한 이단들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선언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의 역사는 바로 복음의 심장이다. 그분의 희생의 효능을 부인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만약 그분이 오셔서 해야 할 일을 실패하셨거나 (사 42:4), 그분의 사랑이 진노를 변화시킬 수 없다거나 (말 3:6), 그분의 피가 신성한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않고 그 피가 뿌려진 모든 죄인을 효능 있게 구속하지 못하였다면 (사 53:9-12; 롬 3:24-26; 히 9:12),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오셨다. 누가 그분의 백성인가? 그들은 그분의 씨이다(사 53:10-12). 그들은 그분의 양이다(요 10:11, 15, 26). 그들은 그분의 선택 받은 신부인 교회이다(엡 5:25-27). 그들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다(엡 1:3-7).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이며,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자들이며,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자신에게 자녀로 입양 되길 예정하신 자들이다(롬 8:28-31).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던 그 백성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오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교리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쓸모 없고, 도움이 안되고, 진실되지 않은 열정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무의미한 총동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구원의 역사에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다(고전 4:7).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그것을 행하시는가? 여기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에 속한 특별하고도 확연한 세 가지 역사가 있다.

구속 —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의 혼들에 대한 특별하고도 효능 있는 구속에 의하여 우리의 죄들에 대한 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후 5:21).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들로 인하여 “어떻게” 죽으셨음이다(고전 15:3). 그분은 자진하여 대신 승리 가운데 속죄의 희생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자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히 10:5-14; 사 53:4-6; 요 10-16-

18; 히 1:1-3; 9:12, 26).

거듭남 —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의 능력으로부터 주권적이고도 효능 있는 거듭남 가운데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요 5:25; 엡 2:1-4; 시 65:4). 사망으로부터 나사로를 일으키셨을 때처럼, 그분은 그의 백성을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전능 하심으로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살어나게 하셨다(요 5:25). 주 예수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신다. 의롭게 함 가운데 마치 우리의 죄들이 그분께 귀속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운 복종은 우리에게 귀속된다. (고후 5:21). 성화 안에서 그분의 의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분배된다(갈 5:22-23; 벧후 1:4; 요일 3:5-10).

부활 —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백성을 의의 부활 가운데 그들의 죄들로 인한 현실과 결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요 5:28; 살전 4:13-18). 의인과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악한 자는 그들의 죄들의 결과로 고통 받도록 일으켜 질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죄들의 결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기 위하여 살려질 것이다.

어떤 근거들로 죄인이 “그의 백성” 중 하나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 오직 하나뿐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당신의 유일한 주이고 구주로서 신뢰한다면, 당신은 “그의 백성” 중 하나이다. 그분이 당신을 선택하셨다.

그분이 당신을 구속하셨다. 그분이 당신을 부르셨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요일 5:9-13).

11.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역사

요한복음 14:16, 17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선택된 자들에게 아버지의 은사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이 복음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왕국에게 주는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승천 은사이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로, 아버지의 약속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묘사된다(요 14:16-17; 살전 4:7-8; 갈 3:13-14). 그분의 일의 범위에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에게 우리의 지극하신 주이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주신 은사로서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제시되고 있다.

실질적인 복음의 진리를 감상적 행동과 선정주의로 사람들이 바뀌버린 이 종교 혼란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배를 감정주의와 혼동하는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역사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성경적인 가르침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 공과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섯 가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성령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며, 성삼위의 세 번째 인격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시다.

사도 요한이 제시한 사도 축도와 삼위일체에 대한 영감적인 정의에서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한 분으로 불려진다(고후 13:14; 요일 5:7). 너무도 흔히 사람들은 성령을 위대한 능력이나 선을 위한 전능한 능력 혹은 하나님의 감화라고 생각한다. 그런 낮은 생각으로 그분을 절대로 치욕스럽게 하지 말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감화에 대해 거짓을 말할 수 없다. 믿는 자들이 서로에게 행한 불친절로 인하여 성령이 비통해 한다는 것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효력을 슬퍼할 수 없다. 의도적으로 배역과 완고한 불신 속에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부터 등을 돌린 모든 자가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너무도 흔히 우리는 은혜의 언약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엡 1:3-6; 살후 2:13-14).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으며, 양자로 맞으셨고, 축복하셨으며,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미리 예정하셨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한다. 선택함이 없이 아무도 결코 구원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선택은 그 자체로 죄인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필요했다.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우리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엡 1:7-12; 히 7:22).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께 말씀 드리고(창 43:9) 그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말씀 드리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 은혜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심은 우리 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전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다(요 6:39; 10:29; 17:9; 엡 1:12).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손뼉을 쳤고 그 언약은 발효되었다. 그리고, 시간의 총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선택한 자들을 구속하셨다. 그분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의로움 가운데로 옮기셨고,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셨고, 영원한 구속을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얻으셨다(히 9:12).

하지만, 구속 하나 만으로는 죄인을 하나님께 결코 인도 할 수 없다. 다른 무엇인가가 행해져야 한다. 구속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진 것이다. 구속은 우리의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비록 영원한 선택 가운데 선택되었고 그리스도의 효능 있는 속죄로 구속되었지만,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고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행해지기 전까지, 은혜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구속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록되기를,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요 3:5-7; 6:63; 엡 2:1-5).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각 선택되고 구속된 죄인들에게 효능 있게 적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을 새로 창조하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언약의 모든 축복으로 그들을 인치시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하신 것이다(엡 1:13-14). 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셔야 한다. 그것이 택정하심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를 의롭게 하셔야 한다. 그것은 구속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셔야 한다. 그것이 거듭남이다.'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은 통틀어서 한 번이었으며, 결코 반복되지 않으며, 극적인 사건이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일어났던 것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다. 역사와 자유의지와 방언과 이상과 기적을 강조하는 은사운동은 이 세대 위에 내려진 신성한 심판의 끔찍한 마귀들 가운데 하나이다 (살후 2:7-10). 현대 종교의 신앙부흥론자들은 결정주의와 역사 그리고 자유의지에 그 강조를 두고 있으며, 종교적 타결의 일시적 발작 내의 도취감과 체험 위에 있는데, 이는 같은 신성한 심판의 반영이다 (살후 2:7-12).

믿은 자들은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역사들이지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성령을 가졌다고 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도행전에서 공표되고 확증됨으로써 받은 그런 사도적 은사들을 갖고 있는 척 하는 자들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을 그들의 교리와 주장 그리고 체험이 성경적이라는 증거로 가리키고 있다. 그 중대한 날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은 성령 강림의 신호였다. 동정녀에 의한 탄생이 우리의 대속물과 구속주로서 그분의 직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었던 것처럼, 오순절 그 날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위로자와 거룩자로서 그분의 직무 범위 안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의 신호였다. 그렇다, 성령께서 세상 가운데 그 이전에도 계셨음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강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계셨고 역사하셨던 것과도 같다. 그

러나 이제 성령은 그분의 직무의 능력 안에서 은혜의 언약 가운데 그의 부분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오순절에 성령은 그 전에 전혀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오셨다. 그 때 세상을 위한 새 시대와 의로움을 위한 새 능력과 교제를 위한 새 기초를 알리는 무엇인가가 발생하였다. 그날,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는 두려움을 모르는 복음전도자로 변화하였다. 그 날, 그리스도인들의 새 포도주가 유대교의 낡은 부대를 터뜨렸으며, 말씀이 많은 수의 이방인 혀로 옮겨갔다.” (A. W. Pink).

그 주목 할만한 날에, 3000 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섰다. 그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네 가지의 특별한 일이 있다.....

첫째로, 그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와 왕국과 몸을 침례자 요한으로 인하여 약속되었던 성령 안으로 침례 주셨다(막 1:8). 이것은 왕이신 예수께서 그분의 교회에게 주신 공식적인 첫 번째 은사였다. 그분이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시고 우리의 구속왕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실 때, 그분께서 그분의 왕국을 성령의 영역으로 담그셨다. 이 “성령 안으로” 침례에 대한 신약 성경의 일곱 가지 관련 구절들이 있다(마 3:11; 막 1:8; 눅 3:16; 요 1:33; 행 1:5; 11:16; 고전 12:13).

“성령과 함께(*역주: 혹은 성령으로; with the Spirit)” 침례함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들 각각의 장소들에서, “.....과 함께(*역주: 혹은으로; with)라는 단어는 “.....안에(in)”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물 속에 잠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침례 받은 자는 성령 안에 잠겨진 것이다. 침례를 주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침례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이다. 교회가 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그 요소는 성령이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이들 관련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으로 침례 받는 침례를 말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²

이들 관련 구절들 중 처음 다섯 가지는 오순절의 참여 가운데 언급된 예언적 구절들이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7절은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뒤돌아 보고 있다. 고넬료의 가족들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경험한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이는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령의 은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있

² 만일 “...와 함께(with)”라는 단어가 “...안으로(in)”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면, 왜 “...함께”라고 번역되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한가지 대답은 분명하다. 우리의 흥정역(AV: Authorized Version)의 번역자들은 모두 영국 교회에 속한 사역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왕의 명령 하에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에 잠기는 것과는 다른 어떤 방식의 침례에 대한 여지를 만들어두기 위하여 애를 썼다. 그들은 침례라는 단어의 번역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례는 음역이며, 그리스 단어 baptizdo의 번역이 아니었다. 번역은 “살짝 담그다(dip), 밀어넣다(plunge), 혹은 담그다(immerse)”가 되어야 했었고, 게다가 또 거의 매번 침례와 연관되어 신약에서 사용되었던 “...안으로(in: en)”를 “...와 함께(with)”로 번역하였다.)

있음을 그에게 확증하는 것이었다(행 11:17).

고린도전서 12장 13절³은 또한 오순절을 되돌이켜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하나이다. 모든 종족과 사회적 문화적 장벽은 무너져 내렸다(골3:11; 엡 2:13-22). 각기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그가 거듭날 때도 아니고, 물로 침례를 받을 때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성령의 영역 안으로 잠기게 하셨을 때인 오순절 날이었다. 사람이 거듭날 때 그는 오순절 날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은 그 몸과 권속과 교회 안으로 거듭난다.

둘째로, 오순절 날 아버지의 약속이 총만케 되었다(행 1:4-5; 갈 3:13-14). 아버지의 이 약속은 은혜의 언약의 무조건적인 약속이었다. 성령 안으로의 침례는 사람의 의지나 행위나 가치 혹은 영성에 좌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른 것이었다. 오순절 날 일어났던 그 일은 가능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확실함이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은 한 번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 받았으며, 또 역시, 한 번에 성령 안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침례 받았다. 이제 매일 매일 구속의 유익함을 받고 체험하고 있으므로,

³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상황은 믿는 자의 물침례에 관한 이 문장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침례는, 우리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와의 신분과 연합과, 성령의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과의 신분과 연합 모두를 말하고 있다.

또한 역시, 매일 매일 이 침례의 유익함을 받고 체험한다. 그러나 침례 그 자체는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또 다른 유월절이 없는 것과 같이 또 다른 오순절은 이제는 필요치 않다. 한번 구속 받으면, 영원히 구속 받은 것이다! 한 번 성령 안으로 침례 받으면, 영원히 성령 안으로 침례 받은 것이다!

셋째로, 구약의 본을 총만케 한 성령의 위대한 이 강림은 오순절 절기 안에서 시작되었다(출 34:22; 신 16:10; 레 23:15).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의 날에 있었으며,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해야 했을 때이며, 그것이 유월절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을 부음은 오순절 날 일어났는데, 이것이 오순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순절 절기는 밀을 수확할 때인 추수철의 시작에 있었다.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라 부르는 두 덩어리의 떡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이 떡 덩어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첫 열매들을 나타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었다(약 1:18). 첫 번째 물결의 떡 덩어리는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나타냈다(행 2 — 하루에 3000 명이 믿음). 두 번째 물결의 떡 덩어리는 이방인들 가운데로부터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나타냈다(행 10).

넷째로, 오순절에 성령의 이 강력한 부으심은 전형적인 쉼키나 (Shekinah: 하나님의 나타나심)를 또한 총만케 하였다(민 9:15-22;

대하 7:1-3).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인도하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이 세상을 통하여 인도하신다.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였듯이, 성령은 이제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을 보호하신다. 주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충만케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교회, 곧 하나님의 성전에 평강의 왕자의 이 시대에 충만케 하시고 내주 하신다(고전 3:16-17).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구하고 (롬 8:14),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엡 5:18), 성령 안에서 걷도록 하라 (갈 5:17-23).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구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을 갖는다.

성령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네 배이다.

더 나은 말이 없으므로 “일반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성령으로 묘사되는 초자연적이고 거룩한 능력의 이 네 가지 역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이 없다. 창조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참여한 역사이다(창 1:2).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 33:4).

창조처럼, 섭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셨느?”(사 40:13-14상). 그가 어디로 바꿀지라도 왕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계시는 성령의 역사이다(딤후 3:16; 벡후 1:21). 하나님의 책은 그분의 책이다. 그분이 그 책에 계시를 넣었다.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고, 모든 문장이 이루어졌으며, 책 전체에 기록된 그 순서도 그분의 초자연적이고 무오하며 절대 확실한 방향에 의해서였다. 비록 많은 도구가 그 책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책의 유일한 저자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은 성령에 기인한 역사들이었다(마 1:20; 히 10:5). 그리스도의 거룩한 육신과 혼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성령에 의해 창조되었다.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분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었던 우리 구주의 육신을 준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다.

잃어버린 죄인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살아있는 연합 안으로 옮겨진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에 의함이다(시 65:4; 110:3; 요 6:63).

거듭남, 새로운 탄생은 그분의 역사이다(요 3:3-8). 죽어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준 분은 생명의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령의 역사이다(요 16:13-14; 고후 4:6).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속에서 알게 하심으로 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분이 알려 주심으로만 안다(고전 2:10-14).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은 그들의 죄와 그리스도로 인

하여 세워진 의로움과 그분의 피의 속죄로 종결된 심판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능하고 효능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한다(요 16:8-11).

효능 있는 부르심은 그분의 전능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이다(살전 1:4-5). 다윗이 므비보셋을 “꺼내오기” 위하여 시바를 보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은 그분의 언약의 사랑의 대상들을 그분 자신에게 “꺼내오기” 위하여 예정된 사랑의 시간에 그분의 영을 보내셨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데려와 지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은 그분께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분은 단지 영향 주는 분이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분은 선택된 자들이 그분의 능력의 날에 기꺼이 따르도록 하시며 그들이 그리스도가 계신 집으로 오도록 하신다(시 65:4; 110:3). 그분은 부르신 자들을 개심케 하며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운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효험 있게 주신다(엡 2:8-9; 골 2:12).

믿는 자의 생명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이 세상 가운데 정돈되고 보호되며 예비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이다.

믿는 자들은 성령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 안에서 거듭나고 살아 있는 자들이다(롬 8:5-9).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산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거주하신다. 그분은 각각의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주하신다. 그분은 각각의 믿는 자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분은 각 믿

는 자의 생명을 만족하게 하는 영향이시다. 그분은 우리 기업의 증거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롬 8:16; 고후 1:22; 엡 1:14). 성령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위로자이며, 교사이며, 계몽자이며, 기름부음이시다(요 14:16-18; 고전 2:9-12; 엡 1:17; 요일 2:20, 27). 성령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께 복종함과 섬김으로 인도하신다(롬 8:14; 갈 5:16; 행 8:27, 29; 히 8:10). 성령은 하나님 왕국 안에서 특별한 섬김을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자격을 주며 무장시키신다(행 13:2-4). 성령은 하시기로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적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고전 12:4-11).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해야 할 것을 하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행 1:8; 고전 2:4; 살전 1:5).

은혜의 성령은 각각의 믿는 자 안에 은혜의 열매가 맺도록 하신다(갈 5:22-25). 그 열매들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닌 그분의 은혜로 인한 산출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분은 성령이다(삼하 7:27; 롬 8:26-27; 갈 4:6). 성령은 믿는 자의 마음을 경배 안으로 인도한다(요 4:23-24; 빌 3:3). 마지막 날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혼의 부활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첫째 부활 — 계 20:6), 우리 몸의 부활 안에서(둘째 부활)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되실 것이다(롬 8:11-23).

12. 예정하심

로마서 8:29-30 & 에베소서 1:5, 11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29, 30)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에베소서 1:5, 11)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목적과 주권과 영원하고 변치 않는 목적의 하나님이다. 시간 가운데 지나가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을 거쳐 간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엡 3:11).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은 성경의 용어로는 예정하심이라고 부른다. “예정하심은 지나가게 되는 어떤 것이든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법령이다.” (Charles Buck).

성경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정하심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의 여지가 절대로 없다.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지고 있고, 영감에 속한 수 많은 구절 안에서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다(마 25:34; 롬 8:29, 30; 엡 1:3, 6, 11; 딤후 1:9-10; 살후 2:13; 벰전 1:1-2; 요 6:37; 17:2-24; 계 13:8; 17:8; 단 4:35; 살후 5:19; 마 11:26; 출 4:21; 잠 16:4; 행 2:23; 4:28; 13: 48; 롬 9:11; 엡 3:11).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 뿐이다. 그것이 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신학체계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하심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하심을 가르쳐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단순히 기독교 세대들을 거쳐서 신실한 믿는 자들에 의해서 높여지고 유지되었다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이 교리나 그 어떤 다른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유지해 왔던 가르침이다. 하지만 논리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기초는 아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우리는 이 교리를 믿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성경 내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봉 꼭대기에서 그것을 전한다. 예정하심

이 성경 가르침이라는 사실은 간단히 논쟁할 수 없다. 대답이 필요한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다. 예정하심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제시오류

이것은 흔히 반대자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잘못 설명되거나 그것을 변호하려 시도하는 사람들로 무지하게도 잘못 설명되는 교리이다. 사실상 이 교리가 그 적들의 집단이나 그 지지자들의 집단 어느 쪽에서 더 혼란스러운지 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신성 예정설에 대한 네 가지 일반적인 제시오류를 구분하는 것으로 이 공과를 시작할 것이다.

첫째로, 성경은 이른 바 “될 대로 되라(케 세라 세라)”라는 식의 일반적인 스토아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종류의 철학적 숙명론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이나 생활에서 그 상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거해 버리려 시도 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인간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혼에 책임이 있게 만든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종교적 숙명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택정함에 대한 성경 교리를 믿고 기뻐한다. 하나님의 책을 믿으면서

택정함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제시하지도 않고 가능성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을 듣지 않고 (롬 10:17),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막 16:15-16), 그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지 않으며 (요일 1:9), 그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눅 13:5), 믿음을 견디지 않는 (마 10:22) 자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종말 그 자체처럼 필요하고 분명하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낼 자들을 예정하신다고 가르치거나 제시하고 있지 않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도 임의로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과 그분이 영원부터 목적하셨던 모든 것을 위한 지혜롭고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물을 필요도 없이 타락한 자의 영원한 정죄는 선택한 자들에 대한 구원처럼 하나님의 법령의 한 부분이었다(잠 16:4; 벰전 2:8; 유 4). 성경은 “진노의 그릇들은 멸망되기에 합당하였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처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롬 9:21-24).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이 보증되었지만, 각각의 죄인에 대한 저주는 그 자신의 어깨 위에 두셨다. 선택된 자, 긍휼의 그릇은 그

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반면, 타락한 자, 진노의 그릇들은 그들 자신의 뜻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멸망되기에 합당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역사뿐인 것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 앞에 항상 제시된다. 저주는 사람의 책임과 사람의 행위뿐인 것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 앞에 항상 제시된다.

넷째로, 신성한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예지(豫知)에 근거하지 않는다. 예정하심은 지나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 하심이 아니라, 지나가야만 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목적과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 하심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신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예정하심은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하여 그분이 하신 결정이다. 사실은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것을 결코 알 수 없다. 미리 아는 그것이 미리 정해져야 하였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의 시작과 끝을 아셨다(사 14:24, 26, 27; 46:9-11).

성경의 가르침

본질에서 신성한 예정하심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의 귀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모든 그분의 택한 자들을 예정하셨으며, 이는 그분의 주권적이고 거부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은혜와 그분께서 가장 존

귀를 받으실 방법으로 그 위대한 목표를 성취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루셨다.

영원한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다. 성경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분은 또 미리 예정하셨다.” “그분”은 만유의 원천적인 이유이다. “그분”은 구원의 근원이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솟아난다. 기록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했다(고후 5:18; 롬 11:36).

특별히,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를 향한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선택하신 죄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분의 결정이다. 물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과 절대적인 계명은, 하늘과 땅과 지옥 안에서, 만유와 모든 백성과 모든 사건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정하심의 계시된 목적은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이다. 신성한 예정하심은 전적으로 대가가 없고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완료되었다. 예정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변치 않고 바뀌지 않는 역사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특정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로운 목적이며, 그분의 영원한 사랑에 기초를 두고 그로부터 일어난 은혜로운 그분의 목적이다(렘 31:3; 롬 8:29-30; 엡 1:3-5; 딤후 1:9-10).

구원은,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 피와 의로우심의 유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따라 하나님 은혜의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성취된다. 구원은 사람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이다. 죄인을 그리스도로 인도한 것은 스스로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의지에 지배를 받거나 종속되지 않는다.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배를 받으며 종속된다(요 1:12-13; 롬 9:16).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의도적인 목적에 의하여 성취된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성취하시고자 목적을 두신 역사이다.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성취하시려는 그 수단이나 방법은 은혜의 영원한 언약과 평강의 조언 안에서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실행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 영원한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의 대속물로서 희생으로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결정하셨다(욥 33:24; 시 89:19; 롬 3:24-26; 5:8; 고후 5:21).

갈보리에서의 그리스도 죽음은 사건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한 후도 아니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조언에 따라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분의 죽음에 의한 우리

의 구원을 성취하시고자 십자가로 가셨다(눅 22:22; 행 2:23; 4:28).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였다. 그분의 아들이 배반당할 시간과 도구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였다.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그분의 아들이 처형될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결정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아들이 희생으로 죽은 결과가 무엇일 지를 결정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었다.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사랑스런 아들을 속죄물로 사망케 함으로써 택정하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확정하셨다(사 53:10-11).

이 모든 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 가운데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확정하셨으며 예정하셨다.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누구의 협조나 조력 없이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택하셨다(시 106:8; 엡 1:6, 12, 14; 고전 1:30-31).

예정하심이 가능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며 성취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를 위함이다. 성경을 읽어보라.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구원과 보존과 영광을 보증한다. 예정하심은 신학적 가설에 의한 추론보다 더욱 더 풍성한 것이다. 예정하심은 성경 안에서 계시된 가장 실질적이며 축복적이고 영광스러운 가르침들 가운데 하나이다.

예정하심은 어떤 자를 천국으로부터 격리시키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예정하심을 천국 문에 서 있는 끔찍한 괴물로 생각하면서, 임의로 많은 사람을 가로막으며, “안돼,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얼마나 있기를 원하더라도 너는 구원받도록 선택되지도 예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여긴다. 아무것도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 예정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다.

마지막에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어떤 죄인이든지 그의 편에서 행한 의도적 행위의 결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자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잘못이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 가운데 걷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그리고 그들이 지옥에 던져질 때, 그들을 지옥으로 던진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영벌은 사법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제시되고 있다. 심판은 의의 행위이다. 그것은 인간의 죄에 따라서 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것이다. 사람들이 보지 않기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땀을 보내 주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무감각하게 한 자들에게 굳은 마음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셨다(살후 2:10-11; 마 23:37-38).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라. 어떤 자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잘못일 뿐이다. 자신 이외에는 그가 비난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만일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무일 뿐이며, 하나님 편에서 행해진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예정하심 가운데 시작되었다. 예정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모두 영원히 저주받았을 것이다.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한 구원의 보증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의 영원한 구원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다시 말해서,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영원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우리 혼의 영원한 선과 하나님의 영원한 찬양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롬 8:28-30; 엡 1:11-12).

목적

예정하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섭리와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려고 결정하신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는 것이다(롬 8:29; 엡 1:4).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하셨다. 그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낼 자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여전히 증오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 되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으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소유하였을 생명과 관계와 교제와 용납을 잃어버렸다(롬 5:12).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버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무한하신 지혜에 따라 정확하게 실행되었다(고전 15:21-22).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있어온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을 구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심으로, 즉 다른 대리인,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원히 태초부터 창조 안에서 그분 자신이 영광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그토록 즐겁고 기쁘게 영원 전부터 그분의 아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와 같은 아들딸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질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정하심이 그 역사를 이루었을 때, 선택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형상, 하나님 그분 자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그대로 닮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그 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요 우리도 그렇다.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는다. —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도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고 딸이다(요일 3:1). 우리는 또한 그분의 체험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야 한다. 그분처럼, 우리도 사람들로 부터 받는 욕설을 견디어야 한다. 우리의 주처럼, 우리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고통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처럼, 유혹과 죄에 대항하여 분투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분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분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 그분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친절하며 온유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 구원은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고 완전하며 연합하며 드러지고 영원히 확증될 것이다.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예정하심 안에서 은혜에 속한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목적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원 받을 자를 예정하셨으며,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방법과 그들의 구원의 때와 그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필요한 모든 사건과 환경과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장소와 영광 가운데 그들의 장소와 우리를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종말은, 다른 모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와 영광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스

러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가운데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결정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아들의 명분으로 예정하셨음은, 그분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만아들이 되는 것이다(롬 8:28-30; 11:33-36; 골 1:16-18). 예정하심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탁월함을 주신다. 그분은 새로 선택된 민족의 머리이다.

그분은 하늘의 중심이며 영광이다. 예정하심은, 그분의 기쁨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기쁨을 주신다. 이제 그분은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기뻐하실 한 인류를 소유하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 모두 그분을 사랑한다. 이것은 그분께서 수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견디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놓여진 기쁨이다. 이것이 그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다.

예정하심은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힘입도록 안배하셨으며, 영광의 땅에 있는 모든 자가 임마누엘의 찬양과 임마누엘의 찬양만을 영원히 외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예정하심의 영광스러운 교리이다. 이것은 가장 유익한 교리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부심에 속한 모든 기초를 소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한다. 이

것은 우리에게 복음전파에 있어서의 목적을 준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소망을 준다(삼하 23:5).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평강에 둔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며 어떤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임을 보증한다. 이것은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닫게 한다(렘 9:23-24).

13. 하나님의 주권

시편 135:6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도다.”

그 말씀과 함께 시편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주권을 선포하며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분이 우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자신감과 믿음의 바로 그 기초는 그분의 주권이다.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셨는데, 만일 그분께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을 무조건 신뢰할 수도 없었고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도 없었으며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분께 의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오직 절대적인 주권만이 절대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므로 무조건 우

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신뢰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권의 실재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가장 혹독한 환경 아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시험을 견디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권적으로 지배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축성하사 우리의 선한 것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한다.

큰 기쁨의 문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기뻐한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분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마 20:15)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기뻐한다. 이 세상 아무것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시 115:3)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믿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종교의 어둠과 혼란 시대에,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직접하신 모든 역사에 대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보좌의 지고와 그 자리에 앉으실 권리보다 더 솔직하게 주장할 성경의 진리는 없다. 하지만, 세속적인 것들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종교주의자들에 의해서 더 멀시되는 것이 성경 안에서 계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천연적이고,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총체적이고 우주적인 주권에 속한 보좌를 제외하고 어느 곳이나 하나님을 가진 것으로 충분히 기쁘기 그지없다. 그들은 그들의 일터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별들의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기뻐한다. 그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기뻐한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인생의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할 하나님을 가진 것으로 기뻐한다. 그러나 그분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경멸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의 뜻으로 행하실 것과 그분 보시기에 합당하게 피조물들을 처리하실 것과 그분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것을 감히 설교하는 누구든지 이 종교적인 세대에 의하여 야유를 받을 것이고 비난을 받으며 저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보좌에 계신 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분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다.

주권인가 우상숭배인가

하나님의 주권은 매우 기본적이고 근본적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주권적이다라는 사실을 다소간 이해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리도 이해하기 불가능하다. 주권적이지 않은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으며 불변하지 않은 하나님 만 큼이나 대조를 이룬다. 주권적이지 않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아

니다. 만일 당신이 경배하는 신이 전적으로 주권적이지 않으면, 당신은 이교도이며 당신의 종교는 우상숭배이다. 만유에 대하여 전적인 주권이 없는 신을 경배하는 것은 마리아 동상이나 토렘폴이나 거미나 혹은 악마 그 자체를 경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예가 깊은 학자 에라스무스(Erasmus)에게 보내는 한 편지에서,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너무도 인간적이다.”고 하였다. 의심할 바 없이 에라스무스는 견해를 회신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이단적인 신학적 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견해는 모든 잘못된 종교적 마음을 드러냈다. 나는 오늘날의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며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담을 내려놓고자 한다. —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너무도 인간적이다. 나는 내가 썼던 글의 중대함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단호히 분명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 종교적인 세대에게는 철저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변절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은, “네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시 50:21)였으며, 그것은 오늘날의 종교적 세상에 대한 그분의 지적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 뜻에 의한 결정보다 감정에 의해 운행하신다고 상상한다. 그들은 전능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능력을 훼방할 수 있는 우화와도 같은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들은

또 하나님께 만일 계획이 있다면, 분명 그렇지만, 사람의 계획과 같다면 계속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며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 놓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력하고 헛된 갈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귀한 속죄의 피는 낭비이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헛되게 흘린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확고한 구원의 능력이 사람들이 쉽사리 거절할 수 있는 은혜의 점잖은 제시 정도로 축소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생각은 우상숭배자들의 모독적인 언동들이다.

이 세대의 신은 한낮 태양을 깜빡이는 촛불이 닳을 수 없는 것이 상으로 천지의 주권적인 주님을 절대 닳지도 않았다. 현대 종교의 신은 우상이나 인간의 발명이나 상상 속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암흑 시대의 이교도들은 나무와 돌로 그들의 신들을 새겨 금이나 은을 입혀 사용하였다. 오늘날, 이처럼 더욱 심한 암흑기에는 교회 안의 이교도들이 그들 자신의 퇴락한 상상 속의 신을 새기고 있다. 실제에서 우리 시대의 종교 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인데, 절대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과 결코 하나님은 없다는 것 사이의 선택이 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 뜻이 좌절될 수 있고, 그 목적이 좌절될 수 있으며, 그 능력이 휘방 당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무효화 될 수 있으며, 그 역

사가 뒤집어질 수 있는 신은 절대자의 명칭을 가질 수 없다. 그런 신은 경배 받을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초라하고 무가치한 신은 무시해버리는 것 그 이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지다라고 할 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여, 천지의 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원히 축복받으실 분이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에게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독립적이지고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기뻐하시고, 오직 기뻐하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아무도 그분을 훼방할 수 없다. 아무도 그분께 저항할 수 없다. 아무도 그분을 변하게 할 수 없다. 아무도 그분을 멈출 수 없다. 아무도 그분을 방해할 수 없다. 그분은,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사 46:10) 라고 선포하신다.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단 4:35). 신성한 주권은 하나님께서 우주통치를 위한 보좌에 앉아계시며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며 모든 것을 “그분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역사하실 것을 의미한다(엡 1:11).

이것이 수백 권의 책에 기록되었던 주제이며, 아직도 “그 절반도 다뤄지지 못하였다.” 신성한 주권은 어떤 고립된 교리가 아니며, 성경의 몇몇 구절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감의 모든 면에서 계시되고 있다. 이 공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고도 부인할 수 없게 계시하는 다섯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예정, (2) 창조, (3) 섭리, (4) 구원, 그리고 (5) 영적 은사 등이다.

예정

하나님의 주권은 만유에 대한 영원한 예정하심 안에서 부인할 수 없게 계시되어 있다. 성경은 예정하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가? 물론 그렇다! 그것을 부인하려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거나 혹은 거짓말쟁이이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대상이 될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으며 그분의 귀한 아들의 형상을 닮을 그 택한 자들을 예정하셨다(롬 8:28-29).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것과 구원받을 자와 그들을 구원할 때를 결정하셨다. 이것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권적인 예정하심에 의하여 그분의 은혜의 영원한 목적을 보증하셨다.

그렇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자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영

원 전부터 시간을 통과하는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그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된 교리이다(엡 1:3-6, 11; 롬 11:36). 기록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고후 5:18).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다.” (잠 16:4).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와야 하는 집을 표시하였다. 영원한 예정하심은 은혜가 와야 하는 길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주권적인 섭리는 은혜를 사랑의 예정하신 시간에 그 집으로 향한 경로에 놓여졌다.

창조

아무도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계시를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창 1:1; 계 4:11).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도록 한 것은 없다. 하나님 자신 밖에는 없는 그 때에 무엇이 그분을 움직이게 할 수 있었는가? 진실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 (시 19:1-4).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담은 우리의 보증이시고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창조되었다(롬 5:12-21). 아담은 조건부적인 거룩 안에서 창조되었다. 은혜에 속한 지혜롭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아담은 타락하는 것

이 허용되었으며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섭리

하나님이 매일 행하시는 섭리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된다(롬 8:28; 11:36). 신성한 섭리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심 가운데 은혜에 속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신다. 성령은 요한에게 계시록에 기록된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 주셨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목적의 책을 취하고, 책을 열며,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총만케 하는 분으로 보았다(계 5:1-10; 10-1-11).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속한 책으로 섭리 가운데 만유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속한 통치는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게 확대된다. 생명 없는 물질이나, 비이성적인 창조물 등,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들을 만든 분의 명령을 수행한다. 홍해의 물이 갈라졌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출 14).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그 입을 열고 그분의 적을 삼키셨다(민 14). 하나님께서 의도하실 때, 태양은 머물러 있었으며(수 10) 아하즈의 해시계를 10도 뒤로 후퇴시키셨다. 한번은 그분은 도끼 머리를 떠다니게도 하셨다. 큰 검은 까

마귀가 그분의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가져갔다(왕상 17). 사자들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순하여졌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종들이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에도 불에 타지 않게 하셨다. 모든 것이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라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는 사악한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생각과 의지와 행동과 말까지 에도 확장된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사라와의 음행으로부터 지키셨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이 소유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지키셨다(출 34:23-24).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의도와 열정은 우리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잠 21:1). 다윗을 저주하기 위하여 쉬메이(Shimei)를 보낸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였다. 심지어 사람의 진노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진노의 남은 것, 즉 그분의 찬양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기로 한 것조차도 그분께서 금하신 것이다(시 76:10).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 혹은 행하도록 허락된 것은 삼중이다. 그것은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과 그분의 모든 백성의 영원한 영적 선함과 그분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기에 모든 믿는 자의 어지러운 마음을 위한 안식의 장소가 있다. 사탄도, 지옥의 악마도, 인간도, 병도, 전쟁도, 전염병도, 회오리바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좌에 이를 것

은 결코 없다(마 10:30). 하나님을 축복하라, “우리의 시간은 그분의 수중에 있다!”

구원

하나님의 명백한 주권은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인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가운데 명백하게 계시되고 있다(롬 9:8-24). 하나님은 전부가 아닌 일부를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자가 아닌 몇 사람들을 위하여 죽도록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가 아니라 몇 사람에게 그분의 복음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가 아니라 몇 사람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아니라 몇 사람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아닌 그분을 좇는 몇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혈루병 여인을 구원하셨지 부유한 젊은 관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고, 아홉이 아닌 한 사람의 문둥병자를 구원하셨으며,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주님의 것이다!” 그분은 그것을 계획하셨다. 그분은 그것을 사셨다. 그분은 그것을 수행하신다. 그분은 그것을 보존하신다. 그분은 그것을 온전케 하신다. 그분은 그것을 위하여 모든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영적 은사

하나님의 주권은 또한 그분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영

적 은사들 가운데 명백하게 계시된다(고전 12:14, 18, 28-29).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행하시려고 그분께서 소유한 역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신다. 우리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다. 우리는 설교자도 필요하고 동시에 집사도 필요하다. 우리는 신실한 증거들도 필요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도 필요하다. 우리는 일꾼도 필요하고 주는 자도 필요하다. 우리는 큰 일을 할 자도 약간 필요하며 작은 것을 하기 위한 자도 몇몇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필요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필요하며, 베드로와 바울이 필요하고, 루디아와 루가스도 필요하다. 하나님은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필요로 하는 때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각각을 주신다. 하나님의 각 자녀들이 정직하게 가장 좋은 은사, 서로 사랑하는 은사를 갈망토록 하자. 만약 그것을 가진다면, 그에 따라 받은 다른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잘 섬길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다. 그분은 기뻐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계시며) 하셨다. 따라서 그분을 자신감 있게 믿으며, 평강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께 신나게 순종하며,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고 최고로 그분을 귀히 여기자.”

14.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성경에 따라 주 우리 하나님은 계획,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계획의 하나님, 그분의 계획은 성취되어야 하고 성취될 것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셨다. 영원 전부터 있으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었다.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절대적이고 정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예정된 마지막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 시간 가운데 일어날 모든 것이 영원 가운데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사실인지 보라. “율법과 증거에 대하여, 사람들이 만일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로마서 9:11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미움 가운데 에서를 거절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소년들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

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 에베소서 1:11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 에베소서 3:11 바울은 여기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음과, 나아가 그리스도의 알 수 없는 풍성을 전하였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 하였다고 설명한다.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 디모데후서 1:9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다섯 가지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다섯 가지의 특징적인 사실들을 말해주

고 있다. (1)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2) 하나님의 계획은 만유를 포함한다(사 45:7; 롬 11:36). (3)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특정되고 특유한 설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영적인 영원한 유익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하심이다. (4)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며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What God does)”를 쓴 A. H. Strong은, “그 분은 항상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시간 가운데 일어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다. 주 하나님은,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사 46:10)고 하셨다. 그리고 (5) 그 종국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영원한 구원과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며, 그분의 계획은 존재 하였고, 지금 있으며, 모든 곳에서 만유 가운데 모든 시간 속에 성취될 것임을 알고 우리는 기뻐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되고 낙심한다.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가? “이 시험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더 견디어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분명히 일어날 일곱 가지 일들을 성경을 연구하여 찾았다. 이 연구에서 성경의 몇 구절을 보기로 하겠다. 각

본문의 핵심 단어는 “반드시 하다(must)”라는 말이다. 이 일곱 가지 일들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1. 인자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고통 받고 죽으셔야 한다.

이 첫 번째 문제는 최우선으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제일 처음 보도록 하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의 결과이거나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일이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눅 9:22).

왜? 왜 거룩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인자이시고 하나님-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나무 위에서 고통 받고 죽어야 하셨는가? 왜 영광의 주께서 갈보리에서 속죄의 희생물로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셔야만 했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어야만 하셨다(행 2:23; 4:28). 우리 구주께서는 이천 년 전에 우리의 영원한 보증으로서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충만케 하시려고 예루살렘에서 죽어야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원하여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속의 책무를 스스로 짊어지셨다. 그분은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하지만, 자원하여

우리의 보증이 되기로 동의하셨기에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아야 하셨다. 그분의 존귀와 신실하심이 그것을 요구하였다(창 43:8-9; 요 10:18).

만일 그분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표와 예언을 충만케 하려 하셨다면, 우리의 구속자는 그분의 백성 대신 저주의 나무 위에 들러 죽임 당하여 속죄의 희생물로 죽어야만 하셨다(행 13:29; 시22:6-8; 34:20; 출 12:46; 시 69:21; 사 50:6; 53:3-6, 10-12; 속 12:10; 사 45:21; 요 3:14-17; 롬 3:24-26).

우리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며 구주”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뿐이다. 그리스도의 희생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계시 될 수 있게 한다. 우리의 대속물로 인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정죄 받는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방법으로는 만족케 될 수 없다(히 10:1-14). 오직 그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었다(히 9:22).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죄인들에게 계시되고 나타난다(롬 5:6-8).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치 않다. 다른 무엇인가가 행해져야 한다.

2.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망에서 일어나셔야만 한다.

사망한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결코 구원할 수 없었다. 사망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결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사망한 그리스도는 하나의 좋은 예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전능하신 구주가 될 수 없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다져졌던 것은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살아나셨을 때였다 (요 20:9).

우리 구속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이셨던 것은 그분의 부활이었다(롬 1:1-4).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들이 처리되었고 의가 만족된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킨다(롬 4:25; 히 9:12).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변론은 빈 무덤이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는 죄인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분의 권능과 능력의 확실한 증거이다 (롬 8:31-34; 히 7:25).

이제 세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영광스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반드시 모든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야 한다.

마가복음 13:10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복음이 그분 안에서 모든 세상에 걸쳐서 선포되어야만 한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의 이유가 있다. (1.) 모든 인간에게 우리의 구속주로서 하나님의 아 들께서 영광스럽게 성취하신 것들을 선포하여야 하며, (2.) 각 열방 과 혈족과 민족과 방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 하여, 그리고 (3.) 타락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용서 없이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4. 일단 이 복음이 모든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그리스도 앞에 다 시 오면,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서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 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만 서 있기를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세 상은 아직 멸망되지 않고 있다(벧후 3:9). 우리 주님은 아직 최후의 심판에 오시지 않으신 것은 아직 그분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 셧기 때문이다(요 10:16; 사 65:8).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너무 도 많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양 가운데 어느 하나도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피로써 구속 받은 모든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 을 것이며 영광으로 왕관을 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족한 의는 그것이 충만하도록 한 자들을 심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만족이 그 것을 요구한다. 그분이 대신하여 죽어야만 했던 자 중 하나가 하나님

의 진노 아래 멸하여 진다면, 주 예수께서 그분의 혼의 고통으로 결코 볼 수 없었고 만족하게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사 53:11).

그분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예정된 사랑의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요 4:4).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전에, 모든 선택되고 구속된 죄인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요 3:3-8).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고 열심히 그분을 구하는 자들의 상주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히 11:6). 그들의 뜻은 전능하신 은혜에 의해서 부서져야 한다(요 3:30). 그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요 4:23-2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실패로 밝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확신의 문제이다.

5.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왕으로서 통치하셔야 한다.

고린도전서 15:24-28을 읽고 기뻐하라. 우리의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와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머리 숙이고 그분의 적들을 멸하여야 한다. 다른 선택이 없다. 회개하든지 멸하든지! 돌아서든지 불타버리든지! 절하든지 저주받든지! 어느 쪽이든, “그 분은 반드시 통치하셔야 한다!” 그리고 통치 하신다!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요 17:1-3).

그 분께서 그 의를 받으셨기 때문이다(롬 14:9; 빌 2:9-11).

아무도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몸들은 반드시 무덤에서 일어난다.

일단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 시대 세상에서 성취되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부활 영광 안에서 그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전 15:51-58). 아,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구속주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분의 적들을 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광스럽고도 영원히 통치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요 19:25-27).

7.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모든 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마침내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모두 성취되었을 때, 여러분과 나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고후 5:10-11; 행 17:31).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는 그분의 크고 흰 보좌의 존귀한 권능의 주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얼마나 공평할 것인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실에 위로 받기를 바란다. — 하나님의 계획은 지켜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기뻐하심을 행하실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아직도 왕이신 예수에 대항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회개하라고 외칠 것이다. 지금 그분께

엎드려라. 영광의 왕께서 다시 한번 더 평강의 약속을 주셨다. — 항복하라!

15. 영원한 언약

사무엘하 23:1-5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
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
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
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는 해가 돋을 때의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 맑게 비침으
로 땅에서 움이 돋는 연한 풀 같으니라, 하셨도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그분께서 나와 영존하
는 언약을 맺으사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셨으니 그
까닭은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왕의 처소에는 침묵이

흐른다.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왕이 그의 침상에 있다. 그의 이마는 식은 땀으로 젖는다. 그의 맥박은 약하다. 그의 손바닥은 끈적거린다. 다윗 왕, 이스라엘의 위대하고 선한 통치자가 죽어가고 있다. 그는 사십 년간 왕으로서 통치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전쟁으로, 정복에서 정복으로 이끌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속에서 의롭고 정의롭게 그 땅을 통치하였다.

사십 년 동안 다윗은 사회 정의와 영적 책무감 안에서 그 선택된 나라를 이끌었다. 그는 하나님의 왕이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가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은 진리와 의로운 길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했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씀을 듣게 될 것인가? 다윗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의 침상 주변에 모여서 그의 마지막 말을 듣기를 갈망하였다. 백성들이 왕궁 복도와 성의 길 거리에 모여들었으며, 그들의 친애하는 왕으로부터 어떤 말이라도 듣기를 갈망하였다. “이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다윗, 곧 이새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른 자의 마지막 말이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첫째, 그는 그 자신을 묘사하였다(1절). “다윗, 이새의 아들.” 이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잘 지었다. 다윗은 “사랑하는”이란 뜻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가 그 자신에 대해 말할 때, 다윗은 그 자신의 이름의 뜻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비천한 배경만을 생각하였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자는 가난하고, 비천하며 평범한 목동에 지나지 않았다. “높이 올리어진 그 사람,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자” (삼상 16:1-12). 하나님은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그의 형제들 대신 다윗을 택하셨다. 그리고 다윗은 결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의 경이로움을 극복하지 못했다(시 65:4; 삼후 6:21).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감이 넘치는 찬송 작가였다. 그의 축복의 달콤한 시들은 구약 교회의 찬송 집이었다. 그 시들은 우리 혼의 가장 깊고 가장 지속적인 고통을 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옛 성도들의 성경에서 언제나 가장 낡아지는 부분이 되었다.

둘째,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혹은 그분의 신성한 인격들의 삼일성을 묘사하였다(요일 5:7). “주의 영” — 성령, “이스라엘의 하나님” —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 — 아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셋째, 다윗은 그의 시와 예언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2절).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것들

은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는 단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는 대로 그의 붓이 기록하도록 이끄는 대로 적었을 뿐이다(딤후 3:16; 벧후 1:21). 물을 필요도 없이, 신성한 책에 기록한 모든 단어는 그의 것이고, 그의 생각과 감정과 체험들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기록한 때 단어는 아무도 그것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넷째, 다윗은 그의 통치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3-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는 해가 돋을 때의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연한 풀 같으니라, 하셨도다.” 이 구절은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나의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얼마나 놀라운 방법인가!

다섯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또한 그의 위대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예언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위대한 다윗의 더욱 위대한 아들을 가리키고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스라엘의 달콤하게 노래하는 자는 그의 죽어 가는 소망과 위안을 알린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라 그 사람은 그의 죽어가는 머리를 둔 위안의 베개를 우리에게 주었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그분께서 나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사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셨으니 그 까닭은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문이라.” 그가 죽어가는 침상에 누워 있기에, 이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찾았다. 또한, 중보자요 언약의 보증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도 함께 있을지이다.

다윗의 한숨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신을 바라보고 그 가족과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망의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그는 많은 것, 그를 비통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던 많은 것을 기억한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비록 내 집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그는 이것을 시인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세상을 사는 한, 이 육신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모든 것이 결코 함께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은 없다.

“내 집”이라는 말은 네 가지 것들에 합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아마도 다윗은 “내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며, 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고 있지 않다. 왕의 집은 그의 왕국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는 다윗이 그렇기를 갈망했던 것처럼은 아니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통치하였지만,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걷지 않았다. 그 왕국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국은 위태로운 왕국이고 몰락직전에 있었다.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통탄하였다.

“내 집”이라는 말로, 다윗은 적어도 평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윗의 집(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은 교회의 예표이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보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집이다.

“내 집”이라는 말은 분명 다윗의 육신의 가족을 가리킨다. 그의 가족 가운데 많은 수가 은혜도 생명도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의 가족 가운데 그의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아내인 미가엘도 그의 하나님을 경멸하였다. 그 아들 암몬도 그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하였다(삼하 13:19-29). 압살롬은 암몬을 살해했으며, 대중 앞에서 그의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였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전복하려 했으며, 하나님을 대항한 그의 반란 중에 반군의 죽음을 당하였다(삼하 18:33).

오직 아버가일과 밧세바와 솔로몬 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을 필요도 없이, 다윗이, “비록 내 집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지 아니할지라도”라고 말할 때, 그는 그 자신, 이 죄로 가득한 재산과 이 육신의 몸에 있는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죄들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것들을 잊을 수 없었다. 심지어 그의 사망의 침상 위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도는 회개로 가슴이 찢어지는 자로서 말하고 있다. 다윗은 그의 죄를 알고 깨닫고 있었다. 회개는 평생의 일이다. 다윗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회개를 계속하였다. 분명한 것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고, 이것이 그를 엄청나게 비탄스럽게 하였기에, 그의 마음 위에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갖고 있었다. 나발을 향한 그의 복수 (삼상 25), 아기스 앞에서 그의 행동 (삼상 21:13), 헛사람 우리야의 문제 (삼하 11,12), 압살롬으로 인한 그의 울부짖음 (삼하 19:1-8), 그리고 70,000 명이 죽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삼하 24:1-14) 등이다.

다윗은 그 자신 안에 아무런 위로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의 “선한 일들”은 그에게 기쁨을 위한다기 보다 슬픔과 비탄만을 줄 뿐이었다. 그의 위로는 그의 하나님, 그의 구원자, 그리고 그 대신 은혜의 언약을 제정하고 행사하신 분 안에서 찾아졌다. 모든 영리한 자

여,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랐던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비탄의 소리와 한숨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공과를 배우도록 하자. 그것들은 아주 명료하다.

은혜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락에 있다(요 1:12-13; 롬 8:11-16).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은혜의 열매이다(시 89:30-34). 그것들은 우리의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다(고후 4:17-5:1).

신실한 사람의 가족의 죄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이나 그의 쓸모 없음에 대한 장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의 죄들은 그의 소망을 멸하거나, 사망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상속을 그에게서 앗아가는 것이 아니다(시 32:1-5; 롬 4:8).

다윗의 위로

“그분께서 나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사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셨으니.” 다윗은 언약의 공허과, 언약의 약속과 구속과, 언약의 축복들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 그분은 요나단과 언약을 세웠다.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은 므비보셋에 대한 요나단에

한 언약을 수행했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보고 므비보셋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는 요나단을 보았다. 여기서 그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실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 보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를 받으신다. 이 단락은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그 언약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선택된 죄인들 대신 세워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역사의 언약, 그가 파기하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파기한 언약이 아니다(롬 5:12-18).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할례의 언약, 유대인만을 위하였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영원히 폐지한 언약이 아니다(갈 5:2, 4).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법적인 시내 산의 언약이 아니다. 그 법적 언약은 그분이 폐하셨다(히 8:6-7). 하나님의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율법의 언약은 폐하여졌으며, 율법의 저주도 폐하여졌고, 율법의 속박도 폐하여졌으며, 율법의 정죄도 폐하여졌다. 기록되기를,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고 되어 있다.

다윗이 언급한 언약, 그의 사망의 시각에 그의 마음과 혼을 위로 하였던 그 언약은 은혜와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다(사 54:10; 말 2:5). 이것은 순수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다(시 89:19-35; 렘 31:31-34; 32:38-40). 그것은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맺은 언약이다(히 7:22; 시 89:19).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존하는 언약이다(잠 8:23-31). 그것은 잘 정돈된 언약이다. 언약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또한 공급되었다(엡 1:3-14; 딤후 1:9). 그것은 확실한 언약이다. 그 언약의 공효는 “다윗의 확실한 공효”이다(사 55). 그것은 말하자면, 언약의 후사이면 모두에게 확실한 언약이다. 언약의 공효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 구속 받고, 부름 받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보증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시 89:30-37).

다윗의 구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모든 구원이다.”고 말했다. 이 짧은 공과에서 다룰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말에 더 많은 것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가 될 때 여러분의 혼을 흥분케 하고 마음을 경이로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몇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이시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언약이 세워졌으며, “우리 모두의 구원”이며 “나의 눈은 너의 구원을 보았노라.” (고전 1:30) 이시다. 언약이 영원 전에 세워졌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던 절대적인 느낌이 있다.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롬 8:29-30; 딤후 1:9).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는 세상이 만들어 질 때로부터, 우리 보증인 죽임을 당한 어린양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구원의 모든 축복으로 영원 전부터 축복 받았다(엡 1:3-6). 우리의 구원은 이 영광스러운 언약에서 솟아나고, 결정되며, 그것에 달려있다(렘 32:38-40).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총만케 되었으며, 천국에 이르기 위한 믿는 자들의 지위이다(계 13:8).

John Gill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의 조카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무엘하 23:5에서 다윗이 그의 사망의 침상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언급하였다. Gill은, “나는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에 전적으로 그리고 그것에만 의지하고 있다. 나의 모든 구원을 위한 확고하고 영원한 은혜의 언약이며, 신성한 삼위일체의 인격들이 나의 유익이다. 나 자신의 그 어떤 의도 의지하지 않으며,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영향 하에 내가 행한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교회의 선을 위하여 행하기를 도움 받았던 나의 어떤 봉사도 의지하지 않지만, 삼위일체의 인격들 가운데 나의 유익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움을 통하여 나에게 쏟아 부어진 은혜의 축복들을 의지하는

것은 내 소망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나에게 새로운 것들이 아니지만, 내가 오랫동안 잘 알고 있었던 것이며, 내가 그로 인하여 살고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이곳에 오랫동안 있지 못할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것을 네가 나의 친구 누구에든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의 침대 옆에 서 있던 그의 한 친구에게, “나는 나를 어렵게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으며, Isaac Watts가 작사한 찬송가의 한 구절인, 그가 사랑했고 신뢰하였으며 섬겼던 그 구속주를 존귀히 여기는 가운데 인용하였다.

“그 분은 죄의 깊음으로부터 나를 일으키셨네,
크게 입 벌린 지옥의 문 앞에서,
내가 타락하기 전보다 더 나를 더 확고하게 세우셨네.”

다윗의 만족

그는 이 언약과 관련하여,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 문이라.” 그의 마지막 말을 먼저 보라. —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비록 내가 언약이 충만하게 된 것과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는다 할 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충만케 하실 것을 완전히 확신한다.”라는 뜻이다.

“이 언약은 나의 모든 소원이라.”고 다윗은 말한다. Matthew Henry는, “나로 이 언약과 그 약속들을 관심하게 하며, 풍성히 갖게 되게 하라. 나는 결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John Gill은, “이것은 모든 (믿는)자, 은혜의 언약과 그로 인한 구원의 체계의 어떤 것이든 아는 자는 행위의 어떤 것도 아닌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그를 통하여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는 갈망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는 다윗이 그의 사망의 침상에 기뻐하며 말했던 은혜의 이 영원한 약속의 상속자들이다. 에베소서 1:3-14을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언약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 드리라.

언약의 상속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정되었으며, 영원한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분의 아들로 입양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었으며, 모든 죄를 용서 받았으며,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으며, 만유로부터 의롭다 함을 입었으며,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 되었으며, 그분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영원토록 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언약의 은혜는 그 안에 영원토록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으신 구주가 되셨음을 선포한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언약, 분명 영원토록 거하시네;

그리고 그 비할 데 없는 은혜를 나는 느끼며, 나의 기쁨이 분명
하네;

비록 나의 집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으나 갈망할 수 있구나!
본성보다 더 귀한 기쁨이 당신의 종 모두를 높이네.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께서 그리 되셨음은;
나의 보호자요 나의 친구이신 예수이니, 천국이 나의 마지막
집이라,

당신의 모든 주권적 뜻을 기꺼이 받으니, 그 모든 뜻은 사랑이
있음 이구나.

내가 당신의 행하신 바를 알지 못할 때, 위로부터 빛을 기다릴
것이네.

그 언약의 마지막 목소리는 이 가련한 자의 더듬는 혀를 요구
하네

그것은 사용될 첫 번째 소리가 되니, 나의 하늘의 노래구나.”

Philip Doddridge

16. 언약의 성격

사무엘하 23:5

“비록 내 집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그분께

서 나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사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셨으니 그 까닭은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문이라.”

은혜의 언약과 관련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이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윗이 그가 죽으면서 하였던 것과 같은 힘과 안위와 만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비록 내 집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그분께서 나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사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셨으니 그 까닭은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문이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확신을 말할 수 있는 자야말로 행복하다!

합의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에 관한 성삼위의 세 인격들 사이의 협정이며 합의이고 계약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언약 (covenant)”라고 번역된 단어는 “언약”이라는 용어에 광범위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구약의 “언약”은, “창조하다, 선택하다, 및 양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은혜의 계획을 창조하셨으며, 백성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권적인 예정하심 안에서 만유를 결정지으셨다.

신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성약 (testament)”라고도 번역되고 때로는 “언약”으로 번역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유언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것은 “약속하다”와 “양도하다”라는 의미이다. 은혜의 언약 가운데, 삼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얻어 줄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고, 그 언약의 계획을 성취를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양도하셨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진다. 때로는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든 은혜가 이 언약으로부터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이다(엡 1:3-14). 때로는 그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구속을 보증하는 언약이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은 네 가지 특별한 이름으로 부른다.

1. **평강의 언약 (사 54:10; 말 2:5)** — 이 언약에서 주 하나님은 평강과 화해의 조약을 두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의 보증)은 그에 동의하였다.
2. **생명의 언약 (말 2:5)** — 그 안에는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 전에 그분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께 만드신 생명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
3. **새 언약 (렘 31:31)** — 그것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계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새롭고 결코 낡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4. **영존하는 언약 (히 13:20)** — 은혜의 언약은 영존하는 언약이다. 그것은 영원 가운데 만들어졌다. 그것은 영원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영원토록 서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이다. 언약의 어떤 약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하 23:5는 은혜의 약속의 삼중 성격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보다 더 많은 성격이 언약에 있다. 그러나 이 하나의 본문에 머물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속량 받은 죄인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은혜의 약속의 세 방면들을 볼 수 있다.

영존함

은혜의 언약은 영존하는 언약이다. 다윗은, “그 분은 나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했다.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표자로서 하실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분은 우리의 연방 머리와 대표자, 언약의 보증인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약을 맺으셨다(히 7:22). 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과 언약을 맺기로 약속하셨을 때, 그 의미는, “나의 언약

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는 것이다(사 55:3). 영존하는 언약은 오직 영존하는 분과 맺어질 수 있다. 그것은 언약이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와 맺어졌으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체현된다는 것을 뜻한다.

은혜의 언약과 은혜의 모든 축복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기쁜 것은 없다. 이것은 그 위에 영원한 날이 있고 영원까지 지속될 언약이다.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솟아난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셨다. 영원히 거할 사랑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영원으로부터 왔던 사랑으로” (John Gill). 예레미야 31:3과 요한복음 17:23-24, 그리고 시편 89:2-4를 읽어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의 영원한 언약의 중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세워지셨다(히 7:22; 8:6; 잠 8:11-13). 언약의 약속, 모든 택함 받은 자에게 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중재자인 그리스도와 맺어졌다(딤후 1:2). 언약에 의해서 보증된 구원은 영원 전부터 그들의 보증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졌다(딤후 1:9; 롬 8:29-30). 언약의 모든 축복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 택하신 자들 위에 대가 없이 부어졌다(엡 1:3).

이 은혜의 언약은 영원 전부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까지 존재한다. 기록되길,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이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시 111:9).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정하시고 세우셨으므로 그것은 영원할 것이라는 뜻이다. 아무것도 그것을 전복시키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 그분의 택하신 자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관계 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신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스런 인자함을 우리에게서 앗아가지 않을 것이며, 실패한 자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리는 고통도 주지 않으실 것이다(시 89:30-35). 우리가 비록 그분께 도발하지만, 그분의 사랑스런 인자함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은혜의 언약도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은혜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것은 결코 낡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뒤바뀌지 않을 것이다(히 8:13; 10:9).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정비됨

영원한 언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든 것이 정비되고” 잘 정리된 언약이다. 그것은 간단한 의미로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

고 질서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목적들을 충만하게 하려고 설계되었다. 그것은 삼일 하나님의 영광에 앞서서 “모든 것이 정비된” 것이다. — 은혜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엡 1:3-6) — (6절). — 그 분의 은혜를 사기 위한 아들 하나님 (엡 1:7-12) — (12절). — 그분의 은혜의 수행이신 성령 하나님 (엡 1:13-14).

이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보증과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이 정비”되었다. 모든 택함 받은 자는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수중에 맡겨지고 부쳐졌으며 (요 6:37-40; 엡 1:13; 요 10:29-30),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신성한 영광의 임재 앞에서 흠 없이 우리를 드릴 수 있다. 그 언약은 모든 영적 축복과 모든 은혜와 생명과 거룩함에 속한 모든 것으로 준비되고 충만 된다. 한 마디로, 이 곳에서 우리의 구원과 훗날의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은 영원 전부터 언약 가운데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되었다.

은혜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모든 것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고 확정되었으며 세워졌으며, 폐기할 수 없고 변할 수 없게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준비되고 세워졌다. 은혜의 언약 가운데 구원 받을 자가 영원히 결정되었다(요 15:16; 엡 1:4-5; 살후 2:13). 또한 영원한 구원의 저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도 결정되고

확정되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 외에 아무도 없다(시 89:19; 요일 4:10).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방법은 영원 전부터 결정되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과 구주” 모두가 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백성의 구원을 안배하셨다(사 45:20). 그분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가 세워지며 구속이 성취되고 (엡 1:6), 거듭남과 믿음이 성령의 전능하신 권능과 효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고 구속 받은 자들에게 보장되며 (살후 2:13-14), 모든 은혜가 복음의 전파와(살후 2:14; 롬 10:17) 믿음의 기도 (겔 36:37)를 통하여 선택된 자에게 모든 은혜가 교통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모든 은혜의 축복은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위에 제공되고 확정되며, 예정되고 주어졌다(엡 1:3; 롬 8:28-30; 딤후 1:9).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선택 받은 죄인은 영원한 양자로 입양되었으며, 영원한 구속함으로 구속되었고, 영원한 죄사함으로 용서되었으며, 영원한 의로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히 되었고, 영원한 유업으로 축복받았으며, 영원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확신

은혜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만유 안에서 준비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그 모든 축복과 약속으로 이 영원한 은혜의 언약이 “모든 것 가운데 준비되었으며 확증되어” 확실한 것이라고 선포

한다. 그것은 우리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 보증된다(사 53:11-12). “그 분은 그의 씨를 볼 것이다.” (그렇게 될지도, 원하지도, 소망하지도 않고 “분명히 될 것이다.”). “주님의 기뻐하심은 그분께서 직접 이루실 것이다.” (요 17:4-5). 그 언약이 만들어지게 된 자들 모두에게 확실하다. 언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 언약의 모든 축복은 “다윗(그리스도)의 확실한 공훈”이다. 여기 언약을 확실한 것으로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1. 그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2. 그것은 실패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실증되었다.
3. 그것은 깨어지지 않는 인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 받았다.

“이 은혜의 언약은 모든 축복은 보증된다.

믿는 자들이여 기뻐하라! 만유가 너희의 것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결코 없애지 않으실 것이나,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시며,
너희를 그분의 사랑 가운데 쉬게 하시리라!”

John Kent

17. 하나님의 뜻

시편 40:8

“오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8에 기록된 말씀은 그 궁극적이고 완전한 충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히브리서 10:7-9에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스도, 하나님-사람, 우리 대속물 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충만케 하셨는가를 압이 얼마나 기쁘는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순종은 우리 의이다. 그분의 피는 죄를 위한 우리 속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며, 그분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편 40편의 말씀은 또한 다윗의 말이기도 하였다. 그 말씀은 모든 믿는 자의 마음의 갈망과 염원과 추진력을 표현한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모양 안에서 이 은혜의 특별한 표시를 갖고 있다. 믿는 자들은 혼의 가장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능동적으로 섬기는 것을 표

현하는 데 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고 섬기며 항상 그분의 뜻을 주저하지 않고 즐겁게 행하기를 갈망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 가운데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것을 보기를 또한 기뻐한다. 우리 마음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9-10)이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가르쳤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의 모든 갈망과 염원과 열망과 목표와 기도를 모아서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럴 것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믿는 자 각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믿는 마음이 외칠 때, “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심중의 중심에 계시며, 내 가장 깊은 혼의 깊은 속으로부터, 당신의 계획하신 뜻이 충만케 되는 것과 당신의 기쁘신 뜻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과 당신의 앞선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나이다 라는 뜻이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의 하나님께서 “그 분의 뜻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엡

1:11). 그리고 그분을 아는 자는 모두 만유 가운데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이 공과를 하는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여 사람들이 내놓는 반대적인 말들에 대답하기 위함이 아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 적대적이라면, 나의 어떤 말도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께 옹드려야만 한다. 당신은 주로서인 그분의 통치에 항복하여야만 한다. 나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며,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안심시키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 주제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즐거워하는 당신을 돕기 위하여, 나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두 가지 질문에 답할까 한다.

1. 하나님의 율법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남녀노소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세 부분, 그분의 계율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계시한다. 그분의 계율은 그분의 피조물에게 하시는 요구와 명령이다.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로부터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즐거워 하심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분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 있는 그것이다. 아버지가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꺼이 순종함을 기뻐함처럼, 주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들이 기꺼이 순종하는 가운데 즐거워 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들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기를 노력하는 가운데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께서 성취하시고자 결정하신 그것이다.

이 세 가지는 결코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안전한 조화 속에 있다. 그것들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훈의 뜻을 시작으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이것은 그분의 계시된 뜻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행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의 권한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뜻을 나타낼 때, 그가 나타낸 뜻은 그들에게 법이고, 명령이며, 지시이고, 그들은 그것들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뜻과 기쁨이 있는 것들을 계시하신 것이 우리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는 계훈이며 율법이고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혹은 계훈의 의지는 우리가 인지하게 된 바와 같이 우리의 의무에 속하는 계율이다(전 12:13; 출 20; 롬 2:12-15, 18).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계시된 그 계명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도 그에게 이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의 도덕적 요구들은 그 본성적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계시된다. 율법의 돌 판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각자의 양심 위에 새겨져 있다(롬 2:12-15). 천연적으로 모든 사람은, 심지어 대부분의 이교도들과 고대 문명의 야만종족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인간은 그의 절대적인 존재를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할 지라도, 그의 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다는 느낌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마음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그치지 않고 범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종합적인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주심으로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다(출 20:1-17; 롬 13:8-9; 엡 6:2).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가리키는 그 십계명은 모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계시되고 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지배와 그 저주의 멍에로부터 자유롭다고 하지만, 이 요구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국가에 주어진 의식법은 구약에서 경배와 관련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을 때 (출 12)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을 때, 즉 손으로 기록된 조례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끝났다(고전 5:7; 골 2:14).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도덕법과 의식법의 모든 요구와 예표가 충족된 이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요일 3:23). 아무도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선택 받은 죄인들의 위치에서 율법을 충족시키셨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율법의 의를 충족시킨다(롬 8:2-4; 3:31). 이것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의와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바라본다(고전 1:30).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신 것이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요일 3:23).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이다. 모든 사람은 그것에 복종할 책임이 있다(요 3:36). 이것을 깨달음으로, 모든 믿는 자는, '아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라고 말한다.”

2.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갈망이다.

사랑스런 아이는 단지 아버지가 불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그 이상의 것을 하기 원한다. 그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을 찾는다. 사랑스런 아내는 그녀의 남편이 요구하는 것만을 하는 것 이상을 원한다. 그녀는 모든 것에서 그녀의 남편을 기쁘게 만들기

원한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 믿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즐겁게 할 것을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기뻐하심에 더할 것을 하지도 않으며, 할 수도 없다. 여전히, 믿음의 죄인들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진정으로 하려고 한다. 우리는 하지 않는가? 당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뜻을 행하려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미 6:6-8).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믿는 자들은 의와 긍휼과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걷기를 노력하고 있다(고전 4:7; 엡 5:18-21; 빌 2:1-4; 엡 4:32-5:1). 성경에는 우리 주를 기쁘지 않게 하며 비탄스럽게 하는 것들도 나타나 있다(엡 4:17-5:1). 사람에게 알려진 모든 헛된 것과 가증스러운 것을 아픈 마음으로 깨달음이 우리 타락한 마음 속에 내주하고 있지만 (요일 1:9), 우리 육신의 악한 것들을 피할 것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이것이 나의 꾸준한 기도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도 소망한다. — 나의 아버지, 제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며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당신을 범하지 않을 은혜를 허락하소서. 내가 당신의 귀한 아들의 이름이나 그분 안에 있는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을 비난하거나 당신의 성령을 비탄케 함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마음상하지 않게 하

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직도, 모든 하늘로서 난 혼은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서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지하고 있다(히 11:5-6). 하나님은 그 아들로 기뻐하며, 오직 그분의 아들로써만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안에, 오직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마17:5; 엡 1:6).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로 그분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연약한 노력으로 기뻐하신다(벧전 2:5). 이런 의미에서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기뻐하심의 뜻과 관련하여, 우리는,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함을 즐거워합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고 만유를 총만케 하는 대속물이며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기뻐한다.

3. 만유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비밀스러운 뜻에 순종함을 성경을 확신한다.

신명기 29:29를 읽어보라. 모세는 우리가 신성한 예정하심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거나, 하나님께서 그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연구하기를 의도하지 않은 것을 그 곳에서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다.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것이다. —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과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명령하셨으며 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과 예외 없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이 분명하게 계시된 사실이다(시 115:3; 135:6; 사 46:10; 단 4:35; 행 2:23; 4:27-28; 13:48; 롬 8:28-30; 9:15-18; 고전 5:18; 엡 1:11).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었으며, 일어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휘하는 절대적인 주권자이다. 그분의 계획하신 뜻은 모든 것, 선한 것은 물론 악한 것도, 구원은 물론 죄도, 진리는 물론 오류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항상 만유 안에서 그로 인하여 완전하게 성취된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계시된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을 뜻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욥 23:13; 엡 1:11).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자원하여 행하신다. 그분은 결코 어떤 것을 행하시든 강요 받지 않으신다. 피조물들은 창조주께서 하시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나 섭리 가운데 행하신다(행 15:18).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계획하셨던 것 말고는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성취하지 못 할 것을 하시려고 뜻하시고 갈망하시고 계획하셨다면, 그분은 전능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

하신 뜻은 만유를 포함한다(시 76:10; 잠 16:4).

C. D. Cole은 성경의 교리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한 섭리에 의한 것이 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뜻의 목적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신다(엡 1:11).”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의 사악한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들을 비난 할 만한 것을 없애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아마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성경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의 변명을 확증하기 위하여 기록되지 않았고, 그것을 오히려 바로 잡는다. 오순절 날 베드로가 예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확정적인 결정(뜻)과 전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으신 그분을 너희가 택하였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였도다' (행 2:23). 그리고 후에 다른 경우에 그는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예정하신: Gk. predestined) 일들을 모두 행하였다' (행 4:27-28).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면서 어떻게 죄를 뜻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신성하게 명령되었다는 사실이 남아 있다.

하나님의 뜻, 예정하심 가운데 그분의 영원한 계획은 그분의 존재의 특징과 함께 다방면에서 일관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효험 있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은 우리의 구원의 이유이다(요 1:11-13; 롬 8:28-30; 약 1:18).

타락한 반역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변질시키려고 매우 열중하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관련하여 몇 가지 경고 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주권은 사람의 책임이나, 나아가 그분의 뜻을 파괴하지 않는다. 사람의 죄는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죄에 묶어 버렸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다스리심으로 그분께서 성취하신 선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와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폐된 것에 대한 비난을 품고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에 대한 모든 인정과 칭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을 증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비난을 품고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대신한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성취된 그 구속을 이루신 분이므로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성은 하나님께서 저주할 자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뜻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언급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몇몇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리고 믿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지혜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만유와 관련하여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뻐합니다.”라고 말하기를 기뻐한다.

“아, 주여, 나의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두움입니다;

아, 나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위한 길을 선택하소서.

감히 나의 분량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럴 수 있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아,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을 택함은

내가 올바르게 걸을 수 있게 하려 합입니다.

나의 잔을 당신께서 취하소서.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으로든 채워진 잔입니다.

당신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졌던 것처럼,
나의 선함과 아픔을 당신께서 택하소서.
나의 선택은 없으니,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안에서의 선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키는 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지혜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소서.”

4.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거나 떠나 있는 것이 가능한가?

물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 교훈 그리고 기쁨이 관련 되는 한에 있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거나, 불복하고 떠나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죄나, 불신, 혹은 불복종과 성령이 지시하는 것에 반하는 행동이나 운동, 혹은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다. 우리야의 문제에 있어서 다윗이 한 행동은 “주를 기쁘지 않게 하였다.” (삼후 11:27).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다. 우리의 구속주는 다윗과 밧세바의 연합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오셨다. 엘리멜렉은 오벧-에돔으로 내려가면서 기쁨과 교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불복종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고 예정하신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재되었다.

아무도, 또 누구에 의한 어떤 행동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으로부터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시 강조하여 분명히 하도록

하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뜻에 의한 결정을 따라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지어 우리가 그분께서 계시하신 뜻에 불복하더라도 항상 성취되었다. 그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작아지지 않게 하지만, 그 계획이 항상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배하여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심지어 우리의 의지나, 선택 그리고 행동에 반한다 할 지라도 믿는 자들은 여전히, “아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라고 솔직하게 선포한다.

5.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당신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당신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여 줄 수 없다. 바울은, “혈과 육을 따라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놓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신다. (1) 그분의 말씀으로, (2) 그분의 영으로, 그리고 (3) 그분의 섭리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믿음 안에서 진실로 구하는 자들 모두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실 것이다(잠 3:5-6).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자. —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나이다!” 이것을 우리의 결단으로 삼자. — “아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 이것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삼자. — “뜻하신 바를 하도록 하시는 분

은 주이십니다.”

18. “건전한 교훈에 합당한 것들”

디도서 2:1-15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서 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 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 하지 말게

하며 흠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많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 딸을 키우려고 할 때, 그 아이가 작은 소녀에서 젊은 숙녀로 자라면서, 나는 자주 그 아이에게 이런저런 것은 하고, 이런저런 것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였으며, 항상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잘 했는가를 놓고 다투곤 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얘야, 그건 젊은 숙녀가 되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 아이는 항상 젊은 숙녀이고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다. 따라서 그 아이는 젊은 숙녀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말하고, 입고,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

성령은 우리에게 비슷한 논리를 사용하신다. 믿는 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그들의 행위와 행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받을 때, 순종의 근본과 동기는 거기에 복음에 합당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음란과 불결과 탐심 속에서 그들의 이웃처럼 살지 말라고 하였다. 대신, “성도에게 합당하게” 살 것을 강조하였다(엡 5:3). 만일 우리가 성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도에게 합당하게” 살아야만 한다. 빌립보서 1:27에서, 사도는 “우리의 행실을 거룩함에 합당하게 되도록” 우리의 생활을 지키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디도서 2장에서는 영감을 받은 사도가 디도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자에게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들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 교리의 연구는 항상 실질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를 준비하면서, 그와 같은 가르침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일깨워 주는 한 젊은이로부터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내 생각에, 내가 받았던 편지 중 가장 끔찍할만큼 놀라운 편지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젊은이였고, 적어도 내가 소망하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려 하던 젊은 목사에 의해 쓰인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그의 편지 가운데 아주 일부이다. 그 내용을 여기에 포함하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에 대한 분명 비난받아야 할

놀랍고도 경종을 울리는 왜곡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저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심지어 그분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저의 즐거움을 좇는 것입니다.....저는 가능한 한 많이 내 자신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만큼 옳은 것을 하기조차 원하지 않습니다.....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이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기에 저는 그분의 정원을 가꾸고 그분의 음식을 할 것입니다. 그분은 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갈망하셨습니다. 저는.....그분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며 저에게, '너와 함께라면 나는 매우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자유롭게 두셨으며 제가 그분께 돌이키고 섬기라는 명령에 두시지 않았고 오히려 진정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주이든 사역을 그만둘 수 있으며 저의 여생을 지내며 성경을 다시 잡지 않을 것이고 설교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저로 때문에 기뻐하실 것은 그분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행한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유를 택하고 그것에 따를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실 때까지 저의 즐거움을 추구할 것입니다.....저는 죄를 거절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살 것입니다.....저의 즐거움과 떨림과 하나님께서 진실로 주권적이며 진실

로 저와 함께하시는 길을 가지실 것임에 대한 신뢰를 따르겠습니다.....저는 정원을 파헤치고 담장을 뛰어 넘으며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개와 같습니다.....저는 신중하고 싶지 않습니다.....저는 저 자신에게, '이것이 나의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라고 결코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저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믿으며, 만일 그렇게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면 저는 테니스공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나는 저 말을 쓴 사람이 미쳤다고 진실로 희망한다. 왜냐하면, 그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가 다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저 말을 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정말로 헛된 것으로 한다. 이교도인 이방 종교의 방탕한 반율법주의를 받아들이도록 유혹된 에베소 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추구하려는 것을 모두 그만두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소멸한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다(엡 4:20).

디도서 2:1-14에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와 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교훈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가르쳐야 할 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계시된 모든 자에게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임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심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것이 “건전한 교훈에 합당한 것들”이다.

은혜의 장식품

1-10절 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모두가 얼마나 그 복음을 더 돋보이게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그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교리를 빛나게 할 수 있다.” (10절).

이것은 모두 우리 개인의 책임이고 특권이다.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야” 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 교훈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매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남녀노소가 믿도록 추구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생활로 (종교적 행사가 아닌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미를 보여야만 한다. 만일 사람들 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존귀히 여긴다면, 우리 생활은 그 복음으로 규제받고, 통치받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전하는 자는 복음을 신실하게 전함으로 그것을 빛나게 할 책임이 있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

들을 말하여.” (1절). 모든 전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았다. 전도자의 위임은 항상 같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매인 바 된 모든 자, 곧 그분의 천사들로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졌으며,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지속해서 선포하여야 한다(딤후 4:1-5).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교훈이며,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건전한 교훈에 합당한 그것들은 복음과 지속적이며 복음을 높이는 것들이다(신성한 주권, —효험 있는 대속의 속죄물,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만으로 인한 구원).

복음 전파자들은 복음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과 책무에 의도적으로 적용할 책임이 있다. 생활의 각 방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사람들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것은 목사 각자의 책임이다. 그리고, 생활의 모든 방면에 복음을 적용함으로써 복음에 개인적으로 복종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책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활에 개입하신다—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무시하려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영과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죄인들의 마음에 내려놓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분은 떠맡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것을 고집하신다. 그리스도께

서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2-10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한 각자를 위하여 여기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

2절 —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3-4절 —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5절 —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6절 —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7-8절 — “모든 일에서 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 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

라.”

9-10절 —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 하지 말게 하며 흠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성령은 복음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유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내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부르신다(고전 10:31). 만약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시는 것을 안다.

은혜의 역사

11절 —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용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가리킨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의미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복음의 교훈은 은혜를 전하는 말이다. 복을 전하는 말은 자유의 지가 아니라 대가 없는 은혜이다. 그것은 행위가 아닌 은혜이다. 그것은 은혜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뿐이다(갈 5:2,4). 은혜는 복음의 원천이다.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다. 은혜는 복음에 의해 전해진다(요일 1:1, 벰전 1:23-25). 그리고 은혜는 복음의 통치이다(롬 6:12-14; 고후 5:14-15).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함이며, 그것은 곧 대가 없이 주권적인 은혜의 행동이며, 은혜는 전능하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은 구원이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가져다 주고, 그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한 방법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구원을 얻는 방법임을 보여 준다. 복음은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를 선포한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구원의 발표이다(요 19:30; 히 9:12).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택정한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롬 10:13-17). 복음이 없다면 영적 생명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도 없으며,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도 없다(롬 1:15-17; 고평전 1:21; 벰전 1:23-25; 약 1:18).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분명히 바

울은 이 세상에 있는 각각의 사람이 그 복음을 안다고 우리에게 뜻하지 않았다. 확실히 그것은 그렇지 않다. 세상의 도처에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의 시대와 우리 시대에), 많은 수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이 각 계층과 인종과 종교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대가 없이 전파되었으며, 전파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롬 16:25-26).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갖고 계신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마 28:19-20).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롬 1:16).

은혜의 가르침

12절 —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죄인의 마음 속으로 성령 하나님의 생명주는 거듭남의 능력과 은혜로 다가올 때마다, 그에게 어떤 것을 효험 있게 가르친다. 복음은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아야 함을 가르친다 (사 45:22).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가르친다(갈 1:6-9). 그리고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친다. 복음은 지적 사색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방향제시를 위하여 제시되

었다.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우리 삶의 질서를 위하여 제시되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 복음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과 피하여야 할 것을 말해 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 욕망을 거절할 것을 효험 있게 가르친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경배와 그분의 뜻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하도록 가르친다.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세상적 욕망과 음란과 탐심과 야망과 주목 받고 칭찬받는 것에 대한 갈망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하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복음은 또 사람들이 의롭게 살도록 가르친다. 우리 자신에 관해서 복음은 우리가 절제하며 살 것을 가르친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 복음은 의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복음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 것을 가르친다(고전 6:19-20; 롬 12:1-2).

은혜의 목표

13절 —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우리 주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날짜를 제시하거나 심지어 추측하는 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종말의 표적을 구할 것이나 종말이 언제가 될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조차도 말

하지 않고 있다. 은혜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과 목표의 발끝 위에 서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은혜는 우리에게 선하고 근거가 있는 소망과 목표와 기대와 갈망을 낳는 소망을 준다.

모든 믿는 자를 위한 한 공통되게 축복된 소망이 있다. 한 무리를 위한 하나의 소망이 있고, 다른 무리들을 위한 다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소망, 같은 입장에서 영광스럽고 축복된 소망, 어떤 눈도 보지 못했고, 어떤 귀도 듣지 못했으며 어떤 생각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소망을 갖고 있다. 우리 소망의 기초는 은혜, 곧 십자가에 못박힌 우리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의 대가 없는 은혜이다(엡 1:18). 소망하는 것은 영광이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두지 않고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올려 놓은 소망에 두는 것이 복음의 계획이다(마 6:33; 골 3:1-4).

모든 세상 즐거움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예수는 나의 것이다. 모든 부드러운 매듭을 풀어라, 예수는 나의 것이다!

어둠은 이것이니 곧 광야라, 세상은 쉼 곳이 없다. 예수만이 축복하실 수 있다. 예수는 나의 것이라!

잘 가거라, 도덕이여 — 예수는 나의 것이라! 어서 오라, 영원이여 — 예수는 나의 것이라!

어서 오라, 아 사랑스럽고 축복 됨이여! 어서 오라 달콤한 안식의 모습들이여! 어서 오라 내 구주의 가슴이여! 예수는 나의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스런 우리의 소망은, 그를 신뢰한다면, 기초가 튼튼한 소망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딤후 1:2). 우리 구주께서 그것을 사셨다(히 9:12). 우리 대표자께서 그것을 소유하신다(히 6:20). 우리는 그 보증을 갖고 있다(엡 1:14).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을 가치가 있다(골 1:12).

우리가 축복받음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얻게 될 것이다. 바울이 우리의 구주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주목하라. 마치 그가 그분을 걸맞게 표현 할 만한 말을 찾을 수 없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다. 곧 이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구주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면,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우리도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은혜의 목표이다(요일 3:1-3).

은혜의 동기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성령은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우리를 부르신다.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훈계에 순종하도록 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실까? 어떻게 우리에게 동기를 주실까? 하나님은 율법의 공포로 우리를 위협하시지도 않으며, 보상의 약속으로 우리를 꾀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용병들이 아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

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풍성하고 대가 없으며 변치 않는 은혜를 자랑함으로 그분을 높이기를 우리에게 촉구하신다.

14절 —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모든 사악함과 모든 죄와 그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꺼내시려 함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은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려 함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실로 “특별한” 백성이다.⁴

그리스도의 특별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에 열심이도록” 준비되어졌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 걸어야 함을 명령하셨다(엡 2:10). 아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 견도록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선택 받고 속전된 죄인이 선한 일에 열심 이도록 효험 있게 가르치신다.

⁴ “특별한”이라는 말은 “눈에 띄게 뛰어나며, 가치가 있고 훌륭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깃, 그분의 상속의 땅이며, 그분의 왕관의 보석들이고, 그분의 총만이고 (엡 1:23),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다.

15절 —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디도에게 하는 바울의 충고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모든 복음 전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말하고” — 하나님의 종은 은혜의 교훈과 책무를 모두 전파하여야 하며, 이 사항들을 정직함으로 강조하며 “권면하여야” 한다. 신실한 목자는 또한 이 은혜의 교훈과 책무를 무시하고, 반대하며, 부정하며, 거절하는 모든 자를 “꾸짖고” 나무라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말하는 자와 같이 “모든 권위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행해야 함은 전파하는 자의 책임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들 경멸할만한 아무런 이유도 제공하지 않도록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순종치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한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전서 4:1-3에서 의미한 그 자신의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19. 창조

창세기 1:1-3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공과를 통하여 조직 신학의 과정을 제공하려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다. 사실상, 나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신성한 계시를 인간의 질서 가운데 맞추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체계에 맞추려 시도하는 순간, 우리의 교리는 타락하고 오류투성이가 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성경을 인간적 체계 속으로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으로 하여금 인간의 체계에 머리 숙이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그렇게 경멸스럽게 다룰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리와 반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교리를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어떤 형태로든 체계화하여 적용하게 될 것이며, 이 연구에서 체계화된 질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번 공과의 주제는 창조이다. 대부분의 성경 교리 연구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서 하나님의 계율로 이동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물을 필요도 없이, 이미 본 바처럼 하나님의 계율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계율은 그분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보다 훨씬 후에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다. 우리는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택함 가운데 있는 은혜의 놀라움을 살펴보기 전에, 창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고찰할 것이다.

사실상, 창조는 구원 안에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매우 교훈적인 그림이다. 고린도후서 5:17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한다. 은혜로운 새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창조 가운데 아름답게 형상화되고 있다. 세상의 창조가 오직 하나님만의 역사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일도 오직 하나님만의 역사이다.

세상의 창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1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에 대하여 단도직입적인 명시로 열고 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우리가 최초의 창조에 대하여 들은 바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아무런 주장이 제시된 것이 없다. 대신에, 그분의 존재는 믿겨지는 사실로서 간단히 확증되고 있다. 인간의 의심스러운 생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시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 얼마나 걸렸는가? 우리는 듣지 않았다. 이 세상은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우리는 들은 바 없다. 우리는 단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는 말만 듣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당연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사실로서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다.

- “처음에 하나님께서” — 이것은 모든 진리의 기초이다. 모든 진

실된 신학과 모든 진실된 종교는 이 명제로 시작한다. 모든 인간 종교와 철학은 사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사람으로 내려간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서 대부분 특별한 사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은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셨다.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타락을 접하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계 13:8)으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지신 분”(벧전 1:20)으로 그분의 아들을 제시하셨다.

새 창조 안에서 은혜로운 회개로 구원 받은 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엡 1:4) 그분의 자녀들이 될 것을 예정하셨다 (엡 1:5).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요일 4:19). 모든 것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러면 당신은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사실상 “창세 (genesis)”라는 단어는

“시작”을 의미한다. 혹자는, “창세기는 성경의 모종판이다.”라고 말한다. 창세기는 나머지의 책들에서 좀더 충만하게 계시되는 모든 위대한 교훈과 진리로부터 나온 씨를 내포하고 있다. 이 모세의 첫 번째 책의 오십 개의 장에서.....

- **하나님이 계시되었다.** — 그분은 창조주-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늘과 땅의 소유주”로 계시된다. 시작 구절에서 축복의 삼위일체에 관하여 실마리가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며 신격 안에 있는 복수의 인격들이다(26절). 세상의 창조는 성삼위인 아버지, 아들, 성령 안에 있는 세 분의 모든 인격이 포함된 역사였으며, 심지어 구속의 역사들과 섭리가 세 분 모두의 신성한 인격을 포함하고 있다(엡 1:3-14).
- **사람의 근원과 특징이 제시되고 있음.** — 첫째, 하나님의 피조물으로써 사람을 보며, 그리고 타락한 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되돌려지고, 눈으로 직접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을 보게 된다.
- **사탄의 도구들이 노출된다.** — 우리 혼의 주적과 유혹자와 기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의혹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사람을 파멸하도록 한다.

-
-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제시되고 있다.** — 하나님은 아벨을 인정하고 가인을 거절하신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선택된다. 기록되기를,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고 되어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우상숭배 이웃들을 지나치신다.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거절하신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싫어하신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예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 우리의 타락한 부모들, 아담과 하와는 은혜로 찾고 발견되었으며 순전한 희생물의 가족으로 입혀졌다. 타락한 쌍을 옷 입히기 위하여, 피가 뿌려져야 했으며, 죄인을 대신하여 순전한 희생물들이 죽어야만 했다. 그 순전한 동물들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살육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 당하였고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의로우심 안에 영원히 감싸여 있을 수 있다.
 -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게 됨이 계시되고 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를 의롭게 여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바로 그 의를 받는다.
 - **믿는 자의 보증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다.** — 주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 안으로 넣으시고 방주를 달으신 것처럼, 전능한 은혜
-

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모든 믿는 자도 그분 안에 갇혀지고, 인침 받고, 보존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요 10:28).

이것들에 더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예언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대속물로서의 죽음이 묘사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임이 상징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이 선포되고 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 **이 시작의 책에서, 모든 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이다.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으깨버리는 여자의 약속된 씨이다. 그리스도는 그 피가 아벨의 희생물에서 예표된 어린양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였던 에녹이 믿었던 자이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로부터 구원한 방주이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그 땅의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약속의 씨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대신 하나님께서 사망을 주셨던 희생의 어린양이다. 그리스도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이다. 그리스도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축복을 받았던 멜기세

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그 안에 만유가 있고 만유가 그로부터 나온 우리의 요셉이다. 그리스도는 유다 안에서 묘사되었던 보증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야곱에 의해 예언되었던 율법제정자이다. 시작의 책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나의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상상하지 말라.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그분을 모른다면, 우주의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분은 만유 이전에 계신다. 그분은 만유 안에 계신다. 그분으로 인하여 만유가 구성된다. 그리고 만유는 그분을 향하고 있다. 창조와 새 창조 모두 그리스도로 시작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분은 태초에 만유를 만드신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를 선포하신 그분이다(계 21:5).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 창조는 창조주의 반영이었다. 2 절에서 우리는 땅이 “형태도 없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것을 본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창조되지 않았다(사 45:18을 보라). 그 본래 아름다움 안에, 땅은 상상을 넘어서게 완전하다. 그곳엔 고통의 신음소리도 없고, 죄악의 어두움도 없으며, 타

락의 벌레들도 없고, 밤의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경쟁자가 없는 최고의 통치를 하셨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땅”이 “형태가 없고 공허하게 되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황폐함과 혼돈

이 황폐함은 2 절에서 설명되고 있다. —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2 절에서 “있으며 (was)”는 “되었고 (became)” (스트롱의 색인)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혼란스러운 상태로 창조하지 않았다. 1 절과 2 절 사이에, 어떤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은 그 재앙이 사탄의 타락이었다고 생각한다(사 14:12—17; 겔 28:14-18).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사탄이 타락한 시간이었는지 특별하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추측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유일하게 분명히 제시된 것은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게 되었던” 무슨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재앙이 어떤 것이었든간에, 땅을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황량하고, 살 수 없고, 혼돈으

로 황폐하여진 덩어리로 남게 만들었다⁵.

출애굽기 20:11은, “옛세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라고 한다. “창조”와 “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창세기 1:1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2은,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라고 말한다. 창세기 1:3-31에서, 하나님은 옛세 동안 땅을 만드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셨던 것으로부터 형태를 만드시고 모양을 만드셨다. A. W. Pink가 쓰기를.....

“혼돈으로부터 '우주'가 나왔으며, 그것은 질서와 안배와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물로부터 땅이 드러났다. 황량하고 어두운 사망의 장면은 빛과 생명과 비옥한 것으로 변하였으며, 마침내 모든 것이 '매우 좋다'로 선포되었다.”

이것이 세상 역사의 그림이므로, 그것은 인간 역사의 그림이기도 하다. 시간의 시작 중에서 옛세가 되는 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

⁵ 나는 무신론적 과학자들과 진화론적 철학자들의 비판에 답변하려는 시도에는 관심이 없다. 아마도 주 하나님께서 나이 들고 성숙한 지구의 모든 표식으로 땅을 창조하시지 않으신 것은, 그분께서 아담을, 특히 믿지 않는 인간들을 혼란스럽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만일 창조가 부인할 수 없게 이룩된 것이라면 그 땅은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 되었고, 성경에 모순되지 않을 것이다. 1 절과 세상의 파괴 사이에 명시된 것과 2 절에서 기술된 것처럼, 세상의 창조 사이에 있던 사이 기간이 얼마나 긴지 가리키는 바는 없다. 그 기간은 존재하였을 모든 선사시대를 포함하기에 충분한 폭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창세기 1:3-31에서부터 일어난 모든 일은 하루 스물네 시간의 옛세 동안, 육천 년 전에 일어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피조 되었고, 하나님의 바로 그 특징을 영광스럽게 반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피조물이었는지.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매우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속에는 죄악의 유전도 없었고, 그에게는 죄의 원칙도 없었으며, 그에게는 죄의 흔적도 없었고, 그 주변에는 죄악의 환경도 없었다. 남자와 여자는 온전함과 만족함과 서로 기뻐하는 행복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사람은 하나님과 기뻐하였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였다.

그리고 어떤 재앙이 있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묘사되고 있다.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 무서운 머리를 감히 치켜들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였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망도 함께 왔다. 사람은 죽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땅은 저주를 받았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들을 낳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형태가 없어지고 공허해지게 되었다. 뱀의 검은 점액이 인류를 부패시켰다. 이 엄청난 재앙인 타락은 모든 아담의 후손의 마음속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람은 타락하였고(전 7:20, 29),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하여 졌으며(엡 4:18), 부패하였고(렘 17:9),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다(롬 5:12). 창세기 1:2는 타락한 사람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재앙 이후의 땅처럼,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

-
- **그것은 혼란의 상태이다.** “땅은 형태가 없게 되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조화롭지 않았다. 아무것도 의롭지 않았다. 타락한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하나님과 조화로운 것은 없다. 그에게 아무것도 의롭거나 선한 것이 없다.
 - **그것은 공허의 상태이다.** “땅이 비어 있었다.” 완전히 비었으며, 생명이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게 사람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적으로 공허하고, 비어 있으며,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도 열매 맺음도 불가능하다. 타락한 사람은 어떤 형태의 조건이나 요구에 응할 수 없다. 만일 그가 타락의 황폐함으로부터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로 때문에 회복된 것이 분명하다.
 - **그것은 흑암의 상태이다.**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 잃어 버려지는 것은 어둠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것이며, 사탄, 곧 어둠의 왕자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영적 빛의 한 가닥도 없다. 타락한 사람은 영적인 빛도 지식도 이해도 없다.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

창세기 1:2-31은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묘사하고 있다. 물질적인 창조를 회복하는 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질서는 새 창조 안에서,

곧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로 타락한 사람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똑같은 질서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믿는 자들의 체험에 상응한다. 여기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묘사하는 그분의 창조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수행되는 일곱 가지 역사가 있다.

1.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2절).

지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궤도를 움직이고 있었고 그 자체의 축으로 회전하였지만, 그 움직임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위에서 움직여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채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남은 사람의 행위나 마음의 감동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심으로 성취된다. 거듭남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이다.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난다.” (롬 9:16).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요 6:63). 거듭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의하여 성취된다.

2.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3절).

하나님의 영이 사람 위에 운행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적어도 열 번

이상을 본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질문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세상을 개조하거나 회복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분의 계획은 행해졌고, 그분의 결정은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임했고 만들어졌다. 이들 두 가지는 나누어 지지 않고 함께 결합하고 있다. (1) 성령의 사역과 (2)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롬 1:16; 벰전 1:23-25), 영적 빛의 근원이다(고후 4:6).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생명의 씨이며 (약 1:18; 벰전 1:23-25), 그것으로 생명과 믿음이 혼으로 전달되는 수단이다(롬 10:17).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은혜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다(고전 1:23; 딤후 4:16).

3.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4절).

하나님께서 옛 창조 안에 있던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셨던 것처럼, 그렇게 새 창조 안에서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신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살전 5:5). 하나님의 말씀은 새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혼과 영을 나누며, 육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구별해 낸다(고후 6:14-18). 이것은 교훈 안에서, 생명 안에서 모두 진리이다.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어둠과 빛을 구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므로 그들은 빛 가운데 걷는다(요일 1:5-7).

**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내라 하시니”
(11절).**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빛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갈 5:22-23). 이 열매는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조건의 결과이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의 결과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열매는 그리스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분의 종류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마치 땅 위의 씨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의 특징과 행동을 빚어내고 통제한다.

5.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빛이 있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4-15절).

만약 빛이 땅을 비추고자 한다면, 그 빛은 반드시 땅 위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땅 위로 일으켜졌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다.”(마 5:14).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믿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한다(마 5:16). 선한 일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백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유일한 빛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고를 받고 있다(엡 2:10; 딤후 3:8).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는 구원

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구원은 항상 선한 일을 산출한다.

6.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7절).

여기 창조주의 능력의 절정이 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땅이 “형태가 없고 공허”하게 되었음에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 그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있다. — 새 창조 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다(고후 5:17; 갈 6:15; 골 3:10).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야말로 “형태도 없고 공허한” 사람들을 취하시고 그들을 (구속과 거듭남과 부활에 속한 그분의 위대한 역사들로) 그분의 귀한 아들의 똑같은 복사본으로 만드신다.

7.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도록 하셨다(29-31절).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엡 1:3).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 이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언젠가 하나님은 그분께서 그분의 귀한 아들의 발아래 만유를 두신 것처럼 우리의 발아래 모든 것을 두실 것이다(히 2:6-9; 롬 16:20). 그 때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의 조화에서 벗어나 있다. 만일 당신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분께로 와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와서 창세기 2:1-3에서 묘사된 믿음의 축복된 안식 안으로 들어와라.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마치신 것처럼 당신의 일을 멈추고, 당신의 유일하고 모든 총만이신 구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 안에 쉬어라.

20. 사람의 창조

창세기 1:26-28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

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았다. 원죄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비통함과 사망의 근원이다(전 7:20, 29).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며 의롭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죄와 영적 사망에 빠지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든 인류의 머리로서, 그가 살았던 환경과, 우리 인류가 영적 사망에 빠지게 하고 영원한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 대상으로 만든 끔찍한 죄와 범죄를 저지른 우리 조상 아담 속에 있는 원래의 상태를 볼 것이다.

사람의 창조

창세기 1:26-28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는 성삼위의 세 인격 사이에 만들어진 합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옛새간의 창조에서 직접 행하신 최고의 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창 2:7).

여러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 앞서 창조하신 다른 인류가 있음을 가르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 왔다. 이 아담 전 인간 교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하여 왔다. 오늘날 대부분 공통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형태의 인종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행한다. 만일 그런 교리에 노출된다면, 이 오류가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어떤 주장도 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아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그를 “첫 사람 아담”으로 기술하고 있다(고전 15:45). 그 한 문장이 아담 전 인간 오류를 지지하도록 하는 모든 논쟁을 가라앉힐 수 있을 만하다.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이야기되고 기록된 모든 것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하게 계시된 것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이런 것들을 고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당신의 창조주를 경배하고 신뢰하며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사람의 근원에 대한 성경 내의 가르침들을 고찰한다면,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므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시 139:14), 우리도 하나님의 경이로움 안에서 있어야 한다.

사람이 창조되었던 원래 상태는, 몸과 혼과 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랐다⁶. 물을 필요도 없이, 그것은 아주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람이 지혜와 감정과 의지와 함께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 사람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땅 자체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물을 필요도 없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살아 있고 죽지 않는 불사의 혼을 받았다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사람의 몸이 직립하는 것은 그리스도, 곧 우리 하나님, 중보자 그리고 창조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논쟁이 주장되고 있지만, 그 사실이, 한계가 없기는 하지만, 사람의 몸이 똑바로 선 자세임을 분명하게 포함하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사람의 직립은 네발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몸을 갖고 계시지 않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분께서 물질적 몸을 소유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시간의 총만함 가운데 세상에 오실 성육신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몸도 염두에 두셨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⁶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 생명에 특별한 거룩함을 놓는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을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창 9:6).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John Gill은 사람 몸이 직립인 것으로 그것을 인지하였다. — “사람은 하늘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 안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명상하고, 심지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분을 경배하고 앙망하며, 받은 긍휼에 대하여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바라는 것들을 그분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맞추어져서 향해져 있다.” J. Gill은 계속하여 우리 몸의 직립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심을 갖도록 사람을 훈련한다. 실로, 어떤 커다란 괴로움 가운데이든지, 기대하지 않은 축복으로 특혜를 받았을 때나, 그리고 자신을 놀라게 하는 파도에 닥쳤을 때, 그것들이 좋은 나쁘든지, 그 얼굴을 위로 향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스어에 사람은, 위를 향하여 돌아서서 바라본다는 뜻에서, 'anthropos (인간)'이란 이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 되었다.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그 원래의 피조 때에는 의로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특징적으로 똑바르고 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피조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다.” (전 7:29). 아담은 모든 죄가 없음은 물론 모든 잘못과 악함과 성격의 잘못도 없었다. 그는 완벽했다. 그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성향이였다. 그의 애착심은 그 창

조주로 흘러내렸다. 그의 생각은 순수하였다. 그의 행동은 거룩하였다. 아담 안에는 죄가 없었고, 죄를 향하는 경향도 없었고, 죄로 기울어지지도 않았다. J. Gill은, “아담의 이 의는 천연적이었으며, 개인적이지도 않았고, 얻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써 얻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얻지 못하고 그렇게 잃어버렸다.”

아담은 또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되었다. 첫째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마지막 아담의 본과, 그림과 대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의 그림이었다(고전 15:45-47). 우리가 첫째 아담에 속한 행위, 죄의 행위와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담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으로 구원받았다(고전 15:21-22; 롬 5:12, 18-21).

사람의 대관식

시편 8:1-9를 읽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모든 다른 피조물을 능가하는 존엄성으로 높이 올렸는지를 보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창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걸작품이었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모든 피조물보다 높이셨다. 이것은 이 공과에서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보다 높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신 높은 존귀를 나타낼

몇 가지가 있다.

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에덴동산에 나무를 심으셨다(창 2:8). 누구도 에덴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지점이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 안에서 아담이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창 2:9-10). 생명나무, 곧 하나님의 낙원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본이고 그림이었다(잠 3:8; 계 2:7; 22:2). 그 나무는 아담이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열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사였으며, 그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적이었다. 따라서 심지어 그의 매일의 음식 가운데,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또한, 동산에는 네 물줄기가 있는 강이 있었으며, 그것으로 동산과 모든 땅이 물을 공급받았다. 이 강은 생명과 활력과 생기를 상징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전형과 대표였으며,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존하는 사랑, 이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물의 상징 아래 나타나고 있다(시 46:4; 요 7:37-39; 계 22:1).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교훈들은 이 강처럼 땅을 적시기 위하여 시온에서 나와 도처에 열매를 맺게 하며 전진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전능한 강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의 생수를 흘려 보낸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죄로부터 깨끗하여지기 위하여 열려있는 강물이며, 샘물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모든 땅을 지나며 죄인들에게 흐르는 순수한 생명수의 강이다. 그것은 네 개의 축복된 물줄기 혹은 지류가 있는 강이다. (1) 주권적 택함, (2) 효능 있는 구속, (3)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4) 영원한 생명 (롬 8:29-30).

아담은 동산을 가꾸고 지키기 위하여 동산에 놓였다(창 2:15). 그 곳은 일 가운데 수고나 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아담의 하나님 경배는 동산을 돌보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 한 낮의 서늘한 곳에서 주와 함께 거니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백하다 할 지라도, 사람은 일이 없지 않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일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사역하기 위하여 보내진 사역의 영들이었다. 아담에게 주어진 일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일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정원사였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분의 모든 창조를 위한 통치권을 주었다.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것 위의 왕으로 만들었으며 (창 1:28), 땅 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그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었다(창 1:29-30).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그가 이름을 짓도록 하였다

(창 2:19). 아담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음은 분명하다. 플라톤도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 주는 그 생각의 뛰어남으로 압도되었을 정도였으며, 그는 분명 사람 이상의 존재였음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을 만드셨다(창 2:21-25). 아담이 첫 번째로 지음 받았고, 그리고 하와가 지어졌다.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관계의 대등한 동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였으며, 남편과 아내였고, 하나님과 서로를 위한 사랑 가운데 함께 사는 존재였다. 그들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그림이다. 아담이 하와의 피조를 위한 깊은 잠이 들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생명을 위하여 죽음을 당했다.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해졌던 것처럼, 교회는 둘째 아담의 상처 난 옆구리로부터 탄생한다.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와가 아담을 위하여 피조되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하와가 만유 중에서 아담에게 순종해야 했듯이, 교회는 만유 가운데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야 한다. 아담이 하와를 위하여 만유 가운데 책임이 있었듯이, 만유 가운데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책임진다. 아담이 하와를 향한 그의 사랑으로 때문에 그가 기꺼이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기꺼이 죄를 썼으며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으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으셨다. 아담은 그의 불복종으로 하와를 사망과 정죄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순종으로 그분의 교회를 생명과 축복받음 속으로 인도하

셨다.

사람과의 언약

창세기 2:16-17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계시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계명은 언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6:7에서 아담의 죄는 그분의 언약 범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은 역사의 언약이었다. 그것은 생명의 약속과 사망의 위협으로 제재되는 언약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유일한 것은 완전하고 인격적이며 끊임없는 순종이었다. 언약은 곧 아담에 의해서 깨어졌다. 이 언약 안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었고 연합된 머리였으며 대표자였다. 아담이 오실 분에 대한 예표와 그림이었음은 이런 의미에서이다(롬 5:12-14).

이 언약을 범함은 하나님께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만약 네가 그것을 먹으면 이 아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담의 죄와 타락은 둘째 사람, 하늘로부터 오신 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은혜의 새 언약의 예표였으며, 오시려는 방법을 만들었다(시 76:10). 이 언약의 파기, 곧 아담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전 인류의 죄와 부패와 사망으로 이끌었다.

사람의 부패

아담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범죄는 우리 인류의 파멸이었다. 성경은 그것이 원죄의 교훈으로 언급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가르친다. 그것은 말하자면, — 모든 남녀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인들이 되었으며, 죄인으로 태어나고, 완전하고 전체적인 부패의 상태 가운데 있으며 (시 51:5; 롬 5:12), 모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거짓을 말하며” (시39:3),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마음을 (렘 17:9) 갖고 있었다.

사람의 회심

첫째 아담의 타락은 마지막 아담의 순종을 위한 여지를 만들었다. 아담의 죄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아담으로 인한 우리의 파멸은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속과 부활과 회복의 여지를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 주 하나님은 타락한 둘을 찾으러 오셨다(창 3:9). 하나님 스스로 죄 있는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다(창 3:15). 그들을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희생물을 만드셨고 죄 없는 희생물의 가족으로 그들을 입히셨다(창 3:21).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나무 위에서 그분의 귀한 아들을 희생하신 것과 같다(사 53:10-11; 고후 5:21; 벰전 3:18).

21.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2:15-17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연합된 머리이며 대표자로서 우리 조상 아담과 언약, 아담이 어겼으며, 그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 빠뜨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 모두를 두게 하였던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이 창세기 2:15-17에서 말하는 것이다.

사람과의 언약

하나님은 율법으로 모든 이성적 피조물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적 세상 통치”로 흔히 가리키는 것이다. 주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그 율법은 어떤 자는 복종하고 다른 자는 어겼다. 그들의 첫 번째 유업을 지켰던 천사들은 순종하는 상태에 영원토록 확증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유업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과 고통 속으로 빠

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또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은 언약의 형태로 그에게 주어졌으며, 만일 그것이 불순종된다면 사망과 파멸과 고통의 경고가 있을 것과 그것에 순종한다면 생명에 속한 암시된 약속이 함께 하는 언약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이 언약에서 아담은 신성한 약속으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 6:7)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창 2:15-17) 언약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은 역사의 약속이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의 순종을 시험하고자 주어졌다. 아담이 이 신성한 율법에 부합하는 한, 그의 의로운 주인이며 왕이신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순종함과 믿음을 보였다.

이것은 생명의 약속과 사망의 경고로 입증된 언약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유일한 것은 완전하고 인격적이며 끊임없는 순종이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의 순종은 그에게 결백의 지속적 생명을 보장하였을 것이다. 그런 언급을 함에 있어서, 본문 중에 분명하게 계시되었다기 보다는 어떤 것이 암시적으로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 암시는 분명하다. — 아담이 그 율법을 어기지만 않았다면, 그는 계속하여 살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명에 그가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이

라는 것을 그것으로부터 추정할 수는 없다. 명성 있는 많은 설교자와 신학자가 만일 아담이 어떤 지정된 기간 동안 이 언약의 항목들에 순종하였다면, 그는 그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성경에 언급되지도 암시되지도 않았다. 아담이 얻었을 생명은 그 땅 위에서 피조물로 죄 없이 천연적 생명을 가졌을 그 생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도 아니었을 것이다. 아담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결코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다섯 가지 이유들이 여기 있다.

1. 영원한 생명은 이보다 훨씬 전에 그리스도와 맺은 은혜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약속된 것이었다(엡 1:3; 딤후 1:1; 딤후 1:2; 요일 5:10).
2. 영원한 생명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의 가치와 미덕으로 인하여, 그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대가 없는 은사이다(요 10:10, 28; 17:3; 롬 6:23).
3. 만일 영원한 생명이 아담의 순종으로 인하여 얻어질 수 있었다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아닌 행위로서 얻어졌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존하는 영광 안에서 구원의 완성보다 더 낮거나 나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이 도처에서 선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게만

속한 역사와 은사이다(롬 6:23; 엡 2:8-9).

4. 생명과 불멸은 아담이나, 아브라함, 혹은 모세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빛 비춤으로 온다(딤후 1:9-10).
5. 결백하고 죄가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지라도, 사람의 가장 선한 행위들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는 아무런 비례관계가 없다.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다른 처벌은 사망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문장을 다시 좀더 낮게 번역된 것을 제안하였는데, “네가 먹는 날에는, 죽어 갈 것이며, 너는 분명 죽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아담에게 경고되었으며 그 죄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시행되었던 사망은 삼중 사망이다.

1. **육체적 사망** — 육체적 신체적 사망은 몸으로부터 혼이 분리되고 재는 재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창 3:19).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그는 영원함에서 떠나게 되었다. 타락과 사망 씨들이 그의 안에 심겨졌다. 그는 아프고, 병들고, 고통 받게 되었으며, 그것은 사망의 전조이다. 그가 지를 짓자마자, 사람은 죽기 시작했다. “죄의 샅은 사망이니,” 육체적 사망이다.
2. **영적 사망** — 영적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분리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소멸된 것이며,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패하고 더럽혀지는 것이며, 감정적 기능과 영적 무기력함과 거룩하고 선하며 모든 영적인 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범죄와 죄들 가운데 태어나고 죽으며, 하나님께 거슬러 적이 되는 상태에 있게 된다(엡 2:1-3; 롬 8:6-7). “죄의 값은 사망이니,” 영적 사망이다.

3. **영원한 사망** —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과 선한 것으로부터 혼과 몸이 분리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빛과 생명과 자유와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된 사람이다. 영원한 사망은 영원한 흑암이며, 영원한 파멸이고, 영원한 경악이다. 영원한 사망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원한 지옥이다! 그것은 소멸이 아닌 고통이다. 그것은 존재의 그침이나 의식의 그침이 아니라 축복받음과 평강에서 그쳐지는 것이다.

아담은 언약을 범했다. 그가 창조되었던 그 결백한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들은 바 없다. 그러나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부모가 되기 전에 죄인들이었다.

이 언약 안에서, 아담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지목된 대속물이었고, 연합된 머리였으며, 대표자였다. 그는 오실 분의 전형과 비유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다(롬 5:14).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 언약은 하와와 맺은 것이 아니었으며, 하와는 그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 아담이 언약의 머리이고 심지어 하와를 대표하였다. 마치 그가 언약의 머리였고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과 같다. 이것은 그 자체로 소망의 표시였다. 만일 우리가 대표자로 인하여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대표자로 인하여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롬 5:17-19).

이 언약을 깨뜨린 것이 하나님께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통제나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만약 네가 먹는다면 이 아니라,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다. 아담의 죄와 타락은 둘째 사람, 하늘로부터 오신 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 은혜의 새 언약을 가진 분의 전형이며 오실 방법을 만들었다(시 76-10). 여전히,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 아담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모든 인류를 죄와 부패와 사망으로 인도하였다.

사람의 부패

모든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인들이 되었고 죄인들로 태어났으며, 완전히 타락하였다. 모든 사람의 자녀는 아담의 죄와 타락 이후로, 모태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거짓을 말하며 타락한다. 예외가 없다. 에스겔 16장에 묘사된 낙태된 영아와 같이,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 사망하였고, 우리 자신의 피로 오염되었으며, 버려졌고, 전혀 속수무책이다. 예언자의 이상 가운데의 뼈처럼,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 오래 전에 죽음 당한 군대와 같다. 그 죽음 당한 자들 중 아무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다시 살아 돌아 올 수 없다. 무덤 속의 나사로처럼, 모든 인간은 본질에 있어 영적으로 사망한 것이다.

사람의 회심

첫째 아담의 타락은 마지막 아담의 순종을 위한 여지를 만들었다. 아담의 죄는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아담에 의한 우리의 파멸은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과 부활과 회복을 위한 여지를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죄책감으로 그들의 양심에 찔렸다. 그리고 그들은 타락한 사람의 종교, 곧 행위와 자기의 종교이며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종교를 시작하였다. 그런 종교는 죄인에게 결코 실질적인 평강을 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비록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주님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숨긴 것이었다. 만일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면, 그들은 은혜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함께 구원 받아야 한다.

앞서의 공과에서 보았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 주님

이 그 타락한 쌍을 찾아 오셨다(창 3:9). 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지는 돌에게 복음을 전하셨다(창 3:15). 그들을 동산에서 내쫓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희생물을 잡으셨고 그 순결한 희생물의 가족을 그들에게 입히셨다(창 3:21).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나무 위에서 희생물로 삼으셨던 것과 똑같다(고후 5:21; 갈 2:13).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었다.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가?”라며 의아하게 여길지 모르겠다.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그 남자의 아내를 여자(Woman)라고 부른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3:20에서, 모든 것을 듣고 관찰한 후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말함, 아담은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그녀가 모든 산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담은 그가 비록 육신으로는 죽어야 했지만, 아들과 딸들을 갖기 위하여 살았을 것이고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는 대속물 사람의 생명과 사망을 통하여 그들의 죄들을 사함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와로부터 낳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살게 될 것임을 믿었다. 그것이 하와가 가인이 태어났을 때 기뻐하며 외치기를, “내가 주로 부터 남자(대표자!)를 얻었다!”고 한 이유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그 사람, 즉 그로

인하여 뱀의 머리가 짓밟혀졌으며, 그 피로 인하여 죄인들이 용서받고, 모든 믿는 자가 그분의 의로 옷 입는다. 따라서 어떤 것의 바로 그 시작은, 비록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고 구원하는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림과 약속과 증거를 갖는다(요일 5:9-13, 20).

22.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

로마서 5:12-21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서신을 쓰면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 곧 사람 (아담)을 대표하는 첫째 사람과 둘째 대표자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 오신 주”) 사이에 아주 교훈적인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로마서 5장의 절반 이후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해하여야 할 다섯 가지를 계시하고 있다.

1. 죄와 사망은, 한 대표 사람,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고 모든 인류 위에 전해졌다(12절).
2. 그의 불순종의 행위와 사망의 죄 안에서 그는 우리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되었으며, 그분은 이 세상에 선택 받은 족속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시도록 명령 받으신 분이다(14절).
3.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는,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되고, 죽었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대신한 사람의 행위와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생명과 구원을 보장받는다(14, 17-19절).
4. 주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지혜와 선하심과 은혜 가운데 아담의 불복종으로 세상 안으로 죄가 들어가는 것을 명하시고 허락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영광과 이름을 확대하시게 되며 죄가 넘

쳐나는 바로 그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셨다(16, 20절).

5.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 안에서 완전하게 충족되었다(21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 우리를 대신하여 그에게 하신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으로 데려다 놓여진 후 곧 깨졌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죄 없고, 도덕적이었으며 의로운 상태로 창조되었으나, 의도적인 불복종과 죄의 행위로 인하여 아담은 의와 생명의 높은 상태에서 죄와 사망의 상태로 하락하였다. 우리 모두(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락하였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기에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주고자 한다. 질문들은 간단하다. 그 답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며 성경 안에서 계시된 심오한 것들이다.

누가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 모두가, 첫째 남자와 첫째 여자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는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하였다(딤후 2:13-14). 하와는 범죄에 있어서 첫 번째였다(창 3:1-6). 그녀는 늙은 뱀인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속았다. 마귀는 그녀가 금지된 열

매를 먹도록 종용하였다. 그러나 죄와 사망이 세상으로 들어오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죄와 사망으로 빠져들게 한 범죄와 죄는 아담에 의해서였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와와 맺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아담과 맺어졌다. 하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축소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녀는 인류에 대한 언약의 머리나 대표가 아니었다. 그녀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대항하여 열매를 먹었을 때, 그의 눈이 크게 열렸으며, 즉시 인류는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 하에 영적 어둠과 사망으로 떨어졌다(창 3:6-7).

아담이 우리의 연합적인 머리이고 대표이었던 것과 아주 마찬가지로 하와의 연합적 머리이며 대표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배하셨으므로 전 인류가 한 사람의 대표자의 복종과 불복종에 의해서 바로서거나 타락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분의 모든 택하신 자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한 사람, 하나님-사람,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다(고전 15:21-22).

그의 죄의 행위에 가운데,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 되

었으며, 그의 영적 사망 가운데,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지명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형상이 되었다. 이것은 단지 신학적 논리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담은 “오실 분의 형상”이었다(롬 5:14).

아담의 범죄는 주 하나님을 대항한 반역의 끔찍하고 대역적인 행위였다. 그는 하와의 죄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정확히 알았다. 따라서 그녀는 죽어야만 하였다. 아담은 그래서 그의 눈을 크게 열어 그의 창조주를 대항하여 격렬하게 하와의 손에서 열매를 낚아채었으며 의도적으로 그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으로 뛰어들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그림이 되는가?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였다. 하와를 향한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녀와 영원히 헤어지는 것보다, 아담은 그녀 자체가 되기를 선택하였고, 그녀와 함께 죄인이 되기를 선택하였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크나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과 영원히 헤어지기보다도 우리 가운데 한 분이 되기를 선택하였으며,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기를 선택하였다. 아담이 그 금지된 열매를 취했을 때, 그는 그 결과가 전능한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 아래 그 자신의 사

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와를 향한 그의 사랑 때문에 그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였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커다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기를 선택하셨고, 죄가 되기로 결정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 또한 고통 받아야 하며 우리의 대속물로 저주받은 것으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그것을 택하였다.

그러나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는 두 가지 커다란 격차가 있다. (1.) 아담이 하와를 위하여 죄와 사망을 선택하였을 때, 그것은 지극히 커다란 가능성의 반역과 불복의 행위였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을 선택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극히 커다란 가능성의 사랑과 복종이었다. (2.) 아담의 불복종은 파멸과 심판과 사망을 가져왔다. 그리스도의 복종은 의와 생명과 구원을 가져왔다.

따라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더 넘쳤고, 죄가 사망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은혜가 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영원 전부터 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이 정확하게 실현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완전한 사람이 그런 범
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그것은 타당하고 정직하고 논리적인 질문이다. 아담의 죄와 타

락에 대하여 숙고할 때 여러 번 그것을 질문하였다. 어떻게 사람이 그토록 지혜롭고, 그토록 많은 지식이 있고, 그토록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하나님의 바로 그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 이렇게 극렬하고 대역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도록 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런 선포를 해야 하는 것조차도 혐오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경멸하는 자들이 만유 가운데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사실을 경멸하며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는 것으로 우리를 잘못 비난하고 있다. 그 어느 것도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는 없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도록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비통해 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극도로 슬퍼하셨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실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선포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담의 죄와 타락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문제를 주의 깊고 냉정하게 고찰해 보면, 하나님의 성격과 성경의 일반적인 문장들에 익숙한 사람이면 누구나 분명한 것들을 쉽사리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행하기를 좋아하던 죄와 타락을 쉽게 금지하실 수도 있었다.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라반과 에서가 야곱을 해치는 것을 막았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그분은 아담이 동산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쉽게 막으실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분의 뜻이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이었다면, 야곱을 파괴하려는 사탄을 막았던 하나님은 마귀에게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두라고 간단히 명령을 하실 수 있었다.

의심할 바 없이, “그 분 자신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와 타락을 미리 아시고 미리 명하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머뭇거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조정하셨던지 그렇지 않은지 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을 갖고 계셨거나 다른 존재가 그들의 방법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든지,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든지 이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한다(사 14:24, 26; 46:9-10; 렘 3:27; 롬 8:28; 11:36).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거나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 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고 타락으로부터 옮기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통과 사망은 세상의 기초를 세우기 전에 명령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행 2:23; 4:28; 벘전 2:20). 만일 우리가 옮겨진 것이 미리 명하여진 것이라면, 우리가 그로부터 옮겨진 타락도 그와 마찬가지로 미리 명해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부인될 수 없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것을 허락하셨다거나, 아무런 제재 없이 그것이 실현되도록 고통 받게 한 다든지, 방관자로서 그분이 옆에 서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도록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지혜롭고 은혜롭게 그것을 계획하시고 뜻을 두심으로 그것을 허용하셨다.

John Gill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며 그 문제를 잘 기술하였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도록 허용하고 고통 받게 하였는데, 그 허용은 단순한 허용이나 묵인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 문제의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 허용은 그분의 뜻이 불변의 결과임을 따른다면 자발적이고, 지혜롭고, 거룩하며, 능력 있고, 효험이 있는 것이었다. 그분은 아담의 죄를 의도하셨고, 다른 관점에서 의도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서 의도하시지 않고 선과 큰 선을 위하여 지배하는 것으로서 의도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공의와 거룩함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셨다.”

사탄은 그 엄청난 교활함과 치밀함으로 아담을 파괴하기 위하여 그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기쁜 것을 사용하였다. 늪은 뱀은 하와를 유혹하였고, 그것은 하와가 아담의 함정이 되도록 꾸몄다. 아담은

반역하고 죄 짓는 것을 선택하였으며, 따라서 그는 반역하였고 죄를 지었다. 그것이 그 문제의 길고도 짧은 내용이다. 아담은 그 자신의 뜻에 완전히 동의하였고 어떤 힘도 그에게 작용하지 않은 채 죄를 지었다. 계획과 신중함과 결정으로 그는 금지된 열매를 취하였다. 아담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었던 것보다 더 큰 열망으로 굶주린 사람이 빵을 먹거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지는 않았다.

아담의 부도덕한 행동과 범법과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로마서 5장을 다시 읽어보라.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의 답이 12, 18, 19, 20 그리고 21절에서 주어진다.

1.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두는 우리를 대신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다(12절). 아담의 죄는 법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전가되었다. “모두가 죄를 지었다.” 아담의 죄로 가득하고 타락한 본성은 세대를 거쳐 자연스럽게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해졌다.
2. 사망과 사망 판결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사망하였다. 우리는 모두 육체적으로 죽고 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

3. 18-21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은, 그것이 사전에 예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를 통하여 표현되기 위한 방법이 되었다.

타락이 없었다면, 회복도 없었을 것이다. 파멸이 없었다면, 구속도 없었을 것이다. 죄가 없었다면, 구주도 없었을 것이다. 구주가 없었다면, 이런 찬송도 없었을 것이다.....

“피로 가득한 샘이 있네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흘렀네;
그리고 죄인들이 그 피 아래로 빠졌네
그들의 모든 죄의 얼룩이 사라졌네!”

“놀라운 은혜! 그 음성 얼마나 달콤한가!
나 같이 불쌍한 자를 구원하였네!
난 한 때 잃은 자였으나, 이제 찾았네,
눈먼 자였으나, 이제 보네!”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을 씻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께 왕 같은 제사장들로 만드셨던 그분께; 그분께 영광이 있으며 영원히 통치하시기를. 아멘. 당신은 그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시고, 그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십

니다; 당신이 살육되셨기에, 모든 혈족과 방언과 백성과 열방으로부터 당신의 피로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 하셨나이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과 그 결과를 생각할 때, 경배로 충만한 존귀로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 “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깊이어! 그분의 심판들과 과거를 아는 그분의 방법들은 그 얼마나 알 수 없는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가? 혹은 누가 그분의 조언자였는가? 혹은 누가 그분께 처음 드러졌으며, 그에게 다시 보상될 것인가? 그분께 속하고,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이 존재한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하리라. 아멘.”

23. 영적 사망

고린도전서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여기에 우리 조상 아담이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은 필수적이다. 이 말씀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이 간단

한 말씀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다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다. —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담에게 주셨을 때, 율법의 처벌은 사망이었다. 육체적 사망, 영적(도덕적)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 “죄의 삯은 사망이라!”(롬 6:23)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죽게 되었으며, 창조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육신의 그 영원성이 벗겨졌으며, 모든 아픔과 질병과 사망의 파멸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적, 도덕적 사망은 그의 존재를 그쳐버렸으며, 영적, 도덕적 파멸과 사망이 모든 사람과 세대와 세대를 이어 덮치게 되었다. —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리고 아담 안에서 지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람의 이해는 어두워졌다. 그의 마음과 양심은 더럽혀졌다. 우리는 과도한 애착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 의지는 천연적으로 악한 모든 것을 향하여 치우쳐 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천연적인 취향과 흥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의 모든 아들딸은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생명이 없으며 타락하였다. 천연적으로 모든 사람은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태어나고, 범 죄와 죄들 가운데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람의 잃어버린 상태를 서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이다. — “아담 안

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롬 5:12; 엡 2:1-3).

영적 사망의 상태와 조건 가운데 우리 모두는 죄인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진노 하에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진노의 자녀들”로 역시 태어났다.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에 의하여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정당한 대가이며 벌이다. 영원한 사망은 모든 불의함에 대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마지막 아담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불순종의 자녀들이 영원히 겪을 육체적 고통이다.

이 영원한 사망은 사악한 모든 자를 영원히 끊어버릴 두루마리가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스가랴가 그의 이상 가운데 보았던 저주이다(슌 5:1-3).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런 우주적인 저주로부터 구원되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고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의와 구속 모두로 우리에게 지어지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게 지어진다.

아담의 죄의 결과

영적 사망은 동산 가운데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한 아담의 죄의 결과이다. 그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 죄의 결과이다.

로마서 5장에서 성령은 분명한 네 마디의 말로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행하였던 것을 서술하고 있다(역주: 영문 성경 참조). 12절에서는 그것이 “죄(sin)”라고 불린다. 사실상 그리스어 본문에는 그것이 “그 죄(the sin)”라고 두 번 언급되고 있다. 그것이 “그 죄(the sin)”이라고 불리는 것은 첫 번째 죄였고 모든 죄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14절에서는 “범법(transgress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모든 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요일 3:14). 아담의 죄, 그리고 아담 안에서의 우리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자로서 행한 아담과 맺은 그 율법을 범한 것이었다(창 2:17). 로마서 5:19에서는 그것은 “불순종(disobedience)”라고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로마서 5:15-20에서 사도는 아담의 죄를 서술할 때 네 번이나 “범죄(offens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가 거룩한 주 하나님께 대하여 혐오스럽게 범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 “범죄(offense)”는 타락에 대한 생각을 가져온다.

그 점이 왜 아담의 죄가 “타락(The Fall)”로서 언급되는 이유이다. 그것은 아담과 전 인류가 그로 대표되어 존귀와 도덕과 의와 생명과 기쁨의 상태에서 치욕과 죄와 불의와 사망과 고통의 상태로 하락하게 한 범죄였으며, 또 타락이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도록 금지된 열매를

먹은 단순한 행위로써 나타났지만, 죄에 속한 그의 행위는 대부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복잡하다. 아담이 유혹을 거부할 만큼의 충분한 능력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빛과 지식에 대항하여 죄를 지었다. 아담의 죄는 그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극도의 배은망덕이었다. 그것은 극도로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불신의 행위였으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자존심의 행위였으며, 신성에 대하여, 또 하나님과 동등함에 대한 허세와 가식과 단정지음의 행위였다. 그것은, 그로 인하여 아담은 전적인 무시와 사려 깊지 못함과, 혹은 하나님께 대한 애착심이나 관심을 갖는 생각조차도, 그의 창조나 혹은 어떤 인류의 창조라도 그 혼을 위탁 받았기에, 전대미문의 이기적 행위였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주춤하고 있지만, 그 사실은 존재하며, 죄의 모든 행위들은 그 속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죄의 모든 행위는 의도적인 불신과 용납할 수 없는 자존심과 끔찍한 이기주의적 행위이다.

아담의 죄는 죄의 모든 방면을 포함하였다. 그의 한 번의 범죄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에 대한 전체적이며 완전한 위반이었다. 야고보서 2:10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서로 얽혀있어서 “한 가지를 범하면 모든 것에 대하여 유죄가 된다.” 예전의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담은 일순간에 율법의 두 판을 모두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다.”고 말하였다.

반역과 죄와 불순종에 의한 아담의 한 차례의 행위는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었다(출 20:1-17). 그가 마귀를 따랐을 때 다른 하나님을 선택하였다. 그는 자신의 배를 우상화하였고 경배하였다. 그는 그의 배(그의 정욕)를 그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취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안식과 땅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을 위반하고 파기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는 하늘에 계셨던 그의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다. 따라서 그의 날들은 주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땅에서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는,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살육 가운데 그 자신과 그의 모든 후대를 살해 하였다. 그는 영적 간음과 음행을 하였다. 그는 다른 신들 뒤에서 포주 역할을 하였다. 아간처럼, 그는 하나님이 금하였던 것을 흠쳤다. 그의 도적질은 모든 이스라엘과 전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 그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증언을 품었다. 그는 그의 매우 탐하였고 그의 탐심은 그의 생명을 대가로 치렀으며, 그의 전 가족에게 사망을 안겨다 주었다.

그것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며, 바울이 말한 “아담 안에서 모두 죽는” 이 사망, 이 영적 사망이다.

완전한 타락

영적 사망은 전적으로 영적, 도덕적 타락이며, 인간 본성의 오염

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이 타락한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오직 매우 간결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권능으로 생명과 회개와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타락하기 이전보다 더 높고 더 귀한 위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것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타락한 직후,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으며, 은혜롭게 그를 부르셨고, 그와 선택받은 모든 죄인이 모든 죄로부터 회복시키실 구주, 곧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다. 이것들이 타락 후 매우 속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죄의 결과로 영적 사망 가운데 체험하였던 모든 해악과 비탄과 광란에 대하여 듣지 않았다. 그러나 타락의 어떤 슬픈 영향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여기에 아담이 지은 죄의 슬픈 일곱 가지 결과인 인류의 영적 사망에 포함된 일곱 가지 내용이 있다.

1. 타락

아담 자신과 우리에게 대한 그의 타락의 첫 번째 슬픈 결과는 전 인류의 심각한 타락과 부패이다. 그가 죄를 짓자마자, 의롭게 지어진 사람은 불의하게 되었고, 불의와 사악함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 따라서 사도는 우리에게,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라고 말한다(롬 3:10). 이 천연적인 타락은 벌거벗은

것으로 나타났다(창 3:7).

이것은 육체적인 벌거벗음 그 이상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에 육체적으로 벌거벗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혼의 벌거벗음,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다가왔던 벌거벗음이다. 혼의 벌거벗음은 우리가 의롭지 않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은 것이 부족한 것이다. 그들의 몸이 벌거벗은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유죄임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아담이 즉각적으로 그의 손을 사용하여 그의 벌거벗은 것을 덮으려 시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와 여자가 천연적으로 심각하게 스스로 의롭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상 속의 의를 벗겨내고 그의 벌거벗은 타락을 드러내시기 전까지, 모든 죄인은 그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 John Gill은, “그것은 사람에게 죄로 총만하게 된 것처럼 스스로 의롭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다.”라고 썼다. 하지만, 그 자신의 행위로서 의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무화과 잎사귀보다 더 심각하지 않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시야로부터 덮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으로부터 우리가 은신할 수 있는 곳은 없고,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며, 영적 사망에 포함된 첫 번째 것은 타

락이다.

2. 죄책감

영적 사망의 두 번째 방면은 죄책감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속이게 만든 것은 양심의 죄책감이었다. 죄책감은 죄의 광범위한 결과이다. 죄책감은 사회가 강요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다. 죄책감은 죄인들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부과하는 것이다. 죄책감의 결과는 치욕이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숨기게 한다. 때로는, 죄책감이 모두 용납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참회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각한 무모함으로 몰고 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양심을 갖기보다 더 나을지라도 깊이 새겨져서 다시는 죄를 비난하지도 정죄하지도 않는다. 그 양심이 심각하게 새겨진 그 죄인은 그가 사는 동안에 조차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는다.

3. 공포

세 번째 영적 사망 안에 포함된 것은, 죄의 세 번째 결과는 공포, 즉 노예근성의 공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천연적으로 심판에 속한 의로운 분노를 찾는 두려움이 심지어 죄인들의 가장 뻔뻔스러움 가운데 있다. 아담은 하나님께,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고 제 자신을 숨겼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숨겼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로

부터 도망갈 길은 없다. 어둠과 빛은 그에게 동일하다. 전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을 피하여 나무 그늘 뒤로 숨으려 했던 아담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려는 것과 똑 같다(아모스 9:2-3). 심판이 올 때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할 것이다. 그들의 자기의의 무화과 잎이 닳아 없어질 때, 그들은 바위나 산 속으로 숨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 심각한 생명과 빛의 허무함이 사람을 타락시켜서 위대한 백색의 보좌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본성을 바꿀 길이 없다(마 7:22-23; 계6:15-17).

4. 무지

부패, 죄책감, 그리고 공포는 영적 사망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영적 사망의 또 다른 특징은 무지, 곧 영적 무지이다. 천연적인 사람은 어떤 영적인 것도 이해할 수 없다(요 3:3; 롬 3:11; 고전 2:14). 천연적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나,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든지, 은혜의 성령을 알거나 알 수 없다. 천연적인 사람은, 얼마나 종교적이고 잘 훈련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결코 볼 수도,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도 없다(요 3:3-7).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포악한 짐승들보다 더 무지하다. 사람은 그의 배역 안에서 천연적으로 야생 나귀와 같지만, 더욱더 무지하다. 나귀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구유는 안다. 사람은 천연적으로 사악의 들을 힘써 일구는 황소와 같지만, 그러나 다시 말하면 더욱

무지하다. 황소라 할지라도 그 주인을 안다. 들새들도 그들이 오고 갈 때를 안다. 그러나 주 하나님, 혹은 은혜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말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처럼, 사람도 심판과 지옥을 향하여 죄 가운데 달려간다(욘 11:12; 사 1:3; 렘 8:6-7).

5. 유배

다섯 번째로 영적 사망에 포함된 것은 유배,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유배, 선한 것으로부터의 유배, 생명으로부터의 유배이다(창 3:24). 이 유배는, John Gill이 제시한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함,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소원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으로부터 소원함이며, 사람을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한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께로 데려오기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인하여 멀리 떨어졌던 그들을 하나님께 가깝게 만들었다.”

6. 정죄

영적 사망은 정죄를 포함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들이 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타락한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정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주와 정죄함을 받고 있는데, 예외 없이 저주를 받고 있다. 따라서 그의 모든 존재와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고 있

다. 사악한 자의 쟁기질이라 할지라도 주께는 혐오스러운 것이다(창 3:16-19; 신 25:15-18).

7. 무능력

이 모든 것, 부패, 죄책감, 공포, 무지, 유배, 그리고 정죄에 더하여 무능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사람의 영적 사망과 전체적인 타락은 그를 완전하고 전체적인 무력과 무능의 상태와 상황으로 그를 옮겨 놓았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의지도 능력도 없다.

타락한 인류에게는 혼의 모든 힘과 능력의 일반적인 부패와 타락이 있다. 몸의 모든 지체는 불의의 도구로 기꺼이 내어준다. 우리 모두 안에는 죄로 충만한 모든 것을 향하는 성향과 경향이 있으며, 육체와 그것을 충족하는 것을 향한 정욕에 대한 과도한 갈망이 있다. 우리 모두는 천연적으로 우리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한다.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보다 죄악으로 충만한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연적으로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최상의 쾌락으로 추구한다.

거기에는 또한 선한 모든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심각한 반감이 있다. 우리 모두는 선한 것을 싫어하며 악한 것을 사랑한다. 실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에 대항하는 대적이다.

더욱이, 무기력하여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인간은 힘도 없고, 힘을 잃을 상태가 되어, 영적으로 선한 것을 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은 거만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자신 스스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으며,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

죄는 전체 인류를 죄, 사탄 그리고 세상에 대한 노예의 상태로 몰아버렸다. 이것이 소위 천연적인 타락과 부패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아담의 첫번째 죄의 결과이다. 이것은 모든 영적 병과 육신의 질병들을 쏟아내는 소위 “판도라의 상자”이다. 모든 재앙과 고통과 손해와 재난들은 세상에 있고, 있어 왔으며, 죄의 결과인 것이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

영적 사망의 상태와 상황으로부터 구원되고 옮겨지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이다. —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고전 15:22). 죄와 사망이 첫 번째로 대표되는 자, 아담의 행위와 죽음에 의하여 왔기 때문에, 인류의 두 번째와 마지막 대리인인 두 번째 아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죽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시 69:1-4).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없이, 주권적

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온다(고전 1:30-31; 골2:9-10). 여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선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을 용납하셨으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까지, 구원받게 되었다!

24. 완전한 타락

시편 14:1-3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킹제임스 역에서 “.....하였도다(there is)”가 이탤릭체로 되어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은 그 말이 독자들이 좀더 부드럽게 읽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경우, 첨가된 말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가 되고 있다. 본문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도다.”라고 하는 것보다 간단히,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닙니다, 하나님.” 혹은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이라고 해야 한다.

만일 다윗이 말했다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했을 것이며, 그것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의 바울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것일 것이다. 거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불신론자에게는 그런 것이 결코 없다고 하고 있다. 무신론자가 되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많은 자가 있다. 그러나 불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면서, 모든 사람은 그들이 결코 탈출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태어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윗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 혹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이라고 기록할 때, 그는 어떤 사람들이 진짜로 불신론자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천연적으로 어리석은 반역자들이며, 지속적으로 그들의 주먹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흔들며 말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시편 14:1-3을 다시 읽어보라. 다윗이 시편을 시작하는 말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상황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어리석은 자

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였습니다. 선하게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었는지 보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도덕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 구절에서, 성령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천연적으로 모든 인류의 특징과 상태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모든 인류에 대한 일곱 가지 사실들이 있다.

1. 모든 인류는, 천연적으로, 배역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며, 그들의 배역으로 어리석은데, 사람들의 배역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고, 가증스러우며, 그리고 부도덕하다.
3.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항한 아담의 한 번의 배역과 반역의 행동으로 타락하였으며, 가증스럽고 부도덕하게 되었다.
4. 우리 모두는 한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등을 돌렸다. —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등을 돌렸다.

-
5. 아담의 죄와 아담 안에서 우리 죄 때문에, 전 인류는 영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게 되었다. —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
 6. 그 자신에게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진실로 주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도 없다.”
 7. 그리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

성경 가르침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사람은 천연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고, 구제불능이고, 소멸 될 피조물이라고 말씀한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있으며, 이 가르침과 관련한 잘못에 대하여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뿐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킨다. 인간의 의견이나, 이성, 논리, 교회 전통, 역사적 경전, 고백, 교리문답 혹은 교파적 역사와 전통 위에 우리의 교리를 세우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위에 세운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천명되었기 때문에 믿는다. 성경은 모든 인류

가 완전히 타락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고 극명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런 권위에도 상소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기를 원한다.

- **창세기 6:5** —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욥기 15:16** —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 **시편 51:5** —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 **시편 58:3** —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 **이사야 1:4-6** —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곪은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 **이사야서 53:6** —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예레미야서 13:23** —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대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 **예레미야서 17:9** —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 **마태복음 15:19-20** —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
- **로마서 2:9-12** —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예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 **로마서 3:23** —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로마서 5:12** —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 **고린도전서 2:14** —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

-
- **에베소서 2:1-3** —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 **요한복음 3:19** —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들 성경의 열 다섯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 인류의 완전한 타락에 대한 수 많은 선포 가운데 아주 극소수일 뿐이다. 그 구절들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음을 선포한다. 이 본문 말씀의 선포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다. 완전한 타락에 대한 가르침에 대항하여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다. —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완전히 타락하였고,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마음이 부패하였으며, 하나님

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 아래 정죄 받았고, 그 저주를 없앨 능력도 없으며, 그들의 상황을 바꿀 수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 사실상, 우리가 보겠지만, 사람의 타락은 너무도 철저하고 완전해서 율법의 저주를 없애거나 그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수도 없으며, 그 자신을 거의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없다!

인간의 완전한 타락에 대한 가르침을 천명하는데 있어서 아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사람의 심각한 타락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며, 그 어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다.

타락한 피조물

사람은 천연적으로 타락한 피조물이다(전 7:29). 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현재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매우 거리가 있었다.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한 의로움 가운데 창조하셨다. 그는 원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죄를 향한 하락이나 배경이 없었다.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 가운데 완벽하게 무죄한 환경에 두셨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담은 모든 인류의 연합된 머리와 대표자였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오직 두 가지 사람-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고전 15:22, 45-49)-으로 취급하셨다. 주께서 아담을 동산에

두셨을 때, 아담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천연적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워지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의로운 순종이 그의 모든 자손에게 확증되고 전가되었을 것이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면, 그의 죄는 그의 모든 자손에게 전가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으며, 그분의 언약을 깬고, 그 자신과 전 인류를 영적 사망과 죄와 영원한 정죄 속으로 빠뜨렸다(창 2:15-17; 롬 5:12-19). 그것은 앞서의 마지막 세 공과에서 보았다. 사람은 천연적으로 타락한 피조물이다. —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악을 향한 성향을 지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심각하게 싫어하며 악을 향한 결정적 성향을 타고 태어난다고 말씀한다(막 7:21-23; 롬 8:7). 죄는 사회적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배우거나 가르침 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할 것이 아니다. 죄는 우리 인류의 타고난 가족 질병이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한다. 우리 마음이 악을 향한 경향들은 많은 것으로 인하여

보호되고, 제한되며, 억제된다. 그러나 악의 씨는 천연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다. 모든 사람은 나이, 행동, 혹은 사회적 입지에 관계없이 마음 속이 혐오스럽고, 구역질 나며, 부패하여 있다. 이것은 어떤 이성적인 사람에게든지 분명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사람이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했던 것을 읽고 심지어 사람의 타락에 대한 사실에 의문을 던지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있겠는가? 매일 매일의 신문은 사람이 타락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세상의 모든 신문은 사람은 마음 속이 악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일 선포하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의 분명한 증거를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발견한다. 어떤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기적으로 되거나 불순종하는 것을 가르쳤나? 모든 사람의 양심은 그의 타락을 증언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는 남자나 여자가 어디 있는가? 모든 진실한 믿는 자는 그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괴로워하며 상기하고 있다. 믿는 자들은,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기꺼이 그리고 고통스럽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 속이 악하다. 이 세상은 사람이 그 자신의 어떠함, 즉 죄로 가득하고, 타락하였으며, 혐오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다.

철저히 가련함

우리는 타락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련하다. 아무도 그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갈 2:16). Loraine Boettner는 이렇게 쓰고 있다. “완전히 무능력한 이 교리는, 사람이 죄 안에서 죽었다고 선포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쁘다거나,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는 만큼 나쁘다거나, 누구도 미덕이 완전히 결핍되었다든지, 인간 본성은 그 자체 안에서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죄의 저주 아래에 거하고 있으며, 잘못된 신념들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거나 구원을 가치 있게 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행위로써 구원받기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속물과 만족함을 원하시나 우리는 그것을 드릴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신념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하는 가장 최선의 것은 죄로 인하여 훼손되는 것이다. 우리의 최선의 행위를 하는 가운데 조차도, 죄로 충만한 마음의 신념에 따라서 동기를 부여 받고 인도되므로, 사악한 자의 바로 그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례한 행위이며, 우리의 바로 그 의로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이다. 우리의 거룩한 것들 조차도 악으로 가득하다(잠 21:4; 사 64:6; 출

28:38).

믿음의 능력이 없음

성경의 분명한 선포에 따르면, 아무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오기 위한 의지나 능력을 가진 자는 없다(요 5:40; 6:44). 이것은 가까이 있는 시급한 문제이다. 현대 종교는, 대부분의 경우, 원죄와 완전한 타락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은 천연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와서 구원을 받을 능력을 갖고 있다거나, 그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리스도를 믿을 능력이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 가르침들로 그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 위에 안식하기 위한 구원을 만든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단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의 피를 효험 있게 만들고,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운행을 조절 할 것이며, 인간의 자유의지는 누가 천국을 채울지도 결정한다.

성경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죄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기력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고 싶어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 5:40),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라고 하신다(요 6:44). 그분께서는 또한 만일 아버지께서 사람을 이끄시면, 그 사람은 그분께로 갈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고 하신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께 나아옴”의 의미는 단순히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C.H. Spurgeon은, “우리의 자기 의와 죄들을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아가고, 우리를 덮는 그분의 의와 우리의 속죄물이 된 그분의 피를 받는 데서 혼의 그러한 행동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께 오는 것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쉬운 일이라고 듣고 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아버지께서 효험 있으며 거절 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람을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리스도께로 오기란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천연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력하며, 완전히 힘이 없다. 실로,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 사망하였다. 사람의 무능력은 그 어떤 육체적인 결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무능력은 정신적 능력의 부족이 아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믿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만으로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살인을 도덕적으로 유죄임을 보듯이 생각은 죄에 대한 도덕적 유죄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람의 무능력은 그 본성 속에 깊숙이 자

리잡고 있다. 늑대는 가축으로 길러지거나 총직한 애완동물로 길들여질 수 없다. 사랑스러운 어머니는 자신의 젖먹이 아기를 칼로 찔러 죽일 수 없다. 그 어머니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는데, 그녀의 본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자신을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는 자는 없는데, 인간 의지의 완고함 때문이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인 의지 경배자는, “누구든지 뜻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친다. 그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에 천연적으로 기꺼이 순종하여 낮아지는 것을 전에 본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그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하신다. 사람의 의지는 너무도 절망적으로 악에 자리잡고 있고, 철저히 타락하였으며, 너무도 악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선한 것에 마음이 내키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있고 불가사의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부르심이 없이는 사람은 누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결코, 그 자신을 따라서 그리스도께 올 수 없는데, 사람의 이해는 어둡기 때문이다(요 3:3). 그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넘쳐나는 악을 볼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엄격한 의를 볼 수 없다. 그는 택정함의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하심에 속한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에 속한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의 증보에 속한 영광을 볼 수 없다.

아무도 결코, 그 자신을 따라서 그리스도께 올 수 없는데, 그의 애정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증오해야 할 것을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것을 증오한다. “사람은 빛 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다.”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도로 그리스도께 올 수 없는데, 그의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양심은 그런 저런 것이 잘 못 되었다고 말해 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 못 되었는지 양심은 모른다. 사람의 의지의 빛 비춤 없는 양심은 당연히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자신을 증오해야 할 것이며, 그가 완벽한 의를 가져야 하는 것이나, 그가 완전한 속죄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올 수도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도 올 수 없다.” 사람은 천연적으로 사망했으며, 영적으로 사망하였다. 분명히, 만일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어찌되었든지 아무런 영적 힘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성령만이 나에게 그리스도께 나올 의지를 주시는 게 사실이라면, 나오기 위한 능력이 나의 것이라면, 그러면 분명하게 나는 내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나눌 권리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은 죄에 대하여 유죄이며, 그리스도 믿기를 죄로 총만하여 거절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남게 되며 영원한 저주가 바로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공과를 그렇게 슬프고 우울한 그림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 여러분 앞에 내놓은 것은 끔찍하게 캄캄한 장면이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다. 우리의 행위들은 악하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게 정죄 받는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그런 피조물을 위한 소망의 밝은 빛이 있다.

한 소망

우리 같이 타락하고, 유죄이며, 부패하였고, 가련하고, 비열한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이다. 만일 구원이 당신이나 나에 대한 어떤 평가에 좌우된다면, 모든 소망은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주권적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비록 타락하고 가련한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고 말씀 하신다(롬 9:15-16).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은혜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한 종족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거듭나게 하려고 그분의 영을 보내시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효험을 갖고 그리스도께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선택 받고, 죄로부터 구속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의로움 가운데로 데려오시며,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마치셨음을 입증(확신)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깨어난 죄인들을 그분의 압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며, 말씀하신다.....

나의 눈물이 영원히 흐를 것이니,
나의 열심이 피로할 줄 모르니,
모든 것이 죄를 속죄할 수 없으니,
너는 구원 받을리니 그리고 너 만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로 나온 그 어떤 죄인도 자유로이 올 수 있다. 신실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는 모두 그들이 나올 것을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가장 기쁘게 깨닫는다.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품안으로 들어오기를 강요당한 우리는 매우 기쁘게 깨닫고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의 모든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

과거의 나의 모든 것은, 내 죄, 나의 유죄,
나의 사망이 나의 모든 것:
지금 나의 모든 것, 당신께 진 빛이니,
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뿐이네.

내 이전 상태의 악함은
나의 것이었네, 오직 나의 것:
지금 기쁨 가운데 선한 것은
당신의 것이네, 오직 당신 것이네.

내 이전 상태의 흑암은
속박이었네 — 모두 나의 것:
내가 걸어간 생명의 빛은,
그 자유함은 당신의 것이라네.

내 죄를 느끼게 한 그 은혜
나로 믿게 가르쳤네:
그리고, 믿는 가운데, 평강을 찾았네,

그리고 이제 난 사네, 난 사네!

내 존재 모든 것, 이 땅에서조차도,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은,
예수께서 오시면, 영광의 새벽이네,
나는 빛진 자, 주여, 당신께!

이런 것들에 속한 빛 가운데, 모든 믿는 자는 선포하기를 기뻐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다.....우리 위애가 아니라, 오 주여, 우리 위애가 아니라, 다만 당신의 이름 위에 영광을 드립니다.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진리의 유익을 위하여.” 아멘.

25. 선택하심

데살로니가전서 1:4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는 자신 있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택정함을 입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라고 말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택정하셨다는 것의 흔적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택정하심의 축복되고 영광스러우며 복음에 속한 가르침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기쁜 가르침들 중 하나이다. 믿는 이들은 그 안에서 기뻐한다. 이 공과에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성경이 택정함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성경은 택정함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사람들 사이에 너무도 많은 불필요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서론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 세 가지 실질적인 것을 언급할 것이다.

1. 택정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것이 아니다.

이 가르침이 귀하고, 기쁘며, 중요하지만, 배워야 할 첫 번째 가르침은 아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전한다. 나는 가는 곳마다 이것을 전한다. 유아들을 시작으로 주일학교 수업시간에 이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사랑을 선포함에 있어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택정하심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이 우리 임무는 아니다. 걱정함을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 역시 지옥에 갈 수 있다. 우리의 임무는 죄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옆드리는 그 어떤 죄인도 걱정함의 가르침에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자리잡고 있을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중 한 사람인가?”가 아니다. 누구나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것을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가?” “나는 믿는 자인가?” 그것이 첫째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 공과에서 보여 줄 것이지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한다면, 또 만일 당신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죄책감 있고 파산한 죄인이기에, 당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그분 안에서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택정 받았음의 증거이다. 배워야 할 첫 번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다. 믿음이 마음 속에서 발견되는 곳에, 걱정함은 믿어지게 되고 사랑 받게 된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정하심은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결코 모순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할 바를 말하라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고 아멘이다. 어떻게 택정함이 사실이며 죄인들에 대한 복음의 약속들 또한 사실인지 알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 가운데 죄인들과 만들어졌음을 들어라.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로 와서, 무엇을 행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면 이 약속들은 당신의 것이다!

- **마태복음 11:28-30**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 **마가복음 16:16** —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 **요한복음 3:36** —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 **요한복음 6:38** —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
- **요한복음 7:37-38** —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 **사도행전 16:31** —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 **로마서 10:8-13** —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 **계시록 22:16-17** —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3. 주권적 택정하심의 은혜에 속한 이 복음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어느 정도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에 복종하여야 하는 당신의 책무를 없애거나 파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다, 어느 곳에서든지 회개하라 (행 17:30). 우리의 책무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책임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해 질 책임이 이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죄들을 위한 완전한 대속물을 만들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제공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의와 유일한 구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갇혀 있다.

택정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선택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은혜로운 계획이라는 것을 그로 인하여 그들의 구원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보증되고 보장되었다는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고자 한다.

성경은 택정함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해결되어야 할 바로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이 택정함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믿는 자는 거기에 머리 숙여야 하고, 믿어야 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것을 믿을 선택권이 없으며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 그것에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가 그것에 머리를 숙이는가에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믿든지, 누가 그것을 가르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하고 파기해야 한다.

나는 오직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질문이다 — 성경은 택정함을 가르치는가? 이 가르침이 구약의 모든 지면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이 가르침을 보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아 시대에 이 땅에는 듣지 못한 수백만이 있었다. 그러나 노아만 주님의 눈 안에 은혜롭게 발견되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를 지나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다른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지나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셨고, 그분의 예언자들을 (지극히 드문 예외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내셨으며, 이스라엘에게만 그분의 예배를 세우셨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택정함에 관하여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 몇 가지를 간단히 읽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택정하다, 택정 받다, 택정하심, 선택 받다, 정함 받다와 같은 직접적인 말들이 사용된 곳의 성경 구절들만 선택하였다. 택정함의 가르침이 단지, 필요에 따라, 적용된 그 많은 본문을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이 본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분명하게 천명되어 있다!

- **마태복음 24:24** —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 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 **마태복음 24:31** —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 **마가복음 13:20** —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셨느니라.”
- **요한복음 13:18** —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 **요한복음 15:16** —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 **사도행전 13:48** —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 **로마서 8:33** —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 **로마서 11:5** —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 **로마서 11:7** —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 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 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 **에베소서 1:4** —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

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 **데살로니가전서 5:9**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 **데살로니가후서 2:13** —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 **디모데후서 2:10** — “그러므로 내가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 **디도서 1:1** —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 **베드로전서 1:2** —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 **베드로전서 2:9** —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 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 **베드로전서 5:13** — “너희와 함께 선택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뜻하신 자들을 지나치시기도 하는 한편, 그분이 뜻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보이심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고 의로우신가를 설명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사실상, 믿지 않는 자들의 트집잡기 식의 반대 같은 것에 대답하시기 보다,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일들을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런 방법으로 행하신다고 하고 있다.

- **로마서 9:11-23** —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에 그분께서 그 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

은 기록된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퍽하게 할 자를 친히 강퍽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

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대 무슨 말을 하리요?”

물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책은 택정함에 대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도 그 사실에 의문을 던질 수조차 없다. 성경이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무지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이다. 어떤 경우이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시도도 갖지 않는다. 성경이 이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고도 또 틀림 없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택정함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미 읽은 것들을 마음 속에 지켜라. 여기 택정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들 열한 가지가 있다.

1. 택정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
2. 택정함은 “구원에 이른다.”
 3. 택정함은 하나님의 정결하고, 절대적이며, 주권적인 행위이다.
 4. 택정함은 영원 가운데 일어났다.
 5. 택정함의 원천과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6. 하나님의 택정함은 무상으로 조건 없는 은혜의 행위였다.
 7. 택정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한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선택이다.
 8. 택정함은 되돌릴 수 없다.
 9. 택정함은 효험이 있다.
 10. 택정함은 구별되는 것이다(사 43: 1-4).
 11. 택정함은 모든 축복받음의 원인이기 때문에 축복이다(시 65:4; 엡 1:3-6; 고전 4:7).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돌아가서, 다른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겠다.

누가 택정된 자들인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어린양의 생명책을 열고 읽을 수 없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도 누가 택정된 자들인지 그들이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 받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을 증명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부름과 택정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기록하면서, 영감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택정된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은혜의 다섯 가지 특징적인 표식으로 귀함을 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만일 내가 그 택정된 자들 가운데 하나라면, 이 표식들은 나에게 있다. 누가 하나님의 택정된 자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보라. 여기엔 어떤 추측의 역사도 없다.

1.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은 전파된 복음을 들은 자들이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파된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택정된 자들은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다(살전 1:5).
2.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선택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와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며, 왕이신 예수의 자원하는 종들이 되었다. (살전 1:3, 6).

-
3.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다. (살전 1:8).
 4.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회개와 변화를 체험한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돌아선다(살전 1:9).
 5.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다(살전 1:10).

26. 양자됨

요한1서 3: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한다. 사랑은 그분의 거룩한 존재, 곧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이실 수 없는 속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행하신 일에 의하여 계시되며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안다. 사랑은 역동적이다. 사랑은 결코 휴면상태로 있지 않다. 사랑은 불처럼 일어난다. 사랑은 억제될

수 없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이 체험될 때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형용할 수 없는 이 여섯 가지 행하심으로 계시되고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첫 번째 행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었다(신 7:7-8). 택정하심은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기쁜 가르침이다. 만일 사랑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구원은 없었을 것이다(엡 1:4, 살 후 2:13).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알지도 사랑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요 15:16; 요일 4:19).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번째 행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속이었다(롬 5:8; 요일 3:16; 4:9-10).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요 15:13).

이는 하나님 같은 동정이었고,
우리 구주께서 그것을 아셨을 때 -
용서의 대가는 그분의 피였으며,
자신의 사랑을 결코 빼앗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본성을 맡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맡으셨고, 우리의 죄 있음을 맡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시므로 그분 자신을 나를 위하여 주셨다!”(요 3:16).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인한 세 번째 행하심은 그분의 효험 있는 구원의 은혜이다(렘 31:3). 삼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들은,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자 선택했다.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려 선택했던 자들은, 아들이 구속했다. 그리고 아들이 구속한 자들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믿음에 이르는 그분의 압도하는 은혜로 효험 있게 부르실 것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시 65:4).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운 상태 가운데 그분의 택한 자들을 절대적으로 보존하시는 가운데 네 번째로 계시된다(요 10:28; 롬 8:39).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은혜로운 상태에서부터 타락하여, 지옥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소멸되고 고통 받는 것을 상상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개념은 터무니 없는 것 이상이며, 심각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고, 시작도 없으며, 조건도 없고, 변하지도 않으며, 끝도 없다. 그것은 대가가 없다. 그것은 차별이 없다. 그것은 불멸하다. 그것은 영원하다.

다섯째로,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우리 구주의 부드럽고, 섭리의 보살핌에서 나타난다(요 11:35-36).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는 진정으로 우리의 결점을 느끼심으로 느껴진다. 우리는 진정 그분께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나 택하심과 구속과 효능 있는 부르심과 보존하심과 섭리적인 보살핌을 뛰어넘는 한 사랑의 행하심이 있다. 그런 것들의 위대하고 경이로운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우리를 입양하심이다(요 일 3:1-3). 출생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실패하고 타락하였으며, 영적으로 사망한 아담의 자손이다(롬 5:12).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악하며, 죄로 충만하고, 속이며, 사악한 자의 자녀인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요 8:44). 천연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 진노의 자녀들이다(엡 1:3). 은혜로 인하여,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아들들이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네;
영원한 목표로,
주권적 은혜를 여기 받았네!
죄를 행함으로, 모든 자는 타락한 자,

그 공은 영원한 고통이네;
하지만 시작도 없는, 당신의 사랑은,
다시 당신의 아들들을 회복하셨네.
멈춰라, 나의 혼아, 기뻐하며 경이로워 하네!
문기를, '아, 왜 저에게 그런 사랑을 주십니까?'
은혜로 나를 그 가운데 두셨네
구주의 가족 가운데!”

택하심은 은혜의 위대한 샘이다. 구속은 은혜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다. 그리고 입양은 은혜의 가장 큰 특권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가족 안으로 양자 삼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양자 삼으신 것에 대하여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분 자신의 대가 없는 사랑과 주권적인 뜻 외에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엡 1:4-5). 양자 삼음은 시간 가운데 체험되고 알게 된다. 그러나 영원 가운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받아들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로 양자 삼아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 그분의 영을 주셨

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갈 4:1-7). 하나님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 사이에 있는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이다(고전 4:7). 그리고 이 차이는 영원 가운데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능력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종교적 전통의 왜곡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 질문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사람은 천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되기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어떤 설교자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어떤 교회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 능력이 없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나 우리의 의지를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 수 없다(롬 9:16). 천연적인 가족에서 은혜의 가족으로 죄인을 변환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렘 3:19) 하나님의 능력이다(요 1:12-13). 양자 삼음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역사로만 된다. 아담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능력과 은혜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셔야 한다든지, 혹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하셔야 한다고 제의하거나 암시하거나

상상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로우시고 주권적 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심으로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그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양자 삼으심 가운데 있는 그분의 은혜로운 방법을 드러내셨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 1:12-13).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양자 삼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해 주고 있다.

1. 첫째, 주 하나님은 은혜로운 생명을 사람의 혼 안으로 넣으셨다 (13절). 이 은혜로운 역사, 새로 태어남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은혜로운 양자 삼으심은 사람의 입양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들에게 그분의 이름과 본성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선물은 모두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이다. 은혜는 단지 사람의 가족 혈통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족벌 세습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의 “혈통”을 통하여 전해지지 않는다. 은혜는 아무리 진실되고, 정직하며, 열심일지라도 친구들이나 친척들의 의지, 곧 “육체의 의지”로 죄인들에게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 자신의 의지로 그들에게 오지도 않고,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온다.” 은혜와 구원, 양자 삼음에 있어서 모든 축복과 특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미리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 선택된 죄인들에게 온다.

2. 하나님께서 혼 안으로 생명을 떨어 넣어 놓자마자, 거듭난 죄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 그분의 이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려면, 그분을 주(주인)로, 구속주로, 그리고 구원자로 영접하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의로움과 성화와 구속을 위하여 나의 의로 충만한 주권자로서 그분께 머리 숙여야 하고 그분을 신뢰하여야 한다.
3. 죄인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리와 능력과 권위와 특권을 주신다. 이 아들 명분의 능력과 권위와 권리는 성령으로 믿는 죄인들 위에 부여되는 아들 명분의 보장이다. 그리스도만을 구주와 주로써 믿는 그 사람은 그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안다. 양자 삼음은 믿음에 주어지며 믿음은 양자 삼음의 증거이다(히 11:1).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 받고 잘못 전해

지는가?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 난 자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오해 받고 잘못 전해진다. 당신의 교리, 당신이 그리스도께 헌신함, 그분을 섬기고 귀하게 여기려는 당신의 갈망들은 단순한 속세인들에게는 모두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 오해의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양자 삼음의 축복된 특권은 무엇인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은혜의 가장 위대한 특권은 양자 삼음이다. 이제,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우리의 비할 데 없는 축복받음이다.

1.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보장된 유익이 있다(요 17:23-26).
2.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있다(롬 8:14-16; 갈 4:6).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셨고 그리스도 우리 주에 의하여 우리 위에 유언으로 증여되고 주어졌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하늘에 속한 유업을 맹세함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위로하고자 보내 지셨다.

-
3.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의 훈육 안으로 들어왔다(히 12:5-1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회초리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강화시키며 정케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은혜롭게 젖을 떼게 하심으로 은혜로운 축복이다.
 4.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롬 8:29).
 5.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 됨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와의 공동상속자가 되게 한다(롬 8:16-17). 우리의 유산은 은혜의 유산이고, 정결함의 유산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가 없는 은혜이다. 우리는 그것에 미리 정해졌다(엡 1:11).
 6.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사셨으며 주장하셨다(엡 1:14; 히 6:20).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가치가 있게 하였다(골 3:12). 양자 삼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다(계 7:16-17).

27. 구속에 관한 다섯 가지 구약의 그림들

히브리서 10:1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구속, 곧 죄를 위한 대속물과 의에 대한 만족과 죄의 범죄함과 능력과 지배와 결과들로부터 효과적으로 옮겨지는 것을 포함한 구속이다. 그런 구속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분 혼자만 하실 수 있으며, 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 혼자만 구속을 행하셨다(사 63:5).

구속의 가르침(역주- 교리)를 생각할 때, 모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시대에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가르침을 사람들은 더 속히 공격한다. 그들은 더욱 더 격렬하게 그 어떤 다른 가르침보다 그리스도의 죄값의 피에 대한 영광스러운 효험을 부인한다. Cowper (역주: William Cowper: 1731-1800, 영국 시인 및 서간문의 명인. The Task(1785))의 작품을 노래하는 많은 사람은.....

“죽어가는 귀한 어린 양, 당신의 보혈
그 능력 결코 잃지 않으리,
속량 받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
구원 받아 이제는 죄짓지 않네,”

그리스도의 피 안에 실질적은 구원의 능력과 효험이 없다는 절

대적 교조주의를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지옥에 있다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1에는, 성령이 구약 성경 안에 주어진 율법은 앞으로 올 선한 것들에 대한 그림자를 지녔다고 선포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은, 구약 안에서 율법의 본과 그림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에 대한 많은 그림과 예언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많은 “다가올 좋은 일들” 가운데 아무것도 구속보다 더 뛰어나고 축복된 것은 없다.

Henry Maha 형제가 하는 말을 종종 들었다. “구약 성경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간단히 말해서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는 절대적으로 옳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들은 하나의 죄라도 없앨 수 없다. 그러나 율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우리의 구속에 대한 많은 교훈적인 그림과 본과 그림자를 갖고 있다.

구속을 위하여 사용된 세 마디

영어 단어에, “구속: redemption”은 “다시 사다: to buy again”라는 뜻의 라틴어로부터 유래한다. “구속: redemption”이라는 말의 의미를 붙잡으려 한다면, 몇 개의 그리스어 단어들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는 세 단어가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을 가리키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1. **AGORADZO** — agoradzo의 기본적인 뜻은 “사다: to buy”이다. 믿는 자들인 당신이나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 가운데로부터 (계 5:9), 세상으로부터, 하락한 아담의 자손들로부터 (계 14:3-4),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하여 (행 20:28) 하나님께 사들여졌다. “Agoradzo”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당신이 만일 집을 산다면, 하나의 재산으로 그것의 소유권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그 집으로 이사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단순히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2. **EKAGORADZO** — 이것은 합성어이다. “Ek”의 의미는 “.....으로부터: out of”를 의미하며, “agoradzo”는 “샀다: bought”의 의미이다. “Ekagoradzo”는 “.....으로부터 샀다: bought out of”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킨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의를 범한 손으로부터 샀다(갈 3:13; 4:5). 이것은 전당포에서 어떤 물건을 되사거나, 야채를 사거나, 차를 사거나, 어떤 다른 물건이 한 사람의 소유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로 매매되거나 이전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공의를 범

한 자들의 손이나 거룩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지불된 값, 곧 그의 보혈의 대가로 구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3. **LUTROO** — “Lutroo”는 “자유롭게 하다: to set free,” 혹은 “풀어주다: to loose”를 뜻한다. 이것은 노예를 해방하거나, 속박과 체포로부터 죄수를 몸 값을 지불하여 풀어주는 것을 언급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은이나 금 혹은 일반적인 보석금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았다고 말한다(벰전 1:18). 우리 주 예수는 많은 자를 위한 속전으로 그분의 생명을 지불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한다(마 20:28).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마음 속에 갖고 있어야 한다. “Agoradzo” — 사다; “ekagoradzo” —으로부터 사다; 그리고 “lutroo” — 속전으로 구해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들을 아담의 타락한 아들들 가운데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범한 손아귀로부터 돼 샀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였다. 그것이 구속이 무엇인가 이다. 그 보다 부족한 것은 구속이 아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그려진 구속의 역사이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속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한 것은 이집트의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노예 상태에서부터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에 대한 매우 특별하고 주목할 만한 본이다(시 106:6-12). 이스라엘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행한 죄의 행위로 인하여 이집트에 노예로 보내졌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자, 모세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해방 선지자의 손으로 구속 받았다(행 7:35). 구속의 대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다(출 12:13). 그들의 구속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었으며,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로 인한 거듭남과 변화의 그림이었다(출 14:13-14; 15:1-2, 16). 이것은 피의 구속이었으며, 특별한 사람들의 구속이었고, 효험 있는 구속이었다.

이스라엘이 지불한 속전

출애굽기 30:11-16은 속전에 의한 구속을 기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를 세는 것과 그들이 지불하여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였던 속전은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속전의 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에는 아무도 속전이 지불되지 않았다. 특별히 계수된 백성들의 몸 값이 지불되었다. 속전의 금액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였다. 속전이 지불된 자들은 어떤 전염병으로부터 보존되었다(잠 12:21; 시 91:10).

동족의 구속자

엄청난 가난과 그의 가장 가까운 인척 가운데 한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이 팔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 돼 사온 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의 선하고 아름다운 또 다른 그림이다(레 25:47-49).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대가를 치를 수 없다. 어떤 친구도 우리의 대가를 치르기는 불가능하며, 그럴 권한도 없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대가를 치를 가까운 인척이 계시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히 7:25). 룯의 인척인 구속자 보아즈처럼,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까운 인척이다. 그분은 우리의 빛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 그분은 우리의 속전을 치르시고자 그분의 목숨을 기꺼이 내려 놓았다!

감옥으로부터 채무자를 해방함

고대에는 빛을 진 사람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야만 하였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그의 빛이 모두 지불 될 때까지 노예 상태로 남아있어야만 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이다(사 49:8-10; 61:1-3; 몬 1:18). 우리의 죄들은 빚들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결코 지불 할 수 없는 빚이다. 우리 모두는 따라서 자연적으로 채무자의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채무를 변상하셨고 우리를 풀어주셨다!

John Gill은, “그 분의 백성의 부채를 지불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지불 하셨으며, 모든 기록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불리한 기록을 지우셨다. 선포된 결과대로, 복음 가운데,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그들에게 감옥을 열어준 것이다. 효험 있는 부르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죄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가라.”시며, 그들을 위하여 감옥 문을 열어 주셨다. 그리고, 감옥의 어두운 유치장 안, 어둠 가운데 앉아 있던 그들을 향하여, “너희 자신을 보여라.”고 하셨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지불하신 구속의 대가 덕분으로 이루어졌다.”

노예의 속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노예들을 택하여 밤 중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들은 오직 노예로서 노동을 해야 할 때나, 그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몸 값이 지불된 경우에만 그들의 구덩이에서 꺼내졌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 값을 지불하셨고 노예와 타락의 구덩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욘 33:24; 슥 9:11).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죄와 사탄의 노예들이다. 우리의 옛 주인, 마귀는 우리를 흑암과 한 밤중의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러 오실 때까지 가두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그리고 흑암과 파멸과 죄의 구덩이로부터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능력으로 옮기셨다. 우리의 혼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그분이 지불한 값은 그분 자신의 보혈이었다.

세 가지 공과

이 다섯 가지 구속의 그림들, 영감의 붓으로 우리를 그린 그림은 구속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1. 죄인들은 구속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 안에서 설명된 바처럼 죄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해낼 수 없는 속박과 노예와 정죄의 구덩이이다(시 130:1; 69:1-2).
2.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이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벌로부터, 거듭남 가운데 죄의 지배로부터, 이런 몸의 사망 가운데 죄의 존재로부터, 그리고 부활 영광 가운데 죄로 인한 모든 악한 결과로부터 해방됨이다.
3. 구속은 도움 없고, 독자적이고, 효험 있는 그리스도 혼자만의 역사이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은 항상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효험 있는 구속을 말한다. 그것은 결코, 단 한번일지라도 실패한 노력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28. 효험 있는 속죄

이사야서 53:10-12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라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뭉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갈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모든 부도덕함으로부터 구속하셨는가, 아니면 단지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게 만드셨나? 그분이 실제로 백성들의 죄들을 없애 버리셨는가, 아니면 단지 사람들의 죄들을 없애 버릴 수 있도록 만드셨나? 하나님의 어린양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가,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게 만드셨나? 그분은 그 백성을 실제로 의롭게 하셨는가,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셨나? 그분은 그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의 구원을 효험 있게 보증하셨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구원될 가능성이 있

게 만드시기만 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되심이 실제로 그분의 피 뿌림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속죄가 되셨는가, 아니면 다만 그것을 시도하셨는가?

이사야서 53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과 그 결과들에 대한 진실하고 신성한 계시로 된 예언적인 서술이다. 계시의 예언자는, “그분은 만족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였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대속물이시며, 우리의 위대한 속죄 제물이며, 우리의 거룩한 구주이시며, 갈보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막힘의 가능성도 없이, 가장 확증적이며 전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만족하시며, “분명 만족하실 것이다!” 그분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든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보증으로서 그분께 제시된 구속의 조항들에 만족하셨다. 그분은 그분이 소유로 사들이신, 그분의 신부인 교회에 만족하신다. 그분은 의의 만족을 위하여 지불된 속전이신 그분 자신으로 만족하신다. 그분은 그분이 구속하신 자들인 우리에게 만족하신다. 물을 필요 없이, 이사야의 말은 여호와와의 의의 종, 우리 대속물이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완전하고 효험 있는 구속을 묘사한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패배할 수 없는 구주를 신뢰한다. 기록된 바, “그 분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좌절하거나, 그분의 계획이 패하거나 혹은 그분의 역

사가 좌절되실 수 없다. 그리스도는 갈보리에서 정복당하지 않았다. 그분이 정복하셨다. 그분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희생자로 죽지 않았다.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분으로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패배 당하지 않았다. “그 분은 그분의 혼의 수고를 보실 것이며 만족하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유대 종족의 사자는 분명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절대 보증할 수 있는 효험임을 만방에 선포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성취하신 그것, 그분께 지워진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효험 있는 속죄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광스럽고 절대적인 그리스도 속죄의 구원의 효험을 보여 주기 원한다.

우리 앞에 놓인 주관적인 문제는 가장 염려되는 문제이다. 사단의 모든 전달자를 특징짓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험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이다. 모든 틀린 예언자가 동의한 것에 있는 가르침의 한 가지 점은 이것이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죽기로 한 모든 혼이 구원 받았음을 부인한다.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항목들에 대하여 입에 발린 말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복음의 기초-대속물을 부인한다. 바알에 속한 근대 예언자들은 아무도 구속하지 않는 구속과 아무것도 속량하지 않는 속죄와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 구원을 전파한다. 그들은 그럴듯한 구속과 그럴듯한 속죄와 그럴듯한 은혜와 그럴듯한 구원을 전파한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그 자체에는 어느 누구의 구원도 보증하지 않는다고 듣고 있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의 결정으로, 사람의 훌륭한 자유의지의 행위로 효험 있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고 듣는다. 터무니 없다! 그런 가르침은 극단적인 궤환이며 이단이다! 우주적인 구속의 개념은 성경 안에 계시된 모든 것에 완전히 상반된다.

이 공과에서, 우리는 성경의 이 세 구절을 한 줄, 한 줄 각각의 구절을 봄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제한 할 것이다. 성경의 이 단락은, 계시로 가득한 전체 책과 조화를 이루어 낙심한 그리스도에 대하여가 아니라 만족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다. 그분은 구원에 있어서 공범이 아니라 구원의 성취자이다.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우리 구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죽임 당하셨다. 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모르셨지만,” 주 하나님은 죄를 위하여 죄인들 대신 그분을 쾌히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우리의 구속주는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손에 넘겨지셨다(행 2:23). 그리고 그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셨고 “행하기 전에 결정한” 것을 할 뿐이었다(행 4:27-28).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한 것이나 추가분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으신 것이었다(계 13:8). 믿음의 시각은 유대인들의 악의와 빌라도의 악함과 로마의 십자가 저편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원천과 하나님 자신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있다(롬 5:8; 요일 4:9-10).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과 뜻에 따라 죽으셨다(벧전 1:18-21; 행 13:28-29). 우리는 감히 범죄의 죄와 유죄를 하나님께 전가하지 않는다. 사악한 자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이 했던 것처럼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들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고 통제하셨으며 그분의 택한 자들을 향한 그분 자신의 은혜로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셨다. 단 하나의 행동이나 환경이나 고통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구주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은 성경의 근본 진리이다. 이것을 확고히 붙잡고 보라. —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예정의 책을 기록하셨다(계 5:1).

“하나님의 보좌 곁에 어떤 책이 있는데
사람들의 모든 운명과,
모든 천사의 모양과 크기가

영원한 빛으로 그려졌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명령과 능력을 벗어나지 못한다. 시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영원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된 것이었다. 참새를 먹이시고, 백합을 입히시며, 우리 머리털의 수를 헤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한 아들의 삶과 죽음과 관련해서 아무런 기회나 환경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당신은 확신할지 아닐지 모른다.

그리스도의 사망은 미리 예정하심의 바로 그 핵심이다. 그것은 중심이며 원천이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분의 다른 계획을 따라 세우셨다. 그것은 기초이며 그 위에 하나님의 명령의 구조가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살육된 어린 양”이셨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었다. 죄인이 있기 오래 전에, 하나님은 구주를 제공하셨다. 양이 흠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으셨다. 첫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도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전이셨다. 우리가 더럽혀지기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씻는 샘이셨다. 죄의 빛에 종속되기 오래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을 청산하기 위한 우리의 보증으로 서 계셨다. 율법에 의해 우리가 저주 받기도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도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도록 세상에 보내졌다(렘 31:3; 요 3:16; 13:1; 요일 3:16; 4:9-10).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가 되기 위하여 보내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주셨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 죄들의 희생이 되기 위하여 처녀의 태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성을 만드셨다(히 10:5).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시간의 총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분의 품으로부터 기꺼이 우리 모두에게 내어 주셨다. “이 안에 사랑이 있다!” 분노한 사사는,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든 것을 제외하면, 반대로 그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을 배신자들과 반란자들을 그 자신의 거룩한 아들, 그가 너무도 사랑하였던 아들을 취해서 우리 혼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하려고 아들을 포기 하였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강제로 대속물이 되지 않았다. 영광의 주께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스스로 내려 놓으셨다.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곧 상함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상하도록 하신 주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보증이 되셨고, 기꺼이 종이 되셨으며, 자발적을 구주가 되셨으며, 기꺼이 대속물이 되셨고,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셨다(시 40:6-7; 잠 8:23-31; 사 50:5-7; 요 10:17; 히 10:5-14; 12:2).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사망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아버지 자신의 손으로 그분 위에 가해졌다. 시편 22편에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에 고통당하며 참으셨던 끔찍한 고통에 대하여 본다. 그 비통함은 그것이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진노 가운데로 보냈다는 사실과 그분의 지극히 높은 순종에 따른 것이기에 가중되었다!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오, 하나님은 얼마나 주님을 상하게 하셨는지요!

우리 구원자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다. 그분의 죽음은 자연적인 이유가 될 수 없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한 형벌의 대속물로서 돌아가셨다. 형벌의 대속물로서, 그분은 살육의 피해자로서, 또 희생으로서 죽어야만 했다. 임마누엘께서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런 죽음을 당하였고 몸과 혼이 고통을 당했다. 그분은 잔혹하게 맞았고 야만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은 그분의 친구들에게 버림 받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다. 그분은 죄가 있는 것으로 되었으며,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서 버림 받으셨다. 왜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받

으셨는가? 왜냐하면 구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면 공의가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과 구주”가 모두 되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사 45:20).

우리의 구속주는 끔찍할 정도로 경멸스럽고 부끄럽게 죽임을 당하셨다. 그분은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시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 그분은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일반범죄자로 살육 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치욕스러운 상태에서 돌아가셨으며,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저주받은 자처럼 저주의 나무에 못 박히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특히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나니.”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께서는 천천히 지속되는 죽음을 맞으셨다. 다른 자들은 점차 그들이 고통을 받은 만큼 약해졌다. 그분은 마지막 까지 생명으로 충만하였다. 다른 자들에게는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쓸개즙과 몰약이 주어졌다. 그분에게는 그분의 아픔을 가속시키기 위하여 쓸개즙과 신 포도주가 주어졌다. 그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그분을 불쌍히 여기며 올려다 보는 동정 어린 사람 조차도 도움이 안 되었다.

그분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셨으며,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되도록 준비되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주님은 그를 고통 속에 두셨다!”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왜 영광의 주께서 이처럼 그런 사망을 견디셔야 했는가? 주 하나님은,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상하게 하셨고 그를 저주의 나무 위에서 슬픔 속에 두셨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죽으셨던 것처럼 죽었으며, 그분이 하셔야 했던 것처럼 죽으셔야 했기에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대속물이며 속건제물로 되셨을 것이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고, 부끄러우며, 멸시 받는 죽음을 죽으셨는가에 대한 네 가지 이유들이다.

1.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분의 죽음 안에 율법의 저주를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갈 3:13; 신 21:22-23).
2. 주 예수께서는 속건제물로서 구약의 본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다. 그 희생들은 항상 하나님 앞의 제단 위에 들어 올려졌다. 놋 뱀이 장대 위에 들어 올려졌다. 과연 그렇다, 하나님의 위대한 속건제물이며, 진정한 속건제물은 들어 올려져야만 했다(신 19:9; 요 3:13; 12:32).
3. 우리의 구주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관련한 구약의 예언들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저주의 나무 위에 달렸던 것처럼 죽으셨다(시

22:16-17; 속 12:10).

4.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속물로서, 하나님께서 의롭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의 의롭게 하는 자가 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셨다(롬 3:24-26; 시 85:10-11; 잠 16:7; 사 45:20).

하나님은 악한자의 죽음에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모든 세상이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 받는다면, 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한 번의 위대한 희생으로, 거룩한 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의 의는 완전히 만족되었다.

다음 문장으로 시작하여 그 장의 나머지를 나아가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분명하고 의로우며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주님의 죽음이 결과가 확실치 않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르메니아 주의자인 자유의자 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는 없다.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 신성 모독이다! 다음 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이 있고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도박이나,

투기가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이 곳에 오셔서 하실 모든 것을 효험 있게 성취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절대 보증할 수 있는 효험을 본다.

“그가 자기 씨를 보고”

그의 자손이 누구인지 추측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의 자손은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전체 몸인 세대이다(시 22:30). 그는 그들이, 그들 하나 하나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본다(요 12:24, 32).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그것이 단순히 의미하는 것은, 일단 그가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고 그 백성의 죄들을 없앴으며, 많은 사람 가운데 그가 위해서 죽은 모든 자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음을 거부할 수 없는 가능한 방법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사망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롬 4:25). 사망에서 일어남으로, 그의 구속 받은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되었다(요 17:2; 롬 14:9; 빌 2:8-11).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하리로다: shall”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는 것은 모두 살아났고, 높여졌고,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

도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모든 기뻐하심은 왕이신 예수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충만하게 성취될 것이다(계 10:1; 롬 8:28-31).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리라: shall”이라는 말이 다시 나온다. 두 번이나 이 문장에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불확실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은 만족하신 구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좌절한 조력자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만족에 대하여 말할 때, 이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만족하게 하신 그리스도와 만족하신 그리스도이다. 그분 자신의 속건제물로 인하여, 우리 구속주는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갈 3:13; 요일 1:9).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분의 속죄의 죽음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본과 그림자와 예언을 만족시키셨다.

복음 안에서 죄인들에게 제시된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는 죄책감이 있는 양심의 모든 요구와, 유죄판결을 받은 죄인의 모든 필요들과, 새롭게 된 마음의 모든 갈망을 만족하게 한다(히 9:12-14; 고전 1:30-31; 시 73:25-26; 빌 3:7-14).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

의 속량 받은 백성들로 만족하실 것이다. 우리의 구속주는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의 속죄의 역사로 인한 결과들에 만족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 모두가 구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실 것이며, 그들이 온전하게 구속될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실 것이다(엡 5:25-27; 사 62:5).

그는 그분의 일을 마쳤을 때 만족하셨다. 그는 그의 순종의 보상-그의 높임과 영광으로 만족하신다(빌 2:8-12).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현재의 위치와 역사에 만족하신다(요일 2:1-2).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손, 곧 구원 받은 그의 모든 자손, 완전하게 구원 받은 자손들을 볼 때 만족하실 것이며 (요 6:37-40), 그의 영으로 부름 받은 자손, 그분의 은혜로 변화된 자손, 그리고 마침내 그의 형상을 본받은 자손들을 볼 때 만족하신다. 심판의 날에 그는 그분의 모든 속량 받은 자에게, “축복받은 너희는 와서 세상의 기초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 큰 날에, 그분은 삼일 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 앞에 완전한 거룩과 흠이 없고 비난 받지 않을 속량 받은 모든 자를 제시하실 것이다(고전 15:24-28).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구주는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서 그의 백성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과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히 찬양되는 것에 만족하실 것이다(계 4:11-12; 5:9-14).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백성의 완전한 구원에 부족한 것으로 그리

스도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마 1:21).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완벽하고 완전히 본받지 않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빌 3:10).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모두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음 구절에서 선포한 것 때문에,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
극 그들의 불법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서 품으신 모든 많은 사악함은 의롭게 될 것이며 (다시 “하리로다: shall”이 나옴), 그들은 그의 지식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그분의 지식으로 의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번역을 고집하기를 좋아한다. 그리스도는 그가 사망의 공로를 아는 것과 그분이 대신하여 죽은 자들을 아는 것을 따라서 그분이 선택하신 자를 의롭게 할 것이다(요 10:14, 27-28).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
라.”**

여기 예언자가 영광스럽고, 절대 보증할 수 있는 우리 대속물로

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효험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종합한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높임과 영광에 대한 선언이 있다. —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한 것을 나누리라.” 여기에 그의 높임과 영광의 이유들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역사가 마쳐졌고 그분의 역사가 있었으며 완전한 성공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의 우편에 자리하고 계신다.

-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다!”
-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것은 그분께서 “단지 청원하는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제시하면서 그분의 피와 의로움과 희생으로 하신 것으로, 이것들의 가치를 주장하고 의로운 방법과 합법적 요구 안에서 영원한 언약 안에서 명시된 모든 축복과 그분과 아버지 사이에서 그분의 고통 받음과 사망의 결과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행하셨다.” — (John Gill)

우리 구주의 중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요한복음 17:9, 20-24에서 제시되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중보 하셨다. 그분은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하셨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하셨다. 그분은 오늘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하신다(요일 2:1-2; 롬 8:33-34; 히 7:24—25; 9:24). 그리고 우리 구속주의 중보는 효험이 있다. “그 분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29. 그리스도의 대가 없는 순종

이사야 50:5-7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사야서 53:10-12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우리대신에 죄가 되게 하셨을 때, 그 아들에게 하셨던 것 그것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사야 50:5-7은 우리 주께서 스스로 보증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사망에까지 이르

는 죽음에 대한 희생적 순종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처럼, 출애굽기 21:1-6에서 노예와 관련한 율법은 메시아와 예언의 율법이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의로운 종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묘사하였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은혜에 속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께서 우리 대속물로서 하나님께 대가 없이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한 여호와의 자발적인 종이 되었다. 이것이 이사야서 50:5-7에서 이사야가 기술한 것이다.

한 가지 의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나며, 놀랍고, 장엄한 사건이다. 지금이나, 과거에나, 혹은 앞으로 미래의 그 어떤 사건도 그것과 견줄 수 없다. 하지만, 그가 그 백성의 죄들을 품고, 우리처럼 죄가 있으며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대책 없는 죄인들을 위한 자발적 대속물로서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고통을 받고 계셨지만, 가장 경이롭고 형언할 수 없는 비탄을 표현하는 한분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지나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당한 슬픔 같은 슬픔이 있는지 보고 또 살펴보라. 주께서 친히 맹렬히 분노하신 날에 그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예레미야 애가 1:12)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을 때 그 입술에서 나

온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피 흘리는 어린양께서 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하여 하신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가 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자들은 누구인가?”

모든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의 귀한 아들의 죽음보다 더 경이롭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 구주께서 직접 선포하셨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요 10:17). 시은 좌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천국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비밀과 경이를 놀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종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구하며 영광스러워하고 전파하는 자들, 곧 신실한 복음의 전파자들은 구속의 경이로움과 구속주의 영광에 너무도 압도당하고 있다(사 6:1-6; 갈 6:14; 고전 2:2). 이 세상에서 구속 받은 죄인들은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아무 것에서도 기뻐하지 않고, 아무것에도 놀라워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뻐할 뿐이다(갈 2:20; 요일 3:16; 4:10). 영광 가운데 속량 받은 자들은 단지 보좌 한 가운데 계신 어린양의 죽음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계 5:9-12). 지옥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이롭고, 형언 할 수 없으며, 불가사의한 것으로 바라본다. 이것은 사탄 그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라고 확신한다.—그리

스도께서 그를 이겼으며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주를 배반한 유다의 마음 속에 그것을 집어 넣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상상하기에도 경이롭게도 우리 사랑하는 구주께서 향하여 말씀하신 자들이 있는 것은, 그것이 경이롭기까지 한 것은, 그들에게는 그분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고, 하찮으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자들은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 주께서 그분을 지나치는 자들, 그분의 희생을 지나치는 자들, 그리고 죄인들의 대속물로서의 그분의 죽음을 지나치는 자들 모두에게 그분 자신이 말씀하시고 있다. 아, 믿지 않으며 그리스도가 없는 혼이여, 그것은 당신이야! 오, 차갑고 계산적이며 비정한 설교가여,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지나치며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들(정치, 사회문제, 교파간 다툼, 종교 역사, 전통, 등등)을 그대의 입술에 취하는 자는 바로 당신이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재미없고, 무의미하고 하찮기만 한 것은 오직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는 혼들에게 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 내 마음속의 기도이다. 당신과 내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와 완전히 소진되어 우리의 마음

과 생명과 우리 혼의 모든 가닥이 우리의 속죄의 구주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계속 지배받을 것임을 기도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것처럼, “입술에 은혜가 넘치 나이다.”(시 45:2) 갈보리에서의 그분의 죽음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그분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행동이었음을 분명히 선포하며, 그로 말미암아 인자로서 우리의 중보자와 보증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내셨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17-18).

아버지의 명령

요한복음 10장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존하는 아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선한 목자, 중보자, 그분의 백성의 보증으로서 그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대속물로서의 그분의 죽음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안배해 놓으셨음을 선포하신다(시 40:7; 히 10:7-10).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들이 계획하거나 지옥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의 예비하

심에 의하여 성취되었다(행 2:23; 벰전 1:18-20). 갈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한한 사랑으로 예비되었고,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거룩하신 섭리의 역사로 성취되었다(요 3:16; 롬 5:6-8; 히 10:5-14).

그리스도의 순종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버지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의 행위로서 자원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았다. 아무도 그를 죽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죽게 만드시지 않았으며 그에게서 생명을 빼앗지도 않았다. 오, 그렇지 않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분 자신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죽으신 것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 자신의 뜻으로 성취되었다.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사 53:12)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주께서 그를 를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아버지는 외치셨다(사 53:10). “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슥 13:7)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손으로 진노의 잔을 취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의의 칼 위로 기꺼이 쓰러지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죽으셨다. 주 예수는 의의 만족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우리 구주는 선택 받은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다시 받으실 그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롬 14:9; 빌 2:5-11).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우리 구주께서,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요 10:17)고 하셨다. 죽어가는 귀한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그토록 달콤하게 기도하며 설명하기 불가능한 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신격에 속한 사랑스러움으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거룩한 인성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 놓은 것으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 그 백성의 영광스럽고, 구원하는 효험 있는 중보자가 됨으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자신께서는 결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그 백성을 위하여 저주의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의 죽음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무한하게 가치 있는 그의 사랑과 존경과 존귀함 같은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셨다. “이 안에 사랑이 있다!” 사랑의 이 위대한 행동으로, 또 우리의 보증으로 아버지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 순종하신 이 위대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사 53:4-12; 요 3:35; 17:2).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크게 고통 받는다 해도, 종

종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지라도, 그리고 혹은 아버지의 얼굴이 그에게 가리워진다 할 지라도, 여전히 그는 아버지 사랑의 소중한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과 우리 주이시자 구주의 예로부터 배우도록 하자. 아버지께서 격렬한 진노를 그 아들 위에 쏟고 있었을 때보다 더 그 아들을 충만하게 사랑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가치는 그리스도이다(요 17:22-26).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아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 놓으셨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며 우리에게 “구속되거라”라고 선포하신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 6:19-20).

30.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속의 이유

고린도후서 5:18(상)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고린도후서 5:18 KRV)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과 구원에 대하여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다(고후 5:18). 구원의 다른 모든 방면에서처럼,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은 오직 주 하나님께 기인한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사람에게 있다거나, 사람에 의해 기인되었다거나,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말한 사실을 직면하게 됨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만 있다. 그것은 성경의 언어이며 (신 7:6-9; 시 106:8; 115:1), 모든 신실한 믿음의 언어이다(고전 15:10).

우리의 구속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대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분명하고 단순하며 계속하여 반복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의 이유는 주 하나님 자신에게서 발견되며, 그분 안에만 있다.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우리 혼의 구원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기인하고, 일어나며, 우리에게로 흘러온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자의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주셨으며, 그로 인하여 속죄 피의 공로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요 3:16; 롬 5:6-8; 요일 3:16; 4:9-10, 19). 우리의 구속의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솟아나고 흘러나온 원천은 택하신 자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실로, 이것은 모든 은혜의 복의 근원이며 샘이다. 선택하심과 양자 삼으심, 거듭남과 효험 있는 부르심, 그리고 구속과 의롭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보존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다(엡 1:3-6).

그분의 백성의 구속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존하는 사랑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지기 전에 구속주가 되도록 주어지셨다. 그가 백성들에게 언약을 위하여 주어지셨을 때, 그분은 그들의 구속주가 될 언약 안에서 주어지셨다. 아버지에 의한 그리스도의 이 은사는 그분의 사랑에 따른 결과이다. 여기에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것의 이유를 두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세상(그분이 택한 자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요 3:16).

하나님께서서는 그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실제로 세상에 오시기 훨씬 이전에 우리의 구속주로 아들을 주셨다. 홍수 이전 시간

보다 더 일찍이, 옴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살아계신 구속주로 알았다.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의 죄들로 부터 그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창 22:8). 시간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가 되시고, 그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명은 우리를 위한 그의 영원하고 대가 없는 사랑의 나타나고, 분명하며, 의심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John Gill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의와 사망의 손에 그를 넘기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은,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의 위대한 사랑을 충만하게 보여주고 높이 칭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주권적 은혜로 귀결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할 때마다, 그 단어를 수식하는 대가 없는 주권적인이란 형용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날 종교적 흑암과 혼탁함 속에서는 은혜가 대가 없고 주권적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인데, 은혜가 만약 모두 대가가 없지 않다면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공로가 없는데, 피조물 내에 있는 모든 조건과 공로와 동기를 없애

버린다(롬 11:6). 그것이 주권적인 은혜인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위대하신 신성한 은인의 뜻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이다(롬 9:13-18).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에 대한 기초와 근거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주권적 은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롬 3:24-26).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로 인한 그 구속은 대가 없는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은사는 대가 없는 은혜로운 은사이다(고후 9:15). 우리의 귀한 구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졌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모든 자,” 곧 선택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모든 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았던” 것이다(히 2:9). 이것은 우리가 힘 없고, 거룩하지 않은 사악한 죄인들이었으며, 죄인들 중의 괴수였고, 사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자들 속에 있는 어떤 공로나 가치 덕분으로 돌릴 수 없다. 우리는 구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기여한 바가 없다.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은 구속의 열매와 결과이지, 그 원인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속죄를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속죄를 만들지 않는다(롬 5:10-11).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의 긍휼로 귀결된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실행하시며 대가 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이다. 긍휼은 구속을 낳았다. 하나님은 죄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주기로 하셨고,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그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서부터 동틀 녘에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여 구속하였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된 긍휼을 그렇게 행하셨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을 통해서이다(눅 1:68, 72, 78).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선포한다. 긍휼은 의와 진리처럼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과 구원 안에서 확대된다. 우리는 구속하는 긍휼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기뻐한다(디도서 3:5; 시 1007:1, 2; 136:23-24).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은 선택된 죄인들을 위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였다.

하나님의 계획

구속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은혜로운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롬 8:28-34; 딤후 1:9-10; 엡 1:7-12).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에 (벧전 1:18-20) 그분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헛된 사김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미리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 안에서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한 속죄가 되기 위하여 보내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구속자와 구원자가 되도록 지명하셨으며, 우리가 진노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진노!) 위에 있지 않고, 그 아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도록 약속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초로부터 (계 17:8)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기 이전에 긍휼에 속한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들의 구속을 위하여 희생의 어린양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명령 안에서 죽임 당한 분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감동받아, 오직 그분 자신 가운데에서만 찾을 수 있었던 그것으로 인하여 감동 받음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 가운데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 안에서 그분의 선택된 자들을 위한 속량을 찾으셨다(욥 33:24).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

한 그분의 공의를 충만하게 지속시키시면서, 거룩하고,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방법을 찾으셨다. 평강의 은혜와 합의의 영존하는 언약 가운데, 삼일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분별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의 계시로 설명되는 구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은 너무도 위대하고 지혜롭다(엡 1:7, 8; 3:10).

31. “네 구원자와 네 구속자”

이사야 49:26 & 60:16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살을 먹게 하며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는 것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네가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젖가슴을 빨고 또 나주가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성경의 이 두 본문에서, 주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구

속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그분께서는 또한 이것이 그분 자신께서 그분의 선택하신 자들과 구속 받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구원자, 그리고 구속자로서 알게 하려 하심과 궁극적으로 모든 세상이 그분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그리고 우리 구속자로 붙잡도록 하려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다.

이 일련의 공과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과 그분의 속량의 효능과 우리의 구속자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무조건적이며 자원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에 의한 우리의 구속의 시작의 그림을 보았다. 이들 두 구절은, 만유를 그분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 대로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처리하시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라고 선포하신다.

무엇이 더 기쁘고 평안을 줄 수 있는가? 우리의 구속자이신 분이 실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역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져야만 한다. 이 복음의 축복된 평안과 위로는 갈보리에서 자신의 피를 흘린 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또한 모든 구속 받을 자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구속은 그와 함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으로 인하여, 그 바로 그 본질 속에, 해방과 구원의 보증을 가지고 오며, 주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소망과 평안과 선한 격려의

말씀을 보내셨을 때, 그분 자신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것을 선포 하신다(사 41:14; 44:24; 48:17; 54:8).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 백성 위하여 죽으셨네,
그들의 빛을 모두 갹으셨네!
은혜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네,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당신을 넘어 가시네!
공의는 피를 보네!
공의는 피를 보네!
공의는 피를 보네!
이제 하나님께서 넘어 가시네,
당신을 넘어 가시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는가?

이미 우리는 어떤 정도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구속의 일을 지명 받으셨고, 세상의 시작 전에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보증으로서 그것에 동의하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의 죄들을 구속하실 것에 대하여 구약에서 예언되었으며, 그분에 의한 우리 구속에 대한 많은 그림과 예표가 구약 성경 안에 주어졌다. 시

간의 총만 가운데 그분께서 여자에게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보내지셨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어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그분의 피로 인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을 받는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속이 되신다. 따라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는가를 질문 받을 때,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찾아내야 한다.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위한 영원한 사랑에서 찾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구속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을 감동시켰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도록 지명하시고, 이 역사로 그를 부르신다(요 3:16; 롬 5:8; 요일 4:9-10). 그가 부르심을 받고 그 역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이 같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었다.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마음 속에 있었다.

이것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만족과 기쁨의 사랑이었다. 그런 것은 그분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영원 전부터 선포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한다(잠 8:31). 그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은 많은 은혜로운 행동 가운데 자연

히 나타났으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 자신을 내어 주는 우리의 구원자 안에서 가장 놀랍게 보여지고 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그분 자신을 제물과 희생으로 내어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딤후 2:14; 엡 5:2, 25; 요일 3:16).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가 없고, 분에 넘치며, 받기에 합당치 않으며, 주권적인 사랑이다. 우리는 심지어 그분의 사랑을 원치도 않았으며,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전혀 없었다. 그분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내가 그들을 구속하리라.” 고 말씀하셨다(사 63:9; 호 13:14; 14:4).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보증으로 그분 스스로 노예로 매인 바 되셨다.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지고,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 대신 하신 그런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시다(히 7:22).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언약의 약속을 맺으셨으므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 자신이 여호와의 매인 종이셨고 그렇게 되실 것을 고려하셨다(사 50:5-7). 그분은 자신이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그분의 아버지께 책임을 맡기실 것을 생각하셨다. 따라서 그 일에 대하여 하셔야만 하는 것으로 자주 말씀하셨다

(마 16:21; 26:53-54; 막 8:31; 9:12; 눅 22:37; 요 3:14; 10:16-18; 12:34; 20:9). 그리고 그가 하셔야 하는 그것을, 자신의 존귀와 스스로 말씀하심으로 매인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행하실 것이다(잠 6:1-2).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물론, 믿는 이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쓸데없는 과잉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의 영광스런 합당함 위에서 기도하기 좋도록 할 것이다. 그분은 얼마나 합당한 구속자이신가! 그분 말고는 우리 혼들을 구속하기에 적합한 자는 아무도 없다. 어떤 동물의 희생제물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었다. 어떤 천사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었다. 하나님 조차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엄격하신 성품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셨다(히 10:1-44).

구속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의 합당함은 그분께서 한 영광스러운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라는 사실 안에 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보내진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그분의 아버지처럼 같은 본성에 속하시며, 같은 완전함과 속성들을 소유하고 계시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분의 인격의 나타난 형상이시다. 이 분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계셨고, 계신다. 따라서 그가 하나

님과 동등함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삼위의 두 번째 인격이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람들의 구속자요 구원자이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구속자이신가! 그는 여호와, 곧 주들 중의 주이시다. 그것은 그가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에 동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갈 4:4; 요일 5:20; 딤후 2:13; 렘 50:34).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요 구속자께서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다(사 9:6). 그분은 사람으로서 어린 아기로 나셨고, 신성한 인격을 받으신 아들이시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육신 안에서 체현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사람으로서, 즉 하나님이신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심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손을 얹으실 수 있는 중재자이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분은 사람들의 구속자로서 요구되는 일을 하시기에 합당하시며, 그 백성들의 죄들을 화해하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에 속하시기에 합당하시다.

인자로서 과거에 그렇게 되셨듯이 율법 아래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그 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셨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보증과 구속자가 되실 것이었다면 그렇게 하

실 필요가 있었다. 인자로서, 그분은 피를 흘리셔야 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셨던 것은 이 가장 귀한 피로써였다. 인자로서, 그 백성의 충분한 속량의 값으로 생명을 내려 놓으셔야 했다.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겪으시고 우리 자리에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으며, 그로써 우리를 위한 충분한 만족을 주실 수 있으셨다.

하나님으로서, 그분 본성의 모든 완전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관심하셨다. 우리의 대속물로서 행하셨고 성취하셨던 구속 안에 있는 모든 신성한 속성의 귀함을 보증하셨다. 하나님으로서, 그는 그분의 피 속으로 무한한 미덕을 두셨다. 한 영광스러운 인격 안에 있는 인성과 연합한 신성이 그분 자신의 희생을 그분의 교회를 사며 우리 혼들의 구속을 위한 충분하고 합당한 속량의 대가로 만드셨다.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의 신성은 우리를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견뎠던 것처럼 죄의 짐 아래 있는 그분의 인간 본성을 도우셨다.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을 그 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였고, 끔찍한 시련을 그분이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견디실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만족되기까지 그분의 분노 앞에서 계실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로서 그분은 구속하시기 위한 권한을 갖고 계셨다. 만유의 주로서, 그분은 그분의 것이었던 그들을 구속할 능력 뿐만 아니라 권한도 갖고 계셨다. 인자로서, 우리와 가까운 인척으로서, 구속의 권한은 그분께 속하여 있었다. 따라서 그분은 고엘이란 이름을 입으셨는데, 그것은 구속자요 가까운 인척임을 부각시키는 이름이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나?

우리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생명의 희생으로 성취되었고, 역사하였으며, 얻어진 바 되었으며, 그것은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고 우리의 혼들의 속량을 위하여 대가 없이 흘리셨던 그 피 속에서 보여졌으며 제시되었다. 그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자 (출 12:13; 엡 1:7; 벧전 1:18-20; 계 5:9).

그것은 의도적으로 흘린 피였다. 그분의 피가 강요되어서, 우연하게, 혹은 그분의 뜻에 반한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흘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합당한 구속 대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를 위한 답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계획적으로 자원하여, 우리 주의 완전한 동의로 흘러진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완전하게 통제하고 처리하셨다. 그는 많은 자를 위한 속전으로서 그분의 생명을 대가 없이 주셨다.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려 놓는다.”며 그

분은 양들을 위한 속전으로서, “내 스스로 그것을 내려 놓는다.”고 하셨습니다(마 20:28; 요 10:15, 18).

그것은 인간의 피, 사람의 피였다. 우리에게 대가 없이 뿌려졌던 그 피는 우리의 혈관들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피와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너무도 필요하였다. 우리는 황소나 염소의 피, 결코 구속의 합당한 대가가 될 수 없는 것들로 구속 받을 수 없었다. 인간의 피만 사람의 속죄를 위하여 뿌려져야만 했다. 그리스도는 그가 위하여 죽었던 자녀들과 같은 혈과 육에 참여하였다. 유일한 차이는 이것이었다: — 그의 피는 우리의 것처럼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또 다른 요구였다. 속전은 죄 없고,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의 피여야만 했다. 구속자의 결백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많은 언급이 성경 안에 주어지고 있다. 그는 본성에 있어서 거룩하며 생명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 그는 결코 어떤 악도 범하지 않았다. 그는 의롭고 거룩한 자이다. 그는 불의한 자를 위하여 고통 받고 죽은 의인이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 사람들이 구속 받은 그 대가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의 피로서 그리스도 보혈이다(벧전 1:18, 19). 만일 그에게 어떤 죄가 있었다면, 그는 죄의 구속자가 될 수 없었다. 그의 피는 구속의 대가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다.

그것은 신성한 피로서, 하나님이신 사람의 피였다. 만일 속죄가

이뤄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성취된 구속이었다면, 피 뿌림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자의 피이기도 하다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을 듣게 된다(행 20:28).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요일 1:7).

누구에게 우리의 구속을 위한 속전이 지불되었는가?

속전은, 그분의 공의가 범해졌고,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범했으며, 율법을 주신 분인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파괴하실 수 있는 분께, 그분을 거슬러 모든 죄가 범해진 분께, 그리고 그분의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죄를 결코 깨끗하게 하지 않으실 분인 하나님의 손에 지불되었다. 그분은 올바르게 하셔야 하고 하실 분이신 모든 세상의 심판관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하나님께” 사람을 “구속하셔야 한다.”고 말씀되고 있다(계 5:9) 구속의 대가는 그리스도의 피인데, 하나님께 지불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징벌의 공의로부터 구속 받음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사탄의 손아귀나, 우리 위에서 힘을 갖고 있는 그 어떤 대적에게 지불되지 않았다. 사탄의 능력은 단지 불법적인 능력이었다. 그는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을 그 수중에서 가져오는 것은 능력이지 값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하실 때까지 우리를 차단하고 포로로 구류할 법적 권한을 갖고 계셨다. 따라서 복수하는 공의로부터의 구속,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있는 구속, 그분의 백성의 속량을 위하여 신성한 공의에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구속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하나님으로 나서 우리에게 구속이 되셨다(고전 1:30-31). 그는 그분 자신의 피를 속전과 그분의 은혜의 거둬낸 능력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성취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수여하실 부활 영광으로 그의 택한 자를 구속하고 구원하신다.

32.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나?

빌립보서 2:1-8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

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빌립보서 2장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서로 섬기며 서로의 기쁨과 행복을 진작시키는 가운데 권함 받고 격려 받는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에 영적 합일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아질 것을 찾고 진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는 서로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순수한 보살핌과 관심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도의 호소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기와 신약을 통틀어서, 믿는 자들은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은혜에 근거한 거룩함과 순종을 촉구 받고 있다. 우리는 심판의 위협과 보상의 약속에 의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체험된 공훈과 사랑과 은혜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 받으며 영감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합일에 대한 주장들

이 장의 첫 번째 구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합일과 평강과 사랑을 위한 네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가운데 합일과 평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분투하고 촉구하여야 하며, 만일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걷고 그 사랑 위에 건축하여야 한다. 여기 우리가 그렇게 하여야 하는 이유 네 가지가 있다.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 “안위(consolation)”라는 말은 “위로 (comfort)” 혹은 “확신(confidence)”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속물과 대변자로서의 그의 인격과 그의 의로움과 그의 죽음과 중보에 기초하고 근거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위안과 확신의 그 어떤 진짜 배경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위로를 하여야 하며 복음의 소망과 확신 안에서 서로 건축하여야 한다.
2. “사랑의 무슨 위로나” — 만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아들의 구속하시는 사랑,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랑 그리고 은혜의 형제 사랑의 위로와 힘을 누린다면, 너무나 즐겁고 기쁨 그 사랑을 누린다면, 서로의 사랑의 힘과 위로를 서로가 주어야 한다.

-
3. **“성령의 무슨 교제나”** — 만일 우리가 은혜로운 성령에 의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서로 간의 교제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계속 분투해서 그 축복의 교제를 지키고 세우도록 하여야만 한다.
 4.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 만일 우리가 실로 어떤 애정의 깊이가 있다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영광과 또 서로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깊은 동정이나 염려함이 있다면, 만일 우리의 종교가 실제라면,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입에 발린 말 그 이상이라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염려를 보여주도록 하자.

만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만일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의 생활 속에 흐르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종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교리적 정통성,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위상은 헛된 위선을 보여 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바울이 말한 바처럼,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2절). 천국의 모든 상속자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와 하나님의 모든 가족은 모든 것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라.

혹자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생각과 사랑과 애정과 보살핌 안에서, 합일과 조화와 평강 안에서, 생각과 계획과 갈망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것들은 우리 믿음의 실재나 위선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내적 은혜의 표식이고, 열매이고, 증거들이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3절). — 경쟁심으로 행해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형제들을 나누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이다. 혐의로 난 것은 어떤 것이든 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 경멸을 던지는 것이다. 형제들 간의 경쟁과 분열과 충돌의 근원은 항상 헛된 영광과 자부심과 자아 추구와 자기 섬김과 스스로 높이는 자존이다(잠 13:10). 따라서 인정받음과 명예와 칭찬을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자신들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나 욕망이나 즐거움이나 옳음을 기꺼이 양보하여야 한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4절). — 이는 단순히 이 합일과 평강을 고무하는 방법

과 이런 교통과 사랑은 서로를 살펴보고 돌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그쳐야 함을 의미한다. 당신 자신의 칭찬을 구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칭찬을 찾으라. 당신 자신을 높이지 말라. 다른 사람을 높여라. 당신 자신의 느낌들에 관심하지 말라. 당신의 형제의 느낌과 당신의 자매의 느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우정과 교제는 이 차선 도로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모두 한 방향의 길이 되도록 하며, 기꺼이 주며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 않아야 하고, 기꺼이 섬기고 섬김 받으려 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기꺼이 관심하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관심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왜 어느 누구라도 그 자신의 명예를 그토록 떨어뜨려야 하는가? 왜 우리 자신의 야심과 느낌과 갈망과 선호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접어두어야 하는가? 어느 누가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하여 5절부터 8절 사이에서 대답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는 이 사랑스럽고, 겸손하며, 자기 희생적인 생각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야.” 우리 주님은 그 자신에 대하여 생각지 않고 우리에게 대하여 생각하셨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섬기지 않았으며 우리를 섬기셨다. 그분은 사역을 받으시기 보다 사역하시고 우리를 위한 속량으로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것이 이 구절들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 깊이 사랑하여야 한다(요일 4:9-11; 롬 12:2; 엡 4:32-5:2). 우리를 향한 그분의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 죄들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의 죽음조차도 순종하셨다. 아들 하나님은 우리 본성을 맡으셨다. 하나님 자신의 귀한 아들은 인자로서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셨다. 그래서 모든 의를 충족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속물로 저주의 나무 위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

왜 영광의 주께서 그런 엄청난 치욕을 참으셨나?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선택 받은 죄인들 대신에 죽으셨나?

그분의 죽음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 백성들 대신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죽으신 것으로 무엇을 성취하시기를 소망하셨나? 두 가지는 분명하다. (1.)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죽는 행위 가운데, 그분의 죽음의 공로와 덕행으로 성취하시려 뜻하신 바가 무엇이든지 간에, 대부분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효험 있는 구속자이시다. 기록되기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사 42:4)라고 하였다. 그리고, (2.)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려 소망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여기 일곱 가지 점들은 성경 안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으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자 죽으셨던 것들로, 저주의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계시하는 일곱 가지 항목들이다.

1.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분께서 온 우주의 주가 되심이라 (롬 14:9)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 특별하고도 효능 있는 구속의 축복된 복음의 교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

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는 자신들의 죄들로 스러져 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기도해주기조차 거절했던 자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 놓지 않았다(요 17:9, 20). 우리 구주의 제사장으로서의 일은 나뉘어 질 수 없다. 그의 희생과 그의 증보는 같은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치료자이시고, 하나님 사람이시며, 우리 보증으로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세상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사셨다(마 13:44). 인자로서, 우리의 치료자께서 세상 전체와 그 안의 모든 자들을 주권적인 군주로서 통치하실 권한을 사셨다(요 17:2; 벰후 2:1). 그는 세상 전체와 그 안의 모든 자를 의로운 심판관으로서 처리할 권한을 사셨다(살후 1:6-10). 그리고 우리 주 예수는 인자로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모든 것에 대한 찬양을 소유하실 권한을 사셨다(계 21:5; 롬 8:23). 십자가 위에서 그의 죽음 덕분에,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다. 그는 모든 육체에 대한 전적인 권능을 가지셨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선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신다(시 2:8; 행 2:36; 요 17:2; 시 115:3; 135:6).

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그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의

와 의롭게 하는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롬 3:19-28).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개인적으로 복종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에 의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충만케 함과 율법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킴이 없이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세상을 심판함이 옳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다. —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모든 자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안에 있는 특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다(고후 5:21; 롬 23:6).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 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근거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충만케 하고 존귀하게 하며 만족시킨다(롬 3:31). 따라서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대가 없이 의롭게 된다.

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 하심이다(히 9:24-26).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있는 것으로 되셨다(고후

5:21). 그분이 죽을 때, 우리의 죄를 없애 버리셨다. 이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죄가 없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들은 우리로부터 제거 된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그분 뒤에 감추셨다.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에 있어서, 우리는 죄가 없다(민 23:21; 요일 3:5).

“내 죄, 오 이 영광스러운 생각에 속한 기쁨이여,
내 죄, 일부가 아닌 전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나는 그것을 더이상 갖고 있지 않네,—
주를 찬양하라! 그건 내 혼과 잘 어울리는 것!”

4.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다.” (벧전 3:18).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들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도록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다. 그리스도

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셨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여전히 데려가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그의 영광스런 임재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비난 받지 않고, 나무랄 데가 없게 하실 것이다(유 24-25).

5.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 (갈 1:4).

우리 구주께서 하늘에서 내려 오셔서 갈보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은, 이 세상에 있는 사악한 왕국과 이 세상의 사악한 방법과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과, 이 세상의 사악한 종교와 이 세상의 사악한 종말로부터 그의 모든 백성을 데려오시기 위함이다. 이 사실의 빛 비춤 안에서, 계시를 받은 시편 기자에게 좀더 솔직하게 모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네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네게 주시리라. 네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

을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네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험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시편 37:1-9).

6.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 2:14).

이 본문 안에 있는 모든 말은 귀하고 가르침이 총만하다. 단 한 글이라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모든 불법과 그 벌과 그 지배와 그로 인한 모든 악한 결과로부터 구속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 그가 구속하셨던 백성들을 특별하고도 구별된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록을 깨끗하게 하셨다(고후 5:17). 그는 모든 구속 받은 죄인에게 그의 피와 의로움 안에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함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을 주신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부활 안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들은 모두 그의 특이하고, 구별되며 특별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

들은 선한 일들에 열심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다. 모든 구원받은 죄인은 피로 샀으며, 긍휼로 찾은 바 되었으며, 은혜에 사로 잡혔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놀라운 은혜의 특별한 전리품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는 선한 일에 열심이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완전하거나 혹은, 완전을 닮은 그 어떤 것들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들이 정직하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주셨던 자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다가가는 것을 뜻한다.

7.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그가 우리를 혼란한 세상 전에, 온전히 거룩한 아름다움 안에서, 그분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찬양 속에서, 그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보이려 하심이다(엡 5:25-27; 골 1:21-22; 고전 15:24-28; 엡 2:7; 유 24-25).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가운데 있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취될 것이다. 이 일곱 가지 사항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속죄희생의 목적으로써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들이 있음은, 그의 생명을 내려놓기 위한 계획들이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효험 있게 성취될 것이다. 기록되기를, “그는 실

패하지 아니하며”라 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 생명을 우리, 곧 그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딸들이 그의 귀하고 효능 있는 피의 공로로 그분 안에 있는 양자의 혜택과 축복들을 받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갈 4:4-5). 구속, 용서, 의롭게 함, 거듭남, 거룩하게 함, 보존함, 그리고 영원한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삼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함에 이르기까지 각각 피로 산 죄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감 있게 노래한다.

“귀한 죽음 당한 어린양, 당신의 보혈
그 능력 결코 잃지 않겠네,
하나님의 모든 속량 받은 교회에 이르도록
죄에서 구원 받음이 더 없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유 1:24-25)

33.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나?

마태복음 20:28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갈보리에서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그 백성의 구속을 효능 있게 성취하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제한적인 속죄를 믿고 가르친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구원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사라진 자들을 위해서도 죽었다고 주장하는 자유의지와 행위 주장자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성경에 반하여 제한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결정, 사람의 믿음, 사람의 순종, 사람의 침례 혹은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 보충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 피로 인한 속죄의 공로와 효능을 제한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효능과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얻어지고 성취된 속죄는 절대적으로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의도와 여지

와 구상과 계획 안에서 제한되어 진다. 믿도록 제시하고 암시하거나 가르치기 위하여 실로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속죄가 되기로 한 자들 가운데 지옥에 있는 자들은 우상숭배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격을 부인함으로써 그를 모독한다.

많은 사람이 놀라는 것은 왜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하고 효험 있는 구속에 속한 복음 교리에 관하여 그토록 독단적인가이다. 이 복음 교리가 종교인들 가운데 매우 분열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멸시되는 까닭에, 타협이 가장 만연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와서 행하실 일에 실패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주적인 구속에 대한 모독은 하나님의 아들을 실패로 만든다. 우주적이고 효능 없는 구속의 교리와 우주적이며 효능이 없는 속죄의 교리는 우리 구원자의 신성을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어떤 다른 교리와 같이 사람의 혼을 저주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들이 속죄의 교리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만든다.

이 공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을 주기를 원한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마태복음 20:28에서 시작하겠다. 이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구주는 여기서 선포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속전으로, 그들의 구속의 대가로 주신 실로 “많은 사람”이 있다 하셨다. 그들은 “많은 사람”은 구별되고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안수된 “많은 사람”이며 (행 13:48),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주신 “많은 사람”이고 (요 6:37-39),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짊어지신 “많은 사람”이며 (벧전 2:24), 그들의 죄를 사면하기 위하여 그분의 피 흘림을 받은 “많은 사람”이며 (마 26:28), 그분의 순종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많은 사람”이고 (롬 5:19), 그분이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시며 영광으로 이끈 “많은” 아들이다(히 2:10).

구속의 대상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들, 그 피를 뿌림으로 속량하신 그들, 영원한 구속을 그가 얻어주었던 그들은 특별하고 구별된 백성이다. 성경은 그들이 세상에 거하는 다른 모든 거주자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구속 받았다.”고 선포한다(계 14:3).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마지막 한 편은 “정결케 하사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하려는” 것이다(딤후 2:14).

영감을 받은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말할 때, 대명사 “우리”를 사용하기를 즐겨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구속의 대상들이 구별된 특별한 백성으로서 확인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올리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드리셨다.” 그는 “우리를 구속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의 보좌 주변의 성도들은 어린 양에게,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구속하셨습니다.”라고 찬송한다.

성경은 제한적인 속죄와 특별하고 효험 있는 구속과 우리 대속물로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성취하셨고 얻어내셨다는 것을 어디에서나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우주적인 속죄에 대한 시사하는 바나, 제안 혹은 연관된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죄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 자신의 피로 천국에 들어가셨을 때 당신을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의아해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책을 읽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여덟 가지 분명하고 틀림 없는 분명한 대답이 그 질문-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 책 안에 주어져 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인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상들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은 동일하다. 구속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흐른다(요 3:16; 롬 5:8; 요일 3:16; 요일 4:10). 구속이 흘러 나오는 이 사랑은 어떤 상상 속의 보편적인 자비심 그 이상으로 더 큰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에 대한 섭리 안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호의 그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특별하고도 차별된 사랑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백성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품으시는 특별하게 구원하는 호의이다. 주 하나님은,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롬 9:13)고 선포하신다.

이 특별하고, 구속하시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분 자신을 향한 스스로의 희생 가운데 표현되었던 그것이다(요 13:1). 그리스도께 사랑 받았던 모든 자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았다. 그들은 “그 분의” 백성이며, “그 분의” 양 떼이고, “그 분의” 교회이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죄인들, 에서와 같은 그분의 공의의 진노와 경멸의 대상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제시하고 암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없는 것이다.

2. 우리의 모든 영광스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롬 8:30-34).

택함과 구속의 대상들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책임에 누가 무엇을 내려 놓을 것인가?—그것은 죽으신 그리스도이

다.” 믿음에 대한 그 대담한 도전은 만일 오직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죽음으로 인한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증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옮기셔야 했던 이유가 되는 그 “우리 모두”는 그가 미리 알았던 자들과 미리 예정하셨던 자들과 동일하고 미리 부르셨던 자들과도 동일하며, 의롭게 함과 영화롭게 함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계획에 의해 영원 전부터 보증되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7절에서 똑같은 것을 본다. 이른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 받은 자인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다. 택함과 구속은 동일 선상에 있다.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 받은 자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그 이상 없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분께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이상으로 특별하다.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특별한 것들이 그들에게 속해 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에게 실재라 하는 것 모두가 구속 받은 자들에게도 실재인 것을 본다. 따라서 택함 받은 자와 구속 받은 자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에 의거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
- 택함 받은 자들이 주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가? 그 택함의 행위가 사랑으로부터 솟아나는가? 택함은 사랑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구속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구속은 사랑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보물을 위하여 선택하셨던 백성들인가? 구속된 자들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특별한 백성들이 되도록 정결케 된다.
 - 영광을 위하여 이전에 예비된 긍휼의 그릇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만의 죄들을 위함이거나, 유대인들만의 구속주가 아니라, 이방인 세상의 죄인들도 위함이며, 이방인들 가운데 그분의 백성의 구속주이신 속죄이시다.
 -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수의 많은 자인가?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자들은 모든 종족과 방언과 백성과 열방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속하신 자들이다.
 -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결코 멸하지 않을 것이며, 완전히 마지막에 속임 당하고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 주의 속량 받은 자들에게도 역시 사실이다. 그들은 영원한 기쁨을 갖고 시온에 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
-

의 피로 산 자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3. 우리 위대한 구주의 속죄의 대속물로서 행하신 희생은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은혜로운 약속 가운데 보증이 되기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루어졌다(히 7:22).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던 자들, 그의 피로 인하여 구속을 받았던 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그분이 보증이 되셨던 자들이기에 같은 사람들이다. 그는 더 나은 언약과 은혜의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렇게 그는 그들을 위한, 그 언약에 주의를 기울였던 자들만을 위한 보증이 되셨다. 그 위대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은 보증과 구속자가 되기로 그분 자신을 끌어들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구속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증이다. 이것이 왜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죄들에 대한 심판이 그분께 내려졌던 이유이며, 왜 그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참았으며 그 백성들로서 우리 모두의 빛을 갠이셨던 이유이다. 이것이 신성한 공의의 수중에서 우리를 구속하였던 이유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증으로서 맹세하였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책임 하에 그분 자신을 두셨다. 그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책임을 지게 되셨다. 그러나 그가 보증이 되어 주지 않기로 하였던 자들은 그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들의 빛을 갓거나 그들의 여지와 대신에 죽을 책임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보증과 구속은 동일한 영역에 속한 것이며, 같은 대상들에게 이른다. 그들은 주의 베냐민들이며, 그의 우편의 아들들이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유다의 예표인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었고, 그들을 안전하게 영광에 옮겨야 하는 책임 아래 자신을 두었으며, 그들을 그의 거룩한 아버지께 제시하신 자들이다.”- John Gill

4. 우리의 전능하시고, 모든 영광의 구속자이시며 구원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자들을 위하여 죽었다(사 53:8).

구속의 대상들은 특별하고 구별되는 백성들로 보여지는 말씀과 특징들로 묘사된다. 특히, 구속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백성이라 불린다.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만족시키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공의의 막대기로 “맞았다”고 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한다.

그분이 와서 우리를 구속하려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가 그분이 태어났을 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라 말했다. 그분은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오신 새벽이신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육신 가운데 그 백성을 방

문하셨고, 그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셨다(눅 1:68, 78). 따라서 요셉에게 나타났고,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낳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것과 그 이유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마 1:21).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은 모두 그분의 구속 받은 백성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된 자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구속 받았다(계 5:9).

구속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렘 32:38)고 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분깃이며, 유업이며, 그분께 가까이 있고 귀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는 그리스도께 주어진 바 된 백성들이며, 그로 인하여 구속 받고 구원 받은 자이다. 그들에 대하여,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자원하리니”라고 기록되었다.

5. 하나님의 아들은 그 생명을 내려 놓으셨으며 그의 양들로 일일이 지명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다(요 10:15, 26, 29).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던 자들인 구속의 대상들은 “양들”로 묘사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양들이며, 선

한 목자로서 그의 특별한 소유이다. 그렇게 그들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아버지에 의하여 그분께 주어졌다. 이 양들은 그분의 양이 아닌 다른 자들과 영원히 구별되는 자들을 대표한다.

모든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양들과 염소들이다. 양은 결코 염소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염소들도 결코 양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거나 다른 편, 양들이든지 염소들이든지 이다. 어떤 양들은 구원을 받는다. 어떤 양들은 잃어버렸다. 그러나 모두가 안전하다. 그들은 그분의 양이다. 어떤 양들은 쇠약하다. 어떤 양들은 길을 잃었다. 그러나 모두 구속 받았다. 그들은 그분의 양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양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들,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한다.

양들은 그리스도께서 알아보신다. 그분은 단순히 그분의 전지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양들을 안다.”고 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의 양들을 구별하여 아신다. “주께서는 다른 양들과 그분의 양들을 아신다.” 그것은 달리 말하는 방법일 뿐이며, 그리스도는 그분의 양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아시며 그들을 일일이 특별하게 사랑하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지식과 사랑은 그분이 마지막 날에, “나에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알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실 그들에 대해서 갖고 계시지 않는 것이다.

양들도 목자를 알아본다. 그리스도를 그분의 양들이 “알아” 보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그들을 위하여 내려 놓았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는 그분의 인격과 직무와 은혜 가운데 그분을 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나 아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자가 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것은 말하자면, 양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의 기쁜 소리와 성취된 구속의 기쁜 물결들을 안다. 한편으로 복음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선한 목자가 그 생명을 내려 놓기로 한 그 양들은, 한 때 불렀으며 그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 죽은 목자를 따른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본과 그분의 영을 따른다. 그들은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겸손을 실행하는 것과 모든 책무를 행하는 가운데 그분을 따라 한다. 그들의 주인이 요단 강 물 속에서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의로움을 상징적으로 충만케 하였으며, 따라서 그분의 양들도 그렇게 행한다. 사람들 가운데로부터 모든 구속 받은 자들에 대하여 기록되기를, 그들은 “어린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계 14:4).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받은 양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왼편에 앉은 염소들은 영원히 저주 받을 것이며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마 25:33, 34). 양들은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용서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

하게 되었으며, 인침을 받았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6. 우리 위대하고, 속죄의 대속물은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죽었다(요 11:52).

구속과 양자됨은 같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다. 가야바의 예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를 통하여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양자가 되길 미리 예정된 자들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구속 받은 자들이다(엡 1:5, 7).

이 양자의 축복은, 부활 영광 안에서 그 총만한 기쁨 가운데, “몸의 구속”이라고 부른다. 우리 몸의 구속이라 부르는 이 구속은, 그 적용이 관심되는 가운데, 우리 몸이 아담의 타락의 모든 결과들로부터 구속 받지 않는 한 완전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롬 8:23; 엡 1:14; 4:30).

7. 우리의 모든 영광스러운 구속자는 구주와 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각각의 죄인을 위하여 죽고 구속하셨다.

구속의 열매는 구속의 증거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모두 구속의 열매며 증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수이며, 하나님께 속하여 그리스도께 주어진 자들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속된 자들이다. 그들은 은혜의 언약 가운데 그분께 약속된 씨

이며, 그분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이며, 그들로 인하여 만족하실 자들이다. 이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백성들이다. 그들은 그분이 “같은 살과 피를 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 대신에 성육신 하셨던 백성들이다. 그들은 그분께서 영광으로 이끄실 많은 아들이다(히 2:10, 13, 14).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은 오직 택함 받고 구속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위에 임하는 특별한 은혜와 눈에 띄는 사랑과 긍휼의 혜택에 따른 것이다(롬 9:8; 갈 3:26; 요 1:12; 요일 3:1).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그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의 열매이고 증거이다.

8.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주는, 그의 신부이자 배우자인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고 속량이 되셨으며 자신의 보혈로 구속 하셨다.

구속의 대상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부이다. 그가 사랑하셨던 것도 교회이고 그분 자신을 희생과 속전으로서 주신 것도 교회를 위해서이다. 그분 자신으로 구속하셨던 것은 그의 사랑스런 신부이다. 그분의 피로 사신 것은, 일반적인 모임이라 할 지라도, 처음 난 교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교회이다. 그 교회는 그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엡 5:25; 행 20:28). 그리스도가 머리고 신랑인 그 교회에 대하여 그분은 구속주이다.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그는 네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이사야서 54:5).

이것은 어떤 교파나, 그리스도의 교회라 고백하는 모든 자에 의해서도 들을 수 없다. 바빌론의 큰 음녀는 그리스도의 배우자가 아니다. 바빌론의 취하게 하는 술로 취한 자들(아르미니우스주의자, 자유의지론자, 행위 종교)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고 일부분도 없다. 바벨에서 온 그 교회를 우리 구속자께서 음녀라고 부르신다. 그분의 신부인 교회는 정숙한 처녀라고 부르신다. 비록 바빌론의 종류에 속한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 있겠지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구나.”고 말씀하신다(아 6:9). 이것이 그분의 신부이다. 이것이 그분의 배우자이다.

구속은 일반적이고 쓸데 없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효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 놓고 죽었다. 만약 구속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혜택의 대상들인 그들이라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구속 받지 않았다. 그들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있다.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

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사 27:11).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기로 하셨던 자들을 위한 그들만 구속을 받았다면, 모든 자가 구속 받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빛을 청산하려 하시지 않았다. 만일 구속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면, 모든 사람이 구속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라 하신 부분이 있다(호 1:9). 만약 구속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양들이라면, 그러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 가야 할 염소들은 구속 받지 않았다. 만약 구속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배우자라면, 모든 사람이 구속 받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34. 보편적 속죄의 모독들

히브리서 10:28-29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공흠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이 두 구절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멸시한 자들이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직접 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자들보다 더 뼈저리고 더 심각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다.

이 경고에 대한 보다 더 많은 합당하고 아주 분명한 적용이 있다.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은” 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자들과, “은혜의 영께 무례하게 행하였던”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시대의 종교와 설교자들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 말씀들을 보기 바란다.

나는 말씀을 의도적이고 목적을 갖고 선택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모두 그 말들을 선택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둘 사이에서 선택은 없다. 이것은 이와 같은 배도자 세대의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항하여 만든 명령이다. —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자유의지와 행위의 종교에 속한 모든 설교자, 보편적인 속죄와 보편적인 구속의 저주스럽고 모독스러운 교리에 속한 모든 설교자는, 이를테면 —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시려 죽었다는 것을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모든 자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서 마침내 지옥에서 멸절할 자들은 이 범죄에 대하여 유죄이다 — 그들은 그들의 발 아래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고 언약의 영원한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에도 불구하고 행한다! 보편적인 속죄의 교리보다 더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교리도 더 하나님께 모독적이며, 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궤탈이 되며, 은혜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반대가 되며, 사람의 혼을 더 저주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없고, 전에도 결코 없었으며, 결코 있을 수 없다.

내가 하는 말을 확실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용어로 인하여 어떤 사람과도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보편적인 속죄와 보편적인 구속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다음이 그 뜻하는 바이다. — 보편적인 속죄는 인간의 저주받을 기만이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외 없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되고자 죽으셨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를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얻어내지 못하였지만, 단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가능한 속죄가 되셨다는 가르침이다. — 보편적인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피를 흘리셨다는 교리라는 것이며, 그의 피 흘리심으로 어느 누구의 실질적인 구속과 구원을 보증하고 보장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가능한 구원을 이루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 위한 길을 제공하셨다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었을 때 모든 죄인을 위하

여 실질적이고 효험 있는 구속을 하였고 속죄가 되셨음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도박이 아니었다. 아무 것도 기회가 있는 것은 없다. 그분의 속죄의 피로 효험 있고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보증이 되셨다.

여기 이런 신성모독적인 교리를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모든 자를 고발하는 항목들이 있다. 이 열네 가지의 혐의를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지옥에서 사라지는 자들을 위하여 죽었다고 가르치는 모든 자에게 부과 한다. 나는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면 하겠다. 많은 사람이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조금 지나치게 강경하고,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지나치게 교리적이지만, 복음의 교리에 대하여 약간은 비정하다고 확신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성경의 빛 비춤 가운데 여기 열거된 것들에 무게를 두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이 그렇지 않는 것들에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1.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가르침이 사람을 자신의 구주로 만든다.

만약 주 예수께서 단지 가능한 구속만을 하셨다면, 만약 그가 오직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게 만 하고 그들을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두셨다면, 만약 그가 단지 사람의 죄들을 없앨 수 있도록 하셨다

면, 구원 받은 자는 누구나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구원 받는다. 만일 그들이 의롭게 된다면, 그들 자신의 행위로서 그들 스스로 의롭게 하여야만 한다. 만일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순종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여야 한다. 만일 그들이 거듭나야 한다면, 그들은 그 자신의 의지를 행함으로써 그들 자신에게 영적 생명을 주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성화된다면, 그들은 개인적 거룩함으로 그들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이 생명과 은혜 가운데 보존된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한 가장 평범한 표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의 죄들을 실제로 없애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실질적으로 얻게 하셨다(히 1:3; 9:12; 10:14).

2. 보편적 속죄의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축소한다.

일견 어떤 자들은, “그것은 옳을 수 없다. 보편적 구속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자만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정확히 내가 지적하는 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아들의 죽음과 그분의 피로 인한 우리의 구속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다. 이렇게 노래하기를 기뻐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새찬송 304)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랑이 보증할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 대상들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나의 구원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절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미리 예정하신 은혜의 대상들은 또한 그분의 효험 있는 부르심의 대상이며 그분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자들임을 선포하고 있다(렘 31:3; 엡 1:4-11).

3. 보편적인 속죄의 개념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

우리는 모든 지혜에 뛰어나시고, 전지하신 주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뛰어나심과 지식 가운데 무한하신 분으로서 경배하고 섬긴다. 그러나 그분이 알고 계셨던 백성들이 결코 구원받지 않을 것같은 구원을 위한 계획을 만드신 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희생시키셨을 때 이미 지옥에 있던 자들을 위하여 그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

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선포한 것 가운데 묘사하고 영광스럽게 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롬 8:28-39; 11:33-36).

4. 보편적 구속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속이 우선하는 것이며 신성한 공의의 행위이다. 성경을 직접 읽어 보라, 그리고 이 신성한 계시의 사실을 지나칠 수 없다(시 85:8-13; 잠 16:6; 사 45:20-21; 롬 3:24-26). 만약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하여 심판 받으셨고 나 또한 그 죄들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 버린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우리에게 소망으로 제시된다. Augustus Toplady는 이렇게 읊었다.....

“이 두려움과 불신 어디서 오는가?
아버지께서 슬픔 속에 두지 않으시려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주셨나?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심은
나의 위대한 보증에게 지워진 죄의 빛으로
나를 저주하실 수 있나?
완전한 속죄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에 값을 지불 하셨네
그 백성이 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두 번 다시 그 값을 요구하실 수 없네,

첫째는 나의 피 흘리신 보증자의 손에서,
그리고 다시 내 손에서!”

5. 보편적 구속을 전파하는 자들은 그들의 설교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사람의 의지보다 더 약한 것으로 무능하게 축소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사야는 주의 팔이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지 않다고 선포한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6. 보편적 속죄를 전하는 자들은 불변의 하나님이 결국 변덕스럽고 변하기 쉽고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이 죽고 지옥으로 던져질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그만 두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이는가? 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말 3:6; 욥 23:13; 약 1:17).

7.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심지어 지옥으로 사라질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가르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모독 죄를 정하고자 하

는 이유는 그 말이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앗아가기 때문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있어서 삼일 하나님의 최우선 목표는 그분 자신의 위대한 영광이다(엡 1:3-14). 그러나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인 자유의지론자는 사람은 자랑 할 만한 각각의 이유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사람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라는 것이다.

8. 보편적 속죄는 그리스도의 만족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모독적인 교리이다.

보편적 속죄는 갈보리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것도 만족하셨다는 것을 부인한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라져버린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구약의 예표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선지자들의 말을 만족시키지 못했거나(사 53:8-12; 단 9:24),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9. 보편적 구속이 모독적이며 저주스러운 이단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게 한 지옥에 있는 많은 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예언자가 선포하지 않았든 가? “그가 그의 혼이 고통 받는 것을 보고 만족하실 것이다.” 그가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든가?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

10. **보편적 속죄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가 기도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분 자신을 희생하고 죽었다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역사를 분리하려고 시도하므로 가장 분명하게 비성경적이고 모독적인 교리이다(요 17:9, 20). 얼마나 어리석은가!**

11. **보편적 속죄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패로 만들고 그의 혼의 수고를 결코 보지 않고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모독적인 교리이다(사 53:10-11).**

12. **보편적 구속은 그것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아무런 이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모독적이 것처럼 쓸모 없다.**

우리 소망의 기초는 성취된 구속이다. “이스라엘은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주께 긍휼이 있으며 그분께 풍성한 구속이 있도다.” (시 130:7). 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심은 성취된 구속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지 구속이 가능함을 선포하시기 위함이 아니다(사 40:1-2).

13. 보편적 속죄는 그것이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영광스럽게 할 아무런 이유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모독적인 것처럼 쓸모 없다.

만약 주 예수께서 저주 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셨던 것 이상으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지 않았다면, 만약 그분이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셨고, 타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며, 지옥으로 사라지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고, 영원히 저주 받은 자들을 사랑하셨다면, 왜 누구나 그 자신을 위하여 살고, 그 자신을 섬기며, 그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구하겠는가? 만약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 믿는 자의 의지라면, 그것은 내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섬기고, 존귀히 여기며,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빛진 것이지, 그들이 그분께 빛진 것이 아니다. 이 얼마나 모독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의한 구별된 우리 구속의 사실을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기 위한 동기와 영감이 되게 한다(고전 6:9-11, 20).

14. 다른 모든 것보다도, 보편적 구속을 전파하는 모든 자를 향하여 이 혐의를 두고자 한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주권적이며 효험 있는 구주라기 보다, 실패자요, 약한 자이고, 좌절한 자이며, 패배한 실패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기록 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할 지도 모른다, 할는지 모른다, 원한다 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축복 받을 것이다. 그분은 그러하실 것이다.

35. 거치는 돌인가, 아니면 디딤돌인가?

베드로전서 2:6-8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성경을 따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의 대속물로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을 성취 하였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빛을 갠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죄들을 영원히 효험 있게 없애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던 모든 자가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을 것

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성경의 증거들을 믿지 않는 많은 자가 있다. 영원한 생명에 따라 그분을 믿고 구속과 의로움을 위하여 그리스도만 신뢰하기 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대다수 많은 종교인은 속죄의 복음의 교리에 넘어지고 그들의 죄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 그분이 성경 가운데 계시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하고 믿지 않으며 스스로 의롭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치는 돌이며 범죄의 반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신성한 안배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며, 지옥에 있는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그분의 말씀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셨으며, 따라서 그 자신의 의로움에 매달리기로 결정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워지며 계시되고 발견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그들 자신을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은 그분께 걸려 넘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 9:31-33에서 기술된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나?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 같은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디딤돌로서 있으며, 타락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공과에서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파멸로 왜곡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모독적인 사람들의 트집들에 답변하기 위한 욕망이나 의향도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을 돕기 원한다. 나는 또한 분명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하기 원하며, 따라서 이것을 읽거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구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옮겨지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보편적 구속에 대한 어떤 실마리도 없다. 읽고 상황적으로 해석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지옥으로 소멸되는 자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는 이단적 교리의 극히 작은 의미도 없다. 그런 교리는 지극히 모독적이다. 그러나 부정직한 모독하는 자들과 특별하고도 효험 있는 구속의 축복된 복음의 교리를 반박하기 위한 그들의 가르침으로 혼란스럽

게 된 자들에 의하여 종종 지목되고, 인용되며, 왜곡되고, 오해되는 수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피로 하나님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속죄가 된 것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의해서 가장 흔히 잘 못 해석되며 오해되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들은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질 수 있다.

1.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모든”이라는 말이 사용된 말씀들.
2.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백성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세상”이라는 말이 사용된 말씀들.
3.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어떤 자들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소멸 될 그 어떤 자들을 암시하는 것 같은 말씀들.

이 세 가지 부류의 성경 말씀들에 대하여, 복음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의 트집 잡는 반대를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은혜롭게 전달되는 내용을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찾기 위하여 조사할 것이다.

때로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요한복음 3:16이나 요한일서 2:2과 같은 구절들을 설명하면, 그들은, “모든’은 모두를 뜻하고 ‘세상’은 세계를 의미한다, 성경이 ‘모두’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누구나를 그리고, 인간의 각각을 예외 없이 의미한다. 성경이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예외 없이 모든 인류의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고 응답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보기를 관심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분명하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에서,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라는 것을 본다. 분명히, “온(모든)”과 “세상”이란 말은 어떤 특정하고 한정된 범위의 특별한 무리의 사람들 내에서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것들은 결코 당신과 나를 포함하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성경 본문의 이 세 가지 항목들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모든”이라는 말이 사용된 말씀들

“모든”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들을 서술하기 위하여 사용된 성경의 그 본문들은 예외 없이 전체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요한복음 1:7에는,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침례자 요한은, 모든 진실된 복음 전파자처럼,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은혜

의 소식을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전달자로 보내졌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파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전파자를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보내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를 보내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으며, 어떤 자들에게는 그 종들이 가기를 얼마나 갈망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이다(행 16:6-8). “모든”이라는 말은, 여기에 사용된 것으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종이나 자유인을 의미하였음이 틀림없다.

주 예수께서,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 끌리라, 하시니라.” (요 12:32)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 아니었다. 주께서 그와 같이 선포하셨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지옥에 있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그것은 분명하다. “모든”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다시 모든 종류의 사람이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로마서 5:18).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5:22). — 이 두 말씀에서, 종종 보편적 구속을 위한 증거용 말씀으로 인용되는데, 성령은 아담 가운데 대표된 모든 자가 아담 안에서 죽었으며, 마지막 아담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은 그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다. 이 구절들에 있는 “모든”이란 말이 어떤 절대적인 의미에서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해석은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고통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14-15에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던 모든 자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선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갈 2:20). 우리가 하나님께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특별하고 효험 있는 구속 가운데 계시되고 체험되며, 모든 영적인 것 가운데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굴복시키며, 강요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고전 6:9-11, 19-20).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모든” 자는 갈보리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고 은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난 모든 자, 즉 그분이 영광으로 옮기실 그분의 양 떼와 교회와 많은 아들이다. 영광의 주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모든 자는 그분의 죽음의 확실한 증거 결과로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 살도록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2:4-6은 주 하나님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의 은혜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연줄이나 인척이나 세상적 지위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오지 않는다. “모든” 자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곳곳에 모든 사회 계층에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갖고 계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와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를 하시는 대상이 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요 17:9, 20).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중재하시는 목적과 제사장으로서 희생이 되시는 목적은 같다.

디모데전서 4:10에서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는 것을 듣게 된다. 우리의 위대하고 영

광스러운 하나님과 구주는 모든 사람을 생명 가운데 보존하시며 생명을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자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시는 모든 자의 구주이신 바로 그분 한 분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러나 그분은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그는 자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정해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섭리 가운데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사 43:1-5). 함의 아들들은 잠시 동안 살아 있는데, 그로써 그들이 셈과 야벳의 아들들을 섬겼을 것이다(벧후 3:9). 그를 “특별히” 우리의 구주로 만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믿게 만든 것이 “특별히” 우리 구주로서 그분의 존재이다. “특별히” 우리의 구주가 되심은, 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이고, 우리를 영원한 선택 안에서 선택하셨음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이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음이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셨음이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존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디도서 2:11, 12). 이 구절은 특별하고 효험 있는 구속에 속한 복음의 교리를 반박하기 위하여 종종 거론되지만, 그 말씀은 그

것이 가르치는 것 그대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거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모든 사람”은 상대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성경을 전혀 보지 않았다던가, 혹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많은 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복음을 들은 모든 자에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과 그 능력으로 변화된 자들에게 효험 있게 온다!

히브리서 2:9은, 그리스도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으로서, 복음을 부인하는 많은 자에 의해서 예로 들려진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의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은 “모든”이란 말로 끝난다. 기자는 문맥이 가리키는 것—모든 아들, 모든 상속자,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모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 하는 모든 자, 형제라 부르는 모든 자, 그분의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자—처럼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들 가운데 모두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맛보셨던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뻐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9). 이 말씀에는 보편적 구속의 표시가 없다. 상황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우리를 향하여”이며, 그의 오래 참음은 “우리의 구원이다.” (15절).

“세상”이라는 말이 사용된 성경 말씀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던 자들을 서술하기 위하여 “세상”이라는 말이 사용된 성경의 본문들은 복음의 분명한 계시에 반대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들은 보편적 구속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요한복음 1:9에는,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았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창조와 양심의 빛을 주신다(롬 1:18-20; 2:14-15). 그는 많은 사람에게 성경의 빛을 주시며 복음을 전파함으로 오는 빛을 주신다. 그러나 그분은 오직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은혜로운 구원의 빛을 주신다.

침례자 요한이 선포할 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 1:29), 그리스도께서 세상 전체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신다고 외치지 않았다. 만일 그렇다면, 아무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의 죄를 심판하셨겠는가? 요한은 신약에 걸쳐서 선포된 것을 단순히 선포하고 있었다.—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모든 열방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효험 있게 구속하셨다. 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주이고 구속주이셨다(요 3:16; 4:42; 6:51; 고후 5:19; 요일 2:1-2; 4:14). 세상으로 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들을 전가하지 않으실 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든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세상이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여전히 죄인들이다. 복음의 달콤하고 좋은 소식은 이것이다.—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대변자가 있다. 더는 끔찍할 수 없는 우리의 죄들은 우리의 대변자가 누구이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의 입장이나 그분과의 관계가 결코 변할 수 없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전능한 대변자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자이다. 그리고 그는 만족하시는 공의이시며, 우리의 죄들을 위한, 각 시대와 모든 세상을 통틀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로 사용된 진노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구주가 계신다! 그러나 전체 세상을 위한 오직 한 분의 구주만 계신다. 그리스도가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가 진리이다—유일한 진리이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구주이다—유일한 구주이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멸망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성경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옥에서 여전히 멸망할 자들이 있다고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경의 몇몇 구절들이 있다. 물론,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옳으시고 참이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성격을 범할 수도 범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 누구도 그분의 공의가 이미 그분의 귀한 아들의 희생으로 만족하게 된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없다.

로마서 14:15는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속전을 치른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데 종종 사용되었다. “그러나 만일 네 음식물로 인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견지 아니하나니 네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망하게 하다”라는 말은 타락하다, 훼손하다, 혹은 더럽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더 약한 형제의 양

심을 타락하게 하는 대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었다면, 당신을 위한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자제하는 것은 내게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당신의 현재 평안과 안정을 지대하게 해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훼방할 수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거나 그리스도의 피를 결코 효능 없게 만들어 버릴 수 없다.

고린도전서 8:11-12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John Gill이 제시한 것보다 더 잘, 더 많은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여기서 “멸망하다”라는 말을 “죽지 않을, 혹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혼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도들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누구의 경우도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금까지 헛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주로부터는 보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8:33에 대치된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공의에 완전히 만족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심에

분명하고, 같은 범위에 대하여 두 번 벌하시는 것이다.” 오히려, “멸망하다”라는 말은 “잠시 동안 그의 평강과 위로의 멸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더 강한 믿음과 더 큰 지식을 가진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그의 양심을 '더럽히고' '상처 입힘'과 그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으로 설명 된다.” (고전 8:7, 12, 13). 모든 믿는 자는 크게 조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의 더 약한 형제자매들을 마음 상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강한 형제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깝고도 귀한 자들이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체험함으로 내적으로 결코 성화되지 않은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외적으로는 거룩하게 된다. 때로는 그들은 천연적으로 그들이 그 아래 처하는 정죄보다 더 큰 정죄를 그들 자신 위에 올려 놓으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저버린다. 그것이 히브리서 10:29에 선포된 바이다. —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베드로후서 2:1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처럼, 실패와 좌절과 그의 편에 있어서의 패배의 인정이 아닌,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의 놀라운 선포이

다. —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이 구절에서 “주”라는 말이 더 나은 번역일 것이며, “군주”로 번역 되었어야 한다. “사셨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로부터 사다” 혹은 “구해내다”가 아니다. 오히려, “구입하다”를 의미한다.

만일 집을 사는 것이었다면, 이 구절에서 번역된 “구입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 집은 나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그 소유권을 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집으로 이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내가 전에 저당했던 골동품 주머니 시계를 되 사려고 동네 전당포에 간다면, 되 사기 위한 말로써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하신 일을 말할 때 신약에서는 “구속하다(되 사다)”라는 말을 보통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것의 의미는 “값을 치르고 가져오다”라는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사람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다. 그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분 자신의 생명의 피로 속량을 치르고 가져오셨다. 그는 베드로후서 2:1에서 묘사된 타락되거나 잘못된 예언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인자로서, 하나님-사람 중재자로서 주권

적 군주처럼 그들의 소유와 전체 세상의 소유를 사서 취하신다. 인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될 모든 육신을 통치하고 결정지을 권한을 사셨다(요 17:2; 롬 14:9; 빌 2:9-11). 그는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파셨고 (고후 8:9), 하나님의 창조의 밭을 사셨으며, 그래서 그 밭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석들인 보화를 취하실 것이다(마 13:44).

사람들이 그들의 완전한 타락을 깨닫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만을 신뢰하기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오해하고 왜곡하리라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러나 내부와 논쟁하는 뜻에 자신들이 걸려드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거룩한 것들에 속한 기쁨을 스스로 훔치는 것이다. 타락한 사람들의 모든 트집 잡기에 답변하기보다는 특별하고 효험 있는 복음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교리 안에서 기뻐하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도록 하자. 타락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들인 바로 이 말씀들을 취하고 영광에 이르는 디딤돌로 그 말씀들을 사용하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큰 것을 배운다.

-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영화롭게 한다.
- 구속은 결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성취되고 얻어질 수 없다.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속을 얻으셨고

주고 계신다.

-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구속은 영원한 구속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은혜로운 은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을 통하여 갈보리에서 그분에 의하여 구속 받았다(갈 3:13-14).

36. 그리스도의 만족

히브리서 2:9-10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물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구속의 역사이다. 그 역사에 포함된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 할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들

어가셨던 것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비탄스러운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경이롭게 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A. W. Pink가 쓰기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두루마기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야 했으며, 하늘과 땅의 통치자께서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갈 4:4),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거처를 지으시고 '그분의 머리를 둘 곳도 갖지 못하셨던 것은' (마 8:20), 유한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이유로 우리가 타락한 곳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고 경배를 드린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우리 구주의 여정을 생명의 보좌에서 사망의 무덤까지 추적하고 부유했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고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해 질 수 있었던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 앞에 벌어진 경이로움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우리 구속주의 수치스런 여정 가운데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안에서 정하여진 것이었음을 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며, 하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에서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된 측량할 수 없이 비통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며, 끊임없는 치욕이고, 쓰라린 증오이며,

가혹한 박해였다!

십자가 아래에 서서, 그 저주의 나무에 못 박히고, 그의 피와 성난 군중들이 내뿜은 침으로 덮이고, 죄 있는 것으로 되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거룩한 자를 바라보노라면, 물론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행하신 것임을 깨닫고는 있지만, 나는 놀라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나는 존경과 경이로움으로 채워진다 (고후 5:21; 갈 3:13).

저기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보니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저주받은 나무에서 끝나네,
그의 피로 뒤범벅 된 채로.
보라, 피빛 급류가 흐르는 것을
그의 손과 머리로부터 흘러내려,
심홍색 물결이 해를 감추네;
그의 신음이 죽은 자를 깨우네.
진동하는 땅, 캄캄한 하늘,
진리를 크게 선포하네;
놀란 백부장의 외침소리,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내가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주를 존경하며 놀라고 있을 때, 여전히 억누를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심판은 요구될 수 없었나 라는 질문이다. 그 질문은 단지 이것이다. — 왜?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런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괴롭히셨으며, 그렇게 끔찍하고 경멸스러운 방법으로 죽이셨는가?

그것이 내 혼을 구원하였나?

그가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인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그가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었나? —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내게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나? 실로 그렇다(롬 5:8; 요일 3:16; 4:9-10).

“예수, 높은 곳으로부터 그 보좌를 떠난 분,
기쁨의 밝은 영역을 떠나셨네,
기쁨의 밝은 영역을 떠나셨네,
그리고 피 흘리고 죽으시려 세상에 오셨네,
이런 사랑이 전에 있었나?”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분의 사랑을 또다른 방법으로 보여 주셨을 수 있다. 왜 그분의 아들을 죽이셨나? 어떤 필요로 하

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고 죽게 하였나?

그 질문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대답만 있다. —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 구원할 필요가 없었다. 구원은 전부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대가 없는 은사이다. 그러나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타락한 인성의 파괴로부터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죄들을 용서 할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 “피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히 9:22).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족되어야 했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피이다.

만족의 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신성한 공의를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심의 필요성과 축복받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이것은 극히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것은 복음의 영광이며 그리스도교의 영광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종교로부터 그리스도교를 구별 짓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신성한 공의의 만족이다. 그리스도교에서 십자가를 제거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에 의한 그리스도의 만족을 없애 버린다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보다 사람들의 혼에 줄 가치나 유익이 결코 없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에 속한 것인데, 죄에 대하여 만족함이 없이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저주받을 이교도들”에 속한 것이 잘못된 예언자들로 인하여 들어오게 되었음을 경고한다. 그런 저주받을 이교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만족을 부인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혼 안에 더 흔하고 파멸적인 것은 없다(히 10:26-29 7).

히브리서 2:9-10

아마도 히브리서 2:9-10은 다른 어떤 본문보다 더 분명하게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만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예수를 보노라” —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본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본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신격의 충만과 (골2:9) 은혜의 충만과 (요1:14; 골1:19) 구속의 충만이심을 (엡1:7)을 본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속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시고, 우리 의의 주로서 본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본다(고전 1:31). 당신은 그분을 보는가? 만일 그렇다면, 육신과 피는 당신에게 그분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⁷ 히브리서 10:29에 있는 “거룩하지 아니한”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흔한”의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효험이 없고 공로가 없는 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 죄를 위한 희생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계시하셨다.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 천사를 만드신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더 낮게 되셨다. 그분은 여자의 씨로 되셨으며, 사람이 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셨다.” (갈 4:4-5). 이것이 성육신 되신 이유이다. 이것이 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더 낮게 되셨던 이유이다.....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의 고난을 받기로 계획되셨기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군주가 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 그분은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 그분은 종교개혁자가 되기 위하여 오시거나 단지 도덕적이고 미덕의 예가 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대신 죽고 그들을 구속하시려 하였다. 그분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는 그분이 그 백성 대신 고통 받고 죽으셨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본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빌 2:8-11). — 그리스도께서는 높여지셨다.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인자는 이제 만유의 주로써 영광으로 관 쓰시고 모든 존귀를 받으신다. 하나님-사람, 사람-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분이 이제 대신하여 죽었

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세상을 통치하신다(요 17:2). 이제 다음 행을 보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 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선언은 다른 모든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빛 비춤 안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가 기도해 주기를 거절하였던 자들 (요 17:9), 그의 양이 아닌 자들 (요 10:11), 파괴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인 자들 (롬 9:22), 그들로부터 그분의 역사와 은혜를 모두 감추려 하였던 자들 (마 11:20-25)을 위해서 조차도 죽으셨다는 것을 선포함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그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분의 속죄의 효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선언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좋은 본이나, 단지 사람들의 선함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보증으로써 사람들의 자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나 우리의 번역자들은 아무런 분명한 이유도 없이 좀더 읽

기 쉽게 하려고 “사람”이란 단어를 첨가하여 문장을 만들어 버린 것 외에는 없다. 그리스어 본문에는 간단히 “사람”이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가 이 구절에는 없다. 그 문장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를 위하여 사망을 맛보셔야 하였다,” 혹은 “모두를 위하여,” 혹은 “각자를 위하여”라고 번역되어야 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영광에 옮기실 아들들 각자를 위하여 (10절), 소유하기를 부끄러워 하지 않을 형제들 각각을 위하여 (11절), 그 가운데에서 찬양을 부르실 교회의 각 지체를 위하여 (1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께 주어진 자녀들 각자를 위하여, 그분께서 육과 혈을 입기로 하셨던 그들을 위하여 (13절), 그리고 그분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취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아담의 씨 각자를 위하여 (16절)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고통 받고 죽으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고통가운데 죽어야만 할 정도로 낮아지게 되셨는가? 그 백성을 대신하여 그분이 치욕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필요는 무엇인가? 10절을 읽도록 하자.....

“합당하도다” —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광으로 옮기실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공의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하여 고난 받아야만 하는 것은 필요하였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사망이 필요하였다고 선포한다(마 16:21; 26:29; 요 3:14).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필요로 하였으며 (행 2:23), — 우리의 보증으로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이고 (요 10:17-18), 구약의 예언들이며 (마26:54), — 그리고 은혜의 택하심이다.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러나 몇몇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의 희생을 통한 공의의 만족 함으로서였다.

바울이, **“합당하도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이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약점으로 되고, 그분께서 즉각적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여기 주 하나님께서 만유의 궁극적인 마지막과 첫 번째 이유이신 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롬 11:36). 만유는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분은 만유를 그분을 위하여, 그분 본성의 모든 성취의 영화롭게 함을 위하여 만드셨다(잠 16:4; 고후 5:18). 그리고 만유는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본성적으로, 섭리 가운데, 구속 안에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만유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의 암시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하려고 한 자들은 많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속하러 오시기 오래 전에 영원한 양자됨과 신성한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갈 4:4-6).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아들딸들이 될 것이다.”고 선언하셨다(고후 6:18).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로 택함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권능과 권위를 부여 받았으며 거듭남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성을 부여 받았다(요 1:12-13).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선포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지 않는다. 양자됨이 그렇게 하였다. 믿음은 단순히 아들들의 양자됨을 받으며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갈 4:6; 롬 8:15-16).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으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만만의 엄청난 숫자이다. 그들은 택정하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많은 자이며,—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속량으로 대신하여 주신 많은 자이며,—죄들을 없애기 위하여 그분의 피를 대신하여 흘린 많은 자이며,—그분의 순종으로 의롭게 한 많은 자이고,—아버지의 집에 많은 집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다. 이 많은 아들에 관하여, John Gill은 이렇게 적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까지 '성

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을 통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과 기업 그 자체를 받는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기업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시다. 그분은 우리 구원의 “창시자”로 불려지는데, 그분이 그것의 명령을 받은 분이고, 책임을 진 분이며, 그분의 팔로 그것을 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위대한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신 그 방법은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분의 완전한 고난과 죽음에 의한 것이다. 공의를 만족하기 위한 그분의 고난 받음을 제외한다면 구원은 없었을 것이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히 5:8-9).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고 죽으셔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 반복하

건 데—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하실 수 없었다. 공의가 그것을 요구하였다(잠 16:6; 17:15; 롬 4:5; 벰전 3:18).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히브리서 2:9-10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원한 영광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얼마를 옮기는 것은 전능하신 분의 설계이고, 계획이며, 기쁨이었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음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필요하였다.

그리스도의 만족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지 그 이유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길을 열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공의의 만족이라고 말하겠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 속에 두게 될 좋은 체험에 관련한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 그리스도의 만족에 있어서 당신의 유익에 의심을 품도록 유혹을 받을지도 모를 때, 내세에 당신에게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개인적이든지 공개적이든지, 여

러분의 벽장 안에서든지, 가족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의 집에서든지간에 말씀 사역, 기도, 혹은 주의 만찬과 같은 어떤 의식 아래에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있다는 것을 믿을만한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대신에 만족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결코 그런 영적 교감을 누리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John Gill)

종합. 그리스도의 만족에 대하여 여섯 가지로 정리하여 그에 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하도록 하겠다.

1.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인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께 대적이 되었다. 우리 죄의 삯과 하나님께 대한 대적은 사망이다. 모든 범 죄는 공정한 값을 받아야 한다(히 2:2). 모든 죄는 죄인에게든 죄인을 대신한 자에게든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범하여진 율법은 죄를 고소하고, 그 죄인을 정죄하며 사망을 요구한다. 만족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율법의 선고는 집행되어야 한다. 율법의 처벌은 사망이다. 그것은 결코 무효화 되거나, 변하거나, 바뀌거나, 완화될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공의를 늦추지 않으실 것이다. “죄를 짓는

훈, 그 훈은 죽을지니라.” (겔 18:4).

2. 여전히,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은 긍휼 가운데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구원을 명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은 좌절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분명 구원 받을 어떤 사람들이 있다(요 10:16). 택하심의 사랑 안에서 영원 전에 택함 받은 모든 죄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살후 2:13-14). 모든 언약의 상속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엡 1:3-7). 세상의 기초가 세워질 때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아담의 모든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계 13:8).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어떤 자도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

3. 그러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만족과 동떨어진 그 어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히 9:22).

하나님은, “나는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출 34:7)고 선포하신다. 그렇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며, 전능하시고, 주권적이시다. 그분은 그분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신다. 나는 누구도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더 충만하게,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력하게 선포한 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과 성품에 어긋나는 것을 하실 수 없다. 우리가 성경의 선포를 반복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주권을 훔쳐가지 못한다. 진리이신 그분은 거짓을 말 하실 수 없다. 성경의 이 진리 — 하나님은 공의의 만족하심이 없이 죄를 사하실 수 없다—를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주권을 훔쳐가지 못한다. 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만 한다.

4.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의 희생으로 인함이다(욘 34:23; 롬 3:24-26).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었으며 사람은 만족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사람은 죽음과 만족하게 함을 모두 할 수 있었다. 두 사실들은 공의가 만족하게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을 입증한다. 만일 그분의 공의를 지키며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한 아들을 죽이셨을까?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헛되게 희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버려라! 하지만, 만일 의롭게 함이 그 다른 어떤 방법으로 죄인들에게 올 수 있었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말한다(갈 2:21).

게세마네에서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분의 만족도 필요함을 증거하고 있다(마 26:39). 그의 백성을 구원함이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성취될 수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고통 받는 아들에게 그의 혼의 갈망을 보장하시지 않았을까?

무엇이 공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예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아, 소중하여라 그 흘리심,

그것이 나를 눈처럼 희게 하였네!

다른 어떤 원천도 난 모르네,

예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5.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죄들에 대한 공의가 만족하게 된 어떤 죄인을 벌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하다(사 53:11; 롬 7:14). — 처형된 중죄인에 대하여 율법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지불된 것을 두 번 요구하실 수 없네,
첫째는 피 흘리시는 내 보증인 손에,

그리고 다시 내 손에!

6.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죄인은 선택되었고, 구속 받았으며, 부름 받았고, 분명히 영원히 구원 받았다(히 11:1).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은혜의 결과이지,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택하심과 구속과 부르심의 증거이다. 만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되었다면, 그리고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오직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만 있으며, 성령으로 부름 받은 자들에게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죄는 얼마나 끔찍한 악인가—그리스도의 피만이 그것을 대신하여 만족하게 할 수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야 했고 하실 것이다.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엄격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열려진 길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다. 그는 죄에 대하여 만족하게 하셨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 온다면, 그분은 당신의 죄에 대하여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존경하며 흠모하자(시 85:10-11). 그의 사랑을 존경하라. 그분의 긍휼을 흠모하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 그분의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진리의 놀라움 가운데 서라. 모든 빛 비춤이 그리스도의 만족 가운데 영광스럽게 비춘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신성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혼을 위한 속량을 찾으셨다. 거룩이 그것을 승인하셨다. 공의가 그에 만족하신다. 진리가 그것을 선포하신다.

37. 그리스도의 만족의 세 방면

로마서 3:25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복음 전파자들은 종종,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게 하셨으며 그가 마치신 일의 결과들로 영원히 만족하실 것임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만족에 대하여 말한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하라. 그것은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심에 관한 이 문제가 복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저주의 나무 위에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고난 받고 죽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그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것을 충만케 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의로움으로 옮기셨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지시고, 신성한 공의의 마지막까지 이르도록 그 벌을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광스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양은 그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들을 멸하셨다. 그는 그 백성의 죄들의 모든 사악한 결과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면책을 영원히 보장하셨다. 그는 그의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지우시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만족하심으로써, 우리의 위대한 구속주께서 그의 혼의 고통에 대하여 보실 것임과 만족하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분은 그의 백성들, 구원 받고 의롭게 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것이다. 속량 받은 죄인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선포하는 좋은 소식이다(사 40:1-2).

간단히 정리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만족의 교리이다. 만족에 대한 이 문제는 성경 안에서 화목과 속죄와 화해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사 40:1-2).

화해 헌물

“화해 헌물 (propitiation)”이란 말이 신약에는 세 번 사용된다. 이 모든 세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해 헌물이라 한다. 신약에서 “화해 헌물”로 번역된 똑같은 그리스어 단어가 그리스어 판에서 출애굽기 25:21과 히브리서 9:5에서는 “속죄소 (mercy seat)”라고 번역되어 있다.

언약궤를 덮고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덮으며, 그 위에 그룹들이 있고, 그 위에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속죄소는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의 피가 뿌려진 것이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그 백성을 만나기로 약속하셨던 거룩한 통치자의 보좌였다. 속죄소를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희생의 피(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며 가리키는 것임)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과 함께하는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뿌리신 곳이기 때문에, 긍휼을 얻고 필요의 때에 도움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 받는다.

누가복음에서 주 예수께서 언급하신 세리는 속죄소로 대표된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 보았다. 그는,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화해 하소서)”라고 말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화해 헌물로서의 희생을 통하여 긍휼을 구하였다. 성경에서 이 화해 헌물이라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용된 곳을 찾아보도록 하자.

로마서 3:25

“화해 헌물”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며 처음 등장한 곳은 로마서 3:25이다. —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도록 하셨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신 분이며, 그분 안에서 화해 헌물 발견된 분이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해하게 하신 분이시며, 그분 자신이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소이다.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고,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곳이다. 그분만이 그분으로 공의가 달램 받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신 분이시다. 그

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해의 희생이다. 구약의 전형적이고 법적인 희생의 달콤함을 맛보는 예표들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그들에게 의례적으로 만족하였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분에게 달콤하게 풍기는 향이다.

“그의 희생은 아버지께 달콤하게 풍기는 향기 나는 헌물이었다. 아버지께서는 그것에 매우 기뻐하셨다. 그것이 아버지께 내용과 만족을 드렸던 것은, 그분의 공의는 그로 인하여 진정되었기 때문이며, 그분의 율법의 요구들이 응답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은 확대되었고 존귀하게 되었다.” (John Gill)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아들을 우리의 중재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도록 내놓으셨나? 분명히 바울은 아들이 아버지께 비굴해지도록 강요 당하셨다고 제시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 의하여 합의 된 것이다. 아들은 단지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실 그분의 화해의 제물으로써 우리의 화목제물이 기꺼이 되셨다. 하지만, 성령은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도록 내놓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셨다고 말한다. 어떻게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명령 가운데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도록 내어드린 바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양이며, 그는 바로 그 백성을 위한 속전과 화해의 희생으로서

죽임 당하도록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미리 명하여진 분이다. 그런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에 따른 것이었다(벧전 1:19; 행 2:23; 4:28).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도록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과 예언과 그림 가운데 드러내셨다. 그분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씨이며, 뱀의 머리를 밟으러 오셔야만 하는 분이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양이고, 늦 뱀이며, 아침저녁의 희생이며, 선지자들이 기록한 약속된 대속물이다.

시간의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육신 안에서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제시되셨다. 그는 사실상 여자에게서 났으며, 율법 아래에서 나왔고, 율법 아래에 있던 그 백성을 구속하실 분이셨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의 죄들로 화목제물이 되도록 내어드린 바 되시며, 복음 가운데 시간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 그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책 안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복음은 화목제물로서, 죄에 대한 유일한 효험 있는 화목제물로서 사람들 앞에 놓여진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2:2

요한일서 2:1-2에서도 우리 구주는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목제물로 불려지고 있다. —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

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를 위한 화목의 희생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실 수 있게 한 희생이며, 우리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달램을 받게 되신 분이다(히 8:12; 겔 16:6).

요한일서 4:10

우리는 같은 것을 요한일서 4:9-10에서 본다. —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스런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로 삼아 신성한 공의에 만족으로서 그분의 혼과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속죄

화목, 혹은 화해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한 방면이며, 그 두 번째 방면은 속죄이다. “속죄”라는 말은 율법의 전형적 희생물이며 죄의 의식적(표상적) 속죄와 연계하여 구약에서 종종 사용된다(레 1:4; 4:20, 26, 31, 35: 5:6, 10, 13, 16, 18; 16:6, 10, 11, 16-18, 27, 30, 32-34; 17:11).

“속죄”라는 말의 근본적 의미는 “덮다”이다. 그의 집을 구하기 위하여 노아가 지은 방주가 역청으로 덮었던 것과, 위반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아래에 두고 덮은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와,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려진 피는 이집트의 모든 선택된 가족인 것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희생으로 이것들에 대한 예표로서 그 백성들을 덮는 것인데, 우리가 율법을 어긴 저주로부터, 우리가 당연히 받았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드러내게 하였던 거룩한 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원수 갚음으로부터 덮여지고 있다.

그러나 “속죄”라는 말은 신약에서 오직 한 번만 사용된다.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 5:11에서 찾을 수 있다. —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이 속죄는 우리의 보증이고, 머리이며, 대표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것에 대한 지식과 축복과 유

익, 그것에 대한 적용은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우심과 희생을 취하시고 그것을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며, 속죄 안에서 우리의 유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효험을 받도록 한다. 속죄의 효험은 성취된 구속을 아는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위로이다.

흠정역에서 “속죄”로 번역된 그 말은 “화해”를 의미하면 더 나은 번역일지도 모른다. 그 말은 간혹 그렇게 번역되고 있다. “속죄”에 대한 히브리어는 어떤 곳에서는 “화해하다” 혹은 “화해”로 번역되기도 한다(레 6:30). 그 사실은, 죄를 위한 속죄와 화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점이다. 두 가지 모두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받으시는 희생을 의미하고 있다. “속죄”라는 말은 “.....와 같은 생각”을 뜻한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옮겨진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자마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분 자신과 화해하였기 때문이다.

화목

그리스도의 만족의 세 번째 방면은 화목이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고후 5:18). 우리의 직분은 화목의 직분이다. 우리는 화목이 성

취되었음을 선포하며 천연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인 죄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며,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얹드리고 신뢰하도록 만든다.

화목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시작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본성과 섭리와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화목은 평강의 생각이었던 그분의 마음의 생각 안에서 시작하였다. 그것은 영원 가운데 있는 대회의 안으로 가져가졌으며,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은혜와 평강의 언약 안에서 결정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실행되고 성취되었다(롬 5:10; 엡 2:16; 골 1:20-22).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전은, 그를 향하여 모든 죄가 저질러진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범하였던 분이며, 우리가 그분의 공의를 범하였던 분인 하나님께 지불되었다. 속전은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인 율법의 제정자에게 지불 되었다(롬 5:10; 엡 2:16). 그리스도의 피는 죄 때문에 화목을 하기 위하여, 그 속죄로 삼기 위하여 뿌려졌다(단 9:24; 히 2:17). 그리스도는 본성적으로 죄인들이고, “진노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수가 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죽으셨다(롬 5:10; 엡 2:1-4; 골 1:21).

그 분 아들의 속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케 된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분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분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고후 5:17-21). 화목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그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오는 죄인들에게 대하여 열려 있다. 그 길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며, 하나님의 속죄이신 그리스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과 화목하기 위한 죄인들을 찾기 위하여 화해의 말씀으로 그분의 종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분과 화목하도록 강조하는 그 동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과 새로운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다.

화목제물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유희이다. 속죄는 속죄소 (“은혜의 보좌” — 히 4:16)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합이며, 그 곳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있다. 화목은 하나님과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런 아들의 인격 안에서 함께 속죄의 피를 바라보면서 연합하는 것이다.

38. 화목

고린도후서 5:17-2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약속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17 절). 여기에 모든 진실한 믿는 자와 관련한 사실의 서술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모든 자에게 영광스러운 언약에 대한 서술이 모두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다.

이것은 성취된 화목의 선포이다. 맥락에서 성령은 믿는 이들의 거듭남의 체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성령은 부름 받은 모든 죄인에게 거듭남 안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의지,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거듭나고 거룩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택하신 자들 안에 형성된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에서 죄인들은 그리스도께로 부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성취하셨던 것에 대한 복음 선포로 그리스도께 오도록 설득 받는다. 고린도후서 5:17은 그리스도께 나온 모든 자,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다. 죄에 대한 우리의 옛 기록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제거되었으며, 천국 법정 안에 있는 율법책들로부터 영원히 말소되었으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 하늘에 새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완전한 의(우리에게 귀속된 그리스도의 의)의 기록이며 완전한 만족이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없애 버리셨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 (렘 50:20).

복음 선포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죄인들에게 화목을 제시하거나

화목의 조항이나 조건들을 사람들 앞에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취된 화목을 선포한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18-19절).

화목은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하였다.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분의 생각들은 영원 전부터 평강의 생각들이었다. 지금까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 문제는 은혜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영원 가운데 자리 잡았으며,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성한 삼위일체의 세 인격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평강이 자리 잡았다(삼후 23:5; 롬 8:28-31; 엡 1:3-6).

이 화목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으며, 시간 가운데 실제로 실행되었고, 갈보리에서 그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19절에서 바울은 택하신 죄인들 대신에 하나님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희생시키실 때 갈보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설명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어린양이 흘린 피로 성취된 화목은 죄와 죄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화목이었으며, 죄를 대신한 속죄를 하고자 함이었고, 선택 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영원한 평강의 연합 안으로 옮기기 위함이었다(단 9:24; 롬 5:10; 엡 2:16; 골 1:20-22; 히 2:17).

이 화목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아들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였고 성취된다.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죄인들에게 생명과 믿음을 주실 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그들의 양심에 뿌림으로, 그분은 은혜롭게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자들을,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적이었던 자들이었던 다른 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께 화목하게 하였다(골 1:20-21).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당신에게 보내서 그분의 영의 능력 가운데 화목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 때 그분은 당신을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은혜로운 설득

20-2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셨으며, 우리의 영들을 제압하셨으며, 우리를 무릎 꿇게 하셨으

며,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 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은혜롭고 효험 있게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오도록 설득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일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의 날에 계시되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꺼이 받는 자들이 된다(시 65:4; 110:3).

하나님께 대한 원수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 이후, 우리는 본성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이다(롬 8:7; 엡 2:3; 골 1:21).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원수다.” 이것은 본성적인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실재로서 타락한 자에게 속한 것과 같다.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며,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이며, 다른 자들과도 같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는 모두 “사악한 행위들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멀어져 있고 원수들이다.”

첫째, 하나님은 영은 우리에게 아담의 모든 자녀 속에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원수의 마음이 있다고 말한다(롬 8:7). 우리들 각자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원수 그 자체가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이다. 우리 육신의 천연적인 마음들은 그분을 경멸한다. 하나님의 바로 그 존재는 타락한 사람에게 몹시 불쾌하다. 우리 모두는 천연적으로 그분께서 존재하시지 않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완전함은 우리의 오만한 육신에게 있어서 역겨운 것이다. 우리 모두는 천연적으로 그분의 거룩한 존재의 속성들을 거부하고 잘못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들을, 사람들이 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은 무례하게 비난한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불균형과 불의로 가득 채우고 있다.

천연적인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례하고 증오스러움이 없지 않다. 모든 사람은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모든 자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경멸한다. 인간은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사실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인 전하는 말과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효험 있는 구속의 교훈을 멸시한다. 그러나 모든 자는 보좌에 앉은 하나님-사람,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를 멸시한다. 성경에 제시된 그의 통치와 지위와 명령들을 혐오한다.

똑같은 것이 성령 하나님에게도 사실이다. 우리는 오순절이 종교의 표준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된 그와 같은 종교적으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사실 자체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모든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등골이 오싹하고, 혀가 꼬부라지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영을 좋아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항상 효험이 있고 거부할 수 없으며 구원하는 분인 주권적인 성령에 대하여 단 몇 분간만 이야기 한다면, 그들의 종교적인 달콤한 기질은 단지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항하여 정박하고 있을 시큼한 증오심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계시된 그런 것들을 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증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증오하는 중에 공개적으로 표현된다. John Gill은,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있는 오래되고 확고한 원수가 있다.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선택 받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 택한 자들은 그들 자신들이나, 다소의 사울 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서로를 증오하고 싫어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항한 외적인 원수가 있다고 말하는

데, 그것은 죄인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자행되는 사악한 행위들과 죄로 가득한 행동들로 나타난다(골 1:21).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이런 외적 행위들은 그분의 본성과 뜻에 반대되는 것이며,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어기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그분 보시기에 끔찍하며,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인간의 죄들은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며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다. 죄들은 그분의 율법을 범한 것들이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서시지 않으면, 사람은 지옥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으므로, 천연적인 사람은 거룩한 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한다.

타락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로우며 의로운 원수가 하나 있다. 성경은 타락한 사람에 대하여 합법적인 원수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타락한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거룩한 주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들이며, 반대자들이고 반역자들로 규정지어 진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해가 되셨을 때 그렇게 생각되고 있었다. 기록되기를,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롬 5:8-10)라고 한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임 당하고 그분의 죽음으로 제거된 것은 이 율법 증오심이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어떤 증오심도 없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하고 영존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어기고 우리의 젊은 혈기로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는 율법은 만족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겨지고 범한 하나님의 율법이 만족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받아들여질 수도 없었다.

원수들이 화해 됨

화해는 원수들이 되었던 자들 사이에 교감과 교제와 평강의 회복이다. 그것은 이전의 친구관계를 가정한다. 그것은 현재의 소외에 적용된다. 우리의 경우, 우리로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소외이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의 뿌리신 보혈에 의해서 뿐이다.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가능한 다른 길은 없다. 의로우심은 지속되어야만 한다. 공의는 만족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확대하고 존귀하게 하는 길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다. 그것이 왜 그리스도께서 이 곳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이다(롬 4:24-26; 고후 5:20-6:2; 갈 2:21).

이 화목이 이루어진 방법은 죄인들의 속죄의 대속물로써 갈보리에서 죽음에 뿌려졌던 그리스도의 피이다. 그분만이 화해를 이루는 분이시고 평화를 이루는 분이시다.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거나 그들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이룰 수 없다. 아무도 그의 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며, 그야말로 죄로 가득한 의로움에 대한 우리의 행위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의로움에 대한 우리의 상상 속의 행위들은 전능하신 분 앞에서는 단지 쓰레기 같은 누더기일 뿐이다. 회개는 죄에 대한 속죄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속죄를 받지만 (롬 5:11), 그러나 그것이 속죄를 만들거나 속죄를 효험 있게 하지 못한다.

죄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평화와 화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평화와 화목을 만드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것이 요구하는 모든 것과 율법의 무한한 공의에 대한 만족함으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전체 율법의 철저하고 완전한 준수를 만족하게 하는 이하의 것이 아니다(롬 8:3-4). 사망은 율법의 만족이며 죄의 삯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망에 의하지 않고서는 화해를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이다(히 10:1-4). 그리고 비록 세상 전체가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에 고통 받아야 하고,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들의 죽음 (그리고 그것에 죄로 충만한 죽어야 할 자들)은 결코 죄를 위한 대속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하지 않고는 화평과 화해와 대속을 이루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그분, 한 분 영광스러운 인격 가운데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사람이기도 하신 그분만이 그와 같이 한 없는 공로와 효능의 희생을 드렸으며 그로 인하여 엄격한 공의 가운데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39. 네 배로 의롭게 함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마도 성경에서 계시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주 제넘게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실이다. “공의와 진리는 그분의 보좌의 거처이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언제나 엄격한 공의의 근거들에 따라 사람들을 다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성품의 강직함과 의로우심이며, 그것은 그분께서 피조

물들의 공과에 따라 엄격하게 그분의 피조물들 모두를 다루시도록 하게 하는 점이다. 공의와 거룩은 사랑과 긍휼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에서 사랑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그분의 공의를 떼어 놓을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의로운 유일한 길, 죄인을 그분 자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연합 안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일 그분께서 죄인을 그분 자신의 율법과 공의의 시야 내에서 결백하고 죄가 없게만 할 수 있을 때이다.

의롭게 함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은혜의 이 행사는, 그것으로써 사람들이 결백하며 죄가 없다고 선포하시며, 사도 바울은 “의롭게 함”이라고 부른다. 의롭게 함은 법적인 말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되고 구속된 자들이 결백하고, 죄가 없으며 그분의 율법 앞에서 완전하게 의로움을 선포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결백하고 죄가 없으며, 그분 앞에서 완전하게 의롭다고 선포하실 때,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는 자비로운 추정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실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실로 의롭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시각에 완전하게 의롭다.

그러나 어떻게 이 의롭게 함이 성취되는가? 이것은 그 시대의 가장 큰 의문이다.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욘 25:4).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거룩하지 않는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당신은 복음을 배웠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복음을 모른다.

만족함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에 대하여 무한한 만족을 요구하신다. 아무도 그 죄들로 인한 율법의 의로운 벌을 받기 전에는 구원 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죄들과 범법들은 이제는 율법의 시각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처럼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겔 18:4)라고 하셨다. 주님은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시며,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고 말씀하신다.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와 그의 모든 족속은 죽었다. 우리의 조상 아담 (신성하게 지명된 우리의 총체적 머리이자 대표)은 죽었으며,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죽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저주 아래로 왔다. 유한한 생

명의 사람은 죄에 대하여 무한한 만족을 결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의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죄의 판결이다.

의로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무한한 만족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사람이 하나님 그분 자신과도 같을 정도로 완전하게 거룩하고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며, 아무도 하나님 임재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벧전 1:16)고 하셨다. 주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마 5:48).

하나님께서서는 전체적이고 절대적인 완전함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은 자를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절대적인 거룩으로부터 탈선한 한 사람조차도 우리가 마음의 온전함과 생각의 온전함과 생활의 온전함을 그분께 두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분의 얼굴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온전함보다 못한 그 어떤 것을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며 만족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 이시기를 그치셨을 것이다.

대속

사람은 따라서 소망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무한한 만족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함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소망이 없이 사라져 버리는가? 우리는 모두 멸망하여야 하는가? 타락한 사람에 대한 소망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축복이시니, 죄인들을 위한 소망이 있다! 그분은, “내가 능력 있는 자 위에 도움을 두었으며”(시 89:19)라고 하신다. 주 하나님은 “공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시 85:10) 한 분 안에서 언약을 하셨다.

이것은 복음의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과 대표자로서 두셨다.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제하심과 영원한 의로움 가운데로 옮기신 것과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성취하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 위에 우리의 본성을 두셨다. 그분은 하나님-사람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온전함과 의로움을 이루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사망 위에 그분의 피를 뿌리심으로 죄에 대한 영원한 만족을 이루셨다. 그분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대표자와 대

속물로써 행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하였다. 모든 신실한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의로움을 이루었으며 우리의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그 죄를 위한 무한한 만족을 성취하였다. 우리가 첫 번째 대리인 (아담 — 로마서 5:12) 안에서 죄를 짓고 사망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두 번째이며 마지막 대속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마서 5:18-19)에 의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였고 의롭게 되었다.

우리의 대표자이며 대속물로서 그리스도께서 마치신 역사의 결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로운 것이다. 우리의 혼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늘로 옮기는 가운데, 주 하나님은 공의에 정확히 따라서 우리를 다루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것을 주신다. 사실인즉, 공의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사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자들을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 공과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네 가지 방법으로 의롭게 됨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갈보리에서 아들 하나님의 죽으심과, 변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선포와,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위를 보임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

첫째로, 우리의 의로움은 영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모든 그분의 택하신 자들은 영원 전부터 의롭게 되었다. 우리의 의로움은 실제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 계획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이것은 추측이나 골치 아픈 신학적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없는 계시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책 안에서 직접 그것을 읽어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롬 8:30).

우리가 의로움은 시간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이다. 바울은, 예정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에 대하여 말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는 그분의 은혜로운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다. John Gill은, “택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백성을 택하심이다. 그래서 또한 그분이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자 하는 뜻도 그들을 의롭게 함이다.” 의롭게 함에 대한 그분의 행위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운 행위이다.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모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택하신 자들의 대속물로서 바라보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의롭고 항상 의로웠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 당할 어린양이다(계 13:8). 이사야 53장은 갈보리에서 우리 구주의 죽음에 대한 예언으로써 일반적으로 읽혀지며, 그 말씀은 분명히 그렇다. 하지만, 그 구절은 우리 구주의 성육신이 있기 오래 전에 이미 행해졌던 것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보증으로,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세상의 기초가 세워질 때로부터 죽임 당할 어린양”으로서, 그 안에서 기뻐하실 자로서 세우심으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기쁨들은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잠 8:30-31). 그러므로, 그분 자신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했을 자로서 바라보셨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계획과 결정 가운데 이삭을 희생하였던 것처럼(창 22:12),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을 희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시도록”(엡1:6) 만드심으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희생을 받으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희생된 자로서 보셨기 때문에, 은혜의 모든 축복들이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엡 1:3-7; 딤후 1:9).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에, 우리는 은혜와 구속과 용서와 의롭게 됨과 거룩하게 됨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받았다.

Thomas Goodwin은 기술하였다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하여 '그가 앞으로 나가심은 영원 전부터 있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에 대하여 말할지 모른다(엡 1:3). 우리가 다른 모든 것으로 축복을 받고, 또 이것도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의롭게 됨을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1.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의롭고 의롭게 된 것으로 보셨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우리 종족을 파멸시키셨을 것이다. 아담의 씨와 구원받아야 할 택한 종족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위에 처할 진노의 완전한 처형으로 남겨 두셨다. 하나님께서 룯이 성으로부터 구출될 때까지 소돔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 받아야 할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남겨두신다(벧후 3:9).
2. 구약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이유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 그들의 의롭게 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충만하고 철저하고 완전히 똑같다(히 9:15, 22; 롬 3:5). 모든 진실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

둘째, 갈보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롬 3:24-26). 비록 그가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음 당한 어린양이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혼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또 한 시간 가운데 죽음 당하였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영원한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으로 의롭게 되었으나, 우리는 또한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뿌려진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

성경은 의롭게 됨이 단순히 제공되었다거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의롭게 됨이 갈보리에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한다. 만약 의롭게 됨이 우리를 위하여 단순히 제공되었다든지 가능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성취되지 않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희생만큼 의롭게 됨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그분이 대신하여 죽은 자들이 의롭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한다(롬 3:24-26; 4:25).

C.H. Spurgeon은 이것을 이해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을 지불하셨던 그 순간에 나의 빛은 취소되었다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완전한 의를 역사하셨을 그 시점에 나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 자로서, 내가 태어나기

도 전에 나는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며, 예수께 받아들여졌으며, 심지어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축복을 받았던 것과도 같다.”고 말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할 때, 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신실하신 순종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 믿음은 의롭게 함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평강의 축복됨을 받는다.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때문에)을 위하여 옮겨지셨으며, 우리의 의롭게 됨(때문에)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다. 따라서 의롭게 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강을 얻는다.” (롬 4:25-5:1).

하나님이 율법과 뜻에 순종한 그의 생애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의를 행해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단 9:24; 렘 23:6; 33:16; 고전 1:30). 갈보리에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 그가 대신하여 죽었던 모든 자가 죽었으며, 죄로 인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하

였다(갈 3:13; 2:20; 롬 6:6-7; 8:1).

우리 구속자는 한 영광스러운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의롭게 하심을 효험 있게 성취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히 9:12).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죄들을 없애 버리셨다(골 2:13-15; 히 9:26). 그분은 그분의 은혜의 대상으로 남겨두었던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히 10:14).

더 가까이, 하나님께 그렇게 아주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까이,
그분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나는 그분께 아주 가까이 있기에.
당신의 보증 안에서 너는 자유롭고,
그의 소중한 손은 너를 위하여 못 박혔나니:
그의 흠 없는 옷을 입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하다.

이것은 철저하고 완전한 의롭게 하심이다. 율법은 완전한 의와 무한한 만족보다 결코 우리에게 속할 수 없다(엡 2:4-6).

당신이 이루신 완전한 대속,
그리고 마지막 한 푼까지도 지불하셨네,

당신의 백성이 얼마를 빚졌을지라도.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둘 수 없네,
당신의 의로우심 가운데 숨었으며,
그러면 당신의 피 뿌림을 받았네.
당신이 나의 방면을 구하셨다면,
그러면 내 방 안에서 자유로이 인내하였네.

진노의 모든 것이 거룩하니:
하나님은 두 번 지불하실 것을 요구하실 수 없네.
첫째 나의 피 흘리시는 증보의 손에,
그리고 다시 내 손에.

우리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갈보리에서 아들 하나님의 죽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의 덕분과 그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의 공의가 되시고 의롭게 하는 분이시다. 이제, 그분의 공의로 완전한 한결 같은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만큼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믿는 죄인을 벌하시고 구원하신다.

성령의 선포

세 번째, 모든 진실된 믿는 자는 변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선포

하심으로 의롭게 된다(롬 4:25-5:1).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실 때,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을 주시며, 그 죄인은 그리스도만을 그의 구원자이고 구속자로서 바라보게 되며, 축복의 영이 그리스도의 피를 양심 위에 뿌리며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는 법정 관리인과도 같이 말한다 — “의롭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위대한 속죄의 희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는 그분의 이루신 일의 많은 유익을 받는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많은 유익 가운데 한 가지는 의롭게 함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도록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것을 이루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자로서 그리스도께만 안식함으로, 하나님과의 평강을 얻으며, 심지어 완전하고 철저한 의롭게 하심의 평강을 얻는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롭게 함의 덕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은 의롭게 함을 받는다. 믿음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의 기초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로써 의롭게 함을 받게 되는 도구이다.

믿음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칭찬 할 만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하지 않는다. 믿음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용서

를 가치 있게 하지 않는다. 믿음은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를 가치 있게 하지 않는다. 믿음은 의롭게 함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의롭게 함을 가치 있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아들 하나님의 죽음으로 하늘 법정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은혜의 체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선포로 양심의 법정에서 의롭게 되었다.

역사들의 나타남

넷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은 은혜의 체험 가운데 사람 앞에서 선한 행위들을 보임으로써 의롭게 된다(약 2:14-26).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행위들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우리는 우리 행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의롭게 한다. 믿는 자들은 계명들과 고백들과 문답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보인다. 이것이 야고보서 2:14-26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에게 상반되지 않았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의롭게 함의 성취를 보여준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의롭게 함의 증거를 보여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자라면, 그는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의롭게 순종하는 행위들로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하며 그 실재를 입증할 것이다. 하나

님께 순종하는 것을 산출하지 않는 어떤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며 악한 망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믿음이 아니다. 대가 없는 은혜는 선행 행위들과는 상반된다. 대가 없는 은혜는 선행을 고취한다(딤후 3:4-8, 14).

무엇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믿음을 정당화하는 행위들인가? 무엇이 우리 고백의 실재를 입증하는 행위들인가? 성령께서 네 가지 방법으로 야고보서 안에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1. 선행은 하나님의 뜻에 인내로 순종하는 행위들이다(약 1:2-3).
2. 선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행위들이다(약 2:15-16).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한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을 보살피며, 보호하고 용서한다.
3. 선행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행위들이다(약 2:21-23). 믿는 자들은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머리 숙이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한다.
4.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부인과 희생의 행위들이다(약 2:23-25).

믿는 자들 각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

에서 영원히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모두는 아들 하나님의 죽음으로 갈보리에서 시간 가운데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 각각의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체험 가운데, 변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선포로 철저한 의롭게 함을 받는다. 각자 진실한 믿는 자는 선행들을 보임으로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된다. 우리의 의롭게 됨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며, 갈보리에서 성취되었고, 믿음으로 받았으며, 행위로서 입증되었다.

40. 의롭다 하는 분은 하나님

로마서 8:33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되고 가르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거나 주입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는 것이다. 거듭남과 성화와 의로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본성이 거듭난 혼에 전해진다. 의롭게 함 가운데 그것은 전가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함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이다.

의롭게 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내면적 변화를 나타내려고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엄격한 법률적인 법정 용어이다. 그것은 언제나 법적인 문제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신 25:1; 잠 17:15; 사 5:22; 마 12:37; 욥 9:2-3; 시 143).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없이 의롭게 된다.

본성에 있어서 죄가 있는 죄인들인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의하여 정죄 받으며,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로써 의롭게 되고, 모든 고발들이 없어지며, 모든 혐의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으며, 모든 유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선포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믿음의 확신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1, 33, 34절).

그리스도께서 귀속시키신 의로 말미암아 대가 없이 의롭게 함의 이 교리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다(롬 3:20-28; 갈 2:16-17; 딤후 3:5-7). 의롭게 함의 다른 모든 교리는 틀린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

여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다(갈 1:6-7). 이것은 진실한 그리스도교의 바로 그 기초이다. “그것으로 서거나 몰락하는 교회에 관한 기사.” 종교개혁 동안에 유일하게 교회의 지위에 대한 족쇄를 깨뜨린 것은 은혜로 의롭게 함에 관한 설교 뿐이었다. 그리고 은혜로 의롭게 함의 설교만이 오늘날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자유의지와 행위의 종교의 속박과 압제로부터 택함 받은 죄인들을 구해 낼 수 있다. 이것이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위한 확고한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만일 하나님과 함께한 나의 존재가 단지 내게 달려 있다거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의롭게 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의롭게 함의 위대한 역사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일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를 의롭게 하는 분으로서 성경 안에 제시되어 있다. 그분은 그와 같이 구별되게 불려지신다(롬 8:33; 3:25-26; 사 45:20) 성경 안에서, 영원 전부터 의롭게 하는 체계와 계획을 고안하신 것으로 제시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속량으로 발견되었다(욘 33:2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원할 전능하신 한 분께 도움을 주셨다(시 89:19). 그분은 그 아들을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중보자와 보증인과 대

표자로 그리고 대속물로서 준비하셨다(잠 8:30-31). 그분은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 당한 어린양이신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엡 1:6). 시간의 총만 가운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의 위대한 은혜로운 체계를 실행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셨다(롬 8:1-4; 갈 4: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 의를 받아 매우 기뻐하신다.

일단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역사하셨으며, 율법의 모든 계명과 원칙에 순종하시고 율법의 모든 공의와 정죄를 만족시킴으로 율법을 강화시키셨고 존귀하게 만드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던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믿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셨고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게 전가하셨다(롬 4:6-9; 고전 1:30-31).

아들 하나님

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의 순종과 피가 없이 혹은 동떨어져서는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하실 수 없으셨다. 따라서 아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의롭게 하라는 말씀을 들으신다(사 53:10-12). 오래 전에 욥기 안에서 질문이 있었다.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

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욘 25:4). 그 질문에 대하여 오직 한 가지 답만 있다 —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롬 10:4).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고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므로, “우리 의의 주”이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다(렘 23:6; 33:16; 롬 5:9, 19; 고후 5:21).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롭게 할 권리와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 만의 권위 위에 그분은, “네 죄들이 너로 용서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마 9:2; 요 8:11). 하나님-사람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는, “그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오셨으며, 우리의 의롭게 함을 위하여 다시 달리셨다.”. 그는 “그 날개 안에 치료하심이 있는 의의 태양”으로써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우리의 법적이고 신성하게 지명된 머리이시자 대표자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구원자는 우리 대신 죄가 되셨으며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신성한 공의를 충만이 만족하도록 심판 받으셨다. 그래서, 그는 의롭게 하심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시며 사망에서 일어나셨으며 (롬 4:25), 그는 스스로 모든 죄(그에게 전가된 그 백성의 죄들)로부터 의롭게 되셨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다

(사 45:25; 50:8; 딤편 3:16).

우리 주 예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고소를 받으며 그 앞에 서 있었던 천사로서 그려지고 있으며, 구원의 옷으로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옷 입히셨던 언약의 천사이다(사 61:10; 슝 3:1-4).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구속하였던 모든 자를 위하여 정확히 행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됨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고전 6:11). 죄에 속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를 성취하고 옮겨진 바 되고, 심판으로부터, 갈보리에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만족하게 된 공의에 속한 선택되고 구속된 죄인들을 설득한 분은 성령이다(요 16:8-11). 우리 가운데 믿음을 역사하고 의롭게 함을 위하여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고후 4:13; 골 2:12-13). 그리고, 믿는 죄인들의 마음에 평강을 말하고, 우리 양심 위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과의 평안을 끼치며, 심지어 완전하고 충만하며 철저하고 영원한 의롭게 함조차도 주시는 분은 축복된 하나님의 영이다(히 8:14; 10:22).

각각의 의롭게 된 죄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기쁨과 확신과 감사로 일으켰던 그 같은 네 가지 강력한 믿음의 도전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해 내야 한다. —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

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롬 8:33-35상) 복되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죄인이다!

41. 축복된 죄 사함

이사야 43:25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워 버리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던 사람의 관점에서 쓰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긍휼 안에서 오직 그분 자신께 알려진 이유로 나를 구속하셨으며, 그분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통하여 그분의 견줄 수 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비록 내 죄들이 많고,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지만, 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덮어버리셨으며 모든 나의 부당한 것으로부터 나를 용서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들을 없애 버리셨으며 나의 죄의식을 제거하셨다.

이 은혜는 내 자신에도 불구하고 내게 왔다. 나는 그의 복음에 등을 돌렸고, 그분의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의 종의 목소리나,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에 관심하지도 않았다. 생명의 축복된 책을 나는 읽지 않았을 것이다. 내 무릎은 기도 가운데 굽히기를 거절하였다. 내 마음은 공허한 것에 휩싸였다. 내 인생의 행위들은 너무도 용납할 수 없어서 나는 여러분들과 나누지도 않았을 것이며, 내 마음은 더더욱 내 행위들보다 부도덕하였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의 시간 가운데, 전능하신 은혜의 법으로, 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고 내 모든 죄들에 속한 나를 무조건 용서하셨다. 이제,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된 죄사함을 알기 원한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은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를 대가 없이 넘치도록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 그분 스스로,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워 버리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주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보장하실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단락에서 우리 주께서 분명히 그들에 대하여 설명하신다. 그들은 선하지도, 의롭지도,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도 않은 남녀들이다. 사람이 스스로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공휼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휼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은 죄인들이다.

여호와와 은혜와 사랑스런 친절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자기 의의 바리새인들을 위하여는 성경 안에 은혜의 말씀이 없다. 우리의 구원자는 특별히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의롭다고 추측하는 것이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임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롬 10:1-4). 모든 복음에 속한 각각의 약속들은 죄인들에게 이루어졌다(마 11:28-30; 사 1:4-6, 18; 55:6-7).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휼을 약속하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는 가이다(사 43:22-24).

그들은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다. —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많은 기도를 하였다. 그들은 많은 형태의 기도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그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다가가는 실질적인 기도는 전혀 없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께 살아 있는 말씀을 호흡한 적이 없다. 하지만, 주 하나님은 이 기도가 없고 은혜가 없는 혼들에게 말씀하신다. —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경배를 경멸하였다. 주님은 그

들의 말을 되돌아 보셨고 그들의 마음 속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에게 싫증이 났구나!” 얼마나 엄숙한 고발인가!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도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은혜의 방법을 제시하셨고, 그들은 그분의 축복들을 지겨워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읽는데 싫증나 있고, 그분의 집에 모이는 것에 싫증나 있으며, 그분을 찬양하는데 싫증나 있고, 그분의 복음을 듣는데 싫증나 있다! 이 풍성한 천국의 은혜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싫증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워 버리는 자다.” 놀라운 은혜이다!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공홀 가운데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서 용서하심을 보장한 자들의 특징을 다시 보라. 그들 안에는 선함이 없다. 그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 “너희는 내게 조금의 양들도 번제로 가져오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와 양의 수를 몇 배나 더 많아지게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헌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도 넘치게 축복하셨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작고, 병든 송아지 한 마리도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포악한 짐승보다 더 나쁘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의 풍성한 손길 덕분이다. 하나님의 합법적이고 의로운 헌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감히 훔쳐갈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그랬다. 그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

만, 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로우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워 버리는 자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쓸모 없는 사람들이었다. — “네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로 하여금 네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였느니라.” (24절) 사람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많이 말해지고 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들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기 위하여 만드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생각을 전혀 드리지 않고,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며, 전적으로 자신들만을 위하여 산다. 그들은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타락한 인류의 상태이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쓸모 없는 죄인들에게,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워 버리는 자다.”고 말씀하신다.

다시 한번 더, 주님은 그분을 지치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롭게 대하실 이 사람들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신다. — “네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며, 매우 종교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노력하였던 무화과 잎일 뿐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처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갈 수록,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지치게 하였다. 하지만, 주님은 이 죄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워 버리는 자다.”

당신은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죄인들을 위함이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전해졌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신다.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궁핍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시 103:8-14).

무엇을?

무엇이 긍휼의 위대한 행위인가? 그것은 죄의 축복된 용서이다. 죄를 사하는 것은 은혜에 속한 영광이다. 죄를 용서함은 긍휼의 장엄함이다. 부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징이다(출 34:5-7). 이것은 하나님 만의 행위이다. 그분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용서가 우리 혼들의 구원과 문제가 많은 우리 양심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하고 갈망하며 소유해야 하는 유일한 한 분의 용서이다(시 130:3-4).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죄를 지었으며,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였으며, 그분의 율법을 우리가 어겼으며,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멸하였으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시다. 그분은,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워 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놀라울 만큼 지속적이다. 분명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죽으셨을 때 한번에 이루어졌고, 최종적인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된다(요일 1:9). 이 죄사함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의 모든 죄에 대한 철저하고 효험 있고 영원한 용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셨으며, 그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씌워지지 않을 것이다(롬 4:8).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롭고, 의로우시며, 진실되시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나는 그분은 어떻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라고 물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존귀하게 하며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는 한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1.)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존귀하게 되어야 하고 완전히 순종되어야 한다. (2.)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 (3.)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4.) 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분은 모든 것을 총만케 하는 대속물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 그 대속물이다. 그분 안에, 오직 그분 안에만 하나님의 사하심이 있다(롬 3:23-26; 요일 1:7, 9). 우리가 그분을 바라 볼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뿐이다(사 45:20-22).

왜?

왜 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가? 그분 자신의 말씀과 기뻐하심을 들어보라. —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명예와 영광은 죄 사함 가운데 있는 그분의 긍휼, 곧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우며 공의로운 긍휼이다(시 106:8). 그분은,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리라. 이것은 네가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너를 향해 진정된 뒤에 네가 기억하고 당황하게 하며 네 수치로 인하여 결코 다시는 네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겔 16:62-63).

약속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들을 사함 받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약속인가? 그것은 단지 이것이다. — “나, 곧 나는 내 자

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워 버리는 자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시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어기지 못하신다. 그분은 그 백성을 저버리실 수 없다. 그분은 공의롭지 않으실 수 없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죄들을 기억하실 수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분의 율법과 공의를 생각하는 한, 우리 죄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실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들을 결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덜 은혜롭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그것들을 드러내어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죄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렘 50:20). 하나님은 그분의 하늘 왕관과 은사들을 분배하실 때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시지 않을 것이다.

42. 용서함에 대한 질문들

시편 130:3-4

“오 주여,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능히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탄은 기만의 명수이다. 그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수시로 이용하는 매우 영리하고 교활한 사기꾼이다. 그는 성경 말씀을 장애물로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잘하며, 그것은 죄인들이 주를 찾는 길에 쌓아 두거나, 이 세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추구하는 자들인 하나님의 순례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괴롭히려고 쌓아둔다. 이 공과에서, 나는 용서함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에 답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장애물들을 깨끗이 치워버리기를 소망한다. 내게 있어서 그것을 시도하려는 것이 소용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조심스럽게 기도 가운데 내가 답하려는 것 일곱 가지 질문들을 선택하였다.

물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결백이나 의나 거룩함에는 그 도가 가변적이지 않으며, 천국에서 의인에 대한 보상의 정도도 가변적이지 않다고 가르친다. 천국 보상의 계명에 대한 가르침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운 복음에 상반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유죄임과 영원한 심판의 정도가 가변적임을 가르친다.

1. 죄와 유죄임과 심판의 정도가 가변적인가?

가톨릭 신자들은 어떤 죄들은 그것들 가운데 가벼워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고, 다른 죄들은 심각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다고 가르친

다. 로마 가톨릭 교리의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그런 구별은 순전히 교황의 발명한 것이다. 모든 죄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예외가 없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원한 사망은 부당함과 범죄와 죄의 보상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능한 한 가장 분명한 말로 써 더한 죄와 덜한 죄가 있다고 말씀한다. 법을 어기는 것들 중 다른 것보다 무거운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의 죄들은 환경에 따라 그 정도의 경중이 있다. 복음의 빛이 없이 멸하는 자들은 실로 하나님의 진노 하에 영원히 멸망할 것이나,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을 자신의 길에서 밀어내어 지옥으로 가는 자들의 심판보다는 훨씬 덜할 것이다. 직접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영감의 책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롬 2:12; 마 11:20-24; 눅 12:47-48; 요 19:10-11).

John Gill은, “하나님은 죄의 모든 종류를 포함한 부정함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신다. 가장 커다란 규모의 죄들과 가장 깊은 사망에 속한 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깨끗이 지워진다. 붉디 붉은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은 그분을 통하여 양털처럼 희게,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그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며, 모든 죄는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마 12:31-32).”라고 쓰고 있다.

2. 올 세상 가운데 죄들에 대하여 어떤 용서도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12:31-32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올 주께서 죄들이 사하여 질 다른 은혜의 날이 올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한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거기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모독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신다. 본문은 그것 이상도 이하도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천국이나 지옥 사이에 연옥이나 지옥변방의 그 어떤 상태의 것이나, 미래 환란기 중 어떤 기간 동안 두 번째 은혜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든지, 심판의 날에 용서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조금의 귀뜸도 없다. 그리스도가 없이 죽은 자들에게는 무덤 이외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사함이 없이 죽은 자들은 사함에 대한 희망하고 가냘픈 희망 같은 것이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야 할 것이다(고후 6:1-2).

3. 왜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죄가 용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가?

마태복음 12:31-32는 성령을 거스르는 그 어떤 죄나 성령에 대하여 저지른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저질러진 모든 죄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하여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분의 신격을 부인하고 그분의 인격을 부인하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것이다. 그것은 거듭남과 변화와 거룩하게 됨 가운데 사람의 흔들 위에 임하는 그분의 은혜의 운영의 필요를 부인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또한 성령을 성가시게 하고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에서 롯이 행했던 것과 다윗이 우리야의 문제에 있어서 했던 것처럼 분명히 성령을 성가시게 하였고 비탄에 빠지게 하였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죄로 가득한 생각들과 우리가 죄를 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사람은 십계명 모두를 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모두 해 왔다!), 성령을 거슬러 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죄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죄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과 구원의 위대하고 근본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것과 그 모든 가지-평강, 그의 피로 인한 용서, 그의 희생으로 인한 속죄, 그리고 그의 의로 인한 의롭게 하심-안에 놓여 있다.” (John Gill).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빛 비춤과 확신과 나타남 아래에서 저질러지는 죄이다. 그

리고 여전히, 사탄의 선동과 그 자신의 마음의 사악함과 알고도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이 진리를 거부하며, 완강하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고집한다. 이 모독을 저지른 자는 결코 회개에 이르지 않으며, 따라서 이곳에서든 앞으로든 용서 받지 않는다.

John Gill은 계속해서, “이것은 성령이 다른 신성한 인격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부족함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이 아니라, 구원과 용서와 속죄와 의롭게 함의 길에 있어서 180도로 다른 죄의 본성으로 인함이며, 이런 존재는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부인하여 용서가 있을 수 없으며, 다른 예수가 절대로 보내지지 않을 것이기에 다른 구원자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피 뿌림도, 더 희생도, 죄를 위한 다른 희생도, 역사하고 가져올 다른 의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는 것은 단지 그런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분노에 속한 것들을 두렵게 바라보는 것뿐이다.”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10:26-29에는 성령 스스로 이것이 마태복음 12:31-32에서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미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 같은 격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 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공황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4. 믿는 자가 죄를 범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은 많은 사람에게 매우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것이다. 만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이 순간 나의 과거 죄들을 사함 받았다면, 내가 죄를 다시 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주께서 내게 다시 등을 돌리실 것인가? 나는 나의 구원을 잃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안에 있는 나의 유익이 몰수 당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하시는가? 믿는 자가 죄를 범할 때 그 자신의 마음과 체험 가운데 많이 발생한다. 그는 종종 그리스도의 체현의 임재에 대한 기쁨의 지식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의 교감은 깨어진다.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따갑게 책망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과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받아들여짐은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짐은 은혜의 문제이지 공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좌우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의해서 바뀔 수

없다. 사악하고 자의적인 사람이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답하든지 말하도록 내버려 두라 (롬 4:8; 시 32:1-2; 89:30-37; 요 10:28; 딤후 2:13; 요일 2:1-2).

5.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가?

가끔, 그 질문을 받을 때, 나 스스로 생각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무엇이 더 기분 상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란 것을 안다. 분명히 불신자들은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여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죄 사함을 위한 기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대신할 것을 찾는 생각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 불신자는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은 들었다(행 16:31).

그러면 질문이 떠오른다. “만일 우리 죄들이 이미 용서받았다면, 믿는 이들이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에 대하여 추측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책이 뭐라고 말씀하는가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간단히 보기로 하자. 우리 구원자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제자들로서, 믿는 자들로서)에게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눅 11:2-4).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모세는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였다(출 34:9). 은혜의 보좌에서 다윗은 사함을 구하였고 (시 25:11), 그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면서)

분명히 선포하였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시 32:5-6).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자(단 9)가 어떻게 믿는가의 예로써 썼으며, 사함 받은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구하여야 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피의 속죄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인한 죄사함을 구한다. 그렇다,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반드시 구하여야 한다(히 4:16).

6.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는 심판의 날이나 올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인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래의 심판(보상을 잃음)과 선행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란 어떤 형태의 협박으로 사람들을 속박에 두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런 가르침은 성경과 복음의 모든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이며,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럽힌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와 같은 치욕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계 21:4). 부분적인 의나 부분적인 거룩과 같은 것은 없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근거는 우리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역사이다. 혼인잔치 날 그리스도의 사랑스런 신부의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실 것이라는 관념은 상상 밖의 터무니 없는 것이다. 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하게 함에 있어서 성

령의 계획은 만일 우리에게 그 위대한 영광의 날에 죄가 한 점이라도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모두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엡 1:3-6; 5:25-27; 유 24-25).

7. 나는 죄 사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9). 우리 죄들을 고백하는 것은 사람에게에 말하는 것보다 더욱 더 많이, 심지어 우리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하는 것조차보다 더 큰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나쁜 것들을 했다고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과 타락을 깨달으며,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공로를 통한 긍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 성경의 약속은 이것이다. —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죄를 사하기 위한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의 피의 희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시며, 그분 자신의 품성에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 그것이 은혜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들이 사함 받음에 대한 축복된 깨달음을 주시기를.

43.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로마서 8:21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본문은 속박과 자유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썩음의 속박”은 죄가 우리를 옮겨놓은 속박이다. 이것은 본성에 속한 속박이고, 우리를 모두 비참한 종과 죄수들로 만드는 속박이다. 이 썩어질 것의 종살이는 지옥의 속박에 속한 영존하는 고통의 전조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마침내 영원한 고통 속으로 데려갈 것이다.

음탕과 부패의 감옥 속에서 살던 모든 자는, 기꺼이 죄에 매인 종이 되었기에, 질투와 악의와 분노와 진노의 사슬에 매여 이곳 저곳을 끌려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지옥의 어둠과 부패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썩음의 속박”은 절망적인 노예 상태 안에서 많은 사람을 유행과 방식과 사회적 인정에 매어 놓는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본성적으로

로 우리 자신의 부패한 열정의 노예로 만든다. 또 그 자신의 열정의 노예인 사람은 가능한 최악의 폭군의 노예이다. 육체적인 노예 상태는 상상할 수 있는 인간성의 가장 비도덕적이고 악하게 하는 학대이다. 그러나 이 “씩음의 속박”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의 종살이이다! 이 사탄의 “씩음의 속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자신을 나타낸다. 그것은 죄의 속박이고, 율법의 속박이며, 사회적 승인과 인정에 대한 속박이며, 종교적 전통과 관습과 미신의 속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옮기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사로 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감옥의 문을 열고, 우리를 죄와 사탄에 잡혀있도록 한 답답한 사슬과 족쇄를 깨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혼의 위대한 해방자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구원은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자유는 질문 할 필요도 없이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의 만연한 오류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 자유를 음탕함과 경건함의 종살이와 연관 짓기 때문에 아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사실은 — 모든 인간의 종교는 속박이며, 속박의 원칙 위에서 작용하고, 사람들을 속박 속에 지속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고도 실질적인 가르침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들의 자유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그분의 영광의 자유 안에서 단단히 서 있어야 하고, 율법의 속박의 멍에로 다시 가게 되기를 거부하며,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그 백성의 선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위대한 자유자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인간이 자유롭게 되기 전까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 즉 마음과 생각의 참 자유, 그 혼 안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온 적이 없다. 은혜에 속한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복된 특권이다. 하지만, 피하여야만 하는 거짓 자유가 있다.

모든 선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역사는 사탄이 흉내를 낸

다. 사탄은 모방의 명수이다. 많은 사람이 거짓 자유로 그에게 속는다. 모두 경계하도록 하자. “자유”라는 말은 다수에 의해서 대단히 오용되어 왔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동성연애와 여자들의 성직서임과 우상 숭배에 할리우드식 복음주의로부터 온 모든 것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다. 속지 말라. 사람들이 자유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인도 할 거짓 자유로부터 지키시기를 바란다. 여기 세 가지 일반적인 은신처, 그 곳으로 자유를 찾는 희망 속으로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는 거짓 은신처들이 있다.

1. **종교적 고백** — 많은 사람이 순진하고 남을 잘 믿어서 그들은 종교적 고백이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이 자유롭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2. **독선주의** —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악한 길에 지쳐서 외적인 도덕적 변화를 꾀함으로 자유를 추구한다. 기독교로 통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생활의 변화 외에 그 이상 무엇도 아니라는 것에 두려운 느낌을 갖는다.
3. **율법불요론** — 율법불요론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형편없는 것이다. 그것은, “구원은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날 흔히 바울처럼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부른다(롬 3:8).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중상모략을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일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그들의 독선주의에 매달려서 우리 주를 대식가이며 술 취한 자로 비난하였다면, 우리는 더 좋은 대접을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은혜만으로 구원을 전파하며 입이 거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불요론의 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항하여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악을 행하기 위한 허가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 자유로부터 지키시기를 바란다. 노예로 있는 것, 노예로 있는 것보다 그것을 아는 것, 당신이 노예인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죄인들을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기를 실패해서는 안 된다(요 8:32-36; 롬 8:15; 갈 4:6-7; 5:1).

참 자유, 은혜에 속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강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능력과 권위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오직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 그 말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자 한다.

우리 주님의 세상에서의 사역의 날들 중에 그리스인과 로마인들 사이에 어떤 풍습이 있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만일 그가 노예를 남

기면 그들은 그의 장자의 재산이 되었다. 만일 그 아들이, “나는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이 노예들이 자유인이라고 선포한다.”고 말했다면, 그 노예들은 영원히 자유롭고 다시 노예로 취해질 수 없다. 그리스와 로마 법 하에서,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였다. 만일 아들이 자유를 선포하였다면, 그 노예는 반드시 풀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구원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요 8:36)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약속의 위대한 상속자이다. 만일 그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시면, 당신은 실로 자유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서 그 백성을 위한 자유를 사셨다(갈 3:13).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오셔서 포로 된 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자유를 사셨음을 선포하신다(사 61:1-3).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의 선포자 그 이상이다. 그분은 그의 영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에 속한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효험 있게 옮기심으로 자유를 성취하신다.

“그는 탕감된 죄의 능력을 부수신다.

그는 죄인을 자유케 하신다!

그의 피는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의 피가 내게 소용이 있구나!”

주 예수께서 그 백성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요 8:32). 복음의 전파는 희년 나팔을 부는 것과도 같다. 더욱 더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고 이해될 수록, 더욱 완전하게 자유는 누리지게 된다. 종살이는 오류로부터 온 것이다. 자유는 진리의 결과이다.

체험된 자유

그리스도를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이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져다 준다(갈 4:1-7). 성령 하나님으로 죄인이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체험적으로)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며, 영적으로 성숙하면, 좀더 충만하게 그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것이 된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그 피로서 우리를 사셨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안에 걷고, 누리며,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책임이다. 누구든지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자는 은혜에 속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갈 5: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것인 그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그 자유를 높이고 그 안에서 걷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주시기를 기원한다. 이것은 은혜에 속한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다. 사람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 나올 때, 그는 모든 사람이 천연적으로 죄수이고 노예들로 사로잡힌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의 백성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신다(롬 6:14-18). 믿는 자들은 죄의 존재와 죄에 속한 몸, 혹은 죄의 행위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한 죄와 씨름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책임은 제거되었다. 죄의 정죄는 그 같은 보혈로 제거되었다(롬 8:1). 죄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능력으로 파쇄되었다.

구원 안에서 주 예수께서 그 백성을 또한 사탄의 능력에서 옮기신다. 본성적으로 마귀는 모든 사람을 눈멀게 하고 속박하며 속이고 그의 명령 하는 것을 행하도록 그의 뜻에 그들을 사로잡으며 그들 위에서 찬탈한 지배권을 갖고 있다.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사탄을 권좌에서 몰아낸다. 그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강한 자를 묶으며 그 거처를 취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탄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신다. 그는 우리를 어둠의 능력에

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믿는 자는 더는 사탄의 역사와 정욕들을 행하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아직 마귀의 유혹들과 그의 포효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지만, 결코 그에게 잡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 하셨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신약에서 선포되어 그것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롬 6:14,15; 7:4; 8:2; 10:4; 갈 3:23-25).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대신하여 율법의 마침, 종착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의 속죄로 인하여, 믿는 자는 의식법에 속한 모든 유형과 그림자들, 구약의 음식물에 대한 법의 모든 엄격한 적용, 율법의 모든 법령과 저주, 그리고 생활 방식으로서의 율법의 속박과 공포와 규제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과 함께하는 언약도, 율법으로부터의 저주도, 율법에 의한 정죄함도, 그리고 율법에 매임도 절대로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율법을 모두 만족시키셨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모두 충족시킨다(롬 3:31).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와 사랑과 믿음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치되고 동기가 부여된다(요일 3:23; 고후 5:14).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의 규범으로 십계명에 의해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 될 수 있는가?” 보여 주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범하는 것이다(골 2:16-17). 율법주의는 자부심과 자기 의를 고취시킨다. 율법주의는 항상 분열과 심판주의와 영을 정죄함을 산출한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완결된 역사를 부인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확신과 거룩하게 됨과 하나님께 받아들여짐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음과 하나님과 평강을 위하여 그분과 자신들을 바라보게 한다. 많은 사람은 성경과 상반되게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기에 우리는 이제 육신의 행위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믿도록 만들려 한다(갈 3:1-3).

절대로 율법과 은혜를 뒤섞는 것은 있을 수 없다(롬 11:6; 갈 5:1-4).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마와 양털로 된 옷을 입거나, 같은 멍에에 은혜의 황소와 우리 자신의 행위의 당나귀와 함께 쟁기질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이 자유는 단순한 교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신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 생활의 일반적이고 매일의 일들에 미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는 인간의 모든 종교적 관습과 전통과 미신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준다. 바리새인들은, 고대나 현대 모두,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며, 그로써 하나

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헛되게 만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것들의 종들이 되는 것을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교적 전통에 집착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실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인간의 신탁에 절대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마 15:1-6; 골2:6-8, 16-18, 20-23).

그리스도의 교회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도, 혹은 그 어떤 사람들의 무리들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규범이나 신조나 교리를 개발할 권리가 없다. 지역 교회들이나, 종교적 분파나, 협의회나, 혹은 종교회의의 조차도 하나님의 성도들의 양심에 그들의 의견을 강요할 권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만이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규범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음식이나 행복이나 위로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의식 결례의 목적을 위하여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 레위 율법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비율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복음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용할 자유를 부여 받았다. 아무것도 그 자체로 속되거나 불결한 것은 없다(행 10:14-15; 롬 14:14; 딤후전 4:3-4). 사소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다(롬 14:2-3, 13-15, 20-23; 고전 8:9-13).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어떤 규범도 두지 않을 것이다.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함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 지침들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런 것들 중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사소한 것들이 만약 그것을 사용하거나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호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종교적 헌신의 방법이나 양심의 평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2. 모든 것을 절제 있게 사용하라.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폭식은 잘못된 것이다.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잘못되지 않다. 그러나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흥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흥청거림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아무것도 남용하지 말라.
3. 당신의 형제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하라. 형제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그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가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게 한다. 내 형제들의 양심은 내 자신의 위로와 기쁨과 만족보다 더 중요하다.

4. 모든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안녕에 영합하도록 하라.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 백성을 위한 사랑을 당신의 행동들의 기본이 되도록 하라. 모든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되 아무것도 남용하지 말라.

John Gill은 이런 주의의 말을 하였다. — “한 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소하지 않은 것들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계율이나 명령이 무시되며, 다른 한편으로, 미신이나 의지 경배와 같은 것으로 이끌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것인 영광스러운 자유의 본질이 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경배하고 주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유롭다. 아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거나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엡 2:18).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모든 명령—침례—교회 교통—주의 만찬—에 대하여 자유롭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들 자신을 대가 없이 그분께 매인 종으로서 드린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온 존재와 우

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우리 주와 그분의 조직과 그분의 권속을 위하여 예비하여 둔다.

“갈 준비하고, 머물 준비하며, 채울 내 처소를 준비하라;
사랑과 위대함으로 봉사를 준비하고,
그분 뜻을 행할 준비를 하라.”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하여!
나의 온 존재 속함 받은 능력들이라네:
내 모든 생각, 말씀, 행동들, 내 모든 날과 시간들.
내 손으로 그의 명령을 행하게 하소서,
내 발로 그의 길을 달리게 하소서;
내 눈으로 예수만 보게 하소서,
내 입술로 그분의 찬양이 나오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위대한 구원자께서 은혜롭게 그분의 백성이 사망의 공포로부터 옮기실 것을 인정하신다(히 2:14-15). 그분의 성육신과 고통과 사망을 통하여 그분은 평생토록 속박의 대상인 우리를 사망의 공포로부터 옮기셨다. 것처럼 가공할만한 사망은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공포의 왕이 아니다. 우리는 몸의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믿

으며,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는 선한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는 이 생명에서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을 택한다. 우리는 죽는 것이 얻는 것임을 안다. 우리는 사망과 영원의 조망 가운데 노래 할 수 있다. “오 죽음여, 그 찌름이 어디 있는가! 오 무덤여, 그 승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죽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둘째의 영원한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계 20:6).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그분의 피로 구속 받았으므로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위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

“담대하라 내가 그 큰 날 서리라!
나를 고발 할 자가 누구인가?
당신이 피로 내가 용서 받을 때,
죄의 엄청난 저주와 책임으로부터?”

예견된 자유

아직 더 있다. 계시되어야 할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예상된 자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축복된 소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야 할 것이라는 자유이다. 믿는 자가 죽자마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며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공의의 영광 함께 할 것이다. 그 때 그는 모든 죄로부터 자

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때 모든 죄의 타락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며, 죄의 그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며, 죄의 모든 악한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다.—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와 관련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이 자유가 어떤 것일지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불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의심으로부터 자유롭다!—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모든 갈등으로부터 자유롭다! —모든 오만함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이 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함”에 들어올려질 것이다. 부활 가운데, 이 몸들은 결코 고통스럽지 않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우리의 부활의 몸들은 죄의 상처나 고통들조차 품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몸들은 모든 고통과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 그 몸들은 불멸할 것이다! 몸과 혼은 완전하게 함께 결합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죄의 속박의 위험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이다!

44.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6:11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11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들 모두가 기뻐할 세 가지 큰 특권을 보이고 있다. 이 세 가지 것들은 모든 구원받은 죄인에게 있어서 사실이다. 천연적으로 우리는 모두 불의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거하기에 합당치 않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세 가지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 받지 않고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고 구속 받아야 한다. 이 구속, 우리 죄들의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를 위하여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갈 3:13).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하게 됨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거룩하게 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성한 본성에의 참여자가 될 때 거듭남, 곧 새로 태어난 가운데 체험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벧후 1:3-4).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의롭게 됨은 주 하나님에 의해서, 대가 없이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으실 수 없지만, 우리 죄들이 그리스도께 전가 되었으며, 또 우리는 결코 의를 행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하여 그분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졌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롬 3:24).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이 모든 세 가지 특권은 은혜의 역사들이다. 우리는 자신을 씻거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특별한 행위로서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세 가지 모든 은혜의 역사는 예외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속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이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부족한 자는 아직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완전해지지 않았으며, 그의 죄들 가운데 멸망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지 않고 죽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계수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이들 믿는 자들은 모두 씻음 받지 않았고, 의롭게 되지 않았으며,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고 주저함 없이 선포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씻음 받지 않고, 의롭게 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쓸 때, 그가 육신적이라고 부른 유일한 회중임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그들이 어떠했어야 할 존재로부터 멀리 있었다. 행위와 영 가운데, 그들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를 정확한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한 것을 근거로 그들에게 서신을 쓰며,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나니”라고 말한

다.

그 말을 듣거나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성도들”,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되다”, 그리고 “거룩하게 됨”과 같은 말들이 성경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영감을 받은 기자들에 의해서 그 말들이 사용될 때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오류들

우리는 구속과 의롭게 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는 꽤 편하지만, 거룩하게 됨은 그렇지 않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혼란이 있으며,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거룩하게 됨의 교리와 관련한 오류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로 귀결된다.

1. 오순절주의는 거룩하게 됨이 은혜의 두 번째 역사이며, 그에 따라 믿는 자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죄의 옛 본성이 그 자신의 존재로부터 뿌리가 뽑힌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그런 가르침이 두 가지 이유들로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첫째, 그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된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 1:8). — 둘째, 그것은 믿는 자의 모든 경험에 대치된다. 정직한 사람들로써, 우

리는 우리가 죄로 총만함을 고백하여야 한다. 비록 우리가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와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혼합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손상시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다.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다.

2. 자의적인 율법주의자는 외적인 법적 도덕성 그 이상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에게 거룩하게 됨은 세상으로부터 그 자신이 분리되는 것과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순종하는 것과 그가 악하다고 여기는 것을 사용하기를 금욕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손대지 말고, 맛보지 말고, 다루지 말라.”가 그의 신조이다.
3. 정통적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의 대부분은 거룩하게 됨이 “개인적 거룩함”을 믿는 자들의 점진적 증가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마침내 천국에 도달 할 때까지 거룩함에 있어서 그 자신의 행위로 더 높은 정도의 거룩함을 얻으며, 거룩하게 됨은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꽃을 피울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된다.

한 저자는 거룩하게 됨을 이런 말로 정의하였다. — “거룩하게 됨은 진행형 의인데, 물론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의를 말한다.” 다른 저자는, “거룩하게 됨은 믿는 자의 개인적인 거룩이다.”라고 했다.

항상 이 진행형이고 증가하는 의는 이 세상과 후에 천국에서 믿는 자의 확약의 기초가 되게 된다.

성경의 교리

거룩하게 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신학책이나 대부분의 설교 단상에서 보통 가르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저술들을 합당하게 감사하도록 하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질 때, 우리는 그들과 달리해야 한다. 우리는 방어할 신조도, 유지하여야 할 고해도, 대응해야 할 교파도, 또 가르쳐야 할 교리문답도 없어야 하지만, 이것 — “이와 같이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지켜야 한다.

거룩하게 됨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전체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는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일 구원이 은혜로 인함이면 (그리고 사실 그렇다!), 그러면 구원에 필수적인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만 있다. 거룩하게 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만의 역사이다. 그것은 이 사실, 곧 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주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순종을 격려하려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적용된 말씀들

“거룩하게 하다”와 “거룩하게 됨”이라는 말들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들은 성경적 용어들이다.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발견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거룩하게 하다”는 성경에서 세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그 말의 의미는 “거룩하게 하다”는 “분별하다”이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신성한 섬김을 위하여 분별하다”이다. 거룩하게 함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섬김만을 위하여 구분하여 놓는 것을 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된 것으로 그 말의 첫 번째로 최우선된 의미이다.

제 칠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분별 된 날이었다(창 2:3). 이것이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창 2:3). 그 날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 날은 단순히 분별되었고 하나님의 섬김만을 위하여 한 주일의 다른 날과 구분되었다. 성경 전체에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따로 놓아두다”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첫째 출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분별되었다(출 13:2). 장막과 제단과 제사장은 주께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분만 사용하시도록 따로 분별되었다(출 29:44). 그것은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거룩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이다(요 10:36).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과 따로 분별되셨다. 그리고, 이런 뜻에서, 우리 구원자는 아버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셨으며, 그분이 보내지셔서 행하도록 한 일을 하고 그분의 백성의 구속과 구원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요 10:36; 17:19).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섬김을 위하여 따로 분별되는 것이며, 그 사물이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다.

둘째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용될 때, 그 의미는, “거룩한 것으로 여기다”, “거룩하게 취급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나 사물이 거룩함을 선포하다”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 그분 자신은 수시로 그분의 백성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 자신께로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거룩하신 분으로 여기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므로써 대하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으로 선포한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명령하신다.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사 8:13).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이 이상한 불을 드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경의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의해서 태워졌다. 그분은,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레 10:3)라고 하셨다. 모세는 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 바위를 내리칠 때 모세의 죄는 바로 이것이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민 20:12).

이것에 대한 좀더 익숙한 예시를 “주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마 6:9). “거룩히 여겨지게 함”은 간단히 “거룩하게 된”의 다른 말이다. 그 뜻은, 당신의 이름이 전 세상을 통하여 경배되고 숭배되리라는 의미이다.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여기게 하라.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분별하다 이다.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을 거룩한 것으로서 여기고 취급하며 선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될 때 그는 거룩한 자로써 하나님에 의하여 여겨지며, 거룩한 자로써 하나님에 의하여 선포되고, 거룩한 자로써 하나님에

의하여 취급 받는다. 거룩하게 된 모든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 아래에 있다. 그들은 그분의 눈에 사과이다. 그들은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말씀하신다. “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정결케 하며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다”이다. 이것은 선포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사물의 본질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이다. 거룩하게 된 것은 분별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고 선포되며, 그것은 실제로 거룩하게 된다. 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내려 오셔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자신을 의식적으로 거룩하게 만들 것이 요구되었다(출 19:10-11).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째로 정결케 될 것을 요구하셨다(요 3:5).

“거룩하게 하다”와 “거룩하게 함”이라는 말은, 성경에 사용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1.)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분별하거나 구별하다, (2.) 어떤 것이나 사람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취급하고 선포하다, 그리고 (3.)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만들다 이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함은, 우리를 구속함이나 의롭게 함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들의 삼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는 택하심 안에서 하나

님 아버지에 의하여, 구속하심 안에서 아들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함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어떤 것이다.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된”, “성화된”, 그리고 “거룩하게 함”이라는 말들은 신약 성경에서 서른 번 이상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케 된다고 듣고 있다. 그러나 결코,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듣지 않는다. 거룩하게 함은 하나님만의 역사이다.

모든 믿는 자는 영원한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 분별되었으며, 그분께 구별되었다(유 1:1).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은혜의 특징이다. —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로 구별하여 그들을 주께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하고 영원한 명령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비밀스럽게 분별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을 때,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됨으로 인하여 아담의 타락한 족속에서 법적으로 분별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명백하게 분별되고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고 완전하게 분별되었다. 이 영광스러운 교리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이것이다. — 하나님을 위하여 분별된 것은 다시는 일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9-20).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을 섬기자 (롬 12:1-2).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 속한 모든 자를 각기 지명된 모든 방법 안에서, 심지어 구약 안에서 언약궤를 보호하였던 것처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라 (시 91:3-13).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히 10:10-14).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다(고전 1:30).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으며 영원히 그렇다(고전 1:2). 믿는 자들은 서신서들을 통하여 “성도”라 칭하여 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히 거룩하게 여겨지며, 완전히 거룩한 것처럼

취급 받으며, 완전히 거룩한 것으로 선포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귀속된 의롭게 함을 믿지만 귀속된 거룩하게 됨은 믿지 않는다. 우리는 귀속된 의를 믿으며, 그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귀속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의로 인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다고 선포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되었다.

“그분의 흠 없는 옷을 입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거룩하구나!”

모든 믿는 자는 실제로 거듭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 복음 전파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효험 있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며 우리 안에 새롭고 거룩한 본성을 심는다. 그것이 거듭남이며 새로 태어남이다. 이것이 성령에 의한 우리의 거룩하게 됨(성화)이다(살후 2:13-14; 벰후 1:4; 요일 3:9; 요일 5:18).

혹자는 한 때 이렇게 썼다. “우리는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하나는 거룩하여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락하여 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본성은 능력에 있어서 같지 않다. 신성한 본성은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악한 본성은 허리를 굽히지도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 죄로 충만한 옛 본성을 가지고 살기를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인 피조된 새 본성을 갖는다. 이는 옛 사람은 죄를 지으나, 새 사람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기록하기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롬 7:20). 영화롭게 됨 가운데 옛 사람은 우리로부터 완전하게 뿌리 뽑히겠지만, 그 때까지는 그렇지 않다. 옛사람의 소거는 점진적이고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망 가운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에 의해서 체험되는 급진적이고 극적인 변화이다.

점진적 성화?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 성화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일반적으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은, 아니다 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됨을 가르치지 않는다. 내가 그 말로 뜻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 성경은 거룩하게 됨에 있어서 우리 옛 본성이 그 죄가 줄어들든지 그리고 더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육신은 육신이다.” 그것은 거룩하게 될 수 없다. 옛 사람은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보내지지 않는다. 그는 십자가에 못박기 위하여 십자가로 보내진다. — 성경은

거룩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개인적 성화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 짐이 개선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믿는 자는 그의 거룩함의 상태 가운데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헌신 가운데, 그리고 영적 생활의 모든 다른 방면들 가운데 성장한다. 그러나 그는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어린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하게 거룩하였다. 하지만, 그는 거룩함의 그 상태에서 성장하였다. 그렇다 할 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룩하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완전하게 거룩한 본성을 갖고 있다(눅 2:52; 뱀후 3:18).

거룩하게 함은 점진적인 일이라고 합리화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중간은 없다. 당신은 더 혹은 덜 거룩할 수 없다. 하지만, 거룩하게 됨은 계속되는 일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됨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모든 믿는 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한다. 모든 살아 있는 것은 성장한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성장함으로 더 보고, 더 느끼며, 더 행하고, 더 알고, 더 회개하고, 더 믿고, 더 사랑한다. 거룩하게 함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증가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

거룩하게 함이 마음의 헌신이 있는 곳마다, 마음과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의 이유와 사랑과 예배와 확신과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리스도께 확신하는 모든 것이 증가한다. 이 은혜 가운데 성장은 거룩하게 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계속되는 운행이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빌 2:13). 이 은혜 안에서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속한 그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은혜의 역사이다(시 119:9-16).

징표와 증거들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함의 어떤 징표나 증거들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하게 하셨던 자들 중 한 사람인가? 당신은?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하게 함의 분명한 증거로 주실 것이 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요일 3:14; 고전 16:22). 거룩하게 된 사람은 그 마음과 혼에 육과 영, 죄와 의 사이에 그치지 않는 전쟁이 있는 자이다(갈 5:17; 롬 7:14-22). 거룩하게 된 사람은 온전케 되는 것을 구하는 자이다(빌 3:7-10; 히 12:14; 벰전 1:15-16). 거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회개하고 믿으며 인내하는 자이다(빌 3:13-14).

우리가 경험으로 거룩하게 함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알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면 구원 받지 않았다. 우리의 죄들

을 놓고 흐느껴 울어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 짐은 그리스도 뿐이다! (요일 1:9;2:1-2).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할 것인가? 그렇다면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잠 4:23).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구하라. 인내로 고통을 참고 서로 섬김으로 그의 본을 따르라.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살전 5:23-24).

45. “너는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7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다시 태어남에 관하여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태어남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그 주제는 간단하고 분명하고 오류 없는 용어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의 종교적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한 그 변절자들 가운데, 새로 태어나는 것을 결정 내려 복도를 걸어가서 기도 하는 것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거듭남의 교리에 대한 그들의 모욕과 오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사용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과 교리를 얼마나 많이 왜곡한다 할 지라도, 니고데모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책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이 이천 년 전 그분께서 처음 그 말씀을 하셨을 때처럼 오늘날에도 필요하고 중대하다.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나의 교훈이다.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이 글을 읽는 어떤 사람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한 어떤 고백도 한 적이 없을 것이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아마도 여러 해 동안 교회에 있어왔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자이다. 당신은 오래 전에 믿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생명이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교훈을 듣게 하여 그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보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요구하라. 여기에 개인적인 말이 있다 — “너”이다. 이 교훈은 당신을 위해 있다. 아마 당신은 도덕적

일 것이다. 아마 당신은 매우 종교적일 것이다. 아마 당신은 심지어 교리적 진리를 잘 가르침 받았을 것이다. 니고데모도 그랬다. 그는 높은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였다. 니고데모는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그는 설교자였고, 그 이상이었다. 니고데모는 설교자를 가르치는 설교자였다. 그는 신학자였다. 이 사람은 유대교회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죽어 있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없었다. 그는 모든 영적인 것들에 철저히 무지하였다. 그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었다. 만일 당신이 그의 상태였고,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이 없다면, 이 말이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 “너는 거듭나야 한다.”

여기 강조하는 말이 있다. — “.....해야 한다(Must).” “시간은 짧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막 8:36). 이것은 좋은 권고가 아니다. 이것은 건전한 충고가 아니다. 이것은 명령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필요성이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죄들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하에 죽을 것이다! 지옥이 영원히 당신의 몫이 될 것이다!

여기 비밀번호가 있다.— “되다(Be).” 새로 나는 것은 당신이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하시는 어떤

것이다. 사람은 그가 천연적인 출생에 대해서 한 것보다 영적인 출생에 더 행할 수 없다. 거듭남이란 이 문제에 대하여 사람은 수동적이다.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1:12-13). 당신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당신은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당신은 무언가를 스스로 행하여 거듭나게 될 수 없다(딤후 3:4-6). 아무도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여, 말하자면 기도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침례를 받거나, 예수를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도 조차, 거듭난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 새로 태어나는 것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믿음은 새로 태어난 결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분의 은혜의 윤행으로 인하여 믿는다(엡 1:19; 2:8; 골2:11-12). 새로 태어남은 하나님의 주권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당신에게, 당신을 위하여, 당신 속에서 행해진 어떤 것이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⁸

여기 능력의 말씀이 있다. — “태어나다(Born).” 새로 남은 선물이지만, 다만 어떤 평범한 선물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다. 우리 주께서,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선포하실 때, 그분은 신성한 능력의 대상이며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⁸ 나는 마틴 루터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말해야 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에 속한 어떤 것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은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배우지 않았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혼 안에 생명을 창조하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김을 불어 넣으셨고 산 혼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당신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으며,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의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고, 천연적으로 의지할 바 없이 잃은 바 되었다.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여기 심오한 말이 있다. — “다시 (Again).” 새로 남은 은혜에 속한 비밀이다. 그것은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간단히 완전하게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지만, 이것 만큼 분명한 것은, 우리 주께서,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뜻은 두 배이다. “다시 (again)”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졌다. 첫째,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는 위로부터 나와야 한다”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 절에서 그분이 가르치고 계신 것에 대하여 말한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약 1:17-18).

두 번째, 그 의미는, “너는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이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죄 많은 부모에 의함이고, 그들의 형상 안에서 태어났다.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에 의함이며, 그분의 형상 안에서 태어난다. 첫 번째 출생은 썩어질 씨로서였다. 둘째 출생은 썩지 않을 씨로서이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죄 안에서 이다. 우리의 두 번째 출생은 의 안에서 이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오염되었고 깨끗하지 않았다. 우리의 두 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육신적이며 육욕적인 것이었다. 우리의 두 번째 출생은 영적이며 우리를 영적으로 만든다. 첫 번째 출생으로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하다. 우리의 두 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현명해 진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죄와 육신의 정욕에 노예들이었다. 우리의 두 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으로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우리의 두 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다. 우리 주께서는,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첫 번째에는 잘못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우리 주께서,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거듭난 자를 제외하고 영광 안으로 들어갈 자가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인하여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실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셔야 한다. 구속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

의 역사이다. 거듭남은 죄인들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역사들이다. 사람은 구속을 위하여 하여야 하는 것보다 거듭남과 관련하여 더욱더 할 것이 없다. “구원은 주께 속하니!”

“외적인 것은 어떤 것도 세상 위에 형성될 수 없으며,
아무 의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없으며,
사람의 의지도, 피도, 출생도 한 혼을 하늘에 올릴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만이 우리를 은혜의 상속자들로 창조하셨
으며;
그분의 아들의 형상 안에서 태어나, 새로 구별된 민족이 되었
다.”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질문에 대하여 주어진 많은 답이 있다. 요한복음의 3장에서 우리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왜 그가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세 가지 이유를 주셨다. 이 세 가지 것들은 당신과 내가 거듭나야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

첫째,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것도 이해할 수 없다(3절). —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천연적인 사람은 영적인 이해가 전무하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높은 학력의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관해서 그는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미친 사람처럼 비합리적이다. 그는 영적 지식에 대한 아무런 수용능력이 없다(롬 8:5; 고전 2:14). 돌의 중심은 단단하고, 차갑고, 구부러지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영적인 본질— 죄의 영적인 본질 (마 15:17-19), — 구속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롬 3:24-26), — 그 자신의 마음의 영적 상태 (렘 17:9), — 구원의 영적인 본질 (겔 36:25-27), 혹은 — 하나님께 순종함의 영적 본질 (삼상 16:7; 롬 14:17)을 볼 수 없다(마 5:21, 27, 38, 43, 48). 인간의 종교는 육욕적이다. 그것은 육욕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모든 것은 영적이다(요 4:23-24; 롬 14:17).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나지 않으면, 그는 단순히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것 뿐 아니라, 믿음과 경배의 영적인 본질과 (빌 3:3), — 하나님의 참된 품성 (출 33:18-34:7), 그리고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고후 4:6)을 볼 수 없다. 천연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증과 그의 성육신, 그의 순종, 그의 대속물로서의 속죄 혹은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그분의 승천과 찬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천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전혀 볼 수 없다(고후 5:18-21).

둘째, 전능하신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5절). —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당신은 새로 남이 없이 당신의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당신은 새로 남이 없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은 교회에 등록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으며, 성경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으며, 집사나 장로로서 섬길 수 있으며, 거듭나지 않고도 설교 조차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새로 나지 않고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와 권속의 일부가 결코 되지 못할 것이다. — 당신은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예배와 교통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당신은 천국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결코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다(계 20:6; 21:27). 오직 새로운 피조물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직 거룩한 자들만 거룩한 성 안으로 걸어 들어 갈 것이다. 오직 하늘로 난 시민들만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본성에 있어서 타락하고, 죄로 가득하고, 부패한 인간 육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6절). —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모든 육신은 더럽혀져 있다. 모든 육신은 타락하였다. 모든 육신은 죄로 충만하다. 모든 육신

은 저주받았다. 모든 육신은 죽어야 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며, 우리의 육신은⁹ 당연히 저주 받아야만 할 것이다.

새로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새로 태어남의 비밀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역사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의 은혜를 구별하게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거듭남은 사망에서 일으켜지는 것이다(엡 2:1-5; 계 20:6). 거듭남은 신성한 본성에의 참여자를 만들어 낸다(벧후 1:4). 거듭남 가운데 새롭게, 그리스도를 닮은 본성이 우리 혼들 안에 피조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출생한다(갈 5:22). John Gill 이 그것을 표현하였다. “거듭남 안에는 신성한 본성을 닮게 된 혼 안에서와 영성과 거룩과 선함과 친절 가운데 역사한 것이 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상화되는 것이다(갈 4:19). 영생을 갖는 것은 당신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다(갈 2:20; 골 1:27). 거듭나는 것은 은혜로 당신 속에 좋은 씨가 심겨지는 것이다(요일 3:9-10). 천연적으로 우리 모두는 나쁜 씨-아담-에서 나왔다. 그러나 거듭남 안에서 우리는 좋은 씨-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⁹ 육신은 당신의 천연적이고 죄로 충만한 자아이다(시 51:5; 58:3; 롬 5:12; 계 20:11-15).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고후 5:17). 새로 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 마음—그리스도의 통치에 굽히는 새 의지,—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해하는 새 마음,—영적인 것들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 본성,—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새 귀,—그리스도를 잡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손, 믿음의 손들,—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새로운 발을 주신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 커다란 차이이다. 율법은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복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준다!

“달리고, 달리며, 행하라,”고 율법은 요구한다.

하지만 내게 발과 손들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달콤하고 선한 소식을 복음은 가져온다.

나를 날게 하며, 날개들을 준다!

이것들로 내 무거운 혼은

그리스도께 날아 가고 하늘에 닿으리,

경주에서 지치지도 비틀거리지도 않으리니,

그러나 은혜로운 환호와 노래로 행하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사람의 본성과 새로 남의 본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성하고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가 죽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도덕적 이유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달변과 논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감정 고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의지의 단순한 실행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만 사망한 죄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요 6:63).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이다(8절).—”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에, 성령이 영원 전 택함 가운데 은혜로 선택되고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받은 죄인에게 오셔서, 그분의 주권적이고 거부할 수 없고 효험 있는 은혜로 그 죄인 속에 생명을 창조하신다(갈 4:4-7).

성령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도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12-16절). “믿는 자를 구원하는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분이 낳으셨다.” 죄인들은 “씩어질 씨로서가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살아 계시고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그리고

이것은 복음으로 당신에게 전파된 말씀이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이 사망한 죄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완전히 잘 알며, 그들이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복종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며, 사망한 죄인들이 일어나도록 부르신다(엡 5:14). 그러나 이것을 또한 알게 하신다 —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라면, 비록 사람들이 죽어 있을지라도, 죽은 자는 듣고 살아날 것이다(요 5:25).

언제 죄인이 거듭나는가?

나는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의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에 대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답하는 것은 흥미 없다. 나는 아무것도 더 잘 할 수 없는 신학자들에게 그것을 남겨두는 편이 더 기쁘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사람이 확신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말할 때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 때, 당신은 거듭난다(요 17:3).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은 거듭난다(요 3:15, 36). (이사야서 45:22을 보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당신은 거듭난다(요일 5:10-13). —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당신은 생명을 갖는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당신은 생명을 놓친다.

46. 복음 전파

마태복음 22:14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랑의 복된 복음 교리 안에서 기뻐한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서,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말을 들음으로 기뻐한다. 우리는 시편 저자처럼, “주께서 택하신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택함으로만 누구나 구원되지 않았다. 택함은 구원함이 아니다. 택함은 구원함 위에 있다. 우리가 택함 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진리 안에서 택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분에 의해 택해진 자들은 또한 구속 받을 것이다. 택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이다. 구속은 아들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보혈은 실로 우리의 죄들을 없애는 그 피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각 죄인은 그리스도로 인한 제한적인 속죄와 선택적이고 효험 있는 구속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 교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이라 할 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의 구원을 보장하고

변치 않을 것을 보장하였지만, 구원은 아니다.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과 효험 있는 부르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포함한다.

성령의 효험 있는 부르심은 효험 있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속한 성령의 역사이며, 그로써 그분은 모든 택하고 구속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그들 가운데 믿음을 창조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보장하고, 그들을 전능하신 은혜로 변화시킨다. 효험 있는 부르심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방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 은혜에 속한 표면상의 외적 부르심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죄인들에게 온다. (2.) 내적인 부르심은 죄인들이 확실하게 변화할 것으로 성령의 효험 있는 운영하심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외적 부르심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께서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할 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복음의 외적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전부는 아니나,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많은 자를 부르셨지만, 부름 받은 많은 자 중 적은 수만이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 계수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 이 외적 부르심이 죄인들에게 주어짐으로 인한 그 방법은 복음의 전파이다.

복음의 유용성

복음 전파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그리스도와 택하심의 사랑과 구속하심의 피와 구원하심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죄인들은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부름 받는다(고후 5:20).

복음의 전파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 그분의 은혜에 속한 것, 혹은 그분으로 인한 구원에 속한 것의 제시가 아니다. 은혜와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복음 전파자는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능력을 가진 죽은 죄인은 없다. 복음의 전파는 그리스도의 제시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죄인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과 그분의 은혜와 평강, 용서, 의로움, 그리고 생명과 그분으로 인한 구원에 속한 것을 선포함이다(사 40:1-2).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운 방법이다. 하나님은 잘못된 종교의 거짓들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신다(엡 1:13-14; 고전 1:21; 롬 10:17; 약 1:18; 벰전 1:23-25).

보편적인 전갈

복음의 부름은 그 범위에 있어서 보편적이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모든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신다(마 28:18-20). 복음은 은혜와 구원의 보편적인 전갈이다. 우리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의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는 것을 듣는 모든 자에게 차별함이 없이 복음을 전파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복음의 외적인 전파는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하셨다. 그분의 초기 사역 동안, 우리 주와 그분의 사도들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갔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 종종 금지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졌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보내시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신다. “많은 자”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두는 아니다.

조건 없는 부르심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시는 이러한 부르심은 자격이 없이 무조건적인 부르심이다. 죄인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나, 자격들이나, 경험들이나, 느낌들이나 혹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통과해야 하고 갖추어야 할 것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인들로서 그리스도께 올 것을 죄인들에게 명령하신다(요일 3:23).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할 것을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해도 좋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하나님은 느끼거나, 행하거나, 취하거나, 경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

만 “믿어라!”고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두신 유일한 조건은 왕이신 예수께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대사로써 영원 전부터 매인 바 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조건을 갖고 보내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조건들을 바꿀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다만 그것을 선포할 뿐이다. 죄인들은 왕께 항복하든지 아니면 왕에 의하여 말살 되어야 한다.

신성한 권위

이 복음의 부르심은 신성한 권위에 의해 주어진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그 자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신성한 권위, 곧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권위를 갖고 보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 외에 그 어떤 다른 곳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권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바로 그 입술로 말씀하신다(마 10:40).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과 분투하신다(창 6:3).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하는 사람에 의해 사람들에게 전달된 그 전갈을 거절할 때,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행 7:51-52).

신성한 권위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긴급한 책무의 일로 만든다(잠 1:23-31). 복음 전파는 죄인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복음의 부름을 누구든지 순종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

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실로, 누구든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복음에 순종하며, 누구든지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의 믿음은 그분의 구원의 작용의 증거이다.

진실된 부르심

복음 전파에 있어서 죄인들에게 제시된 부르심은 진실된 부르심이다(롬 10:1-4; 마 23:37).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곧 자유의지자들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진실되지 않거나, 은혜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으로 말라버리고 그들이 반선교자들이 될 것이라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을 흔히 경멸한다. 아무것도 진리로부터 더 멀어질 수 없다. 사도들이 세상을 뒤바꾼 것은 이 복음에 의해서 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지옥의 바로 그 문을 치고 승리하는 것은 이 복음에 의해서 이다.

은혜로운 부르심

이 복음의 부르심은 가장 은혜로운 부르심이다(사 1:18; 55:1-7). 무한한 긍휼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를 멸망할 죄인들에게 선포하시고자 죄인들을 아끼셨고,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오도록 찾기 위하여 가장 은혜로운 조건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원하는 자는 누구든

지 오라!”—“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모두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궁핍한 죄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탄원하며,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스도 대신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도록 부른다(겔 18:23, 32; 33:11). 죄로 가득한 마음들로 완강하고 단단한 자들에게가 아니라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는 즉시 오직 영적으로 미치거나 완전히 정신 이상 자들만 복음 전파자들이 그들의 혼을 변론할 필요가 있게 만든다는 것을 볼 것이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는 죄 있는 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완전한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에 속한 전가로 인한 완전한 의롭게 함과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하는 자 안에 있는 변할 수 없는 받으심과 그 분이 은혜 안에 있는 변치 않는 보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 평강, 복된 평강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능력

비록 그것이, 그 자체 가운데, 어느 누구의 구원함에 효험이 없을 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취되었을 때, 복음의 전파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사 55:11; 롬 1:16-17). 나는 종종 다음

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만일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면, 왜 복음을 모든 자에게 전파합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다섯 가지 대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나의 주께서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 하셨다(마 10:27; 28:19; 막 16:15; 행 1:8).
2. 하나님은 복음의 어리석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선택하셨다.
3.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복음을 믿을 때까지 알 길이 없다(살전 1:4-5).
4. 우리가 모든 자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전 9:16; 겔 33:7-9).
5. 우리가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함은 하나님께서 얼마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방법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직함과 열의와 수그러들지 않는 열심과 성공의 절대적인 확신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

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13-14).

47.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1:1-6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영원한 택하심은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이다. 택

하신 자의 특정한 효험 있는 구속은 구원 안에 있는 아들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리고 효험 있는 부르심, 혹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구원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버지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아들의 피의 구속과 성령의 효험 있는 부르심이 없이 죄인들은 구원 받을 수 없다. 각각의 선택된 죄인은 갈보리에서 구속을 받았다. 각각의 선택되고 구속 받은 죄인은 성령에 의해서 부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선택되고 구속 받고 부르심 받은 죄인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나오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하여 선택되고, 아들 하나님에 의해 구속 받으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지옥으로 멸망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르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런 신성모독은 하나님 위에 사탄을 높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높이는 것이며, 삼일 하나님을 그분의 계획과 역사와 은혜 안에서 완전한 실패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거나 용인될 수 없다.

아무도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는 부르심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영감의 시편 기자와 함께 노래하며 기뻐한다. “주께서 택하신 자들은 복되며 주께로 다가갈 수 있음입니다!” 성령의 효험 있는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복음 시

대에 복음의 전파 없이는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다. 이 문제로 인하여 아무도 당신을 속이지 않게 하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문제는 그분께서 하실 것이냐 아니냐 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분명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 복음 전파의 미련함으로 그분의 택한 자를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하나님으로 난 자는 모두 복음으로 그분으로 난 자들이다. 거듭난 자는 모두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 말씀의 씨지 않을 씨로 거듭났다.

이것들은 성경 안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어서 그것들과 관련한 오류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다(롬 10:17; 고전 1:21; 약 1:18; 벧전 1:23-25). 복음의 전파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감상주의와 경험과 꿈과 관습과 종교적 전통을 선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명령하신 은혜로운 방법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분의 성령의 거절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부르신다.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선포한 것처럼, 만일 복음 전파가 하나님

의 택하신 자의 구원에 매우 중대하다면, 이 공과에서 답변을 제시할 세 가지 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질문은 없다.

누가 복음을 전파하는가?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예를 본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잘 할 수 없다. 로마서 1:1에서 우리는 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 그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 것과 따라서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그 사람,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 복음 전체를 전파하는 그 사람,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복음 전파자들은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노예들이다. 어떻게 바울이 그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라. 그것은 바울 목사도, 바울 박사도, 바울 신부도, 바울 교황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의 종, 그 종이 아니라, 한 종인 것을 그에게 가장 높은 명예로 여겼다. 그는 많은 종 가운데 단지 한 사람의 종일 뿐이었으며, 그는 하나의 종이었다.

“사도(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아” — 복음 전파자는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전달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전갈을 갖고 보냄을 받은 자이다. 복음 전파자는 전갈,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전갈, 그의 혼을 태우는 전갈, 그가 반드시 전해야 하는

전갈을 가진 자이다. 그는 메시아의 부르심, 메시아의 계획, 그리고 메시아의 칙령을 가진 자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칙령을 가진 자를 마주친 적이 있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칙령을 가진 자라고 생각이라도 든 자를 마주친다면, 그것에 대하여 놀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알 것이다. 그는 어떤 틀에도 맞지 않을 것이며, 어떤 압력에도 굽히지 않을 것이고,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왜 그래야 하는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칙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그를 철저히 조정할 수 없게 만든다. 모세와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칙령을 받은 사람들의 극명한 두 예이다.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하나님의 종들, 참된 복음 전파자들은 복음에 구별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책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예레미아와 바울처럼, 복음에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과 은사들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그들 자신에 의해 특히 커가는 헌신과 결단으로 복음에 구별되었다(롬 1:9-17).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하여 보내졌던 아브라함의 종과도 같다. 그는 기쁨이나 핍박에 의해서 그의 일에서 한 눈을 팔지 않을 것이다.

누가 복음을 전파하는가? —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름 받은 전달자들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구별된 사람들이다.

복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보여 주는데 사용될 수 있는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로마서의 첫 여섯 구절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없다. 성경의 이 여섯 구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의 다섯 가지 분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들을 주의 깊게 표시하라.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을 배우라. 이 표준에 못 미치는 그 어떤 복음도 잘못된 복음이며, 그것을 전파하는 자는 잘못된 선지자들이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성경의 복음, 오직 참인 복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서술되고 있다. 많은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복음뿐이며, 그 한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그 복음”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은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높인다.

하나님께 속한 그 복음은 “성경 안에서 그의 선지자에 의함 이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신약 안에서 계시된 복음은 구약에서 약속되고 그러졌으며 특징지어진 복음이다. 위에서 정의된 것처럼, 오직 한 복

음만 있으며 돌은 없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행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노아는 은혜로 구원 받았지 행위로 구원 받지 않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셨다고 하지 않고 노아가 주님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였다고 말한다. 에녹은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성경에 따른 구약의 예언들 안에서 약속된 그 복음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이 복음은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한 다발의 교리나, 제의나, 제공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와 성취의 복된 좋은 소식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설명을 조심스럽게 공부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들 하나님이며, 성삼위의 두 번째 인격이다(요일 5:7). 그는 예수이고, 우리 구원자이며, 석방자이며, 구속자이다(마 1:21). 그는 그리스도이며, 여호와와 동일하며, 그의 택하신 자이며, 메시아이고,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록된 그 한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신 그는 우리의 주이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다(요 17:2; 롬 14:9). 복음이 말

하고 있는 그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이다. 그는 “여자에게서 났으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사람이 됨은, 다윗 왕의 직계 왕의 혈통을 따라 사람이 되셨으며, 그의 보좌 위에 영원히 앉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분께 전가된 그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위대한 대속물은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게 “거룩함의 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것이 우리가 은혜와 믿음과 순종을 받았던 그분의 복음 안에 계시된 이 위대한 하나님이자 구원자이다.

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함이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찬양과 경배를 위함이다. 여기 우리가 모든 종교와 모든 교리와 그리고 모든 전파를 시험해야 하는 리트머스 시험이 있다. 만약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를 찬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의 의지를 찬양하며, 그의 행위를 찬양하며, 그의 종교적 행위를 찬양한다면, 그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며, 거짓의 아버지에 속한 것이고, 사람의 혼에 속한 아첨꾼이자 속이는 자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복음, 모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

운 복음에 의해서 믿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살후 2:13-14).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질문을 하고 답할 때, Henry Mahan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가졌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그가 그날 밤 회중에게 주었던 다섯 가지 답보다 더 나은 대답은 없는 것으로 안다.

1.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 결코 복음을 방어하거나, 복음을 위한 변론을 하거나, 복음을 설명하거나, 복음을 치장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자를 부르시지 않았다. 복음을 단순히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파자의 책무이다(고전 15:1-4).
2.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갈로써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지 종교개혁자들의 복음이나, 청교도들의 복음이나, 칼빈주

의들의 복음이나, 혹은 침례주의들의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전갈이다. 만일 내가 전하는 그 전갈이 단지 나의 전갈이라면, 그것은 듣든지 말든지 결과가 없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의 혼에 전파하는 그 전갈이 하나님의 전갈이라면, 그것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에 복종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고통 받아야 한다.

3. 복음을 전파함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전갈로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한 전갈이 있고 구원 받은 자를 위한 다른 전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위한 한 전갈과 어른들을 위한 다른 전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 무리를 위한 하나의 전갈과 다른 무리를 위한 다른 하나의 전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¹⁰ 우리의 전갈,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전갈이다. 우리의 전갈은 항상 같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원과 성화, 복음주의와 가르침, 변화와 교정, 확신과 위로를 위한 복음, 죽은 죄인들과 죽어가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복음을 전파한다.

4.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전파했다면, 그는 그

¹⁰ 우리가 특별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타협한다. 만약 당신이 복음을 한 무리의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만들려 한다면, 당신은 복음을 그 무리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런 타협함이 없이 죄인들의 구미에 맞게 복음을 만들 수 없다.

자신의 전갈로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롬 2:16; 16:25; 딤후 2:8). 분명히 해 두자. 복음 전파는 추상적인 종교, 교과서에서 배운 종교적 원칙에 대하여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은 불로써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에 새겨지고, 성령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인처럼 그의 마음에 타 들어간 하나님의 전갈을 전파하는 것이다.

5.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이 믿기를 바라는 순수한 갈망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을 냉담하게 전파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전하는 흥내만 내는 것 뿐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냉담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사람들로써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갖고 전하는 것이다. 복음은 “내가 오늘 복음을 막 배웠듯이, 당신이 전에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이 다시는 그것을 듣지 않을 확신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것을 전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이라고 Luther가 말했던 것처럼, 전파 되어야 한다. 모든 복음 전파자는 바울과 함께 정직하게 말 할 수 있다.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와 마음의 갈망이 당신이 구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이다.” 그것이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다.

48. “하늘의 부르심”

히브리서 3:1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1을 여는 말씀 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세 가지 점들을 말하고 있다. (1.) 모든 신실한 믿는 자들은 “거룩하다.” (2.) 모든 신실한 믿는 자들은 “형제들”이다. (3.) 모든 신실한 믿는 자들은 “하늘의 부르심의 참여한 자들”이다.

이 세상에는 성경에서 “부르심 받은 자”라고 묘사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롬 1:6; 8:28).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자들은 그분의 전능하고 거절 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이다. 택함 받은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가 부르심을 받을 것이지만, 구원 받은 자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불신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부르심 받았다.

전파된 복음을 듣는 특권을 받은 모든 자는 복음의 전파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구원 받은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은 내적이며, 효험 있고, 거절 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에 의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받은 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도 같다. 그들의 택정함과 구속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왔으며, 말씀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도 오셨다는 그 사실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¹¹ 구원은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고 거부할 수 없고 효험 있는 부르심에 의해 은혜로운 체험 가운데 온다.

이 부르심에 관해서는 다윗이 노래한 것과 같은,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시 65:4)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갈 1:15-16)고 말할 때 그 부르심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쓸 때 이 내적이며 효험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

¹¹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전파가 없이 은혜에 속한 효험 있는 부르심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음의 전파는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는 부르심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을 결코 산출 할 수 없을 것이다.

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딤후 1:9-11).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그가 그것에 대하여 말할 때, 너무도 압도당하여서 그것을 묘사할 만큼 충분한 말을 찾지 못하여 그것의 경이로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그 부르심을 이렇게 불렀다.....

- “거룩한 부르심” (딤후 1:9).
-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부르심” (빌 3:14).
- “하나님의 부르심” (롬 11:29).
- “당신의 부르심” (고전 1:26; 엡 4:4).
- “하늘의 부르심” (히 3:1).

우리가 그로써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무엇인가? 복음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자가 되게 한 이 하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저서들 속에서 많은 방법으로 묘사되고 있다. — 내적 부르심 — 효험 있는 부르심 —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 은혜의 부르심. 그 모든 말들은 좋으며 정

확하다. 그러나 어떻게 이 부르심이 성경 안에서 묘사되고 설명되고 있는가? 여기 일곱 개의 말씀, 그 안에 우리에게 대한 하늘의 부르심이 묘사되고 있는 성경의 일곱 개의 신성하게 계시된 말씀들이 있다.

베드로전서 2:9 — 어둠에서 불러내심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적이고 효험 있는 구원의 은혜로운 부르심은 역겨운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안으로 부르심이다. 세상의 창조 가운데에서처럼,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나는 빛을 명하셨으며, 따라서 은혜의 새 창조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빛 비추신다(고후 4:6).¹²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우리 자신의 타락한 마음들과 영적 무지의 역겨운 어두움 속에

¹² “사도 바울이 은혜로,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빛, 그의 속에서 솟아났던 그 내적 빛의 상징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후, 그의 눈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비늘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이전의 어둠과 무지가 제거되는 정표와도 같았다.” (John Gill)

휩싸여 있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들의 본성의 상태 안에서, 그들이 변화 받기 전에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철저히 무지하였다.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무지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하고, 죄에 대하여 무지하며, 의에 대하여 무지하고, 섭리에 대하여 무지하고, 구원에 대해 무지하고,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며,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천연적인 사람은 결코 영적 지식이 없다(요 3:5; 고전 2:14).

이제, 성령의 효험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의 이해의 눈은 열렸으며,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보게 되었고 빛 가운데 걷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결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그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알게 한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해 준다(잠 28:5; 요일 2:20; 고전 2:12-13, 15-16).

믿는 자들은 진리를 이해하며, 진리를 믿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 모든 거듭난 남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기뻐한다. 믿는 자들은 모두 그들의 죄와 죄들을 깨달으며, 그들의 의가 심각하게 죄로 가득한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효험 있는 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소망과 위로를

위한 유일한 기초를 발견한다. 구원 받은 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워 하며, 구약의 요나와 함께, “구원이 주께 있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거듭나고, 빛 비춤을 받고, 구원 받은 죄인들이 다른 것들 사이에 구별하는 능력을 갖는다. 그들은 은혜와 행위 사이에 있는 차이를 안다. 그들은 대가 없는 은혜와 자유의 지 사이의 차이를 안다.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경이로운 빛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

자유함 속으로 부름 받음 — 갈라디아서 5:13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는 본성에서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모든 저주와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을 집에서 태어난 종으로서, 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의 종들이 되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을 사탄의 권세와 영향 아래에서 보냈으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자들이다.

어떻게 은혜롭고 축복된 자유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사탄은 무장한 강한 사람같이 이집트에서 보다 더 악하게

노예로 나를 잡고 있다. 은혜가 나를 자유롭게 하였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신 6:20-23). “그것을 내게 보여 주신 것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지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네게 교훈을 주시려고 너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신 4:31-39).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모두 자유로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이다.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음 — 고린도전서 1:9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가 노예상태에서 자유 안으로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모두의 영광스러운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삼일 하나님과의 친근하고 달콤한 교통의 복된 자유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포기하도록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가족과 친구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 받는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도록” 부름 받았고 계속하여 부름 받는다. 이 세상의 풍성과 그

것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주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이 소중히 여기는 종교를 우리는 과감하게 경멸하여야 한다(신 7:2-6, 25-26; 고후 6:14-7:1; 계 18:4).

이것은 큰 희생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자인 “하늘의 부르심”은 우리를 우리가 전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이끄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다가가고 교감하며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성도들은 물론 하늘에 있는 그분의 성도들과 복된 교제를 하고 있다(히 12:22-23). 하나님의 집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 주님의 상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 하나님의 그 보좌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 이 어떤 특권인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

평강 안으로 부름 받음 — 고린도전서 7:15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적 평강, 마음의 평강과 양심의 평강 속으로의 부르심이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완전히 이방인들이다.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 안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모든 이해를 주는 평강

으로, 세상의 환란의 한 복판에서 평강으로, 세상이 줄 수도 가져 갈 수도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우리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부터 나오는 평강이며, 우리 안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그 왕국의 일부이고, 우리의 하늘의 부르심으로 그곳으로 옮겨진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평강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 3:15). 우리는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함에 부름 받음 — 데살로니가전서 4:7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다. 그것은 거룩한 계획—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나온 부르심이다. 그것은 거룩한 원칙—만족된 공의를 기초로 한 부르심이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위치—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위치로 옮긴 부르심이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거룩한 나라”—“특별한 백성”—“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부르심이다.

John Gill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고 죄로 가득한 상태에서부터 거룩하고 의

로운 상태로 부름을 받았다.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 가운데 새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을 행하도록, 즉 거룩하고, 깨어있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세의 악한 세상 안에서 살도록 부름 받았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살전 4:7),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게 부르셨으며' (벧후 1:3), '덕과 선함의 영광스러운 행위로 부르셨고, 그들의 부름의 본성이 되고, 부르신 그들을 그분께 속하게 하셨으니, '너희를 부르신 분같이 거룩하라' (벧전 1:15)."

은혜 안으로 부름 받음 — 갈라디아서 1:6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된 체험 안으로 부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고 누리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는 (1.) 어둠에서 빛으로, (2.) 속박에서 자유로, (3.)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으로, (4.) 혼란에서 평강으로, (5.) 불결함에서

거룩함으로, (6.)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그리고 (7.) 이 세상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 안의 영광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영광으로 부름 받음 — 데살로니가전서 2:12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인 왕국으로 부르셨다. 그는 우리를 여기서 은혜의 왕국의 소유 안으로,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왕국 안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부터 영광의 왕국을 상속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신 이 왕국과 영광은 영원한 왕국이다.

당신은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부르심 받았다(살후 2:14).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 3:4)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엡 4:4). 부름 받은 자들은 모두 같은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는다(히 9:15). 부름 받은 모든 자는 그들의 영원한 상속 유업을 위하여 같은 영광으로 부름 받고 받았다(요 17:22).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베드로전서 1:3-4).

49. 부르심 받은 자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몇 가지의 호칭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특징적이며, 차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의 대상들과 수혜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구상된 것처럼 보인다. 믿는 자들은 “택하신 자,” “주의 구속 받은 자,” 그리고 “부르심 받은 자”라고 불려진다.

거듭난 자들,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이 특별하고도 구별되는 호칭인 “부르심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과 우리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로마서 8:28에서 만들어진 구별이다.

확연히, (적어도 자유의지 종교라는 초에 절여지지 않은 뇌를 가진 자에게는 누구나 분명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외적이고 표면적이며 일반적인 복음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적이며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로써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분별되고 구별되어졌다. John Gill은 이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부르심을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왔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복음 사역 가운데 사람의 마음의 문 앞에서 서 계시며, 문을 두드리고 부르신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갖고, 은혜의 능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며 자신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방법 안에서,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성령과 그의 은혜들을 받게 된다. 사람들은 복음에 의해서 은혜와 영광 모두에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름 받음

부름 받은 자들인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에 따라

부름을 받는다. 죄인들은 그들의 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으로 부름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혹은, 우리가 했을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우리를 위하고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따라 받는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하는 은혜와 계획이다.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그분이 그들을 부르도록 사망한 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유의지의 종교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아는가? 그것은 영적 정신 이상의 종교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박하게 할 자를 친히 강박하게 하시느니라.” (롬 8:28; 9:16-18).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구원은 부분적으로 사람의 일이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력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 만의 역사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 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영원한 계획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부르실 특정한 사람들을 정해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를 영원 전에 정하신 것은, 각각의 계획을 위한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부르기 위한 때가 있다. 그것을 “사랑스러운 때”라고 부른다(겔 16:8). 더욱이,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바로 그 장소를 영원 전부터 정해 두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부르시는 그 방법과 환경들의 모든 것을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영원 전부터 정해 놓으셨다.

우리의 부르심의 각 방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뜻의 결정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기뻐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뜻은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의 행위들은 그것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선택하였던 것이 아님은,
주여,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나를 택하시지 않았다면,
이 마음은 여전히 당신을 거절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당신 앞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갈망하기 때문이며,
이것을 앎은 — 만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께서 나를 처음 사랑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거절 할 수 없는 은혜로 부름 받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효험 있는 부르심의 위대하고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롭고, 대가 없으며, 주권적이고, 과분하며, 특징적인 은혜의 부르심으로 서술한다. 그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는 까닭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고전 15:10; 갈 1:15).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영광으로 부르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그 무한하고 뛰어난 풍성이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이 부르심 가운데 보여진다. 실로, 그분의 은혜가 처음 열려 전 시됨과 그분의 사랑이 처음 발견됨은 은혜로운 이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어떤 것들을 보

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친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열매와 증거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믿게 만들고, 그리고 기꺼이 믿게 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시 65:4; 110:3). 따라서 부르심의 때는 사랑스러운 때라고 불린다(렘 31:3; 겔 16:8; 슥 12:10).

이 부르심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고 다른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특별한 은혜와 그분의 선한 뜻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와 구별하는 것과 모든 믿는 자가 그것을 아는 것은 오로지 은혜이다(고전 4:7). 이 부르심이 성경 안에서 언급되고 보여짐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믿음을 갖고 있는 부름 받은 그 사람 안으로 귀결되고, 그 부르심의 효험과 거절불가능 함을 보여준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 65:4).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로마서 1:6과 디모데후서 1:9-10에서 우리가 들은 바이다. —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

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롬 1:6)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된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이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것이며, 그분 안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든 보물들이며 그분 만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모든 축복을 받는다.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위하여 구원과 은혜의 모든 체계 가운데 있는 각각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결코 실패하지 말도록 하자. 은혜의 부르심조차도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며,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시 115:1).

부르심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부르심 받지만, 누가 “부르심 받은 자들”인가? 우리는 결코 이것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의문이 남겨지지

않아야 한다. 이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책이 말씀하는 것을 보도록 하자. 나는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읽는 누구든지 우리의 교리에 맞추기 위하여 성경을 왜곡하였다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두자. 그 말씀은 나 자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변론이 필요치 않다. 하나님이 책이 말씀하는 바를 읽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

“부르심 받은 자들”인 그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구원에 이르도록 미리 예정된 자들이다(롬 8:28-31; 9:23-24).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 하나님께서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택정하심과 효험 있는 부르심의 목적들은 동일하다. 영원 전에 선택된 자들은 시간 가운데 부르심을 받으며, 시간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원 전에 택함 받았다.

“부르심 받은 자들”인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유 1). —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영원 전부터 우리의 보증이신 그분의 수중에 있었고,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분의 허리에 있었으며,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의 보호 안에 있었으며, 우리의 남편이신 그분의 마음 안에 있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인 그들은 갈보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고 사들인 바 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택하시고, 구속하시며, 효험 있는 부르심은 동일한 백성들을 위하여 행해진 은혜로운 역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구속 받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아들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부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사야 43:1과 스가랴 10:8을 읽고 당신 자신을 위하여 보라.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

속하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전에 불어나던 것 같이 불어나리라.”

“부르심 받은 자들”인 그들은 가장 부르심 받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다(마 11:25; 고전 1:26; 약 2:5).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주변에 앉아서 가장 거룩한 분에 대하여, 어떤 교회가 가장 참된 교회인가에 대하여,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하여, 아담에게 배꼽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혹은 가인은 어디서 그 아내를 취하였는가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동안에, 세리들과 매춘부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죄인들, 진짜 죄인들, 죄가 있고 무력하고 불운하고 저주받고 사악하고 가증스럽고 더러운 죄인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흥미를 갖는다 — 긍휼! 긍휼이 필요한 그 사람들, 세리와 매춘부, 선하지 않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부르심 받은 자들”인 그들이다.

성령의 증언이 아주 분명하다. —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눅 10:21) —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고전 1:26) — “내 사랑하는 형제들
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
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
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약 2:5)

“부름 받은 자들”인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
롭게 되는 자들이다(롬 8:30).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
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
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부할
수 없게 부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틀림없이 보호되며, 그리
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화롭게 될 것이다. 결국, 그분은 우리를 영광
과 존귀로 부르셨다!

“부름 받은 자들”인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
든 자이다(요 15:16; 골 2:12; 빌 1:29). 만약 어떤 죄인이라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른다면, 그것은 그가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부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부름 받았는가? 그럴 수 있구나!
나의 구원자께서 나를 택하셨는가?
나처럼 죄 있고 사악 자를,
내 값없는 이름을 부르셨는가?”

더러운 중에 가장 더러운 내가,
감히 나의 소망들을 그리도 높이 올리겠는가?
내가 부름 받았는가? 감히 머물 수 없구나.
그렇다면, 결코 불순종 할 수 없다;

여기 당신의 발 아래 엎드리고, 속죄소에 매달려:

나는 당신의 것, 오직 당신의 것;
나와 계신 주 당신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부름 받았는가?
나의 왕께 제물로 무엇을 가져갈까?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나,
당신의 발등상에 엎드려 떨고 있네;

죄 이외에 내 것이라 할 것 없고,
죄로 죄가 속죄할 것 없네.

내가 부름 받았는가? 하나님의 기업!
보혈로 씻김 받고 구속 받았네!
아버지여, 당신의 손으로 나를 이끄소서,
더 좋은 땅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혼이 쉴 수 있는 곳,
내 구원자의 가슴을 베개로 삼았네.”

50. 부르심의 특징

데살로니가후서 2:13-14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 두 절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유일한 이유와 타락하고 부패한 아담의 자손이 나무 그루터기나 개구리보다 우리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전능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일한 이유와 적그리스도의 우상숭배, 자유의지, 행위의 종교에 의한 세상의 나머지에 속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아들 하나님에 의해 구속 받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공훈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 115:1).

항상 성경의 말씀에 가까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문을 읽듯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만 훑듯이 읽는다. 하나님의 책 안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자세하게 되어 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신성한 영감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중심으로 올바르게 가는 다섯 가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서술된 것들은 구속과 의와 은혜와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각각의 죄인에게 주어진 확신의 말씀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보장 받았다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확신되어야 하는 다섯 가지 사항들이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신뢰하는 만큼, 이 다섯 가지 사항들은 당신에게 진실이 된다.

1.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 얼마나 복되며 좋은 소식인가! 거룩하신 주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특별한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별된 은혜로써 세상이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택하셨다. 실로,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그분께서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에”** 택하셨다. 주님은 당신이 구원을 받을 기회를 갖도록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구원의 제시를 받기 위하여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구원에 관하여 당신이 듣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

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택하셨다. 택정하심은 구원에 이룸에 있다.

3. 하나님은 **“당신을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셨다. 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만족되어진 공의의 바탕 위에서, 거듭남 안에서 성령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택하셨다. 그분은 의롭게 하심 가운데 당신에게 의를 전가함으로 뿐만 아니라, 거듭남 가운데 당신에게 의를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구원하셨다. 성령은, 거듭남 가운데 그들에게 새롭고 거룩한 본성, 곧 참 거룩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피조된 본성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한다.
4. 하나님은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셨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택정과 구속과 거듭남과 같이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과 떼어 놓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는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 그분을 믿었다.
5.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을 통해 당신을 부르신 곳으로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

셨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알 필요가 있다.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은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만 오는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는 부르심으로 구원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체험 안으로 옮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 받게 된 그 부르심이 네 가지 뚜렷한 특징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첫째, 우리가 구원 받은 그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다. —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견게 하려 함”이다.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 주 하나님이 직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살전 2:12; 4:7; 딤후 1:9-10).

은혜와 구원의 다른 모든 방면들 안에서처럼, 성삼위 안에 있는 세 분 모두의 인격들은 이 은혜의 부르심 안에 내포되어 있다. 때로

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함이라고 여겨진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그 아들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의 교통 속으로 부르셨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셨다(갈 1:15, 16; 고전 1:9; 벧전 5:10).

때때로 은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로써 그리고 영원한 말씀(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그분 자신 속에 있는 생명과 믿음 속으로 부르신 분으로 제시된다(잠 1:20-33; 8:1-4).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묘사된다(롬 1:6).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공식적인 역사인 것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계시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보내지신 축복된 보혜사로서 성경 안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제시된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엡 4:4) 그 한 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부르심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빛 비추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속으로 옮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창조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 속에 평강을 말하며,

믿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원한 영광의 복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도록 가르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효험 있는 부르심은 신성한 역사로서, 하나님만의 뜻으로부터 일어나고 성취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혹은 어떤 정도라도 사람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거나 (딤후 1:9), 사람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신학적인 정통성의 관철은 점이 아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의 행위들에 의해 좌우되게 하거나 결정되게 한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요 6:63).

이 효험 있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당신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을 사랑하게 되도록 배웠기를 소망한다. 거절될 수 있는 은혜는 전혀 은혜가 아니다. 거절될 수 있는 부르심은 결코 어느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불운하며, 저주 받고, 사망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날에 기꺼이 헌신하게 하는 것은 오직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이다(시 110:3).

성령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무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범 죄들과 죄들로 사망한 죄인들은 그들의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분의 전능하고 매우 위엄 있는 목소리에, 마치 나사로가 그리스도의 부르

심에 그의 무덤에서 나왔던 것처럼 살게 된다. 그 부르심은 생명 주는 부활 능력을 함께 가져 오기에 거절 될 수 없다. 이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의 부르심은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 자신을 일어나도록 한 능력과 똑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어나게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전능한 능력의 역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엡 1:18-20).

복음에 의해서

둘째,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받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에 의한 부르심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믿는 자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전하였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셨다고 말했다(살후 2:13-14). 그는 에베소의 믿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들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엡 1:13).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다. “믿는 그들을 구원하려 전도하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방법을 지나치지 않으신다. 그가 했을 것이라는 제안은 매우 터무니 없다. 만약 복음 전파로 그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그가 전에 했던 유일한 이유가 눈이 멀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기뻐하는 방법을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전능하신 분이 눈이 멀었을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분의 영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오직 복음 전파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주신다. 그 말에 반대의 입장에 있을 사람들이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구원 받은” 다른 사람들의 예를 따라 예를 제시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자.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남긴다. 인간적 이유와 경험이라는 흐르는 모래 위에 그들의 교리를 세우든지, 아니면 성경의 분명한 선언 위에 우리의 교리를 세울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선언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반대가 되고 헛되게 하더라도 그 위에 우리의 교리를 세워야 한다.

성경은 우리 앞에 이 사실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복음으로 구원하신다. 그분은 복음이 없이, 복음으로부터 떨어져서, 혹은 틀린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 “그런즉 이와 같이 믿

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 선택 받고, 구원 받은 죄인들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롬 1:16; 10:17; 고전 1:21-25; 약 1:17; 벧전 1:23-25).

이 사실은 각각의 믿는 자와, 각각의 지역 교회와, 각각의 복음 전파자의 어깨 위에 책임감의 엄청난 부담으로 놓여 있다(겔 33:7-9; 고전 9:16).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의 구원(수확)과 그분의 왕국의 건설과 그분의 이름의 존귀함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시며(고전 15:58)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남겨 놓으셨다. 그분의 말씀은 공허하

게 되돌아 오지 않을 것이다(사 55:11).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각 전파자 앞에 하나님께서 두신 모든 기회를 붙잡는 것은 큰 특권이며 책임이다. 하나님은 교리를 방어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그분의 종들을 내보내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의 종들을 보내셨다. 단순히 전파하거나, 교리적 사실들이나 성경의 도덕적 교훈을 단지 전파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전파되지 않은 것이다.

복음 전파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책무이듯이,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중에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기회를 붙잡는 것은 각각의 믿는 자와 각각의 지역 교회가 갖는 책무이다. 만약 우리가 신실하게 이 책무들을 감당하나 죄인들이 복음을 믿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의 피는 영원히 그들의 머리 위에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혼들을 옮겼으며 그들의 피는 없다. 만약 우리가 이 책무들을 감당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의 피가 우리의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은혜에 속한

셋째, 죄인들을 구원한 그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구원의 체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돌렸다(갈 1:15). 하나

님의 이 부르심은 완전하고 대가 없으며 과분하게 은혜로운 일이다.

모든 은혜의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영광 속으로 죄인들을 부르신다. 하나님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이 이 부르심 안에서 보여진다. 한 죄인에게 은혜의 나타남과 사랑의 발견이 열림은 그가 부름 받을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빛 안으로 가져다 주신다(딤후 1:9-10).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열매와 증거로써 우리가 사랑스런 호의로 이끌어진 것은 이 부르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부르심의 시간은 사랑의 시간이라고 불린다(렘 31:3; 겔 16:8).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분의 은혜의 역사로서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

-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열매이다(렘 31:3).
-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선한 기뻐하심에 따라 택하신 죄인들에게 주어진다(미 3:13; 롬 9:16).
-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롬 11:29).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운행처럼, 우리가 구원 받게 된 그 부르심은 바뀔 수 없고, 뒤집을 수 없으며, 변경할 수 없다.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 안으로 부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에 안전하게 보전될 것이며, 그 모든 충만 가운데 그

것을 가장 확실하게 누릴 것이다. 기록되기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라고 하였다(살전 5:24).

여기에 이 가르침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택정함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셨기” 때문이다. 택정하심과 부르심은 항상 함께 간다. 그 하나는 다른 것의 열매이고 결과이며 증거이다(벧후 1:10). 택정함은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계시되고 알게 된다(살전 1:4-5).

하나님께 부르심 받음으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의롭게 함에 대한 확신을 안심하고 갖게 된다. “그분이 부르셨던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만약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러면 나는 의롭게 된다. 따라서 나는 모든 혐의들로부터, 모든 정죄로부터,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진노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결론지을 수 있는 모든 이유를 갖고 있다.

더욱이, 만약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분께서 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장하셨다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 지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 그들이 “그분께서 또한 영화롭게 하

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지 않는가? Mr. Gill은 우리에게 똑바로 말하고 있다. “부르심의 은혜와 영원한 기쁨 사이에 확실하고 끊을 수 없는 연결이 있다.” (*A Body of Doctrinal Divinity*, Book 6—Chapter 12, Of Effectual Calling, 4f).

영광 속으로

넷째,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으로의 부르심이다. 그것은 다른 세상에 있는 기쁘고 행복한 상태로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살전 2:12).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없어 질 수 없는 은혜의 왕국을 소유하고, 이후 영원한 왕국인 영광의 그 왕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주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살후 2:14; 요 17:22; 골 3:4)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다(벧전 5:10). 그것을 상상해 보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하여” (딤후 6:12) 부름 받았고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하여 부름 받았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피와 의를 통하여 그것을 위하여 어울리게 되었다. 실로,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벧전 1:3-

4; 히 9:15).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자들은 모두,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같은 기업에 참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의의 소망을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충만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하늘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놓여진 같은 축복된 소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엡 4:4).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기업은 우리 구원자의 바로 그 영광이다(요 17:5, 22). 인자로서, 우리의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 주어진 바로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다!” 다윗이 노래한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시 65:4).

51. 회심

시편 110: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

나이다.”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감싸이는 것으로 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반역자들의 자발적인 회귀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인한 회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우리를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분께 돌이킨다. 이것은 예레미야 31:18-20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과 동일하며, 여기서 주께서 우리에게 에브라임이 스스로에게 한탄하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이같이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나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계하시매 내가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수소같이 징계를 받았나이다. 주는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서리이다. 내가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뒤에 내 넓적다리를 쳤나이다. 내가 어린 시절의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부끄럽고 참으로 당황하기까지 하였나이다, 하였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는 기뻐하는 자식이냐? 내가 그를 대적하여 말한 이후로도 여전히 그를 간절히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인하여 애를 태우나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가 말하노라.”

시편 80편에는 죄인들이 도처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의 외침으로 시작 할만큼 현명하였을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한 기도가 드러지고 있다. — “오 하나님이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 “오 만군의 하나님이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3, 7, 19절).

하지만, 거듭남과 효험 있는 부르심과는 달리, 회심은 우리가 피동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회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향력 아래에서 그분께 돌이키심과 우리의 자발적인 돌이킴 모두이다. Stephen Charnock은 거듭남과 회심 사이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 “거듭남은 죄인의 마음을 향하고 그 위에서의 하나님의 동의이다. 회심은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동의이다.” (*A BODY OF DOCTRINAL DIVINITY Book 6—Chapter 13 OF CONVERSION / A Discourse of the Nature of Regeneration, Stephen Charnock*)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효험 있는 부르심에 거듭난 혼이 기꺼이 응답하는 것이다. John Gill이 제시한 바와 같이, “회심은 신성한 은혜의 영향 아래에서 다른 그 어떤 자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철저하게 확신하는 사람이 주님께 능동적으로 돌이키는 것 안에 있다.” (John Gill, *A Body of Doctrinal Divini-*

ty, Book 6—Chapter 13, OF CONVERSION, 1d6)

회개화 믿음과 회심은 항상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불가분의 은사들이다(행 11:18-21). 여기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제자들이 곳곳으로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성령의 묘사가 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 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의 몇 사람은 키프로스 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사도행전 11:18-21).

하나님의 은혜로운 운행하심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수단 위에 임한 커다란 주안점이 한번 더 있는 것을 주의하라. 거듭남과 효험 있는 부르심 안에서, 또한 회심 안에서 주 하나님은 복음 전파라는 방편을 통하여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심을 기뻐하신다(약 5:19-20). 야고보는 우리에게, 신성한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향한 은혜로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신다고 말한다. 그분의 무덤 옆에 서 있던 자들은 나사로를 사망에서 일으키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무덤의 입구로부터 돌을 치울 수 있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은 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며 행하도록 은혜롭게 허락되었던 것이다(요 11:39).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회심된 죄인들을 매개로 사용하심으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 회심하는 역사를 기뻐하신다. “매개체로 사용하심은 우주적인 계획이다.” (C.H. Spurgeon). 새 창조 안에서 회심된 죄인들을 매개체로 사용하심으로 죄인들을 회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법칙이다. 특별히, 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른 죄인들을 매개체로 회심된다.

1. 사람이란 매개체의 사용은 하나님께 필수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그분의 기뻐하심이다.
2.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에 있어서 사람이란 매개체의 사용하심은, 놀랍고도 정중한 은혜의 행위로서, 또한 무한한 지혜와 주권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3.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의 회심을 위하여 당신이나, 나든지, 혹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 내리는 가장 높이 가능한 명예의 수여가 될 것이

다.

시편 110

“(다윗의 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시편 110:1-3).

이것은 대관식 시이다. 그것은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묘사하고 있다.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분께 아버지께서 주신 역사를 성취하셨고, 우리의 보증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모두 충만케 하셨으므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일단 주 예수께서 우주의 전능하신 왕자와 왕으로써 관을 쓰셨기 때문에, 의의 홀은 그분의 손 안에 주어졌고,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육체 위에 권능과 통치와 권위가 이 축복의 약속과 함께 주어지셨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

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그러나 어디에 그분의 백성들이 있는가? 신민(臣民)이 없는 왕은 결코 왕이 아니다. “왕”이라는 지위는 만약 백성이 없고, 왕께 대한 신민이 없다면 가짜에 불과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그분의 총만을 마침내 총만케 할 신민들을 어디서 찾으실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우리는 두려워 한다. 우리는 굳은 마음과 완강한 죄인들과, 오만하고 사망한 자의적인 종교주의자들과, 사망과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계곡에 복음을 전한다. 흔히,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의심하며 절망한다. “어디서 이 위대한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며 왕을 위한 신민을 발견할 것인가?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발적으로 절을 할 남녀를 찾을 것인가?” 그때 우리가 이 세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잠잠해지고 심을 얻게 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왕께서 그분께 순종할 백성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임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권능의 날에 영원히 그분의 신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유 위에 그분을 왕으로 관 씌우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하신

다섯 가지 약속들이 여기 있다.

약속된 백성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 특별한 백성을 가리킴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이며 그 이외에 아무도 아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그분의 백성을 위함이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백성을 위함이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그분이 그분의 모든 계획과 그분의 모든 뜻과 그분의 모든 갈망을 충만케 하셨을 때, 그들 각각은 여기에 “당신의 백성”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을 백성임을 말함이다. 누가 이들이며 누가 부르심 받은 “당신의 백성”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며 (살후 2:13-14), 그분의 언약의 백성이고 (렘 31:31-34), 그분의 구속된 백성이며 (사 43:1), 그분의 보존된 백성이며 (유 1), 그분의 부르심 받은 백성이며 (롬 8:28), 그분의 사랑스런 백성이다 (렘 31:3).

약속된 설복

이 언약에 대한 다음의 세 말씀을 보라. “당신의 백성은 즐거이 헌신 할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다르거나, 아마도, 다를 것이며,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즐거이 헌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두려워 함을 아는고로 우리는 사람들을 좇나이다.” 혹은 그들을 좇으

려 하지만, 여기 확실성, 절대적 확실성의 문제가 있다.

악명 높은 아르메니아주의자인 Adam Clarke는, “이 구절은 비탄스럽게 왜곡되었다. 택함 받은 자들의 혼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거절할 수 없는 운영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Adam Clarke, *A COMMENTARY AND CRITICAL NOTES ON THE HOLY BIBLE: OLD AND NEW TESTAMENTS*, Part 3 Job-Psalms, PSALM CX, NOTES ON PSALM CX, p. 1043)

그것이 정확히 그 구절이 가르치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히 눈멀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영문법의 간단한 형식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죄인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그가 자원하여 할 때까지 하나님께 올 수 있거나 올 자가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자원하게 된 자들은 모두 참다운 회심함 가운데 그분께 나온다. 은혜는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은 죄인들을 기꺼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들의 주와 왕으로 그리스도께 엎드리며, 그들의 더러운 누더기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여호와 우리 의(Jehovah-Tsidkenu: The Lord our Righteousness)로 붙잡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우리의 신성한 중보자의 피와 의와 중보와 능력 위에 올려 놓고, 그분의 종들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만든다. 은혜는 죄인들이 그분께 그들 자신과 그들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

드리고, 그들의 합당한 섬김과,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든다.

약속된 능력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에서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에게 그분의 능력이 그 백성 각각이 그들의 혼을 구원함에 도달함으로써 나타나고, 드러나며, 알려지고, 체험될 때인 특별한 날을 약속하신다.

언약이 죄인의 권능의 날이나, 전파자의 권능의 날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주의하라.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권능의 날을 말하고 있다. 그분의 권능의 날은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택함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 효험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이 택함 받은 죄인들에게 그분의 구원하는 은혜의 전능한 능력 가운데 오는 그 어떤 날이다. 이 본문은, Calvin에 따르면, “그들의 군대를 소집하는 때”로 합당하게 번역된 것 같다. 달리 말해서, 군대가 필요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의 원인을 위하여 소집된 군대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암시가 여기에 있다.

약속된 정결

이 본문에서 다른 점을 보고 약속된 정결을 또한 기뻐하라. 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에게 맹세하시기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원 하리라.” 라고 하셨다. 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만족과 그분의 전가된 의로 인한 완전한 거룩의 배경 위에서만이다. 그분의 백성, 그들 모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의롭게 하심 가운데,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와 궁극적으로 영광 가운데 그분께 이끌려 질 것이다(유 24-25).

약속된 찬양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그들은 아침의 태로부터 태어나고, 영원한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은혜의 아침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비밀스럽게 태어난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청년들의 이슬이다. 그들은 아침 이슬처럼 아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이기 때문에 아침 이슬로 비유된다. 이 택함 받고, 구속 받은 회심한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구적인 청년의 이슬들이며, 이들은 모든 영원을 위하여 그분께 찬양을 드릴 것이다.

52.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요한복음 10:27-30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양떼는 약하고, 무력하며, 무방비의 피조물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적들에 대항할 힘이 없다. 그들이 길을 잃으면,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을 수 없다. 만일 아프면, 그들의 질병과 싸울 수 없다. 만일 위협을 받으면, 그들은 위협에서 탈출할 만큼 충분히 빨리 뛸 수 없다. 만일 공격을 받으면,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양떼가 갖는 유일한 안전은 그 목자에게 있다. 만약 그들의 목자가 현명하고, 선하며, 강하다면, 그들은 안전하다. 만약 그 양떼가 살아남는다면, 만약 그들이 살아서 번창한다면, 그 광영은 목자에게 속한다. 만약 양떼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 비난은 목자가 받게 된다. 양떼를 지키는 것은 목자의 책임이다. 이것들을 안다면, 주의 양떼인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뻐하게 된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

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 있는 우리 주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약하고 무력하며 무방비의 피조물들인 그리스도의 양떼이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현명하고 선하며 강한 우리의 목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귀한 목자께서 그분의 모든 양떼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절대적이고 변치 않으며 확고한 안전을 선포하신다.

나는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영원한 안전과 보존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을 인식한다. 어떤 자들은 그것을 그들의 혼에 대한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거짓으로 왜곡한다. 그들은 모든 책임의 배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주장함으로 그들의 사악함을 정당화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심각하고 혐오스러운 사악함 속에 살고 있으나 자신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망상으로 그 자신의 양심을 누그러뜨리려 한다. 다른 자들은, “불법과 도덕폐기론을 고취하는 그런 가

르침”이라고 외친다. 그들은 율법으로 지배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그래야 한다고 추정한다. 그들이 강제로 노예와 용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원하여 순종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추정한다.

나는 그와 같은 왜곡들을 유감으로 여기지만, 나는 어떤 사악한 악마 같은 인간은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으로 기분이 상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비꼬고, 그분의 가르침을 왜곡하며, 그분이 전하였던 복음으로 기분 상할 것을 아셨을 때 조차도, 결코 진리를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우리 주께서 율법의 총만을 말씀하셨을 때 그의 대적들은, “그는 율법의 대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분이 택하심에 대하여 전했을 때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의 대가 없는 용서를 전하셨을 때 그들은, “그는 서기관과 죄인들의 친구이고, 음란함을 조장하는 자이다.”라고 말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덕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전파하셨을 때, 그의 대적들은, “그는 폭음과 술주정꾼이다.”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예를 따름으로,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확고한 안전과 보존하심을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가

르침으로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가르침을 비꼬고 왜곡하여 그들 자신의 혼의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장에서 제시된 그 가르침은 위로와 평강과 확신의 충만이 될 것이며 그들의 혼을 기뻐하게 할 것이다.

인내

질문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를 가르친다.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인내하여야 하고, 인내 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믿고 또 계속 믿는다. 참된 믿는 자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죽는다. 참된 믿음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마 10:20; 요 8:31; 고전 15:1; 골 1:23; 히 3:6, 14).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분명하다. 믿음 안에 계속 있는 자만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지막 인내의 가르침이다.

보존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인내를 가르치고 있다. 진실로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보존될 것인데, 우리가 전능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중 아무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보존을 분명하고, 완

전하고, 강력하게 성도들의 인내를 가르치는 것 만큼 가르치고 있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그 백성을 지키는 것이다. 인내는 믿는 자가 믿음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보존은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손길로 믿는 자를 붙잡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구원자, 안내자, 조연자, 그리고 친구;
그는 결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를 결코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목자로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양 떼는 그분의 손 안에 절대 안전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존되기 때문에 어떤 참된 믿는 자도 멸망하기란 불가능하다.

신성한 분별

여기 신성한 분별이 있다. —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7)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비난하게 하라, 성경의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구별 하신다. 그분은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다른 자들은 지나치신다. 그분은 어떤 사람은 구속하시며 다른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남겨두신다. 그분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신다. 은혜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분은 그분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

을 베푸신다(롬 9:16; 히 2:16).

이 장에서 구원 안에 있는 주님의 주권을 우리 주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믿기를 거절하였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그분의 양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라고 하셨다(26절). 믿음과 모든 다른 은혜의 은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보존되어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 속으로 가라앉게 하라.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인 당신과 나에 대하여, 이들은 “내 양”이다라고 하신다.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분별하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양 떼가 되게 하셨고 그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믿는 모든 자는 구별된 택하심에 의한 그리스도의 양이다. 우리는 그분 자신의 영원한 선택에 의해 그분의 양이 되었다.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양에게 낙인을 치셨고 그들 주변에 울타리를 치셨으며,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확고하게 하셨다(16절). 주 예수께서는, “나는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아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택하심의 전지하신 사랑의 특정한 지식이다. 이 은혜의 말씀이 복되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양을 아신다! 그분은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들인지, 그들이 행한 모든

것과 그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언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은혜로우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집으로 데려 오실지도 아신다.

우리는 또한 구별하여 사들인 그분의 양 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아버지께서 나를 알 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11, 15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들을 위하여, 그 양들 대신에, 우리의 대속물로써, 우리 자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려 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양떼를 대신하여 율법의 벌을 받으시며, 대리의 대속물로서 죽으셨다. 우리 위대한 구원자는 대리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구별된 부르심으로 그분의 것이 되게 되었다. —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신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온다.” (요 10:3, 4)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들에게만 하시는 특별하고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그것은 항상 효험이 있다. 그것은 항상 구원을 성취한다. 그것은 항상 양들을 목자에게 데려간다. 선한 목자는 그분 자신의 양들을 부르시며 다른 자들은 부르지 않는다(3절). 그분은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양들을 부르신다. 그분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효험 있게 이끌어 내신다. — 흑암에서 빛 안으로! — 속박에서

자유로! — 사망에서 생명 안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다룬다. “이들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따라가는 양들이다.” 당신은 목자의 목소리를 들리는가?

주님은 그분의 양과 관련하여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그분의 양은 낯선 자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류와 진리를 구별한다(5절; 요일 2:20, 27). 그분의 양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영에 의하여 모든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 오류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신성한 은사

여기에 신성한 은사가 있다. — “내가 그들에게 영원하 생명을 주노라.” 이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영원한 보증을 믿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제안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다. 영원한 생명은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대가 없는 은혜의 문제로 닦아 온다. 사람은 천연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 영원한 생명은 “영적 진화”의 어떤 신비한 과정에 의해 죄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돌출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에게 은혜롭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능력으로 마음 속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주다”라는 바로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이 빛이나 보상의 일로서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금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 할 이유가 우리 마음 속이나 행위 안에는 없다(렘 31:3; 롬 8:30; 엡 2:1-4).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은사를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것도 믿는 자의 마음이나 행위 안에는 없다(사 54:10; 시 89:30-36).

R. L. Dabney는 이렇게 썼다. “회개하는 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칭찬할 만하고 마음을 끝만한 것을 보시고 첫번째로 그분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은 설득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모든 선한 것이 실질적으로 없음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접어두시도록 할 새로운 동기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대가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가져가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특징과는 반대이다(롬 11:29). 이 영원한 생명의 은사는 대가 없이 주어진 은사이다. 그것은 지금 현재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의 정황들에 따른 방법에는 없다. 만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사이며, 사람의 선함에 의해 받거나 의존된 아무런 방법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고 결론지어야만 한다(전 3:14).

종교적 오류로 인하여 눈이 멀게 되지 않는 자녀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필연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믿는 자의 인생에서 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는 자의 인생의 질을 더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영원한 기간의 생명을 암시한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영원한”이란, 그분은 “영원한”것을 뜻하신다. 만일 생명이 그 끝에 도달한다면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어떤 행위로나, 어떤 배경 위에서든지 그것을 잃거나 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피조 된 자로서 죄를 지을 수도 죽을 수도 없다(요일 3:5-9).

믿는 자의 생명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하여야 한다.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아주 실질적이고 진실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멸망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할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그는,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요 14:19)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의 이 연합은 불변의 용해되지 않는 연합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호 2:19-20; 엡 5:30).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다(엡 1:23). 당신은 불구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소멸하라! 하지만, 만약 한 지체라도 잃

어버린다면 그의 몸은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생명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생명 안에서 보존되기 때문에 영원한 기간을 갖는 생명이다(엡 1:14; 4:30). 성령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고 보존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로 보내졌다. 그는 생명의 증여자이고 생명의 보존자이다. 하나님의 영은 새 언약의 인침이다(엡 1:13-14; 4:30). 인침은 소유권의 표시이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법적인 보증을 지켜주는 것이다. 인침은 영원히 새롭게 함을 제시한다. 인침은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성한 약속

여기에 신성한 약속이 있다. —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29절) 우리 주 예수는 전반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신다. 그것은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가능성을 감안하고 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모든 양들을 염려하시며,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내 양들이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줌으로,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고 말씀 하신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이고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 이들이고 그들의 열정들이 강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늙은 자들이고 그들의 시력이 희미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유혹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지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에게 큰 혼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하루에 이른 번이나 타락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은 모든 양 떼를 포함한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양 떼 가운데 단 하나도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 단 하나도! 이것은 혜택을 받은 소수를 위하여 예약된 특정한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선택 받은 양 떼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공휴일이다. 만약 당신이 믿는 자라면,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만약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당신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 그렇다, 당신이 죄를 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 버릴 수 없다. 노아의 타락이 하나님의 은

혜를 변경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덜 강하게 만들지 않았다. 롯의 사악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덜 의롭게 하지 않았다. 다윗의 범죄가 그를 멸망시키게 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한 것이 그의 주께서 그를 부인하시게 하지 않았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의 보장에 대한 이 가르침은 모든 계시된 진리와 함께 모든 방면에서 한결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어진다. 이 약속을 부인하면 그것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믿어질 수 없다. 여기 왜 그리스도의 양들이 결코 멸망치 않을 일곱 가지의 이유가 있다.

1.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총만 되어야 한다.** —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딤후 2:19; 요일 3:19).
2.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 수 없다**(요 6:37-40).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 될 수 없다. 택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뒤집어 질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보증계약은 무산될 수 없다.
3.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무효화 될 수 없다**(사 53:10-11). 하나님의 책은 실질적이고, 글자 그대로, 성취된, 대속에 의한 구속을 선포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들을 위하여, 그들의 자

리와 그들의 위치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빛을 지불하셨다. — 우리는 지불할 빛이 없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심판을 떠맡으셨다. — 우리가 떠맡아야 할 심판이 남은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범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 이제 우리가 떠맡아야 할 것이 남지 않았으며,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것도 없다. 공의는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긍휼을 아주 강력하게 변호한다(롬 5:10; 8:31-34). 만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여야 했다면, 그 때 그분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계획은 좌절되었을 것이다(엡 5:25-27; 갈 1:4-5; 딤후 2:14). 만약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여야 했다면, 그러면 그분은 결코 그분의 혼의 고통을 보지 않았을 것이며 만족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1.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의롭게 함은 은혜에 속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이다.

재판은 끝났다. 천국의 법정은 우리에게 대한 되돌릴 수 없는 판결을 공표하였다. —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믿는 혼에게 죄를 전가하시지 않을 것이다(롬 4:8).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만족으로 우리의 죄들을 영원히 없애 버리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다. 우리의 의롭게 함은 대가
가 없고, 총만하며, 영원한 것이다!

2.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결코 무산될 수 없다(빌 1:6).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것을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지속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완성시키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완성하시기에 충
분히 강하시다. 최소의 추측함도 없이, 각각의 참되게 믿는 자는
기쁘게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시작한 역사,
그분의 강건함의 팔은 완전히 마치실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예와 아멘이니,
아직 절대 없어지지 않았다.
장래의 것들은, 지금 있는 것들이 아니요,
아래에도 위에도 결코 없는 것들이니,
그분이 그분의 계획을 앞서가게 할 수 있으니,
그렇지 않으며 나의 혼을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갈라 놓으리라.
그분의 손바닥에서 나온 나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
그분의 마음에 찍힌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표시 안에 남으리.
그렇다, 나는 마지막까지 참을 것이며,
정직한 자가 주어짐 같이 확실하고,
더욱 기쁘나 이제는 확신 못하니,
영화롭게 된 영들이 천국에 있구나.”

3. **그리스도의 종보의 역사는 승리할 것이다**(요 17:9-11, 15, 20; 요 일 2:1-2). “우리의 이상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은,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시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4. **성령의 인침은 파기되지 않는다**(엡 1:13-14).

신성한 보장

여기 신성한 보장이 있다. —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28절)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손 안에 보존되어 있다. “모든 너의 성도들이 네 손 안에 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이 얼마나 축복된 거할 장소인가! 이곳은 우리의 보장의 장소이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못 박힌 손들이다. 이것은 전능한 능력의 손들이다. 이것은 우주적 통치의 고삐들을 잡고 있는 손들이다. 이것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 붙잡고 있는 손들이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손들

이다. —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29-30).

사람의 반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의 보장에 대한 이 축복된 가르침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강한 반응을 끌어낸다. 자기 의의 종교주의자는, “그것은 위험한 교리다. 그런 교리는 사람을 죄로 이끌 것이다.”라고 말한다. 종교의 주제넘은 교수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우리 죄를 짓자”고 말할 것이다. 참된 믿는 자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내게 나누어지지 않은 사랑과 찬양과 헌신 가운데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주도록 한다.”고 말할 것이다(롬 11:33-12:2를 보라). 은혜는 감사를 낳으며, 감사는 헌신을 낳는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질문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만 신뢰하며 자복한 죄인 각자를 위한 것이다. 만약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를 신뢰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당신은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53.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

에베소서 2:8-9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횡설수설과, 혼란과, 종교적 무의미로 이 세상은, — 하나님의 집이 파멸 더미에 놓인 것 같을 이 시대에, —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시대에, — 우리와 조상들이 여러 세대 동안 하나님의 진노에 불씨를 놓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모든 파멸을 통과하고, 요시야 시대의 대제사장인 힐기야처럼, 하나님의 책을 찾는다. 신실한 사람이 그것을 집어 들고, 먼지를 털고 읽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읽은 후, 거룩한 젊은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책의 말씀에 관해서 주님께 대하여 물어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나는 우리의 교회 신조와 교리문답과 신앙고백 모든 것을 내려 놓는 것이 우리에게 현명하고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신학 서적과 종교 논문과 종교 전통과 관습과 심지어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의 의견들조차 내려 놓아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르겠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단순히 듣게만 할 수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른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칼빈주의가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아르미니우스주의가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가톨릭주의가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당신이 다른 모든 자료로부터 구원에 관하여 생각하고 듣고 배운 것 모두를 내려 놓고,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 볼 수 있는가?

아주 처음부터 나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곳과, 구원이 실제로 보여진 모든 곳과, 구원이 설명된 모든 곳을 보기를 원하며, 구원은 바로 여기 에베소서 2:8-9에서 보여진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이 네 가지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운행의 특징이다. 구원이 발견되는 곳이라면, 구원이 체험되는 곳이라면 어디나 이 네 가지 것들이 분명하고 기쁘게 인지된다.

-
1. 구원은 은혜로만 이다.
 2.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다.
 3.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다.
 4. 은혜로 만으로, 믿음 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뿐인 이 구원은 전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편에서 어떤 종류의 행위가 없이 성취된다.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라.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우리가 행하는 것을 결정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좋든 나쁘든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구원은 하나님만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는 택함 받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안에서 행해졌으며, 그들의 조력이나 도움이 없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사를 통해서였으며, 성령의 은혜롭고 거절할 수 없는 운행하심을 통해서였다.

이 공과에서 우리는 성경의 일곱 가지 구절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구원을 설명하고 계신지를 볼 것이다. 여기 구원에 대한 일곱 가지 성경의 설명이 있다. 이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그 상황에 따라 해석하려는 것이 나의 현재 목적이 아니다. 나는 단지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말씀 내에서 구원에 관한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설명하였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한다. 구원은, 하나님

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불려진다.....

“당신의 구원”

가장 처음 “구원”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내에서 사용된 것은, 창세기 48:18에서 야곱이 그의 예언의 말 가운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대하여 그의 아들들에게 사용되었다. 그 연로한 족장은, “오 주여, 나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말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하나님만의 특별한 재산과 특권인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 그리고 “구원은 주님의 것이다.” (출 12:13, 대하 20:15, 17; 사 40:10-11; 41:13-14).

구원은 하나님만의 역사이며, 하나님만의 소유이며, 하나님만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주실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매우 유명한 이단자가 된 Tom Skinner는,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의 역사이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도록 허락하려면 사람의 자의에 달려있음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다(요 1:11-12; 롬 9:16).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이 두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 “당신의 구원.” “구원은 주의 것이다.” 그것은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며, 그분께로 돌아간다. —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 — 하나님은 구원을 사셨다. —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신다. — 하나님이 구원을 보존하신

다. — 하나님은 구원을 완전하게 하신다. —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영원한 구원”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히브리서 5: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저자이다. 비록 구원이 갈보리에서 임마누엘의 보혈로 사신 바 되었으며, 택함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서 거듭남 가운데 약속된 사랑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하였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창안되었고, 보증되었으며, 예정되었고, 계획되었으며, 창세전에 은혜의 언약 가운데 수행되고, 완료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다. 성경을 읽는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하여 칼빈주의나 아르미니우스주의나 세상의 모든 신조와 고백이 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문제가 되는 유일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책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선포한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 당한 하나님의 어린양이다(계 13:8).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구원에 택함 받았고, 양자 되었으며, 예정되었다(엡 1:4-6). 우리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서 구속 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며, 부름 받았고 영화롭게 되었다(롬 8:28-30). 우리는 아담 안에서 파괴되기 이전에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엡 1:6).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은혜의 모든 영적 축복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엡 1:3; 딤후 1:9-10). 시간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외적 역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통적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1:1-3).

분명, 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일반적이고 값싼 것처럼 생각하도록 생각할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 당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이 발견되는 곳마다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의미하고 있다. 구원 받은 자들 모두의 경험 가운데 그것은 동일하다. 각각의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같은 공통적 구원을 체험하였고 소유하고 있다. 모두 은혜만으로, 믿음 만을 통하여, 그리스

도 안에서만 구원 받았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다. 바울의 체험은 루디아의 체험과 같지 않았다. 모두 같은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같은 방식이 아니었다.¹³ 은혜의 체험은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필요들은 같다. 은혜는 같은 것이다. 결과도 같다. 그러나 은혜의 체험은 매우 다양하다. 여전히 구원 받은 모든 자는 “공통 구원”을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하나님으로 난 모든 자는 공통의 구원자와 공통의 권속과 공통의 소망과 공통의 축복과 그리고 공통의 유업을 갖고 있다.

“당신 자신의 구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빌 2:12). 이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명인가. 당신이 만약 구원 받았다면, 당신이 받은 구원은 “당신 자신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사셨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셨으며 당신 안에서 역

¹³ 이 사실은 마가복음에 언급된 눈먼자의 치료 가운데 아름답고 명쾌하게 그려지고 있다(막 8:22-25; 10:51-52). 모두 같은 축복을, 같은 은혜로, 같은 손길로부터 받았으나, 그것에 대한 그들의 체험은 달랐다.

사하셨다. 그것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구원”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모든 것이 영원히 당신 개인의 재산이며 소유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사로 인하여 당신에게 속해있다.

여기 책망이 하나 있다. —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당신이 구원을 받도록 행하라.”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외적으로 행하라.”를 뜻한다(빌 2:1-5; 마 5:16; 딤후 3:8, 14). 여기 확약이 하나 있다. —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저 자주: 갈망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라.” (빌2:13). 데살로니가 전서 5:23-24를 읽어보라.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구원은 “당신의 구원”이다.

“너무나 위대한 구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히브리서 2:3).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큰 죄인들을 위한 구원이다. 그것은 위대한 구원자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 그것은 하나

님의 큰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위대한 저수지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온다. 구원은 하늘에 있는 큰 유업을 우리에게 보장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도 위대하여 어떤 말로도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영원한 구원”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5:17). 구원은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영원하다. 그것은 영원에서 영원으로까지 이다. 만약 구원이 하나님의 행사라면, 그것은 영원한 행사이다(전 3:14).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들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죄나 혹은 위협으로 조차 이르지 않도록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렘 3:13). 하나님의 택하심은 영원한 택하심이다(말 3:6).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이다(롬 11:29).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원한 구속이다(히 9:12). 성령의 인치심은 영원한 인침이다(엡 1:14).

“우리 하나님께로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찬양 가운데 그분께 돌아 올 것이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반복하여 구원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위함

임을 듣는다. 또한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은 그분께 영원한 찬양을 가져다 드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 7:9-12에서 듣는 바이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으리이다. 아멘, 하더라.” 이 위대한 구원으로 우리는,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약속을 받는다.

54. “당신의 구원”

에베소서 1:12-14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

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
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하고, 영존하며, 보편적 구원은 특별히 우리의 것이다. 만약 당
신이 구원 받았다면, 만약 당신이 믿는 자라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
의 자녀라면, 당신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의 구원”이
다! 당신의 구원과 나의 구원에 대한 이 세 구절의 말씀 안에서 분명
하게 가르치고 있는 다섯 가지 것이 있다.

신성한 찬양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 주셨으며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로 인
하여 당신 안에서 역사한 그 구원은 신성한 찬양을 위하여 설계된 구
원이다. —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엡
1:12). 성경 안에서 계시된 그 구원은 항상 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
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징이 되는 구원이다. 만약 사람의 구원이 하
나님 만을 존귀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은 하나의 망상에 지나
지 않는다.

만유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궁극적인 계획은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이다. 그것이 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유이다(시 106:8). 이것은 예정하심과, 택정하심과, 양자삼으심과 구속과 부르심의 마침이다. —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므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이 계시되고 (고전 4:6), —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이 계시되고 나타내어지고 (엡 2:7), —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께만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고 (시 115:1), — 은혜의 모든 유익과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며 (엡 1:3-6), 복음으로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명함으로 만유 가운데 삼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고전 10:31), —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행하도록 (고전 6:19-20) 우리를 구원하셨다.

신성한 신뢰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은 신성한 신뢰 위에 기초한 구원이다. —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기 오래 전에 우리의 중보자와 언약의 보증으로서 신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요 6:37-39). 그분은 그분의 택하신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분은 그분의 택하신 양들을 그분의 하늘의 양우리 속으로 모두 안전하게 데려오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신성한 은사

하나님으로 난 모든 자는 신성한 은사로 구원을 얻으며 누린다. —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모든 신실한 구원의 믿음의 대상은 “그”이지 무엇이 아니다! — “그 안에서 너희가 믿었다.”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인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은 진리의 말씀, 좀더 정확하게 많은 이유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부른다.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 그것은 성령, 진리의 영, 곧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자에 의하여 계시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죄인들을 해방하는 진리의 이 말씀이다. 이것은 하늘로써 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나게 한 썩지 않을 그 씨이다. 이것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파되었고,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믿음을 보장받았던 그 말씀이다(벧전 1:23-25; 롬 10:17).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것이며,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이며, “당신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성령이 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 속에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하신 선포

로 그렇게 행하심을 우리는 듣고 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 안으로 복음의 빛을 가져오시고, 하나님, 곧 흑암으로부터 빛이 비추도록 명령하셨던 분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빛 비추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비춤을 우리에게 보장하셨을 때 주님을 알게 되었다(딤후 1:9-10; 고후 4:6).

신성한 인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신성한 인침으로 보장된 구원이다. —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본문을 이용하여 은혜의 비밀스런 둘째 역사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르치려 사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혼미케 되지 말라. 성령의 인침의 역사는 믿음을 체험한 후에 언급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가 믿은 후 증명되고 계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몇몇의 특별하고 매우 성스런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이 은혜에 속한 축복은 믿는 모든 자의 소유임을 여기서 천명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삼중의 인침을 받는다.

1. 아버지의 미리 아심의 인침 (딤후 2:19).
2. 아들의 사랑의 인침 (아 8:6; 4:12; 계 7:3).
3. 성령의 은혜의 역사의 인침 (엡 4:30).

신성한 맹세

여기에 묘사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택하심과 구속하심과 부르심의 대상들인 모든 자, 곧 하나님으로 난 모든 자에게 속한 그 구원은 신성한 맹세로 보장된 구원이다. —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의 인침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보증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부활까지 우리에게 기업을 보장하는, 사들인 소유의 구속이라고 여기서 부른 우리의 기업에 대한 계약금, 곧 글자 그대로 착수금 혹은 약조금이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속량으로 구속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의 시간에,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벌리신 팔의 구원하는 능력으로 구속 받았으며, 마지막 날에 죄의 모든 악한 결과들로부터 부활 영광 안으로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합하여지면서 구속 받을(옮겨질) 것이다. 이 위대한 구원과 함께 우리는 이 위대한 약속을 받는다. —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5:17).

55. 신성한 섭리;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케 함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없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은 죄와 비탄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특별히 계획되었다. 사실상, 주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도록 명령하신다(사 40:1-2). 그것이 복음의 복된 가르침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려 노력하며,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은혜로운 운행하심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려고 노력하려는 나의 목적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세 가지 본문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나는 분명 이 세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부분들보다 더 크게 중요하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의 마음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의 선호하는 것이 되도록 은혜롭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경의 몇몇 구절들이 있다. 여기 내가 좋아하는 세 가지 말씀이 있다. 그 말씀들은 세 가지의 가장 귀하고 기쁘며 혼을 격려하는 복음의 진리들로서, 시

험과 유혹과 혼란들로 계속 가득 채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나의 혼이 지속적으로 격려 받으며, 나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준다. 나의 세 가지 좋아하는 본문들은 시편 115:3, 고린도후서 5:21, 그리고 로마서 8:28이다. 이것들을 나와 함께 보자.

시편 115: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시 115:3). 여기에 시편 저자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 권위와 영광스러운 주권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때, 모든 곳에서, 절대적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주의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통치자이며, 그분은 항상 하늘과 땅과 지옥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천군 가운데와 땅의 거주자들 가운데 그분의 길이 있으시며, 아무도 그분의 손길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경배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주를 완전하게 통치하신다!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후 5:21). 저 말씀들로,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효험 있고, 대속의 희생과 속량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죄가 되시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그를 신뢰하는 각각의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으셨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으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얻으셨다. 그가 신성한 전가(우리의 죄들을 그분께 전가함!)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죄가 되기 위하여 예비되심으로, 또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 똑같이 신성한 전가함으로, 그가 대신하여 죽은 모든 자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바로 그 의가 되게 되었다(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여기서 영감을 받은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선하고, 사랑스러운 섭리를 선포하고 있다. 아무것도 믿는 자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섭리만큼 우리의 두려움을 효험 있게 잠잠케 할 것이 없다. 신성한 섭리에 대한 어떤 연구도 우리의 끔찍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신으로 인한 우리 마음을 책망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편으로 동시에 우리를 진실로 위대하고 은혜로우며 영광스러운 우리 하

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기도 한다. 특별한 기회로 수년 전에 들었던 Henry Mahan 목사가 전한 메시지 가운데 다섯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나는 마치 날카로운 화살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것을 이들에게서 발견하였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도 같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들은 가슴을 찌르며, 정죄하며, 겸손하게 하는 다섯 가지 사실들이다.

1.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진 백성들처럼 지나치게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사 41:10).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분께서 큰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지 않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분을 믿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의 마음에 평온함을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들로 그의 두려움이 잠잠하여졌다. 그렇지 않았는가? 그분께서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시 23:4)라고 말씀하실 때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믿음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나이

다.” (시 4:8).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시 27:10).

2.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자들처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하여 너무도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한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마 6:28-3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빌 4:19). 하나님 나의 구원자께서 내 아버지가 그분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하시고자 하실 때 왜 내가 걱정하고 조바심치고, 밤낮으로 집안을 서성대고 있는가? 거짓말을 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나 스스로 염려하여야 하는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

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니라.” (마 6:31-34).

3.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공훈과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너무도 많은 의심을 갖고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영광의 주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 10:28). 우리 중 많은 수가 여기서 혼란스러워 한다. 나도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의 부끄럽고, 죄로 가득하며, 불안한 의심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는 그것들을 정당화하려 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감히 어떤 배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훈과 사랑과 은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분과 관련한 어떤 의심도 품을 아무런 이유가 결코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지 못하시겠는가? 그

생각을 소멸하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 3:15, 36)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나는 생명이 있다. 그것은 주제넘은 말이 아니다. 실로, 다르게 말한다면 지극히 높은 오만한 건방짐일 것이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우리처럼 죄인이었으나, 우리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딤후 1:12; 4:6-8; 롬 8:31-39).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롬 8:31-39).

내가 생각했거나 말했거나 행한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는 것이다. 내 죄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 더욱 풍성하다. 나는 그분의 긍휼을 의심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긍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의 긍휼은 합당치 않은 자들을 위함이다. 나는 나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서있다(딤후 2:13, 19).

4.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자들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의 시험과 환란에 대하여 투덜대고 불평하는데 전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우리는 환란이 우리 여정에 올 때 놀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이 오지 않을 때 놀라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시험과 환란과 유혹과 슬픔을 겪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니
괴로움과 고통과 고생의 씨로다.

이들이 싹을 트고 잡초의 목을 조르니
다른 것을 땅에 뿌리리다.”

단련되고 값어치 있게 만든 때 한 냥의 금도 불로 제련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그분의 은혜의 금을 우리 안에 두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불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사 48:10)고 선포하신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벧전 4:12).

환란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환란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커다란 어려움이나, 어떤 무거운 시험이나, 어떤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을 만날 때, 그것을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첫 번째 부끄럽고 악한 생각은 언제나 “왜 나인가?”이다.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실로 그런 경향이 있다. — “왜 내가 아닌가?”

“내가 하늘로 옮겨질 것인가
편안한 화려한 침대 위에서,
다른 자들이 상을 받을 때까지 투쟁할 때
피의 바다를 향해하였는가?”

우리의 시험들은 다른 자들이 우리 앞에서 견뎌야만 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슬픔은 우리를 갖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견디었던 슬픔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비탄은 우리 안에 계시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5. “그 건축자와 만든 자가 하나님이신 성을 찾고 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과 지금 현재의 삶에 전적으로 너무도 많은 애착을 갖고 있다.”

“이 교회의 땅에 속한 우리의 집이 녹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집, 천국 가운데 영원한 집을 갖고 있다.” 우리는 “몸과 무관한 것이 주와 함께 있는 것임”을 안다. 우리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며, 그것이 훨씬 더 낫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백성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부르는 지금 현재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가기가 너무도 어렵다.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그렇다는 것을 알 뿐이다.

이 육체적 원칙들로부터 우리가 옮겨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완전히 옮겨지는 유일한 방법,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불평과 애착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더 나은 것을 찾는 것뿐이라는 것을 나 또한 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역사를 보고 붙잡게 된다

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은 뜨거운 감자와도 같이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순종하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행하신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한 행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일단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의 의는 마치 더러운 누더기처럼, 우리에게 그 실제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보기만 한다면 (사 6:1-6), 우리의 선함은 시들게 될 것이고 화덕 속의 잘린 풀처럼 죽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선에 대한 더 이상의 주장도 없을 것이며, 우리의 가치에 대한 논쟁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뜻에 대하여 법석을 떨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시험들과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우리의 불평들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의심들, 우리의 불평들, 우리의 불만들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 가운데 갖고 있는 믿음에 비례하여 사라질 것이다(사 43:1-5; 46:4).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네 위로 넘쳐흐르지 못하며 네가 불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네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하므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네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 내리라.”

우리가 그분의 “내가 할 것이라.”를 믿으면 믿을 수록, 우리는 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내가 할 것이라.”를 덜 믿으면 믿을 수록, 우리는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28에서 계시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며, 그 빛 가운데로 걷는 은혜를 주시고, 매일 그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여 우리의 두려움들을 효험 있게 잠잠케 하시도록 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56. 하나님의 섭리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움직이신다
그분의 행하심의 경이로움들이여.
바다 속에 그 발걸음을 떼시고,
폭풍 위를 가신다.”

신성한 섭리는 미리 예정하심 가운데 은혜로운 그분의 영원한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의 매일의 지속적이고 주권적인 통치이다. 미리 예정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는 계획으로, 그것으로 그분 자신의 뜻과 선하신 기쁨에 따라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하시고 명령하셨다. 신성한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의 성취이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계획하셨던 것들을 시

간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미리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섭리는 그분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실행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라. 이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요행이나, 우연히, 운 좋게, 혹은 사고로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영원 가운데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으며, 그분의 지혜롭고, 존경 할만하고, 선하신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주권적 예정하심 안에서 계획하시지 않은 것은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을 제외하고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은 그분이 택하신 자의 선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가르침이다(시 76:10; 잠 16:4, 9, 33; 21:1; 단 4:34, 35, 37; 사 46:9-11; 롬 11:33-36).

이 기쁘고, 혼의 격려가 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지고 예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서 8:28절보다 더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고 더 충분하게 설명된 곳은 없다.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

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영감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효험 있게 새기게 되고,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기쁜 신념

첫째, 성경은 기쁜 신념, 사도 바울이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추정하였던 (그는 그 추정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추정하였다) 신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한다.

이 문장에서 “알다”라는 말은 추측이나 이론이나 교리나 혹은 심지어 정당한 판단을 넘어서는 지식을 가리킨다. 그것은 사실과 경험에 바탕을 둔 확신과 확증된 신념의 지식이다. 바울은, “우리”(모든 믿는 자)가 “알거니와”라고 말한다.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이 지식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것은 몽상인가, 성취된 사실의 문제인가?

이것은 성취된 사실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시로 안다(시 84:11; 91:1-16; 잠 12:21; 호 2:18).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신 성령의 내적 지혜와 기름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평안 가운데 이것들을 알고 행한다(요일 2:20; 고전 2:16).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경할 만한 섭리의 지혜

와 선하심을 안다. 전도자 Rolfe Barnard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체험한 것만을 믿는다.” 그는 분명 옳았다. 당신은 납득하겠는가?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말 납득하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혼을 평강 가운데 지킬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실로, 이것은 당신의 혼을 평강 가운데 지킬 유일한 신념이다. — “바다처럼 비탄이 휘감겨 올라올 때.”

신성한 섭리

둘째, 성령은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이 그로써 명령되고, 통치되고, 배열된 신성한 섭리를 여기서 계시하고 있다. —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섭리는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통치이다. 이것은 가장 심오하게 중요한 주제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합당한 조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경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친 것이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삼상 6:9)이라 말했던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하지 말자.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믿는 혼들은 그들의 비탄과, 하나님의 심판과, 심지어 그들의 적을 저주함을 그들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지혜롭고 선한 섭리의 손길로 돌린다(욥 1:21; 삼상 3:18; 삼후 16:11-12).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시다. 그분은 항상 일하시는 그 한 분이

다. 그분은 결코 쉬거나, 회복해야 하거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없으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항상 일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신다. 무지하고 믿지 않는 반역자들은 흔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다면, 그러면 이런 저런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나는 설교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병과 가난과 전쟁과 죄와 범죄와 잔혹함과 기근과 지진과 사망 등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지 못하는 것들과 같이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말도 안 된다!

전능자께서 이것들의 종말을 쉽게 두실 수 없다는 말인가? 물론, 그분은 하실 수 있고,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에 의해 지시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감히 우리 자신을 전지하신 하나님께 지시자로 만들 자는 감히 누구인가? 그분은 “그분의 뜻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의 깊이를 알아차리거나, 모든 섭리의 역사들이 함께 맞물린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짐작하지 않겠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믿음은 그분께 허리를 굽힌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비밀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롬

11:33-36). 그분의 심판은 매우 깊은 것이다. 그분의 방법들은 과거에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분명하다! —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방법을 갖고 계신다. — 그분의 방법들은 우리의 방법들이 아니다. — 그분의 방법은 항상 옳고 최상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스러우리 만큼 세밀하다(마 10:30).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의 머리의 머리카락 수를 미리 정하셨다. 하찮은 참새라 할지라도 그분의 명령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만유를 포함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크든지 작든지 간에, 모든 곳에서 어느 때나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무생물을 조정하신다. 만유를 창조하신 그분은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의 길이 요르단 강에 생겼다. “주께서는 소용돌이와 폭풍우 가운데 그분의 길을 만드셨으며, 구름들은 그분의 발의 먼지들이다.” 그분의 종들이 타오르는 불가마에 던져졌을 때,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저녁 미풍처럼 불을 차갑고 편하게 만드셨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은 모든 비이성적인 피조물들을 완전히 통제 가운데 두신다. 그분의 분부로 개구리와 파리와 메뚜기들이 이집트를 덮었다. 그리고 그분의 분부로 그들은 떠났다. 그분은 그의 종 요나를 삼킬 고래를 준비하셨고 고래에게 그를 정확한 장소에 뱉어 내도록 지시하셨다. 그분의 명령으로 수탉이 그의 타락한 성도인 베

드로를 위하여 울었다. 기록된 바, “주께서 하늘에 그분의 보좌를 준비하셨다. 그분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한다!”

우리 하나님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이성적 피조물도 (절대적이고 완전히) 통제하신다. 그분은 도처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을 선하든 악하든 그들이 행하는 선한 것에서나 그들이 행하는 악한 것에서 통제하신다. 모든 천사와 악마들과 사탄 자신도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시 76:10; 사 14:24-27).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분의 명령에 반하여 숨쉬거나 움직이는 것은 없다(사 46:9-13).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경쟁자가 아니라 그분의 종속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과 선한 백성을 통제하심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나쁜 요소이다. 나는 누가 사악함과 마귀를 통제 하는지 알고 싶다. 그가 바로 내가 경배드릴 분이다. 많은 사람이 이것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분이 천국에 계신 분으로서 지옥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신 분이며, 사악함을 의로움 만큼이나 통제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잠 16:4, 33; 21:1; 행 2:23; 4:27-28).

죄에 대하여는 어떤가? 타락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하나님께

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죄를 지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의 통제자이며 감독자이다. 하나님은 원인제공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 가운데 감독자이다. 사람들은 반역적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밀어내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의 통제 아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 (C. D. Cole)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스럽고 세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선하도록 함께 역사한다.”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도 그 어떤 다른 사건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 “모든 것은 함께 역사한다.”

바울이 그것을 말할 때 무슨 의미였는가? 그는 비록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뜻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 모든 것은 그것들의 영적이고, 영원한 선함, 각각이든 집단적이든 모두가 함께 역사한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한 것은 종종 그 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매우 나쁜 것으로 보였다. 그러

나 아무것도 더 나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매우 끔찍한 것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선한 것을 행하시고 계셨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를 흘리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주 예수를 만지는 것이 매우 나쁜 것처럼 보였을 그것으로 나아왔다.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앓음으로, 그녀를 그분께 데려오게 한 슬픔과 그분 가운데 그녀가 발견한 은혜 모두를 위하여 그녀는 그분을 찬양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선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구로 만드셔야 한다거나, 나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내 자녀를 불구로 만들어서 내 눈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만드신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좋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걷는다면 좋지만, 그분은 그것을 그것을 예비하신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즐겨워 하신다. 내가 이 세상과 끊어지게 하는 것이 좋지만, 주께서 나를 끊어 놓기를 기뻐하신다. 그 대가와 관계 없이 내가 더 나은 목사와 설교자가 되는 것은 좋다. 다른 어떤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지속되는 것은 좋다. 내가 나의 경주 중에서 어떤 슬픔을 경험하더라도 기쁨으로 나의 경주를 마치는 것은 좋다. 비록 내가 매일 매일 자아를 향하여 죽어야 하지만, 믿음 가운데 죽는 것은 좋을 것이다.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떤 것

이 일어나도록 예비하셨더라도 영광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좋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합당한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선택하다! 느긋하게 시편 107편을 다시 읽어보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세밀한 조망을 받게 된다. “모든 것은 선하심을 위하여 함께 역사한다.” 지혜롭고, 숙달된 약제사가 약을 섞는 것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지혜롭게 우리에게 선하게 할 쓴 것과 단 것을 정확한 양으로 섞으신다.

너무나 많은 즐거움은 우리에게 독이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비판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것이다. 너무나 많은 슬픔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너무나 많은 고난은 우리의 영들을 파괴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쾌락은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패배는 우리를 낙심하게 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성공은 우리를 거드름 피우게 만들 것이다. 너무나 많은 실패는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비판은 우리를 경직시킬 것이다. 너무나 많은 칭찬은 우리를 높일 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신다.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선을 위하여 지혜롭게 설계하시고 주권적으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보내고 행하시게 하라. 그분의 은혜로, 만일 우리가 그

분의 소유라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에 절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로 인하여 감사를 드릴 것이다.

“그분의 모든 주권적 뜻을 환영하네,
그분의 모든 뜻이 사랑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모를 때,
위로부터 빛을 기다릴 것일세.”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가능한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집행된다. 우리는 흔히 우리 생활과 다른 사람의 생활 혹은 세상의 역사가운데 특정한 사건들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볼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 부족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지 못한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의 역사들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한 그분의 뜻에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말한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어!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역사들은 완전한 거룩과 의 가운데 집행된다. 심지어 그분께서는 사람과 마귀의 악한 행위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분 편에서는 완전히 죄가 없다. 비록 그분께서 사악한 행위들을 미리 예정하셨고 허용하시지만, 죄는 전능자에게 부과될 수 없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의도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고,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1)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

으며” (고후 5:18). (2.)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시 145:17).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끊임 없는 찬양을 요구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의 영광을 드려야 한다. 경외와 감사로 바라보아야 하며, 그것(그분의 섭리)의 여러 발걸음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여야 한다. 일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그분 가운데 우리의 신뢰를 두어야 한다. 언제나 우리의 관심을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분께 두어야 한다. 그것이 의로운 자와 함께 잘 어울리며, 시간 가운데 그리고 모든 영원한 것에 있고 항상 있을 것이다.” — (John Gill)

미리 예정된 백성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약 우리가 거기서 멈추고 장래를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문제의 간단한 사실은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귀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 대항하는 많은 것이 있다.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은 실로 전체 문장을 볼 때만 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세부적인 것들에 있어서, 그분의 택하

신 자들을 위하여 계획되고 성취되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신성한 섭리는 지명된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있으며,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함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어나는 것들이다. 이 백성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는가? 실로 그럴 수 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입은 옷이나, 교회나, 그들의 고백이나, 그들의 대화 혹은 심지어 그들의 행동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구별될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별된다(빌 3:3).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랑으로 구별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다. 많은 면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매우 유사하며, 특히 믿지 않는 자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다. 그러나 여기 뚜렷한 특징이 있다. 참된 믿는 자들은,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롬 8:7). 우리는 그분의 계시된 품성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전 16:22).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우리는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모든 관계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의 분깃으로, 그리고 우리의 유업으로 사랑한다. 질문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에 기인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고백한다(요일 4:19).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매우 사랑한다. 베드로와 함께, 우리는,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아십니다.”라고 선포한다.

믿는 자들은 그들의 부름으로 또한 구별된다. — “부르심을 받은 그들.” 자유의지 주의자인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그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서 8장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호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에 속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교리를 영원히 선포하고 있다. 믿는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만약 그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이 본문은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어떤 백성들과 부르심을 받지 않은 다른 자들이 있음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 부르심의 결과이다(엡 2:1-4).

선포된 계획

넷째,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것에 따른 선포된 계획이 있다.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계획이 무엇인

지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29-31절에 분명하게 천명되어 있다. —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이 은혜는, 우리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위대한 섭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우리를 부르심의 증거는 하나님 자신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다. 우리의 택정하심과 구속하심의 증거는 우리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택정하심과 구속하심과 부르심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주권적이고 영원한 계획이다(딤후 1:9-10).

하나님이신 그분은 실로 섭리의 하나님이시며, 만유를 통치하시며, 만유를 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여야 하는지!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하늘에 속한 아버지

는 모든 지혜롭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너무도 지혜로우셔서 실수가 없으시며, 너무도 선하시셔서 그릇되게 행하지 않으시며, 너무도 강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57.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라”

로마서 10:4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 선포는 정확히 모든 종교적 세상이 말하는 우리는 그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은 전적으로 옳다. 그것을 취하여 단지 가능한 한 멀리 그것을 가져가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아니시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분은 율법의 총만이시고, 율법의 결론이시며, 율법의 종결이시며, 율법의 목적이시고, 율법이 주어졌던 이유이시며, 그리고 율법의 끝마침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갖게 되는 정당화시키는 의나 의를 만족하게 하는 어떤 종류의 의도 없다. 기록되기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라

고 하였다(갈 2:21).

그리스도는 모든 자를 위한 율법의 마침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자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지 않았다. 그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를 위한 율법의 마침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함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그는 우리에게 율법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악하지 않다(딤후 1:8-9).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악이다. 그러나 율법은 악하지 않다. 신성한 영감으로 기록하면서, 사도는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려 하며, 믿는 자들을 노예의 멍에 아래 두려하고, 율법 교사가 되려는 욕망을 품은 배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고 말해주고 있다(딤후 1:7). 율법은 어떤 의미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결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율법은 의롭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주어졌다. 율법은 악하지 않다. 그것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외적인 행실과 내적 원칙 모두에 있어서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며, 다른 사

람들의 권리와 재산과 생명에 대한 모든 존경심을 무시하는 자들로 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 정부에 의하여 사용된다.

율법 안의 기쁨

성경이 신약이 지속적으로 말씀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시며 믿는 자들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단언할 때, 하나님의 영은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자유로이 범하거나 무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들이 율법을 함부로 범해서도 안되며, 그렇게 하는 것을 성령은 갈망하지 않았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요일 5:1-3).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내적인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진실로 기뻐한다(롬 7:22).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성경 교리

나는 가톨릭 주의자들이 쓴 것은 물론, 대부분의 모든 개신교나 침례교파의 교리와 고백과 종교적 신조가 믿는 자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는 생각이 있음을 엄중하게 단언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 사실 만으로도 그것이 성경에 반한다는 것을 우

리에게 확신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선포하고 있으며, 믿는 자의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이것과 관련한 오류와 함께 절대로 허용될 수 없음을 수시로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믿는 자는 전적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데,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롬 6:14-15).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혔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롬 7:4). 믿는 자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롬 8:1-4; 갈2:19-20; 3:1-3, 13, 18-19, 21-26; 4:9-11, 21, 30; 5:1-5; 골 2:8-23).

“신약 성경 가운데 율법이 믿는 자에게 동기를 주고, 영감을 주며, 규제하고, 심지어 인도하는 단 하나의 성경 말씀이라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믿는 자들은 사랑으로 동기를 받으며, 감사로 영감을 받고, 은혜로 규제 받으며, 성령으로 인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그분의 뜻의 완전한 계시이고 우리의 율법이다. 우리의 생활은 사랑으로 통치 되나 두려움으로 통치 받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걸어나 법에 따라 걷지 않는다. 우리는 영 안에서 걸어나 육신 가운데 걸어나지 않는다(롬 8:9-14; 갈3:3).” — (Scott Richardson)

우리의 율법, 우리 생활의 법은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¹⁴ 성경 안에서 전체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믿음과 실행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법으로서 그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통치 받고, 동기를 부여 받으며, 지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우리는 법적 원칙 위에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한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네, 오, 행복한 상태!
그리스도가 모든 범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네.”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 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다. 우리는 율법과 관련한 언약이 없다. 우리는 은혜의 언약 아래 살고 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한 책무가 없다. 우리의 책무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셨던 그리

¹⁴ “율법”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고, 특히 시편에서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계시 전체와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을 가리킨다. 때로는 “율법”이라는 말이 의식과 식물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며, 때로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어진 민법을 가리킨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십계명을 특별히 지칭하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십계명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서 “도덕법”으로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의 손으로 준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 사이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리스도 안의 믿는 자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선포할 때, 그 선포는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통치 받던 모세 율법 (민간, 식물, 경제, 그리고 도덕에 관한) 모두로부터 자유함을 말한다.

스도께 있다. 우리는 율법의 통제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고후 5:14).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갈 3:13)라 하였다.

무고

율법으로부터 믿는 자의 자유함에 대한 교리가 성경 안에서 분명하고 일반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으므로 어떤 근거에서도 부인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굽히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대항하도록 하는 하나의 다른 과정의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것이다. 중상 모략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교리를 성경의 가르침과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비도덕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도덕률 폐기론자라며 비난한다. 그들은 우리를 방탕을 조장한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우리를 검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영적인 문둥병의 일종이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접촉하는 것을 피하도록 경고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는 노예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시내 산을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한 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의와 우리의 모든 구속함을 보며 십자가에 못 박

힌 우리 구주의 상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신뢰하기만 할 것이다.

경고 받음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가 경고받도록 하자.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갈 5:4).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순종과 자기 자신의 헌신과 자기 자신의 느낌들과 그 자신의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어떤 정도나 어떤 것을 위하여 받아들이는 기초로서 신뢰하는 자를 내게 보이면,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된 자,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치가 없는 자를 보여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이상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데, 사망의 침이 죄이고, 죄의 능력이 율법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실행을 요구한다. 준엄한 말로, 저주 받은 자들 가운데 우리에게 한 장소를 지정한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갈 3:10).

여전히 사람은 율법에 이상하게 열중한다. 하루살이가 자신을 태워버릴 촛불로 이끌리는 것과 같이, 모든 율법이 줄 것은 파멸뿐인데 사람은 의를 위하여 율법에 본능적으로 이끌린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인에게 정죄를 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롬 3:19-20)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매달릴 것이 없음에도 사망의 손잡이로 율법에 매달리게 될 그들 자신의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을 붙잡는다. 그들은 시내 산이 그들에게 사망 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음에도 갈보리보다 시내 산을 더 선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만약 사람의 의견이나 당신 자신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된다면,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롬 3:4).

- 율법은 결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다. 율법은 그 목적을 수행 할 수 없다(갈 2:16).
-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함과 예배로 이끌리도록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율법은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자원하는 마음이다(고후 8:12; 고전 6:19-20; 롬 12:1-2).
- 율법은 결코 믿는 자를 위한 생명의 법으로나 행위의 표준으로

로서 제시되지 않았다. 율법은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다(롬 3:28, 31; 요일 3:23).

- 율법은 결코 믿는 자들 가운데 만족을 낳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만족의 척도가 되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으며, 그런 목적을 수행 할 수 없다(갈 3:1-3).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시다!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향하도록 주어졌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가 죄가 있음과, 그의 죄와 대속물이 필요함을 보여 주기 위하여 주어졌다. 이것이 율법의 유일한 목적이며, 그 목적을 아주 잘 수행한다(롬 3:19-22). 시내 산에서의 천둥들은 우리를 몰아내고 갈보리와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그 번개로 가리킨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마침이라고 단호히 말할 때, 그분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계획의 끝마침이라고** 이해하기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계획이며 목적이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교사였다(갈 3:24-25).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보안관보이며, 정죄 아래 그들 모두를 결론지으며,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지

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은 비울 것이나, 은혜가 채울 것이다. 율법은 상처를 주지만, 은혜가 치료할 것이다. 율법은 그들에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이 불가능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주었다. Spurgeon은, “율법은 그의 양떼를 목자에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검정 개이다.” 라고 말했다.

율법이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는가? 어떻게 율법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롬 7:7-9). 율법은 죄의 결과임에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것은 공의가 만족되고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 놓았고 영원히 분리시킬 것이라고 선포한다. 율법은, “범죄한 혼은 죽을 것이다.” (겔 18:20)라고 선포한다. 누구든 하나님으로부터 공활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의 귀한 아들이 흘린 희생의 피를 갖고 그분께 다가가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심각한 무력을 드러낸다(시 24:3-4).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정말 모른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갈 4:21).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한다. 율법은 만족을 요구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을 본적이 있다면, 우리는 중보자

를 구할 것이다(출 20:1-19).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를 크게 필요로 함을 보여 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만족 시킬 수 있고 기꺼이 만족시키실 한 분을 하나님 자신이 보내실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대속물,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며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한다(롬 3:24-26).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안다면, 내 혼이 울부짖을 것이다. “내게 그리스도를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벌거벗은 율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벗긴다. 그리스도가 덮으신다. 율법은 정죄한다. 그리스도는 용서하신다. 율법은 죽인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신다.

율법의 계획과 목적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그 한 분이다. **그리스도는 또 율법의 총만이다**(사 42:21). 우리 주께서는,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고 하셨다(마 5:17). 율법은 한 점의 흠이나 얼룩, 실패나 흠이 없이 완전한 복종을 요구한다. 율법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완전함을 요구한다. 율법의 조항들은 낮춰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조차도 안 된다.

율법은 완전한 만족을 요구한다. 율법은 각각의 범죄자의 죽음

외에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그분의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완전한 의이다. 그분의 속죄의 죽음은 우리의 거룩한 공의의 만족이다(롬 5:1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롬 8:1).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믿음으로 율법을 충만케 한다(롬 3:3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율법을 충만케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충만케 하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결이다. 그렇다,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읽어라. 그리스도는 그분이 율법의 종결 이시라는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이시다. 사망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종결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혼인하였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고 말하고 있다(롬 7:1-4). 그리스도는 생명의 언약으로서 율법을 종결시키셨다. —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와 징벌을 종결시키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영원한 영광의 모든 축복 위에 있는 공로의 공의롭고 의로운 구상권을 갖고 있다(시 32:1-2; 골 1:12).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속물의 역사로 인한 구원의 달콤한 비밀을

보는가?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자들에게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주는 우리의 구속자 위에 그 자체가 소멸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의롭게 되었으며, 죄가 없고, 결백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이 완전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죄인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든지, 어떤 공로로 인한 의를 얻을 수 없다(갈 2:21).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마 5:20; 히 12:14).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없고, 의를 산출하기 위한 능력도 없다(사 64:6).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의를 성취하셨다(빌 3:8-10). 그의 이름은 “주 우리의 의이시다!” 율법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치명적인 중요성의 한 가지 문제는 오직 이것이다. —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율법의 끝마침이시다. 만약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으려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여야 한다. 당신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만 신뢰하여야 한다. 당신 죄는 그분의 피의 속죄로 인하지 않고는 없어질 수 없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무한한 저주 아래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결코 법적인 원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시도하지 말자 (골 2:16-23). 우리는 결코 누구라도 우리를 다시 노예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단 일순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갈 5:1-4).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결코 신뢰하여서는 안 된다(갈 5:2). 자기의는 여과기들처럼 인간의 육신에 고착되어 있다. 털어 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모든 소망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께 매달려라. 그분은 “주 우리의 의”이다.

“본건의 청구를 기각한다!”

Sam Houston은 Santa Anna와 그의 멕시코 군대에 San Jacinto 전투에서 패배를 가져왔던 전투를 이끌고 있었다. Texas가 공화국이 되고 난 후, 그 대통령으로서 Sam Houston과 함께, 법은 San Jacinto에서 Sam Houston의 편으로 싸웠던 군인이라면 누구든지 무상 토지를 제공하였다.

한 경우는, Knobby Horsham이란 이름의 사람이 어떤 땅을 다른 농부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았다. Horsham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그 농부가 법정에 나타났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 Sam Houston 자신이 피고소인을 변호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랐다. Knobby Horsham은 나쁜 평판의 사람이라고 여겨졌다. 자리하고 있었던 아홉 명의 배심원들은 그와 같은 악당들에 의해서 모두 사기를 당한 농부들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Phinizy 판사는 Sam Houston에게 그가 어떤 증인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오직 한 사람입니다, 판사님”이라고 Houston은 대답했다.

전투에서 당한 심한 부상으로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며 증언석에 절뚝거리고 올라가면서 Houston은 피고인 옆을 지나며, 피고인이 알고 있는 범법자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내려다 보는 것처럼 그를 내려다 보았다. 법정이 정적이 감돌자 Houston 대통령은 오직 두 문장의 말을 내뱉었다. “Knobby, 당신은 당신에게 심각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1836년 4월 21일 오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Knobby Horsham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올려다보면서 속삭였다. “당신과 함께 San Jacinto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변론을 마

칩니다.”라고 Houston은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본건의 청구를 기각한다,” Phinizy 판사는 외쳤다.

오 믿는 죄인아, 우리가 천연적으로 비록 죄가 있지만,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 위에 임할 때, 당신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 갈보리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 본건의 청구를 기각한다!

58.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가?

로마서 10:4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단지 엄밀하고 엄격한 요구들의 어떤 점을 아는 것, — 그 율법이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겔 18:4)라고 요구하는 것을 아는 것, — 율법이 “내가 받도록 할지니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레 22:21)고 요구하는 것을 아는 것, — 율법의 매우 끔찍함을 아는 것, — 내가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선포,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

10:4)를 읽을 때, 나는 즉각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다, — 어떻게 누구에게? 알고 싶지 않은가?

어떻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신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시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하여 네 가지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이 있다.

1. 바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계획의 마침 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뜻한다.

그 분은 율법의 계획과 목적이시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교사였다. 일단 그것이 계획하였던 것을 수행하였으며, 더는 다른 역할이 없다(갈 3:24-25). 율법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가두는 보안관보이며, 그들 모두를 유죄판결로 결론지음으로, 구출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를 구하게 된다. 이것이 율법의 계획이다. 그것은 비워버리고, 은혜가 총만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상처를 내고, 은혜가 치료할 것이다. 율법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이 불가능함을 죄인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Spurgeon이 한 번은, “율법은 하나님의 양 떼를 목자로 이끄는 하나님의 검정 개이다.”고 한 것과 같다.

어떻게 율법이 그 일을 하는가? 어떻게 율법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롬 7:7-9)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과 사망이다. —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겔 18:20).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의 희생,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의 피의 희생을 갖고 그분께 나오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절대적 무력함을 드러낸다(시 24:3-4).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갈 4:21). 율법은 완전함과 만족함을 모두 요구한다. 만약 죄인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기만 한다면, 그는 중보자를 구할 것이다(출 20:1-19).

율법은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고 기꺼이 만족시키실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 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한 분 대속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한 분,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한 분이 있어야 한다(롬 3:24-26). 내게 그리스도를 달라. 나는 하

나님의 벌거숭이 율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를 원한다! 율법은 벌거벗긴다.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신다. 율법은 정죄한다. 그리스도는 용서하신다. 율법은 죽인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계획과 목적이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그 한 분이다,.....

2. 그는 또한 율법의 총만이다(사 42:21).

하나님은 율법을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셨다. 우리 주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고 하셨다(마 5:17).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며, 흠이나 얼룩이 없이, 실패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율법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완전함을 요구한다. 율법의 조항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차도 낮춰질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완전한 만족을 요구한다. 율법은 모든 범법자의 죽음 외에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대표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대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 것이다(롬 5:1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롬 8:1; 갈 3:3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

법을 충만케 한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율법을 충만케 한다(롬 3:31).

3.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결자이다.

그렇다, 당신은 그것을 바로 읽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율법의 종결자라는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자이다. 사망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종결된 것에 대함이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께 혼인하였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롬 7:1-4).

그리스도는 생명의 언약으로서 율법을 종결지으셨다. —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종결지으셨다(롬 8:1-4; 갈 3:13).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영원한 영광의 모든 축복 위에서의 공로에 속한 공의롭고 의로운 요구를 갖고 있다(시 32:1-2).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늘에 속한 기업을 받을 가치가 있다(골 1:12).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로 인한 구원의 달콤한 비밀을 보는가?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자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다. 저주는 우리 구속자로 인하여 그 자체가 소진되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공의롭게 되었으며, 죄가 없고, 결백하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예언과 본과 의식에 속한 것의 충만이

며 종결이시다. 그분은 모든 의미에서 율법의 “끝마침”을 이룩하셨다.

4. “그리스도는 의를 위한 율법의 끝마침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자. —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든, 어떤 정도이든, 어떤 공로로 인한 의를 얻을 수 없다(갈 2:21). 하나님은 완전한 의와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마 5:20; 히 12:14).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없고, 의를 산출할 능력도 없다(사 64:6).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심으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의를 성취하셨다(고전 1:30-31). 그분은 주 우리의 의이시다. 우리는 공의나 성화를 위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의로, 성화로, 구속으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의가 없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신가?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당신은 그 본문의 강조를 보았는가? —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다. —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율법의 마침이시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여야 한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만 신뢰하여야 한다. 우리의 죄는 그분의 피의 속죄로 인함이 아니고는 없어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 위대하고 모든 영광과 은혜로운 구원자께서 지치고 무력한 죄인들이 그들의 혼을 쉴 곳, 거룩한 주 하나님께 완전하고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하는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의의 안식에 들어가고 발견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법적 원칙 위에서 섬기려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골 2:16-23). 하나님께서는 법적 복종을 수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노예 상태로 단 한 순간이라도 되돌아가게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의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구든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그의 위치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공로를 받기 위하여 어떤 것이든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모두 놓쳤고, 복음을 완전히 잃었으며, “율법의 끝마침”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갈 5:2, 4). 자

기 의는 광물질처럼 인간 육신에 고착되어 있다. 그것을 털어버려라.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모든 소망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만 매달려라. 그분은 “주 우리 의”이시다.

59.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갈라디아서 3:19-29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가짜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그들이 율법으로 살기를 구해야 하고, 믿는 자의 의롭게 함과 거룩하게 함은 은혜만으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을 확신시켰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이라면 또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혼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고 독단적으로 주장하였다.

로마서 11:6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의 의롭게 함이나 거룩하게 함이나 혹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당신의 행위를 더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부인

하는 것이고, 잃어버리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무지한 것이며,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된다.

갈라디아서 2:21에서는, 율법과 은혜를 섞은 것을 인식함을 산산이 부서뜨린 후, 그는 이 강하고 독단적인 주장을 한다. —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의롭게 하는 의와 거룩하게 하는 의)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그의 경우를 천명하기 위한 더 강력한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고 그리스도가 헛되게 죽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적인 율법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라고 선포한다.

갈라디아서 3:19-29에서 바울은 성령에 의하여 영감을 받아서 그의 가르침을 비난할지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의 트집잡는 말을 예상하였다. 그는 그들이 따라와서 이렇게 말할 것을 알았다. “만약 율법이 믿는 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율법이 우리의 의롭게 함과 우리의 거룩하게 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율법이 생활의 법으로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왜 그것이 주어졌는가? 그것의 용도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 열한 절에서 바울이 대답을 준 질문이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 열한 절의 영감은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 갈라디아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율법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다.” —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과 경배와 민간 통치와 일상생활의 법적 계율로 구약에서 주어짐)은 의의 수단이나, 은혜의 방법, 혹은 구원의 방법이 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것은 도덕 윤리의 법전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믿는 자의 생활법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거룩하게 됨의 척도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확신의 입장이 되도록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천국에서의 보상을 위한 기초로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계획은 사람의 죄를 규정하고 드러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만 향하기 위함이다(롬 3:19; 5:20). 어떤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 그는 그의 죄와 유죄를 확신해야 한다.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움을 받기 전에, 그는 율법에 의해서 죽임 당해야 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깊은 자르는 쟁기이며,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의 개간하지 않은 땅을 일구며, 복음을 위한 땅을 준비한다. 이 쟁기질은 어렵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율법은 “**약속하신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정해졌다. — 여기서 언급한 씨는 그리스도이다. 언급된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들 하나님께 이루어진 약속이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성령에 의한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된 은사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의 조건과,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 대신 그분에 의하여 성취된 의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약속이었다(갈 3:13-14).

나는 이것에 대하여 추측하지 않겠다. 상황이 그것을 선포한다. 모세 율법은 시내 산에서 주어졌으며, 중보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며, 그는 단지 사람이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께 주어졌으며, 이 둘은 한 분 하나님이다! 그것은 바울의 다음의 말의 의미이다.

20절 “이제 중재자라 함은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 언약을 맺으셨다(딤후 1:1-3).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사셨으며 효험 있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참된 영적 씨를 위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이 약속을 받았다(갈 3:13-14; 히 9:12; 2:16).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이 얼마나 분명한 선포인가! 그것은 완전히 반박할 수 없는 것이다. 모세에 의하여 주어진 율법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위배 될 수 없다. 그것은 불합리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한 아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하셨을 것을 상상하기란 엄청나게 불합리하다! 만일 의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얻어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갈보리에서 그분의 아들을 결코 희생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심”을 선언하는 것이다(갈 2:21).

22-23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께 가두기 위하여 주어졌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며, 죄 아래 있는 모든 자를 결론지으신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선택적으로, 죄 아래 행함으로 그 지배와 파멸과 징

별과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롬 3:19-23).

성경은 특별히 이런 이유로 인하여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한다. —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바울이 그 장을 통하여 논하고 있었던 동일한 언약,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 행들을 주의 깊게 읽고 복음을 이해하도록 하라.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실 하심과 신실한 순종으로 인하여 그 기초 위에 택함 받은 죄인들에게 온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의 가운데 오신 분은 그리스도 뿐이었다. 그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 뿐이었다.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 뿐이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들을 성취함 가운데 어떤 부분도 없다!

믿음은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은 받기만 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셨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았다! “구원은 주의 것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즉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전이

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혔다.”** 에베소서 2장에서 들은 바처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며, 다른 모든 자와 같았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영원 전부터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갈보리에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정죄 아래 살았다. 우리의 첫 번째 유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째 생각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채운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였고, 우리를 공의롭게 정죄하였다. 율법이 왔을 때, 죄가 살아났으며, 나는 죽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것이다(롬 7:9). 그리고 그것이 모든 믿는 자가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있는 율법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 달혀졌다. 23절에서 그것을 보라. —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과 기능과 용도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일단 그 목적으로 사용되면 그것은 다른 더 이상의 기능이 없다. 그것은 바로 25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일치한다.

25절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당신이 그것이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뜻이다. 그것은 영적으로 Martin Luther King 이 Civil Rights Bill (시민 권리 법)의 문구를 사용하여 선포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마침내 해방되었다! 마침내 해방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결국 해방되었습니다!” 구원이 죄인들에게 왔음은 (내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원을 말하며, “구원”이라는 말 안에 내포된 모든 것의 총체 안에서를 의미한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죄인들에게 왔다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것인가, 그것이 아닌가? 다음 구절을 읽어보라.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고백한 믿는 자들의 회중에게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썼다. 그는 그들을 그 말로 인도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고백이 순수하였다는 것을 동정스럽게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다.”고 한다.

사도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우리가 입양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고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단지 돌아가는 다른 길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입양된 결과이다. 우리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신성한 예정하심 안으로 입양되었다(엡 1:5). 그것은 우리의 양자 됨이며, 성령을 우리에게 호험 있고 거듭나는 은혜 안에서 보내심이다. 택하심 가운데 우리의 양자됨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부르심에 기인하였다(갈 4:3-7; 요일 3:1).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교회 안에 침례를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거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잠기는 복음 규정에 순종하였거나 그렇지 않은 얼마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그의 말은, 물 속에 잠겼으나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그들 (어떤 집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가운데 몇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음을 단순히 함축하였다. John Gill은 그 본문을 올바르게 해설하였다. “진실되고 올바르게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것에 합당하게 순종한 자들이며, 합당한 방법으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것이다.”

바울은 침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일체가 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리스도께 순종의 행위이며,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그리스도

의 권위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소망 안으로 침례 받았다.

그리스도 안으로 진실로 침례 받은 모든 자는 우리가 침례 받기 전과 침례 받을 때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침례 받기 전에 우리는 주 우리 의로서 그로 옷 입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의의 예복으로 옷 입었다. 우리가 침례 받았을 때, 우리는 대중 고백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을 우리의 주와 왕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이 그분의 영원히 자원하는 종들임을 선포하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걸기로 작정하였다.

28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그분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장벽은 소멸된다. 이 세상 가운데 인종과 성별과 사회적 신분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유일한 곳은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교회 안이다(골 3:10-11). 은혜만이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진실로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진실된 하나이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 그 외에 아무것도 정말 문제가 아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하고, 아버지의 걱정하심과 아들의 구속과 성령의 부르심과 그분에 대한 당신 자신의 믿음으로 인함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좋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다.**” —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분의 은혜의 수혜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다! 거짓을 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의 아들에게 하신 영원한 생명의 그 언약에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다.

60.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목적

로마서 3:19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대가 없고 은혜로운 영광의 합당한 위치를 아는 자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과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탁할 수 있는 자는 복음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문제로서 어떤 정도이든지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는 자는 아직 복음을 올바로 배우지 않았다.

세상 가운데 어떤 두 가지도 율법과 은혜보다 더 서로 완전하게 상반되는 것은 없다. 이들은 빛과 어둠처럼 서로 반대이다. 그것들은 불과 물 사이보다 더 어울리지 않는다. 기름과 물처럼, 율법과 은혜는 간단히 섞이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분명하다(롬 11:5-6)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여전히, 율법과 은혜를 뒤섞을 인간의 왜곡된 생각들 가운데 놀라울 정도로 잘 구축된 의견이 있다! 율법과 은혜가 서로 정반대로 상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의 생각은 영적인 이해가 너무도 텅 비어 있으며, 너무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기에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율법과 은혜를

분별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들을 섞어 버리기를 고집한다. 그 어리석은 무지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합법적인 입장을 찾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들을 통하여 대항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율법주의의 모든 잔재를 파쇄하려 모든 노력을 펼치고 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자유로우며,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그 사실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믿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절대로 의미가 없다.

율법이라는 말이 로마서와 요한일서 사이에서 160 번 사용되고 있다. 그 160 번 가운데 단 한번도, 단 한번이라도 믿는 자가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정도로, 어떤 이유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고, 지배되며, 율법의 통치 아래에 있다던가, 혹은 율법에 매여 있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것들 중, 모든 이단들이 가장 고집하는 것들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을 몇 가지 보도록 하자.

로마서 6:14-15 —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7:4 —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3-4 —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4 —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3:24-25 —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디모데전서 1:8-10 —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바울은 율법에 반대 하였는가? 그는 율법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분명 아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는 그 자신과 각각의 진실한 믿는 자들이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향한 태도를 보여 준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롬 7:12, 14, 22).

참된 믿는 자는 율법의 목적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높이 경외한다. 율법 안에서 계시된 모든 것에 완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의 갈망이다. 그리고, 율법의 완전함을 인식함으로, 그는 율법적 순종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구하기를 거절한다. 율법으로 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율법에 대한 경외이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의 완전한 거룩과 엄격함이며, 왜곡되지 않은 요구이다. 이것은 부도덕한 교리가 아니라 거룩한 가르침이다.

C. H. Spurgeon은 한 때 이 사실을 Dr. Chalmers라고 그가 밝힌 사람이, “나는 교구에 남아 있던 도덕적인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었을 때까지 도덕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나는 내 주변 어느 곳에서도 합당하고 정직한 사람을 거의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와 선을 설교하였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경험에 대하여 그의 회중에게 말함으로써 예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변화가 있었다. 그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복음이 신실하게 전파될 때마다 일어날 것들이라고 말한 것 바로 그것이다.

디도서 3:4-8 —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라.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안식일의 쉼을 지킨다. —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이시다. 우리는 우리 주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다. —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 남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의 운행으로 할례를 하셨다. 우리가 율법의 강제로 그 누구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셨기 때문에 십일조를 내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고후 9:7). 그러나 모든 믿는 자를 드린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린다. —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상을 지지하는 의미로 기꺼이 드린다.

세 가지 큰 어려움

죄인들의 회개를 구하며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추구하기를 노력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회심에 있어서 첫 번째 실질적인 어려움은 사람을 잃어 버리는 것, 진실로 잃어버리는 것이다. 세상에서 찾아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진실로 잃어버린 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자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의미에서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자는 거의 없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도시, 어떤 거리를 걷고 있는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며, 따라서 철저하고 완전히 잃어버려서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예식, 일의 체계나, 율법, 도덕 법전도 그들에게 어떤 좋은 것도 될 수 없다. Joseph Hart가 그의 찬송 가운데 그것을 표하였던 것처럼, —

“구주께서 주신 위로 어떤 것인가?
비탄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네.
죄인은 종교적인 것이네;
성령이 그렇게 만드셨네.”

연약하고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이 죄로 가득하고 어떤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인정할 얼마간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철저하고 완전히 잃은 바 되고, 순수한 은혜만으로 구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자는 이 세상에 거의 없다. 오직 성령만 잃어버린 죄인을 낳을 수 있다. 행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사람으로 잃어버린 자 되게 하는 것이다. 오직 참 죄인만이 참 은혜를 구한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죄인이며, 잃은 바 되고, 미완성이며,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을 납득시킬 수 있다.

둘째로 회심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을 잃은 바 된 죄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복음을 전에 들어 본적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으며, 그

것을 정말로 배워본 사람은 여전히 더 거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은 그들로부터 어떤 대가도 받음이 없이 —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한다.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사이다. 심지어 회개와 믿음과 선행들도 그분의 은혜의 은사들이다.

복음은 우리의 교만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교만한 죄인들이 복음을 알기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는 상반된다. 그것은 우리의 종교적 편견과는 상반된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과 상반된다. 복음은 천연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치된다(고전 2:9-16).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의 방법에 완전히 상반된다.

세 번째로 회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하도록 데려오는 것이며, 그들이 거룩한 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고전 1:30-31).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안식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뒤로하여 성장할 수 없다. 우리 속에 처음 받은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날들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은혜로만 택함 받고, 구속 받으며, 부름 받고, 의롭게 되며, 거룩하게 되고, 지켜진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

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걷되.”(골 2:6).

“여기 나의 에벤에셀을 일으키네;
여기로 당신의 도움으로 내가 오네:
그리고 당신의 선한 기쁨을 소망하며
안전하게 집에 이르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가운데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는다.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도, 거룩함도, 보상도 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하여 그분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엡 1:3-14).

한 가지 계획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으로 단지 한 가지 합당한 용도가 있다. 단 언컨대, 율법은 불의한 사람들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가 없을 것이라 하며 그들이 하던 대로 행하는 것을 금하게 만든다(딤후 1:8-10). 그러나 영적으로 율법은 단지 하나의 합당한 법적 용도만을 갖고 있다. 율법은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하여 주어졌다. 율법은 도덕 윤리의 법전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율법은 믿는 자의 생활법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율법은 그리스도인 예배를 위한 동기로 주어지지 않

았다. 율법은 거룩하게 됨의 척도로 주어지지 않았다. 율법은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다. 율법은 천국에서 보상을 위한 기본으로서 주어지지 않았다. —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이 죄를 규정짓고, 드러내며, 정죄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께로 가두기 위함이다.

로마서 3:19 —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20 —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어떤 죄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그의 죄와 유죄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율법의 유일한 법적 용도이다.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을 받기 전에, 그는 율법에 의하여 죽임 당해야 한다. 율법은 깊이 갈아내는 하나님의 쟁기이며, 그것으로 죄인의 마음과 양심의 휴한지를 갈아 없으며, 복음을 위한 마음의 흙을 준비한다. 이 쟁기질은 어렵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다, 법적 유죄 판결 그 이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법적 유죄 판결은 복음의 확신의 필수적인 부분이다(요 16:8-11).

우리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대가 없는 은혜 — 총만된 의와 만족된 공의의 입장 위에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흐르는 대가 없는 은혜이다. 이것이 바울의 교리이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이다. 이것이 복음의 교리이다.

로마서 3:19-31 —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

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나?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나?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은 것을 똑같이 말하도록 영감을 불어 넣었다.

갈라디아서 2:19-21 —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은 무거운 빛을 요구하네,
그리고 단 일 전도 감하지 않을 것일세.
복음은 예수의 피를 가리키네,
그리고 말하네, “그분은 다 지불하셨다!”

율법은 사람을 자주 아프게 만들고,
단단한 마음들은 여전히 더 단단하게 되네.
복음은 임마누엘의 마음을 보여주고
단단해진 죄인의 마음을 녹이네!

“달려라, 달려, 그리고 일해라,” 율법은 명령하지만,
내게 손도 발도 주지 않네.
더 달콤한 소식을 복음이 가져오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내게 말하는구나!

61. “계명이 이르매”

로마서 7:9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성한 계시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가 체험하였던 세 가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그 세 가지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옮겨졌다. 이 세 가지 것들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들에 의하여 체험된다. 여기 모든 진실되게 회심한 혼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것들이 있다.

1.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바울이 율법 없이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전에 율법에 대하여 들어 본적이 없거나 읽어보지 않았거나, 그것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시대 모든 사람 중에서, 다소의 사울은 아마도 보다 더 충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그것의 죽이는 문자 가운데). 그는 율법의 글을 매우 잘 알았고 이해하였다.

사도가,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고 말할 때, 그의 의미는 이것이다. —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과 양심에 거한 적이 없을 때가 있었다. 나는 율법의 영성을 전혀 몰랐다. 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

다소의 사울은 잃어버린 바 된 종교인이었다. 그는 열심이었고, 헌신적이었으며, 강직하였다. 그는 그의 생애 모든 날 가운데 율법을 글자대로 지켰다. 하지만, 그는 아프리카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살았던 가장 천한 야만인처럼 잃어버려진 바와 같았다. 그런 상태와 조

건 가운데 있는 모든 자처럼, 그는 모든 것이 그의 혼과 잘 어울렸다고 완전히 확신하였다.

비록 그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그는 종교적 생활에 충만하였다. 그는 큰 기쁨이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기쁨이었다. 그는 큰 평강을 누렸지만, 그것은 잘못된 평강이었다. 그는 큰 자신감으로 행하였지만, 그것은 잘못된 자신감이었다. 다소의 바울의 확고한 소망의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소망이었다. 그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그의 혼과 잘 어울렸다는 완전한 확신으로 살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었다. 그의 종교는 모두가 사탄의 기만이었다. 그는 잘못된 확증으로 기만당하였다.

사울의 교만인 자기 의에 속한 위안은 그를 그의 종교 안에서 매우 열심으로 만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혐오와 경멸로 내려다 보았다. 그는 철저히 멸시하며 죄인들로 깔보았던 자들을 잡았다. 그는 잔인한 박해자가 되었다.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되며, 다음 단계는 그의 판결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행하게 된다.

자기 의의 종교 안에 사람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많은 것이 있다. 다소의 사울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위안을 주는 그런 것 중 어떤 것에도 부족하지 않았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

만한 바리새인은 율법의 영적 특징에 대하여 무지하였다(롬 7:7). John Gill은, “나머지 바리새인들처럼, 그는 율법이 오직 외적 행위들만 관심하고, 사람의 영이나 혼, 마음의 내면적 생각과 애착심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자기 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영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실패하는 데로부터 기인한다. 하나님의 눈에 마음의 부정함은 생활의 더러움 만큼 추악하다. 불결한 생각은 간음이다. 분노는 살인이다. 탐심은 도적질이다. 자기애는 우상숭배이다.

사울은 교회 안에서 고위직의 존경과 긍지를 갖고 있었다. 그는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종교적 헌신의 문제 있어서 누구보다 뒤지지 않았다. 빌립보서의 3장을 읽어보라. 다소의 사울은 종교 세계에서 두각을 보이고 높이 존경 받는 인물이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잘못된 증거 안에 안식하였다. 그는 외적 개혁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다고 생각하였다(요 8:39-41). 사실은, 확신에 기초한 증거는 잘못된 확신이다. 믿는 자의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이다.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다(히 11:1).

사울은 그의 의견 안에서 그보다 외적으로 더 모독적이고 사악한 자들과 그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그의 육적인 위안을 강화하였다. 그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완전히 반대적인 사람들, 그가 다른 사

람들보다 “더 거룩한”¹⁵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사 65:1-5). 바리새인 사울은 그 자신의 잘못에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과장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자기애를 가졌다(마 7:3-5).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틀린 생각으로 속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함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거룩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에 대한 끝없는 속죄를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 위에 비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신이 그의 마음을 눈멀게 하였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처럼, 다소의 사울은 종교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었다. 그의 종교는 그를 그리스도에게서 차단하였다. 그는,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고 말했다. 다소의 사울은 그 자신의 개인적 거룩함의 높은 생각을 가질 만큼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어떤 요구들에 충분히 잘 부합돼 있었다고 실질적으로 추측하였다! 그는 율법이 없이 살았다. 그는 그 자신에 완전히 편하게 느꼈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한 멋진 생각으로 하나

¹⁵ 성경 전체를 통하여 “거룩”이라는 말이 상대적인 의미로 사람에게 적용된 곳은 단 한번 이 사야서 65:5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자신들이 행하고 금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헛되이 상상하는 자들이 그들의 실제 모습—“하나님의 코의 연기”—을 드러내게 된다!

님을 위하여 아주 충분하였다!

2.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계명이 오기 전에, 그의 마음과 혼을 찌르는 죄는 그에게 사망에 속한 것이었다. 그는 육신을 극복하였다. 그는 적어도 외적으로는 그 자신을 만족시켰다. 그는 그 자신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떤 큰 죄가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 자신에 대한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사울은 실로 거룩한 사람이었다.

바울은 이 한 마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그는 뜻하는 것은 율법이 그의 죄를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율법이 와서 그의 혼을 부수고, 그의 내면적 욕망들을 드러내었다. 그는 특별히 율법의 표현을 사용하는, “너는 탐내지 말라.” (롬 7:7), 그의 욕망과 하나님을 대항한 그의 마음의 대적을 일으키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그의 죄를 악화시킨다. 따라서 “죄가 살아났다.”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울은 그 자신이 죄를 범한 죄인임을 느꼈다. 이런 죄 깨달음은 체험하기 쉬운 것이 아니지만, 필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결코 구원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죄는 그 자신에게 노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죽었도다.”

마침내, 사울은 율법에 의해서 살육 당하였다. 그의 입은 멈추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유죄로 서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 안에 있던 무엇이 죽었는가? 그것은 살아서는 절대 안 되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위대한 “나”였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은 그것을 죽인다. “나”는 아주 확고하였다. “나”는 너무도 교만하였다. “나”는 너무도 거룩하였다. “나”는 너무도 열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죽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빛에 노출된 자는 누구라도 그 자신이 혐오스럽고, 추악하며, 썩어가는 인간 육신의 시체와도 같음을 보게 된다.

사도는 이 말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 “나는 죽었도다.” 그는 우리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가 정죄 받아 죽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 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자기 의에 속한 그의 과거 삶에서부터 그의 모든 소망들은 죽었다. 그의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은 죽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장래에 그것을 지키려는 그의 모든 노력들은 그의 죄를 위하여 결코 속죄가 될 수 없었다. 그의 회개의 모든 눈물들과 그의 모든 비탄의 울부짖음 들과, 그의 진실한 모든 고백들과, 그의 가장 좋은 모든 행위들은 범하여진 하나님의 율법을 고칠 수 없었다.

“나의 눈물이 영원히 흐를 수 있다면,

나의 열심이 이제는 알 수 없다면,
죄를 위한 모든 것은 속죄가 될 수 없네;
당신은 구원하실 것이며 당신 뿐이네.”

시내 산의 우리와 같은 번개는 그의 모든 소망들을 땅 바닥에 내던졌다. 율법의 싸늘한 쇠 검이 그의 영에 상처를 냈고 살육하였다. 그리고, 그 때가 되기 전에, 이 부서진 사람이 외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죽임 당한 적이 있는가? 그랬기를 소망한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다 할 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당신을 죽이셨을 것이다. 그분이 당신 자신이 죄인이며, 진정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미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가? 만일 그렇다면, 계속 읽어라.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좋은 소식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권적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공황을 구하고 예전의 빈곤한 세리와도 같이 울부짖으며 은혜롭게 넘어뜨리게 되기를 구한다. — “하나님, 죄인인 제게 공황을 베푸소서.” — “주여, 만일 원하신다면, 저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같은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한

다(갈 3:19-21). 일단 그의 육신의 소망들이 죽임당했고, 일단 그가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으며, 일단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계시되시면, 그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같은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도 사실이 된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가? 일단 율법이 그 모든 요구를 요구하였으며, 그 모든 공의가 실행되고 범죄자가 죽으면, 그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율법은 처형된 죄인으로부터 더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그것이 정확하게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모든 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되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은 그분께 떨어졌고, 그분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떨어져 나갔다. 그분이 죽었을 때, 모든 그의 백성도 죽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의 불이 우리의 대속물을 사르시고 그분께서 그것을 모두 태우셨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 율법으로 인하여!”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롬 3:31).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총만케 한다. 그것이 어떤 죄인이라도 율법을 총만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율법에 대하

여 죽고, 그리스도와 혼인함으로, 누구도 우리를 율법의 멍에 아래로 되돌리도록 허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갈 5:1-4).

62. 축복된 안식일의 안식

마태복음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기의 본문은 안식으로의 부름이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 하나님-사람 중보자, 우리의 모든 영광스런 그리스도께서 지치고 무거운 짐 진 죄인들을 그에게로 와서 그들의 혼을 쉴 곳을 찾게 하신다. 만일 당신이 좋다면, 그것을 명령이라고 부르자. 우주의 왕께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제시하시며, 그 제시하심은 명령이다.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을 초대라고 부르자. 그 어느 것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거룩하고 무한한 하나님께서 무모하고 악마 같은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낮추실 때, 그분이 그 죄인들이 그분께 와서 살도록 제시하실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가장 온아하고, 은혜로우며 긍휼이 가득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듣든지, 혹은 그것을 초대로 듣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기 잃어버리고 파멸되고 유죄인 죄인들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리스도께 오는 것 외에는 갖게 될 구원이 없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구원자로 신뢰하며, — 그분의 피를 우리의 유일한 속죄와 그분의 순종을 우리의 유일한 의로서 신뢰하며 우리가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의 혼들을 위한 그 어떤 참되고 평강이 넘치고 만족스러운 안식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친 죄인들에게 안식하게 하실 수 있다.

여기 우리 모두에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모두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다.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혼이 쉴 곳을 찾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 주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와 지배에 순종함으로써 이다. 안식을 찾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멍에 밑으로 우리의 목을 기꺼이 밀어 넣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또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멩에가 정말 쉽고 그분의 짐이 정말 가볍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 제시하는 것은, 당신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멩에를 당신 위에 지고, 당신의 혼에 안식을 찾으라는 것이다. 당신의 주로서 그분께 고개 숙이며 그분의 은혜의 멩에를 당신 위에 짊어져라 (눅 14:25-33). 당신의 선지자로서 그분께 고개 숙이며 그분의 가르침의 멩에를 당신 위에 짊어져라 (렘 6:16). 당신의 하나님과 구원자로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섭리의 멩에를 당신 위에 짊어져라 (시 31:1, 5, 7, 15). 오직 이 방법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혼을 위한 안식할 곳을 찾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멩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복음의 부름은 안식으로의 부름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축복 받은 안식이다. 이 안식이 구약의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었고 원형이었던 것이다. 구약의 안식일 법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누리는 믿음의 그 안식의 필요성과 축복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공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약의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과,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왜 우리가 오늘날에는 구약의 안식일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말아야 하

능가를 보게 될 것이다.

비본질적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경배에 있어서 본질이 아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안식일을 처음 준수 한 것은 창세기 2:2-3이며, 여기서 우리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비록 그것이 이름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안식에 대한 첫번째 준수를 본다. 주 하나님 자신께서 그분의 모든 일로부터 제 칠일에 쉬셨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일로부터 쉬는 것이다. 비록 그분께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2000년 동안 그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었다. 아담은 타락 전이나 후나 안식일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아벨은 안식일을 결코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결코 지키지 않았다. 노아는 주님의 눈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결코 읽을 수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러나 그가 어떤 종류의 안식일 의식을 지키지 않았다.

열조들(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 드리고, 사랑하며, 존귀히 여겼지만, 그 백성 중 아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요셉같이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탁월한 본도 안식일을 결코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자들인가? 그들은 악하고 방탕하며 사악한 사람들인가? 그런 터무니 없는 말을 제시하는 것조차 범죄이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내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어 본질적 방법이 아니다.

안식일 확립

안식일 준수 법령은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때와 같은 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출 16:22-30).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 곧 생명의 떡을 묘사한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의 공급을 묘사한다. 그것은 특별히, “주께로 향한 거룩한 안식일의 안식”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제 칠 일에 쉬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주의 일곱 번째 날에는 만나를 줍는 것도 허락

되지 않았다! 출애굽기 20:8-11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든지 토요일에 어떤 일도 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 하에 있는 어떤 자라 할 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우리에게 안식일 준수의 육체적 법령을 부과했을 자들과 우리를 율법에 노예가 되는 멍에를 메게 하였을 자들은 우리를 안식일을 지키게 하면서 그들 자신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강요한다. 나는 많은 교사가 안식일 준수를 생활의 법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 안식일 준수를 위한 엄격한 법과 규례들을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과 설교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위선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은 단지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며 (갈 6:12-13), 그 이상도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겉치레 존경은, 세밀하게 조사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철저한 무시를 드러낸다. 그들은 계명들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내며, 단순하게 안식을 무시한다. 내가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여기에 안식일 준수를 위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요구되는 네 가지 사항들이 있다. 만약 안식일이 지켜진다면, 이 네 가지 사항 모두를 포함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켜져야만 한다.

1. 안식일은 토요일, 그 주의 제 칠 일에 지켜져야만 한다(출 20:10).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 일요일은 한번, “주의 날”로 불려졌지만, 오직 한 번 뿐이며,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지침도 없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었다. 그러나 성경 내에서 안식일을 일요일에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 명령을 하거나 혹은 허용된 곳이 없다.

2.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 아무것도 (출 20:10). 필요한 일과 자비로운 일은 안식일에 허용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나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종류의 어떤 일도 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한다면, 죽음의 형벌하에서 조리하기 위하여 불을 켜거나 (출 35:3), 불을 피우기 위한 장작을 모으거나 (민 15:32-36), 어떤 짐을 가지고 간다거나 (렘 17:21-22), 여행하거나 (출 16:29), 혹은 어떤 장사를 하지 (암 8:5) 말아야 한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즐거움에 관련한 문제들로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안식일에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었다(사 58:13; 56:2; 겔 20:12, 21). 안식일 예배의 본질은 절대로, 순전하고, 조건이 없으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자기부인이었다. 그것은 자아의 철저한 부인이며 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철저히 헌신하는 것이었다.

3. 이런 것들에 더하여, 안식일을 순수하게 지키는 그 어떤 것도

구약의 의식법으로 돌아가는 게 필연적이다. 안식일은 이중의 속죄 제와 이중의 소제, 그리고 이중의 전제를 드리지 않고는 지켜질 수 없으며, 그 제물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준비되어야만 한다(민 28:9-10).

4. 한 가지 점이 더 있는데, 그것은 무시될 수 없다. 안식일을 지키고자 고집하는 자들은 모든 안식일 위반자들의 사형 집행을 요구하여야만 한다(출 31:15). 안식일 준수를 요구하였던 바로 그 같은 법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의 죽음을 요구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원한다면, 그는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자기 아들이든 딸이든, 죽음을 이르도록 기꺼이 돌을 던져야 한다.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어떤 사람을 아는가? 나는 모른다. 심지어 가장 정통적인 유대인조차도, 가장 엄격한 재림 주의자도, 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단적인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게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척하는 자들도 안식일 준수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요구들에 근접하지도 않는다.

아무도 안식일을 글자대로의 의미 가운데 준수하지 않으며, 2,000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가톨릭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신교도도 지키지 않는다. 개신교인들도 그

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을 지키는 척하는 자들은 오직 위선으로 안식일을 조롱거리로 만들 뿐이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육체적인 과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왜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문자대로의 안식일을 준수하기를 거절하는가? 그 주의 첫날에 앉아서 주께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 적어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에 의한 안식일 준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유대의 유월절이나 구약의 어떤 다른 법적 의식을 지키지 않고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아주 같은 이유로 어떠한 문자대로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키기를 요구하셨던 그 안식일은, 다른 모든 육에 속한 율법의 조례처럼, 오직 율법의 임시적이고 전형적인 종교의식이었으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인한 우리의 구속을 나타내고 묘사하며 상징이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와 예배의 규례들을 가르치셨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 오직 두 가지 이유를 안식일 준수를 위하여 주셨다.

1.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의 상징으로써 이스라엘이 지켰던 것이었다(출 20:8-10).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완성과 창조의 종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만족하심을 나타냈다. 비록 하나님의 창조가 죄 탓에 훼손되었고, 사단의 흔적에 의한 모략으로 창조가 더럽혀졌지만, 하나님의 책은 회복의 때라 부르는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회복되는 날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일어나셨을 때 시작되었다(행 3:21; 골 1:20).

2. 안식일 준수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속 받은 것을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일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의 그림이었다(신 5:15). 모세 율법의 모든 다른 방면들처럼, 안식일은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완전한 구속에 대하여 묘사하는 예언이었다. 유대인들이 그 주의 제칠일에 그들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였듯이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 의한 어떤 일이 없이 주셨던 만나,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것),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발견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이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이며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지킬 수 없다.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 (로마서 — 계시록) 가운데 안식일이 언급된 곳은 오직 두 곳이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유대

인들과 유대인의 예배와 연결하여 여러 번 언급된다. 그러나 그 서신서들에는 이 복음의 시대 가운데 신성한 예배에 속한 모든 명령들이 서술된 것은 두 곳에만 언급되어 있다(골 1:16-17; 히 4:3-9).

골로새서 2:16-17 —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신성한 영감으로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믿는 자가 완전하고 전체적이며 오로지 영원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율법적 안식일의 준수를 금한다(롬 7:4; 10:4).

히브리서 4:3-9 —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이 일곱 구절에서 “쉼(rest; 안식)”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안식(sabbath)”이라고 번역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안식일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이고 진실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듣는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안식을 지킨 것과 같다. — 그리스도께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우리의 일을 멈추고 그분 안에서 쉰다. 이것이 가난하고, 궁핍하며, 고통 받으며,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에게 하는 우리의 은혜로운 구원자의 말씀이다. —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63. 남아 있는 안식일

히브리서 4:9-11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냉담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특정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영역의 것들 중 하나가 아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주고 있는 가르침들은 매우 구체적이며 분명하다.

구약 시대 동안의 할례와 유월절과 다른 모든 법적, 의식적 경배와 같이, 법적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표적과 그림과 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것은 고찰과 추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13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금지된 법령

안식일 준수는 유월절과 할례와 같이, 세속적 제도시대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법적 전형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전형을 충만하셨으며, 세속적 제도는 끝났다. 신약 시대에서, 우리는 엄격하고 직접적으로 그와 같은 세속적 제도가운데 어떤 것도 지키는 것이 금지되었다. 사실상, 세속적 제도의 배경 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고 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였다.

할례는 신성한 예배의 제도로서 금지 되고 있다(갈 5:2, 4). 자신

의 아기를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가서 물을 뿌리는 자들은, 그 자녀들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로서, 그 아이들을 은혜의 언약 안으로 인치기 위하여 할례의 세속적 제도를 지속시키려 시도함으로써, 은혜로 만으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마음의 할례의 필요를 부인한다.¹⁶

유월절 준수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셨을 때 이후로 금지되고 있다(고전 5:7).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계속해서 드리는 자들은, 그것이 속죄물이든, 참회이든, 혹은 신성한 은혜를 보다 높은 정도로 얻기 위함이든, 분노를 막기 위함이든지 간에, 그들의 희생제물로 갈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백성의 죄들을 대신한 효험 있는 만족이었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의에 무언가가 더해져야 한다면, 그러면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의는 완전히 무용지물이다.

아주 같은 방법으로, 육체적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삼중의 거룩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부인한다. 바울이 골로새서 2:23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영성과 지혜를 외적으로 보이

¹⁶ 신약의 할례와 같은 것이라 부르면서, 유아 세례를 행하는 모든 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로마 가톨릭에 속한 실행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포함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부인될 수 없다. 로마 가톨릭의 미사처럼 분명하게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자의적 경배이다. 그와 같은 겸손으로 위장함은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안식일 준수에 전체적인 문제는 골로새서 2:16-17에서 성령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반하는 제도들의 필적을 없애 버리셨고, 범해진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없애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의 안식일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 모든 육체적 안식일 준수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실한 믿는 자들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사실을 근거로 엄격히 금지된다(롬 7:4; 10:4).

남아 있는 안식일

하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는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히 4:9-11). 이스라엘의 자손은 믿음의 없음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전형적 그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히 4:1-6).

믿지 않는 세대가 불신 속으로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 받지 않았고 받을 수도 없었다.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하고 들어갈 택함 받은 다수가 있다(히 4:6).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주어진 그와 같은 전형적인 안식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계획되고 구해진 안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인 믿음의 복된 안식의 본일 뿐이다(히 4:7-8).

히브리서 4:9-11에서¹⁷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남아 있는 안식일의 안식이다. 성경은 구약의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총만하고 완전하게 성취됨이 발견된다고 선포하고 매우 분명히 선포한다. 모든 참되게 믿는 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는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스도의 안식

첫째, 성령은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셨고 그분의 안식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그분의 일을 끝내셨기 때문이며 (사 11:10; 고후 5:17-21; 롬 8:34; 히 10:11-14), 그분의 안식은 영광스럽고 이사야서 11:10에서 그러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던 것과 같다. 천국 안에서 우리 구원자의 안식은 그분의 영광이다. 사실상, 이사야서 11:10의 마지막 문장의 근접한 번역에 의해 나타난 것처럼, 그분의 안식은 그분의 영광이다.

¹⁷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반복하여 사용된 “안식”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드러누워 쉬다, 눕다, 편안히 있다, 일을 멈추다, 집에 있다 이다. 그러나 9절에서 “안식”이라고 번역된 말은 전적으로 다른 말이다. 여기서 안식으로 번역된 그 말은 “안식(sabbatism)” 혹은 “안식을 지키다.”를 의미한다.

그분의 창조의 일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도 시간 가운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분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롬 8:34; 히 10:11-14).

마태복음 28:1을 보라.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놀라운 말씀이다. 나는 이 구절을 읽는 모든 자가 그 말씀의 원천적인 말씀 가운데 이 문장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한다. —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이 구절은 꽤 글자 그대로 읽는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나는 이 구절을 이런 의미로 받는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고 다시 일어 나셨을 때, 율법의 옛 안식일은 끝났으며 은혜에 속한 새 안식일이 시작되었다. 나는 마태복음 말씀의 그 어떤 다른 해석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의 고귀한 구원자를 보라! 당신은 저편 천국 보좌 위에 자리하신 그분을 보는가? 거기 그분은 절대적 주권에 속한 방해 받지 않고 받을 수 없는 평온함 가운데 자리하고 계신다! 그분의 안식은 그분의 영광이다(요 17:2; 빌 2:9-11; 사 45:20-25). 그분은 그분의 일을 끝내셨다(요 17:4; 19:30). 그분의 순종으로 영존하는 의로움 가

운데로 옮기셨고 그분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을 끝내셨음으로, 그 백성의 구원은 확실하다(히 9:12).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마쳐졌다. 그것들은 하나님-사람께서 우리의 선주자로서 그분의 천국보좌를 취하셨을 때 시간 가운데에서 마쳐졌다(히 6:20).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셨다. 거기에서 그분은 안식하시고 계시며 그분의 안식은 그분의 영광이다!

죄인의 안식

둘째,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각의 죄인이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선포한다(히 4:3, 9-10). —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안식일, 영적 안식일을 지키지 육체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이 마친 일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한다.

믿는 자의 생활은 안식일을 끊임 없이 지키는 생활이다. 우리 중 아무도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최선의

믿음은 여전히 불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된 안식일의 안식을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항상 그리스도께 나오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신실하게 지킨다(마 11:28-30).

우리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각각의 죄인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네,
내게로 와서 쉬라,
내려 놓으라, 너희 치친 자들아, 내려 놓으라
네 머리를 내 가슴에 얹으라.’

내가 지치고 야위고 슬퍼서
예수께 나아왔네:
그분 안에서 쉼 곳을 찾았네,
그리고 그가 나를 기쁘게 하셨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계속하여 주고 계신다. 그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와 (사 45:22; 엡 1:6), 완전한 화해와 (고후 5:17; 골 1:20-21), 절대적 보증과 (요 10:27-30; 빌 1:6;

살전 5:24), 그분의 특별한 섭리의 (롬 8:28) 안식을 주신다.

율법의 의식적인 안식일이 하나님께 엄격하면서 보편적인 희생을 묘사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이 믿음의 복된 안식일은 우리의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을 포함한다(마 11:29-30). 우리가 기꺼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취할 때 믿음의 안식일을 지킨다. 만약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킨다면, 일주일에 하루 종교적 금욕 가운데 생활하는 것보다 더욱 더 많은 것을 내포한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분에 속한 것들인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엎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괴롭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혼란스럽게 내던져진 죄인이 이 복된 안식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나는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당신에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여야 한다!

들어가기에 힘쓸지니

셋째,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대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

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히 4:11). 얻을 수 있는 위대하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히 4:9). — 구속의 영원한 기억 — 그리스도께 영원하고 완전한 헌신 — 영원한 안식!

어떤 자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 4:10). 나는 이미 이것이 우리의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이미 여러분께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들을 가리킨다. 불신으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의의 근거로 자신의 일들을 포기 할 수 없다.

그들의 하늘에 속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그들 자신의 일로부터 끝났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날들은 영원히 끝났다. 그들은 이제 밤낮으로 완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그들의 섬김 가운데에는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복된 안식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그들 자신의 일에서도 그쳐졌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입장을 쟁취하고 지키며 개선하고자 노력하기를 그만 두었다. 믿는 자들은 단순히 그리스도만을 의로써 신뢰한다(고전 1:30; 빌 3:7-10). 그리고

“그 곳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 얼마간 있다. 아직 이 복된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할 택함 받은 다수의 구속된 죄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애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7-14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을 택하여 영감을 갖고 설명 하는 것 이상으로 그 말을 설명함에 있어서 더 나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

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꾀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은 여전히 죽음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만약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지키고 만족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롬 3:31).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완전한 의와 완전한 만족—을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스도께로 와서 영원히 안식하라! 이것이 남아 있는 안식일이다.

64. 언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할 수

있는가?

이사야 58:13-14

“네가 만일 네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네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네 자신의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네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네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사야 58장은 많은 사람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이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물을 필요도 없이, 이 장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바빌론에 잡혀 있을 시간 동안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경배에 대하여 매우 필요한 가르침들을 주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본문과 해석을 유대인에게 국한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아마도 그 장의 전체적인 시야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롬 15:4).

이 열네 절에서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의 예배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준다. 실로, 8-14절에서 주어진 약속들은 이 복음의 시대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빌 3:3) 하는 자들인 하나님의 성도들 외에 다른 어떤 자에게 완전히 적용될 수 없다.

공허한 의식

1-4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공허한 종교 의식과 예식들의 죄와 어리석음과, 그 능력이 없는 단지 경건의 모양의 험오스러움을 보여준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네 목소리를 나팔소리 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 주라.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의를 행하며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민족과도 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내 길들 알기를 즐거워하나니 그들이 정의의 규례를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툼과 논쟁을 위함이요, 사악한 주먹

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 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여기, 주 하나님께서 단순히 육신의 감사를 위한 종교적 예식이나 의식들을 행하는 잃은 바 된 종교인들에게 명령하신다! 그 명령을 적용할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일일이 세지는 않겠다. 종교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사람은,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며, 사악함의 주먹으로 논쟁하고 투쟁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 노력하게 되며, 그들 자신의 욕망에 감사하기 위해서만 종교적 의무를 수행한다.

참된 경배

5-7절은 경배의 본질이 마음과 영이며, 긍휼과 은혜이고, 친절과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것들은 참되고 순수한 종교의 표식들이며, 순수한 겸손과 믿음의 증거들이다.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굽은 벼와 재를 퍼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 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 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주린 자들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가 네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냐? 또 네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네가 네 살붙이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참된 종교는 긍휼이 넘치고, 은혜로우며, 친절하다(약 1:26-27). 참된 경배자들은, 법적 제도 안에서 조차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며, 그를 존귀히 여기고자 하며,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려 노력한다. 체험된 은혜는 사람들을 은혜롭게 만들지 비정하게 하거나 요구하지 않게 하고 친절하고 용서하게 만든다. 참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행한다.”

믿음의 축복

8-12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축복과 복음에의 순종을 보여준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터져 나오고 네 건강이 신속히 sought 구치며 네 의가 네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네 후위대가 되리니 그대에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네 한가운데서 멩에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네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네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네 혼을 만족시키며 네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 샘 같으리라. 또 네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되고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너는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리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라 하며, 거할 수 있도록 행로들을 복구하는 자, 라 하리라.”

대가 없고 확실하며 영원한 은혜의 빛과 생명 (8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복된 만족과 안도감 (9절; 빌 4:12; 요일 5:14)은,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긍휼과 은혜의 도구로서 유용함에 속한 기쁜 특권 (10-12절)은 이 세상의 모든 세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속한 것들이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된 것들, “네가 복이 되리라.” (창 12:2)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기쁜 안식일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영감을 받은 예언의 이상으로 육체적인 유대인의 안식일을 넘어서서 보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일이고 그분 안에서 믿음의 복된 안식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본다.¹⁸

“네가 만일 네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네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네 자신의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네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네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언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할 수 있고, 그렇게 부르는가? 오직 우리가 우리의 안식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복된 안식에 옮겨질 때만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를 수 있고 부른다. — 우리가 믿음의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자신의 일들로부터 그만두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우리 온 존재가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안식할 때이다.

사람의 그의 방법으로부터, 그의 죄로부터, 그의 타락한 마음의 즐거움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그분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할 때, 기쁜 날이

¹⁸ 이사야의 충고를 관찰하면 이것은 분명해진다 —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안식일을 일컬어 여호와와의 즐거운 성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며, 부유한 날이고,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존귀하다. 실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서 그들의 모든 적들을 이기며, 여기서 “야곱의 유산”이라 부르는 하늘에 속한 가나안의 총만한 유업을 마침내 얻게 될 것이다.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법적 안식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셨던 안식일은 임시로 한 전형적인 법령이었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을 나타냈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치셨을 때, 그분은 그것에 대하여 두 가지 이유가 있으셨다.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의 상징으로써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출 20:8-11).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그분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만족을 나타냈다. 비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종족의 죄와 타락으로 더럽혀졌으나, 안식일은 “만물의 회복의 때”라 불렸던 영광스러운 안식의 축복의 날을 예표 하였으며 (행 3:21; 골 1:20; 엡 1:10), 그 때 만유가 하나님께 회복될 것이다.

둘째, 안식일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속의 그림이었다(신 5:15).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모세 율법의 다른 모든

방면처럼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묘사적 예언이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든 일로부터 그 주의 제 칠일에 안식하였던 것처럼, 믿는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강을 찾는다.

그리스도 우리의 안식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만 안식일이 기쁜 날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이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므로, 의문의 법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나는 의문의 안식일을 지키는 척 하는 많은 사람을 안다. 많은 사람이 법적 안식일 행위 안에서 기뻐하려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나는 세상 가운데 안식일 준수에 애쓰며 정말로 기뻐하는 안식일주의자를 단 한 사람도 알지 않는다. 내가 아는 모든 안식일주의자는 그들의 법 준수의 멍에가 괴롭고 짜증나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거룩해지기 위하여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으로 느끼는 영적 채찍이다.

안식일 준수는, 희생제물 짐승처럼, 구약 율법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신약의 예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에 자주 언급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성전이나 유대인들의 예배당 안에서 유대인들과 유대 경배와 관련하여 언

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서신서에서 단 두 번만 언급되고 있다(로마서에서 계시록까지).

골로새서 2:16-17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를 읽을 수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태로든지 법적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금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롬 7:4; 10:4).

히브리서 4:3-4, 9-11에서 이 복음에 남아 있는 안식일은 “쉼”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영적인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과 그들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쉼으로써 안식일을 참되게 지킨다.

일을 마침

우리의 모든 영광스러운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종보자께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부르게 될 것이며, 그분의 안식은 그분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영광스럽다(히 4:10; 사 11:10). 하늘에서 우리 구원자의 안식은 영광스러우며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다 — “그분

의 안식은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의 역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제 칠일에 쉬셨던 것처럼, 우리 중보자이신 하나님-사람께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마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셨다(롬 8:34; 고후 5:17-21; 히 10:10-14).

우리의 찬양 받을 구원자를 보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보이는가? 방해 받지 않고, 방해 받을 수 없는 주권적인 평강 가운데 그분이 앉아 계신다! 그분의 안식은 그분의 영광이다(요 17:2; 빌 2:9-11). 그 찬양 받을 하나님-사람, 우리의 거룩하게 지명된 대표자이신 분은 우리를 위한 법적 안식일 요구들을 모두 총만케 하셨으며, 심지어 율법의 다른 모든 요구들까지도 총만 시키셨다. 이제, 하늘에서 그분은 영원한 안식일의 쉼을 지키고 계신다(사 53:10-12). 그리고 그분의 안식은 그분의 영광이며, 우리에게 그분이 그분의 일을 마치셨음을 말해주고 (요 17:4; 19:30),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곧 그분의 발 받침이 될 것이다(히 10:13).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모두 하셨다! 그리고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졌을 때, 우리의 축복받은 구원자는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는 모든 자는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른다!

안식일의 안식

우리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히 4:3).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이 복된 안식일의 안식을 기쁜 날, 우리 혼의 기쁨이라 부른다. 우리는 아직 안식일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여야 하는 것만큼 우리의 구원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그분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참되고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의 안식일 준수는 육적이고 문자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다(골 2:16-17). 우리는 믿음으로서 안식일을 영적으로 지킨다.

기억하라, 안식일은 창조 후 하나님께서 쉬신 것의 상징과 이집트로부터 유대인의 구속의 기억으로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의식 경배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된 것이다. 안식일 준수의 본질은 자아부인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다. 개인적 유익이나 기쁨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명백하게 금지되었다(사 56:2; 58:13; 겔 20:12, 21). 안식일 준수는 그 본질에 있어서 무조건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며, 자아부인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단념이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 자신의 헌신이였다.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고, 칠 일 가운데 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며, 하지만 우리 생활의 모든 날들인 것이다. 믿는 자의 생활은 무궁한 안식일 준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그분께 오는 모든 죄인에게 쉼을 주셨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신다(마 11:28). 당신은 죄와 죄책감의 무게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당신은 안식을 갈망하는가? 당신의 혼 깊은 속에서 죄와 함께 심하게 갈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찾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겠는가? “오라”—그것이 나를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다. “내게로 오라!”—설교자에게로 가 아니다. 내 교회로가 아니다. 심지어 내 가르침으로가 아니다! 그러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올 때, 그는 그분의 대속물께서 마치신 역사 위에 그의 혼을 안식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그만둔다(고전 1:30-31).

여전히, 믿음의 이 안식일은 우리 일을 그만두는 것과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의 기억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바로 그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귀한 구원자를 향한 우리의 삶의 희생을 포함한다(마 11:29-30). 우리는 자의도적이고 의도적이며 충심으로 우리의 주로서 그리스도께 행복함으로써 믿음의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의 혼에 줄 안식을 찾는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되 진정으로 지킨다면,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한 주일의 하루를 종교적 실행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 이상일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명에

아래 우리 자신을 두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믿는 것과, 사는 것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얽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혼의 안식을 찾게 되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를 것이다!”

65. 하나님의 교회

사도행전 20:28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지역 교회 가족의 강건함과 사역과 조력이 없는 영적 건강함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과 가치를 알고 그 자신을 교회에 맡기는 극명한 중요성이다.

이 지면에서 향할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취한 것이다. 그 책의 가장 큰 목적은, 실제로 초대 교회의 간략한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가를 보여 준

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처음 삼십 년간의 그 존재 동안 교회의 진보에 대한 계시적 기록이다. 처음 삼십 년간 교회에서 가장 특출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었다.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바울이다. 그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의 책임에 대하여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확고한 당부를 하고 있다. 그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고 말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라는 말이 신약에서 적어도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구약과 신약의 믿는 자들 모두, 곧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인 모든 세대의 모든 신실한 믿는 자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함은, 교회가 우주적이고 모든 신실한 믿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비밀스럽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영적 몸이다(엡 1:22; 5:25-27).

둘째, “교회”라는 말은 어떤 주어진 장소 가운데 고백한 믿는 자들의 지역적이고 가시적인 집회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모든 지역 교회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 떼와 염소들이 있으며, 믿음의 진실한 소유자들과 믿음

의 거짓된 소유자들이 있다. 모든 지역 교회는 참된 자와 거짓 된 자들 모두 그 지체로 갖고 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각 지역 집회는 지역 교회로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린다(롬 16:1-5).

셋째, “교회”라는 말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주어진 시간에 있는 모든 참된 복음 교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교회들과 교파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주어진 시간에 있는 모든 참된 신약 교회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계획 안에서 하나이고, 마음 안에서 하나이며, 갈망 안에서 하나이다. 모든 참된 복음 교회들은 이 세상 안에서 하나이다(고전 10:32; 12:28).

사도행전 20:28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특정한 지역 교회의 장로들에게, 혹은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몇몇의 지역 교회들에서 온 장로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지역 교회를 가리킨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각 지역의 복음적인 교회에 해당될 세 가지를 말한다.

1. 하나님께 속한 교회. Danville의 Grace Baptist Church는 Danville, Kentucky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나는 우리가 모이는 건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이는 사람

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 교회는 침례교파나, 나에게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속하여 있지 않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재산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주권적인 택하심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셨다(살후 2:13).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귀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 자신께로 구속하셨다(딤후 2:14).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의 거절할 수 없는 능력 있고 은혜로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그분 자신께 부르셨다(골 1:12-14).

이것들은 모든 신실한 믿는 자들에게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운데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믿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한 지역 교회로서 참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모두 깨닫기 바란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과를 만지는 것이다(고전 3:16-17).¹⁹

2.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양 떼이다. 그리스도의 양 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양 떼”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¹⁹ 여기서 내가 한 지체인 지역 교회와 관련하여 내가 말한 것은 물론, 모든 지역 교회들과 모든 참된 복음 교회들에 대하여 사실이다.

교회는 양 떼에 비교되며, 복음서에서 차례로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지고 같은 목장 안에서 먹으며, 말씀과 성찬식들에 참석하고,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명된 목자들의 보호 아래 있다.” (John Gill)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구원자로부터 벗어난 양 떼와도 같았다(사 53:6). 회심한 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순하고 해가 없으며 인내하고 완전히 우리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의지하기 때문에 양 떼에 비교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양 떼가 온전함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한 무리의 양 떼로 잘 비교된다. 우리가 이상적인 피조물로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덜 나은 존재다. 양은 어리석고, 무지하며, 무력하고, 무방비하고, 헤매고, 더럽고, 빈궁한 동물들이기에 혼자서 그들의 어린 것들을 품을 수조차 없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을 돌보기 위한 양치기들과 목자들을 필요로 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과 이해력을 그 양 떼에게 먹이고, 바로 그 자신의 목숨으로 양을 보호하며, 양 떼를 앞서서 가면서 인도하고, 복음으로 양 떼를 위로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양 떼를 돕고, 때로는 사랑스러운 팔로 양을 부드럽게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다. 목자장 혼자만 그것을 할 능력이 있다.

3.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 바울은 교회를 “그 자신의 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

명하고 있다. 교회의 구매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사들인 값은 “그분 자신의 피”였다. 그 구매는 우리의 빛에 대한 법적 지불, 곧 공의의 만족하심으로, 거룩한 공의의 능력과 율법의 형벌로부터 우리의 혼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그것은 어떤 특정한 매입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사셨다. 모든 하나님의 택정된 자들은 이 교회의 선택된 지체들이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신 바 되었다. — 그것은 완전한 매입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을 단번에 율법의 저주와 형벌 아래로부터 사셨다(갈 3:13). — 그것은 호험 있는 매입이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죽은 모든 자는 완전한 거룩 가운데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엡 5:25-27).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우리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사도들은 각 성에 있는 지역 교회들로 믿는 자들을 모았을까? 지역 교회로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3:15-16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가 진리의 원천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우리는 진리의 유증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진리의 분배자들이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촉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진리는 앞서간 세대로부터 우리가 받은 유산이다. 그리고 진리는 앞으로 올 세대에게 남겨주어야만 하는 유산이다. 우리가 유지할 책임이 있는 진리의 그 특정한 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의 신조는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이다. 우리가 유지하고 선포하는 진리는 큰 “경건의 비밀,” 곧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의한 구속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신성하게 명령 받은 우리 목적의 시력을 결코 잃지 말자.

교회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최초,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의 직접 통치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사도들에 의해 통치 받았다.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행 6), 그들은 돈과 재산과 과부를 돌보는 문제들을 감독할 세속적 의무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집사들을 지명하였다. 사도들이 죽어감에 따라, 다른 위치에서 지명된 목사들이 교회의 감독자가 될 책임을 가졌다. 때때로 목사는 “장로”라고 불리며, 때로는 “감독”이라고 신약에서 부른다. 그러나 신약 안에서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라는 말을 볼 때마다, 언급된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목사들이고, 그리스도께 대하여 하위 목자들이고, 교회의 감독들이며,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영적 통제자들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민주적 투표나 사람들의 변덕으로 지

배되는 정치적 집단이나, 회사나, 혹은 친교 단체나 조직이 아니다. 침례 교회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중법의 실행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가 완전히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왕국이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 받고 인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명한 목사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된다(히 13:7, 17).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끄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다(딤후 3:1-7). 그는 완고한 힘이나, 위협이나, 법적 힘으로 이끌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는 이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남편이 그 자신의 가정에서 이끄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끌어야 한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이끌어야 한다. 그는 그 자신의 믿음과 신실함의 본으로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것처럼, 그는 교회를 사랑과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과 진리를 위한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랑으로 이끈다. 목사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 자신이 인도받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와 같은 힘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안다. 많은 사람이 목사 권위를 남용함으로써 크게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남용에 대한 문제의 답은 목사 직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성령의 지시를 구하

여야 하고, 성경의 지침을 주의 깊게 따르며, 그들 위에 거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진리와 믿음과 의의 길 가운데 목사를 보존하며 지키도록 해야 한다.

한 지역 교회가 사람들의 목소리로 지배 받는다면, 있을 수 있는 악한 것에는 그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행동 과정이 회중에 의하여 결정되고 확정되는 곳을 네 군데, 오지 네 곳 만을 발견한다(출 32:1-6; 민 16:1-4; 대상 13:1-14; 행 12:15-26). 그 결과들은 회중의 지배에 대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출애굽기 32:1-6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황금 송아지 주변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된다. 민수기 16:1-4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역대상 13:1-14에서,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백성들과의 약속을 깨셨다. 사도행전 1:15-26에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안수하지 않은 사도를 선택하였다. 민주적 원칙은 “대중은 언제나 옳다.”이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다수는 대부분 항상 틀렸다. 다수는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결코 인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사의 자격으로 교회를 이끄는 자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책무이다. 목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지역 교회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그들은 목사에 대하여 가능한한 알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야

만 한다.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요구 사항들에 근접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만약 그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잘 설교하더라도, 그가 보이기에 얼마나 좋아 보이더라도, 그는 목사로 임명되면 안 된다. 일단 한 사람이 목사로 임명되면, 교회는 그의 인도 하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것은 축복된 관계가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혼에 대한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당신의 목사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함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책무이다.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한 것이 순종이다. 만약 당신의 목사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다면, 만약 그가 여러분의 혼을 신실하게 감독하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1.) 하나님께 그를 제거해 주실 것을 요구하거나, 그가 그렇게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혹은, (2.) 당신 자신을 그의 인도로부터 슬며시 제거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확실하여야 한다. 여러분의 목사를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무라고 감히 추정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와 연합하고 합병하는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보편적으로 교회와 연합된다. 지역 교회는 어떤 공중법에 의해 합치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은 교회 지체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교회 지체를 하

나님 앞에서 소망의 기초로 만들면서 그것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신약에서 믿는 자들이 지역 교회들 내에서 서로 간에 대중적으로 연합한다(행 9:26-27; 롬 16:1-2).

지역 교회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서로 간의 연합된 믿는 남녀들의 집회 혹은 회중이다. 지역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사회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가 짜여진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시된 본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 안의 지체에는 네 가지 사항들이 필요하다.

1.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것을 들어야 한다(14-40절).
2. 복음을 믿어야 한다(41절).
3. 침례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여야 한다(41절).
4.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백성들과 연합하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굴복되어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공적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서약 해야 한다(41-47절).

모든 지역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거처이다(엡 2:20-22; 고전 3:16).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 그 이상이다. 그것은 마음의 연합이다. 그것은 비록 중요하기는 하지만 교리의 행한 확일성 그 이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의 연합이다(엡 4:1-7).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다. 우리는 “한 영”에 의해서 그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한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대속물 이신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찬양 받으시는 구속자이신 “한 주”께 순종한다. 우리는 모두 “한 믿음”, 즉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한 분—그리스도 이시다. 우리 믿음의 교리는 하나 — 복음이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하나 —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모두 “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특징짓는 것들이다. 만약 그것들이 어떤 지역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또 다른 종교적인 단체이며, 존속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있다!

교회 지체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교회 역할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있는 것이 하나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교회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맺는 마음의 관계이다. 그것은 사랑의 자발적인 서약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서약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 간에 맺는 서약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경배와 그

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공개적인 서약을 맺는 것이다.

교회 지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에 대한 서약을 포함한다. 지역 교회 가족들은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복음 안에서 가르침 받기 위하여 함께 와서 모인다(행 2:42).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서약을 포함한다. 모든 참된 교회들은 복음의 방어와 복음의 촉진 안에서 연합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고, 말씀을 펴기 위하여 드리며,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전진한다. 함께 지역 교회로서 모든 믿는 자는 말씀의 사역에 자신을 드린 한 분을 지지하며, 따라서 그분이 지식과 이해함으로 그들의 혼을 먹이실 것이다(렘 3:15). 함께 그들은 목사와 선교사와 세계 전역의 복음 전도사의 필요를 공급하기를 도와서 그들이 육에 속한 걱정거리로 위축됨이 없이 복음을 펼 수 있게 된다. 함께 그들은 세계 도처에 복음을 퍼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교회 지체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책무를 포함한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 서로가 약속한다. 지역 교회 안에서 가족의 지체들은 헌신적이며, 그들의 그 마음들은 서로에게 헌신적이다(빌 2:1-4).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용서한다. 그것이 가족이 사

는 방법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야 하는가?

아마도 당신 마음 속에 교회 지체 문제를 논쟁해 왔을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 성경적 이유를 찾고 있을 것이다. 나는 왜 여러분이 지역의 신약 교회와 연합하여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가지를 제시하겠다. 만약 당신이 믿는 자라면,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왜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해야 하는지 한 가지 이유가 여기 있다. — 당신은 우리가 필요하다! 당신은 복음의 균형 잡힌 사역이 필요하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의 교통이 필요하다. 당신은 당신 형제들의 도움과 힘과 격려가 필요하다(히 10:24-25).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의 마음이 복음의 믿음과 성령의 교통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남녀들의 집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각각의 진실한 지역 교회는 어느 교회든 가져야 하는 것 모두를 갖고 있다.

- **제사장** —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제사장.
- **제단** — 그리스도 그분 자신.
- **희생제물** — 예수 그리스도의 피.

-
- **율법** —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율법, 믿음과 사랑의 율법.
 - **신경** —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전갈** —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분.
 - **각 세대별 활동이 있는 프로그램** — 기도, 찬양, 그리고 설교.
 - **진심으로 애쓰는 것을 위한 목표 설정** —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도처의 구원 받은 죄인들에게 말한다 — “너희는 우리와 함께 오라, 우리가 너희를 선대 할 것이다.”(민 10:29).

66. 세 가지 복음 규례

사도행전 2:41-47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 날에 삼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많은 수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과 은혜의 놀라운 이야기를 단순히 그들에게 말하였고, 우주의 주와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찬미를 선포하였다. 그는 그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였으며, 삼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였고, 침례 받았으며, 한 날에 교회와 연합되었다!

세 가지 것들은 이 초대 교회를 특징지었으며,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들인 이 세 가지는 침례, 교회 지체, 그리고 주의 만찬이다. 이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커다란 유익과 관심에 속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각 지역 교회가 잘 알아야 하고 잘 건축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다. 이 공과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 규례와 관련하여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책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 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각 세대 안에서 모든 참된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분의 교회이다. 어떤 자들은 하늘에, 어떤 자들은 땅 위에 있다. 하지만, 우

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마 16:18; 엡 1:22-23; 3:15-16; 5:25-27; 히12:22-24). 우리는 또한 신약은 지역 교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크게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마 18:20; 28:18-20; 딤후 3:15). 가장 큰 위임이 지역 교회에 주어졌으며 지역 교회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지역 교회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복음전파자들을 지원하고 유지하며 보내고 있다(고전 12:25-27). 각각의 지역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의 축소판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한다(엡 2:20-22; 4:1-7).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순종의 문제이다. 지역 교회에 대한 믿는 자의 관계와 신실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참된 복음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큰 특권이며 축복이다. 이 큰 특권으로 인하여 우리는 큰 책무를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우리의 관계는, 대단하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드러낸다.

분명하게, 성경이 침례와 교회 지체와 주의 만찬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을 하나의 글 속에서 설명 할 수 없다. 그것이 나의 의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이 세 가지 것들에 대하여 간단한 정의를 제시 하면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께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주를 존귀히 여기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기 원한다.

침례

침례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함이다(롬 6:1-11). 만약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리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 안에서 그 교리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곳으로 가야만 한다. 로마서 6장은 믿는 자의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 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1-11

무엇이 침례인가? 침례는 복음의 한 상징적 그림이다(행 22:16; 벰전 3:21). 그것은 믿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그분께 대한 헌신을 고백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백성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헌신을 공언하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는 침례를 받아야 하며, 오직 믿는 자들만 받아야 한다. 아무 데도 성경 내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침례 받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암시조차 없다. 침례를 받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침례 받기 전에 만족되어야만 할 조건이다(행 2:38-41; 8:37).

어떻게 침례가 수행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서 너무도 분명하여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행될 수 없다. 신약 안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아무도 침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례”라는 그 의미가 “가

라았하다.”이다. 잠기는 것이 침례의 방식이 아니다. 잠기는 것이 침례이다. 잠김이 없이, 침례는 없다(마 3:13-17; 행 8:38; 골 2:12).

왜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다시, 성경이 분명하다. 우리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막 16:15-16). 침례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요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분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선한 양심의 대답이다(벧전 3:21).

사람이 침례 없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다! 모든 구원 받은 자들은 침례 없이 구원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만의 역사이다. 우리의 순종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사와 절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그것은 침례 받기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역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믿는 자들은 또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은 후 침례를 받았다면, 그가 또다시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기 전에 물에 잠겼다면, 몇몇 거짓 종교의 신앙고백 가운데 있었

다면, 그는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께 신앙고백 할 필요가 있다. 신약에서의 침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에 대한 믿는 자의 대중 신앙고백이다.

교회 지체

교회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교통과 교제이다. 많은 사람이 교회 지체에 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임을 고백한 많은 사람은 어떤 지역 교회와 일체감을 갖거나 헌신적이지 않다.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옳지 않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 교회 내에서 지체가 되기를 자원하였고 얻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들 자신을 공개적으로 동일시 하였고 그들 자신을 헌신하였다(행 9:26; 롬 16:1).

교회 지체는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지역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촉진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과, 상호 가르침 안에서 자원하여 함께 연합되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지체는 침례와 유사하다. 비록 내가 Danville에 이사하기 전에 침례를 받았지만, 내가 Grace Baptist Church에 등록했을 때, 나는 대중 앞에서 이 회중과 그 교리와 나 자신이 하나임을 인정하였다. 나는, “네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역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의 교통은 그들의 영적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는 지식에 있어서 믿는 자의 영적 성장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를 맺고 교통하는데 달려 있다. 믿는 자들은 다른 믿는 자의 교통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격려가 필요하다. 우리는 형제들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배교의 첫 번째 징후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를 무시하는 데서 항상 보게 된다(히 10:24-29). 한 지역의 복음적인 교회 안의 지체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포함된다.

1. 헌신

교회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에 자원한 헌신이다(빌 2:1-4).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 가족이다. 나는 나의 가족에게 헌신한다. 나는 나 자신보다 내 가족을 더 좋아한다. 나는 나 자신의 안녕보다 내 가족의 안녕을 더 추구한다. 나는 나 자신의 행복보다 내 가족의 행복을 더 추구한다. 나는 내 자신의 위안보다 내 가족의 위안을 더 추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의 지체들은 서로에게 헌신한다. 헌신은 신뢰성과 신실함과 충성심이다. 그것은 항상 어떤 정도의 자기부인과 자기희생을 요구한다. 그것은 항상 어떤 수고를 요구한다. 나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가족을 지

탕하며, 내 가족을 돌보며, 내 가족을 좋게 말하고, 내 가족을 높이고, 내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 한다. 내 가족은 나를 의지 할 수 있다. 그것이 헌신이 포함하는 것이다. 교회 지체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헌신을 포함한다.

2.교제

교회 지체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준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쁘는가!” (시 133:1).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교통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마 1:20).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여전히 일곱 황금 촛대 한 가운데에서 거니시며 그분의 교회들에게 그분 자신을 알게 하신다.

복음 안에서 달콤한 연합과 교통을 누리는 복음 교회의 지체들인 그 사람들은 복되다.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연합과 평강의 매임을 열심으로 지키고 고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능케 하실 것을 기도하자 (엡 4:1-6). 이 연합은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감정적인 것도 아니다. 영의 연합, 복음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평강의 매임은 가르침의 연합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한 가르침을 붙잡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성령의 이 연합은 마음의 동의이

다. 하나님으로 난 모든 자는 같은 것을 사랑하며 같은 것을 구한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구원자를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왕국의 유익을 구한다. 성령의 이 연합, 지역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평강의 매임은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에게 기꺼이 순종함을 포함한다(엡 5:18-25). 강하게 연합된 세상의 그 어떤 가족 처럼, 하나님의 가족은 연약하고 죄로 충만한 많은 잘못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은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선호하고, 기쁘게 서로의 요구에 양보한다.

참된 복음 교회는 실제적이고 신실한 사랑의 교통이 있다(엡 4:32-5:1). 교회 지체는 같은 교회에 이름을 등록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헌신이며 그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포함하는 것은.....

3.관심

지역 교회 안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관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전 12:24-27).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관심하고 보살핀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 교회 안에서 서로를 관심하며 도처에 있는 믿는 자들을 관심한다. 교파 조직이나, 성직자 서열의 세력이나, 그 외부의 어떤 집단으로부터의 압력이 없이, 복음 교회는 신실한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세계의 다른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고, 돕고, 지원하고,

고취하기를 추구한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믿는 자의 축복된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장 축복받은 특권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앞에 있는 주의 상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축복하기 위하여 주의 상에 함께 모이는 특권이다.

이것은 비밀에 싸여진 규례가 아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러나 매우 귀하며,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의 그림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며 그것으로 가능한 가장 총명한 정도에까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전 11:23-30).

왜 주의 만찬이 주어졌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것에 대한 상징적 기억이다. 침례처럼, 주의 만찬은 그림 안에서 우리 앞에 복음을 놓는 것이다. 무교병은 그의 몸을 나타내며,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그의 피를 나타낸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희생 위에 붓는 믿음의 그림이다. 주의 만찬은 복음의 선명하고 생생한 선포이다.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요소들은 무엇들인가? 이것이 어떤 것들에 대하여 큰 논쟁거리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논쟁은 일단 그 규

례의 의미가 이해된다면 그만두게 된다. 주의 만찬은 단지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지켜질 수 있다. 왜 그런가?

1. 그리스도의 본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는 희생물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서 떡과 잔을 가져왔다 (창 14:18-20).
2. 원래의 관습과 모든 신약의 교회들 안에서 주의 만찬은 무교병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지켜졌다.
3. 오직 이 요소들, 무교병과 포도주만 우리 구원자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합당하게 묘사될 수 있다.

무교병은 흠 없고, 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나타낸다. 떡을 떼는 것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망 안에 있는 우리 구원자의 몸을 부수는 것을 나타낸다. 포도주는 순수하고, 거룩하며, 죄 없는 임마누엘의 피를 나타내며, 그로 인하여 우리 죄들이 씻겨졌으며 은혜의 언약이 승인되었다. 그 두 가지, 떡과 포도주는 분리된 몸과 피로서 우리 구속자의 분명한 죽음의 의미를 함축한다.

누가 주의 만찬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이 축복된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주의 상에 온다. 주의 상은 주의 자녀들에게 열려있다(행 20:1-7). 주의 상이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녀들은 그것을 받을 것을 그분에 의

해 명령 받았다. 침례처럼,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분은,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다. 신성한 경배의 규례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언제 주의 상이 지켜져야 하는가? 성경은 정해진 시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날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세 가지 사항은 분명하다.

1. 신약에서 그것은 주의 날에 지켜졌다.
2. 주의 만찬이라고 불려졌고 원래도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저녁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그것은 수시로 지켜져야 한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그것은 매주 지켜졌다.

이 거룩한 규례를 지키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가? 많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격이 없음으로 인하여 주의 만찬을 받기를 두려워 하라고 가르침 받아왔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규례에 참여할 만큼 어떤 개인적인 자격을 갖고 있다고 단 한 순간이라도 생각했다면 매우 두려웠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도록 만드는 것과 교회 지체가 우

리가 주의 만찬을 받을 자격이 있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 외 다른 것은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들이, 그들만이 주의 몸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속물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성취하신 구속이 어떠한가를 알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격이 없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 주의 성육신의 필요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성취된 의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으로 인한 공의의 만족을 분별하지 못한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뿐이다. 우리는 그것에 아무 것도 더해서도 제하여서도 안 된다. 우리는 말씀의 모든 훈계에 순종하여야 한다. 우리는 말씀의 모든 선례들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의 각 규례들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할 우리의 책임이며 분명 그분께서 그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주께서 우리가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을 행하기를 결코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 침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믿는 자의 고백이다.
- 교회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과의 교통과 교제이다.

-
- 주의 만찬은 믿는 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된 기억이다.

67. 은혜와 영광

시편 84:11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즉시 천국에 가는가? 무엇이 성도들이 천국에 있게 하는 조건이나 상태인가? 누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근거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 공과에서 대답이 되기를 희망하는 질문들이 있다. 나는 처음부터 이 큰 주제의 걸만 훑는 것보다 더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기업의 광대함을 기다리는 그 영광이 보잘 것 없는 우리의 두뇌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 광년이다. 나는 이 주제를 고갈시키고 싶지 않다. 나는 헛된 의혹이나 억측에 속한 모든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피해왔다. 그것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들의 일부를 제시

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시편 84편은 “행진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명되어 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순례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들로 이 세상 속으로 행진함에 있어서 영감을 받았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임이라.” 시편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가져가 버리고 우리의 주의를 “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자 구원자께 돌이키도록 한다. 우리는 이곳에서의 은혜나 앞으로의 영광 모두를 위하여 어떤 정도든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라. — 우리는 이곳에서의 은혜나 앞으로의 영광 모두를 위하여 어떤 정도든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은혜와 영광의 원천은 주님이다. 은혜와 영광의 보증은 주님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다. 그분께만 은혜와 영광을 구하여야 한다.

은사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 “주다”라는 말은 은혜나 영광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에게 의해서 얻어지거나, 받을 가치가 있거나, 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도 같이, 우리를 은혜의 터전에 놓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사람에게 의해 강요되실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에게 의해 강요되실 수 없다. 은혜와 영광 모두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사이며, 그분께서 하나를 주시는 곳에 분명 다른

것도 주셔야 한다.

불가분의 은사들

은혜와 영광은 불가분의 은사들이다. 그것들은 진실로 같은 것이다. 은혜는 씨 안에 있는 영광이다. 영광은 만개한 은혜이다. 영광은 은혜 가운데 시작된다. 은혜는 영광 가운데 완성된다. 누군가가 말했다. “은혜는 시작된 영광이며, 영광은 완결된 은혜이다. 은혜는 꽃봉오리 안에 있는 영광이며, 영광은 열매 안에 있는 은혜이다. 은혜는 가장 낮은 정도의 영광이며, 영광은 가장 높은 정도의 은혜이다.”

이것은 두 가지의 크고 놀라운 은사들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타락한 아들과 딸들에게 분배하시는 은혜와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것은 은혜이다. 그분께서 주시는 나중 것은 영광이다. 이들 두 가지의 은사는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은혜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 “은혜”라는 그 말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은혜는 그리스도를 희생한 하나님의 풍성들이다. 믿는 자의 생활과 체험과 소망 안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은혜에 속한다. 각각의 믿는 자는 기쁘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

님의 은혜로 인함이다.”라고 고백한다.

“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매일 나는 그럴 수 밖에 없네!
주여, 그 은혜가 족쇄처럼
나의 방황하는 마음을 당신께 묶을 것이라네.”

큰 글씨로 된 이 약속을 상상할 수 있는 기쁨으로 읽자.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그 약속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위대한 여호와, 삼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분 자신의 거절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은혜를 아무 대가 없이 돌이킬 수 없게 주신다.

누구에게?

주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 우리는 그분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안다. 그것은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다.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 받을 것인가? 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롬 9:15-16). 은혜는 하나님께 속해있다. 그것은 은혜를 그분께서 뜻하신 자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특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자로 선택하신 자들이 타락한 사람들의 자손들 가운데 얼마간이 있다(요 15:16; 마 11:25:27).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긍휼

의 그릇이 되도록 택하심의 사랑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이 지나기 전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은 모든 죄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사신 죄인들 각자는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고 은혜를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냥 죽지 않으셨다! 피로 구속하신 모든 자는 용서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엡 1:7; 골 1:14). 그분께서 사신 모든 자는 화해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골 1:20).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저주가 되신 그 모든 자는 대가 없는 의롭게 하심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롬 8:34; 갈 3:13).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죄가 되신 모든 자는 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고후 5:21). 그분께서 대신에 죽은 모든 자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요 10:8, 27).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 가운데 성취하신 구속은 효험 있는 구속이며, 그분의 모든 구속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확실하게 보증하신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자들 중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피로 사신 양떼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몸의 단 한 지체라도 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신부인 교회에서 어떤 부분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대부분 확실하게 은혜를 얻을 것이

다(엡 5:25-27; 요 10:16).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효험 있는 구속하심은 우리를 모든 피조물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고무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택함 받고 피로 사신 바 된 백성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사 53:9-11).

주께서 모든 믿는 죄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며,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자인지 모른다(막 16:16; 요 1:12-13; 3:14, 15, 36; 롬 10:9-13). 실로, 만약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믿은 그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이고 운행하심이다(엡 2:8; 골 2:12).

복음의 길고 짧음은 이것이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의 구원과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죄인은 은혜가 없이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믿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죄인에게 이것이 약속되어 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어떤 은혜인가?

이 은혜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나?

시편 기자는, “주께서 약간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 “은혜들,” 혹은 “어떤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다. 본문은,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이다. 함축된 것은 주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분은 모든 은혜를 주신다. 거듭남의 은혜를(엡 2:1-5), — 의롭게 함의 은혜를 (롬 5:1-11), — 희생하심의 은혜를 (히 10:10-14), — 보존하심의 은혜를 (빌 1:6), — 가르치심의 은혜를 (요 16:7; 애 3:21-26), — 살리시는 은혜를 (사 57:15), — 그리고 총명한 은혜를 (고 12:9) “주께서 주실 것이라.”

“짐이 더 무거워질 때 주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니,
수고가 늘어날 때 주께서 더 많은 힘을 보내신다.
더해진 고통에 주께서 그 긍휼을 더하시나니,
많아진 시험에 주께서 평강을 많게 하셨다.”

어떻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서 명령하신 방법을 사용하심을 통하여 중보자로서 죄인들에게 주신다. 물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죄인들이 그것을 찾기 전에 택하신 죄인들에게 온다(사 65:1).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은혜로 그분을 찾게 된다. 그리고 진실되게 그분을 찾는 모든 자는

그분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렘 29:13-14).

믿는 자들은 주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하여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분은 기도로 구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이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주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제철에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일상이 요구한다면, 그분의 은혜는 주어진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그분의 은혜를 주신다. 그분은 항상 은혜로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신다. “집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땅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너의 날이 요구하면 너의 능력이 항상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을 당신이 뜻하는 대로 폭넓게 보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 인생의 모든 조건과 환경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섬기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고후 12:9).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빌 4:13). 그분은 당신에게 유혹을 견디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고전 10:13).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죽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딤후 4:6-8).

누구인가?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은혜는 하나님만의 은사이다. 당신은 은혜를 당신 자신이나, 교회나, 어떤 가공의 성직자나, 어떤 상상의 제단에서나, 혹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만으로부터 그것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요 1:16-17).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께 매달리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영광

“주께서 영광을 주실 것이라.” 시편 기자는,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 짧은 접속사 “와”는 황금보다 더 귀하다. 그것은 부술 수 없는 대갈못이며, 은혜와 영광을 영원히 연합한다. 대갈못을 빼내려고 결정한 것 같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할 수 없다. 본문은, “주께서 은혜와 지옥파멸을 주실 것이리라,”든지 “은혜와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본문은 은혜가 없는 영광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 당신은 영광이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은혜가 없는 영광을 더 받을 수 없다. 두 가지는 함께 못박혀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묶으신 것은 아무도 조각 낼 수 없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영광도 함께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은 다른 하나 없이 어느 하나만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은혜는 꽃봉오리이다. 영광은 꽃이다. 은혜는 샘이다. 영광은 강이다. 은혜는 첫 열매이다. 영광은 풍성한 추수이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결코 후에 영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의롭게 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영화롭게 되기란 불가능하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당신 속에서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없다. 은혜와 영광은 하나님의 불가분의 은사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니라.”

그가 주실 영광은 무엇인가? 나는 하찮고 세상적인 머리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전 2:9).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이끌릴만한 영광의 어떤 것을 계시하셨다(고전 2:10).

하늘에 속한 영광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은 하늘에 속한 영광이다. 하늘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그곳은 설명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장소이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이 기쁜 상태이다. 어떤 비유의 말로

그것을 표현하더라도²⁰, 어떤 것을 의미하든지 간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신 자들에게 모두 영광의 완전함을 넘치게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당신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영원에 속한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영원에 속한 영광이다. 영원! 누가 그것을 정의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아무도 “영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 낼 수 있는 자는 없다. 우리는 항상 시간과 영원을 혼동한다. 우리는 “영원에 속한 끝없는 세대들”을 말한다. 그러나 영원에는 세대들이 없다. 영원은 결코 멈추거나, 끝에 가까워지거나, 혹은 어떤 결론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에 싫증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영원 안에서 지치지 않을 것이다. 영원은 변하지 않고 끝나지 않는 기쁨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주실 영광은 우리의 증보자이시고, 보증이며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롬

²⁰ 정금 길, 진주 문, 벽옥 성벽, 왕관, 종려나무, 거문고, 찬양, 생명수의 강, 열매맺은 나무, 생명나무,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들이다.

8:17; 요 17:5, 22).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심의 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분이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막 썼던 것에 대한 의미를 실질적인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으로 내 마음은 두근거린다. 아,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광을 아는 것이란! 지금 우리는 유리를 어둠 속에서 들여다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직접 대면하기를 갈망하며, 어둠의 구름이 쓸려나가기로 갈망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늘의 조용한 대기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우신 왕을 볼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승리의 영광

이 영광은 완전한 승리의 영광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복자 그 이상이다(롬 8:32-39).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양의 피로 말미아마,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 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롬 16:20). 사망은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죄가 우리를 더 비탄스럽게 만들지 못할 것이며, 사탄은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본성의 영광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완전한 본성의 영광이다(엡 5:25-

27; 유 24-25). 이것은 예정하심과 택정하심과 구속하심과 거듭나게 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존재하였고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우리는 완전한 본성과 흠 없음과 죄 없음과 타락할 수 없는 것; — 연약함, 질병, 썩어짐과 사망이 없는 몸; — 유혹과 죄와 근심과 고통 받지 않을 혼; — 불신과 비탄과 고통이 없는 마음; —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 뜻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상상해 보라! 영광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본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거룩, 완전한 거룩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완전한 안식의 영광

본문에서 약속된 영광은 완전한 안식의 영광이다(히 4:9-11). 하늘의 영광은 완전한 안식일,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안전의 끝없는 날이 될 것이다.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 소망이나 충만하지 않은 갈망을 갖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능력이 남아짐이 없이 충분히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욕은 죄의 공포와 같은 것이 없이 완전히 용서함을 갖게 될 것이다.” (C. H. Spurgeon). 이것이 안식이다! 이것이 영광이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할 것이며, 우리 구원자께서 뜻하신 것을 행할 것이고, 우리 구원자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할 것이며, 우리 구원자의 영광을 위하여 완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 하고 대가 없으며
풍성한 은혜에 속한 은사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
자신의 공로로 온 훈은 하늘에 없다. 사람의 행위로 받을 왕관은 하
늘에 없다. 구속 받은 자의 노래를 망쳐버릴 자기의 악보는 없다.
영광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언제?

언제 주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실 것인가? 어떤 자는 아주
속히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어떤 자들은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 이곳
에서 우리의 일이 끝나자마자, 더 빨리도 더 늦게도 아닌 때에 “주께
서 영광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더
빨리도 더 늦지도 않은 때에 “주께서 영광을 주실 것이라.” 이 말씀
으로 서로를 위로하도록 하자. —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
라.” 이 곳에서 우리의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광에 비
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롬 8:18).

68.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 는가?

전도서 4:1-2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어 있는 죽은 자들을 더욱 칭송 하였으니.”

지혜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학대”와 이 세상 가운데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과 학대하는 자들의 그 능력과 이 비통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위로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한 후에 말했다.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찬양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비슷한 문장을 본다. —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4:13).

여전히 당신과 내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문하기 위하여 장례식장과 장지를 갈 때, 우리는 비탄과 슬픔으로 가득하다. 왜 그런가? 만약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자가 믿지 않는 자라면, 그 슬픔과 비탄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은 것이다. 만일 우리의 비탄이 친구를 떠나 보내는 비탄이라면, 그것도 역시 이해가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소중한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만약 그 비탄이 소망이 없는 자의 비탄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

신 하나님께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나 심지어 분노는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와 같은 비탄은 무지와 불신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도의 축복받은 상태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약속과 그리스도께서 마치신 역사와 관련한 불신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떠나 보낸 우리 친구들은 살아서 잘 있다. 비록 그들의 몸은 죽었고 이 땅에 누워졌지만, 그들은 그 전보다 더 살아있고 기쁨으로 충만하다.

즉각적인 영광

첫째, 구속 받은 죄인의 혼이, 죽은 즉시 하늘에 들어가고 영원한 기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기를 원한다.

이교도와 이단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 것이 내 의도가 아니다. 사망 후 삶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견해들 때문에 나 자신이 본론을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공과에서 나의 목적은 셋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1.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2.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찾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3.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경이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철저한 단순함으로, 그 어떤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하며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과 나는 불멸의 죽지 않는 혼을 가진 사람들이다. 비록 이 몸은 동물들처럼 이 땅에서 죽고 썩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혼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당신이 죽자마자 당신의 혼은 끝없는 기쁨이나 비참한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람은 개처럼 죽지 않는다. 당신의 개가 죽을 때, 그것이 전부이다. 그 존재가 끝난다. 그러나 당신이 죽을 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당신의 혼은 살아서, 잠자고 무감각하고 비활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의식이 총만한 상태로 살아 있다. 따라서 우리 주께서 이 질문을 역설하신다. —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마태복음 16:26)

구속 받은 자들인, 믿는 자들의 혼들, 그들에게 나누어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의 혼들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의 혼들은 사망 후에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리의 떠나간 형제자매들은 사망 시 그들의 눈이 감기자마자, 영광 안에서 다시 열렸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그들 모두를 그분과 함께 데려 오실 것이며, 먼지로부터 그들의 몸을 일으키실 것이며, 부활의 영광 안에서 그들의 몸과 혼을 다

시 연합시키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직 살아있는 믿는 자들은 그때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고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살전 4:13-18).

나는 사악한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후의 끔찍한 상태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지금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망 가운데 그들의 눈을 감자마자 지옥의 고통 속에서 깨어난다. 아 죄인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 위에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다면, 영원히 저주 받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것은 소망 없이 죽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다르다. 믿는 자는 그가 사망하자마자, 영원히 산다. 그 혼은 즉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거하게 된다(고후 5:1-9).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사망에 대하여 말씀할 때, 항상 하늘에 속한 축복과 영광 안으로 즉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한다. 실제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망은 결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다. 우리 주께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6)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육신의 사망은 혼의 자유이다. 그리고 우리 혼이 죄와 사망에 속한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의로운 자가 세상으로부터 죽을 때 그들은 영원히 위에서 산다(사 57:1-2).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며,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이며, 전가된 의로 의롭게 함과 나누어 받은 의로 인하여 거듭남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의로운 자가 죽을 때, 그들은 마귀로부터 멀리 데려가진다. 그들은 평강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안식한다. 그들의 육신은 무덤 속에 있다. 그들의 혼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식한다(히 4:9-11). 그들은 똑바로 서서 걷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인 것으로 여기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신다. 천국에서, 우리의 떠나온 형제들이 똑바로 흠 없는 순전함과 거룩함 가운데 기쁨과 영광의 빛나는 두루마기를 입고 걷고 있다.

믿는 자가 죽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천사에 이끌려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 끝없는 위로의 거처로 데려가게 된다(눅 16:22-25). “아브라함의 품”은 유대인의 표현으로 사망과 부활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예비된 하늘에 속한 행복한 장소를 가리킨다.

모든 믿는 죄인은 죽자마자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데려가진다(눅 23:43). 낙원은 천국이며, 하나님의 정원이다(계 2:7). 그것은 이 곳에서 순례의 시간 동안 바울이 들림 받아 잠깐 다녀왔던 곳에 있는 삼층천이다(고후 12:2-4). 낙원은 신성한 통치와 행복과 즐거움과 끝없는 기쁨의 장소이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우

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하심을 받기 위하여 죽자마자 가셨던 낙원이 다(히 9:12). 그곳은 확실한 축복의 장소이며,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약속된 장소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오늘 (즉시) 네가 (분명하게) 나와 함께 (끝없이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망은 소득이고, 무한하며 측량할 수 없는 소득이다(빌 1:21, 23). 바울은 그가 이 세상에서 떠나자마자, 그는 곧 복된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그는 죽음을 갈망할만한 것으로 바라 보았다.

사망과 부활 사이에 성도의 생명의 상태는 무엇인가?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만큼은 내가 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혼은 공중을 떠다니지 않고 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장소,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갔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모인다(히 12:22-23). 그들의 혼은 알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눅 16:23; 마 17:3).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망과 부활 사이의 몸을 갖고 있는가? — 물질적인 육체? — 아니다. —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형태, 그들의 혼을 위한 집? — 대부분 그렇다(고후 5:1). 모든 믿는 자는 그가 죽자마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속한 영광 안으로 들어

간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영광과 기쁨의 이 확신이 믿는 자에게 죽음이 갈망할만한 것으로 만든다.

반가운 구조

믿는 자에게 그 육신의 죽음과 혼의 자유함은 반가운 구조이다 (빌 1:21-23; 계 14:13).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만족하기를 구한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믿음 안에서 그분 앞에 삶으로 그분을 영화롭게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생활에 있어 많은 것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우리의 하늘에 속한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가장 최선인 것을 항상 행하신다.

나는 삶에 지쳐있지 않다. 나는 나보다 더 행복하고, 더 평온하며, 축복된 삶을 가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다. 나는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아내와 가족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달콤한 교통 가운데 복음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축복된 특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복음의 전파자라는 명예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리 좋아도, 천국 태생 혼에게는 짐이다. 이 성전 안에서 우리는 신음한다(고후 5:1-4). 우리는 삶으로 인하여 신음한다! 우리의 마음은 울부짖는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 — 이 육신 안에서 우리는 죄와 투쟁한다. 천국에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 육신 안에서 우리는 유혹을 받고 수시로 타락할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결코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며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 이 육신 안에서 우리는 많이 흐느낀다. 천국에서 우리는 결코 흐느끼지 않을 것이다. — 이 육신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갈망한다. 천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 이 육신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린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많은 친구가 천국에 있다. 나는 그들을 그리워 한다. 나는 그들로 인하여 비통해하지 않고, 오히려, 아 그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독수리가 철창 안에서 행복할 때, 양이 한 무리의 늑대들 사이에서 행복할 때, 물고기가 마른 땅 위에서 행복할 때, 그 때, 그 때가 되기 전에, 내 혼은 육신의 이 몸 안에서 행복할 것이다! 이 사람을 위한 사망이 반가운 구원이 될 것이다.

실제 처소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자마자 천국으로 들어가고, 따라서 믿는 자의 죽음은 반가운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 주었다. 우리의 먼저 떠난 친구들이 천국에 갔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 주었다. 그들은 지옥에 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잠들은 것이 아니다. 우리를 떠난 친구들은 천국에 있다. 그러나 어디가 천국인가? 그것이 내가 대답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 말씀해주시지 않았다. 천국은 이 세상 밖에 어딘가에 있고, 시간 밖의 어떤 곳에 있는 한 처소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처소, 실제적인 처소이다.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처소이다. 천국은 우리를 데려가시기로 약속하신 그 처소이다(요 14:1-3). 천국은 떠난 우리 친구들이 바로 지금 있는 그 처소이다(히 12:22-23). 고린도후서 5:1-8을 읽어보라. 이 여덟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는 자의 죽음과 천국에 들어감에 관하여 네 가지를 말하고 있다.

1. 사망은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분리이다. 이 육신은 땅에 속한 것이다. 이 육신은 오직 땅에만 적합한 것이다. 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 육신의 분리는 비탄의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발을 아프게 하는 신을 벗어버리는 것, 즉 반가운 구조일 것이다! 그것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도구를 내려놓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그것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텐트를 철거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2.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의 혼을 위한 다른 집을 가질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과 집과 거처가 있다.” 우리의 하늘의 집은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집, 우리의 영광스러운 생명에 적합한 집일 것이다.
3. 이 땅에 속한 성전을 떠나가게 되자마자,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예비해두신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시간의 지체가 없을 것이며, 이 육신으로부터 떠나는 것과 우리가 영광 안에 있는 우리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사이에 지체가 없다.

4. 이것은 억측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성의 문제이다. 바울은, “우리는 안다.”고 말한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정직하심 (5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7절)으로 이것들을 안다.

믿는 자가 죽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우리의 죽은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천국에 갔다. 그들은 집으로 갔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하여 갔다!

하늘에 속한 일

하나님의 성도들은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성도들의 천국에서의 일과 관련하여 조금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다섯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되었다.

1.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있다(계 5:11-12; 7:11-12). 저 멀리, 영광의 땅에 구속 받은 죄인들과,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거룩하며,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언약의 선하

심과, 구원하시는 은혜와, 변치 않는 신실하심과,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 삼일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2.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을 기쁨으로 행한다(요 17:24). 아, 내 영혼아, 우리 구속자의 영광을 바라봄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더 알게 되면서 그분이 계신 그대로 영원히 바라보게 될 것이다. 천국은 무궁화가 만발한 하나님의 정원이다. 그리고 그 향기가 온 천지를 덮는 곳이다. 천국은 그리스도를 영원히 바라보며,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결코 그러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3.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든 영적 은혜를 지속적으로 행함의 임무를 띠고 있다. 믿음은 이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친다. 소망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총만된 소망을 가졌으므로 이제는 없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는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한다.
4.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끝없이 섬기는 일을 한다(계 7:14-15). 그들은 기도하는 것에 참여하고 있다(계 6:10). 그들은 은혜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구속하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의롭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보전하심을 축하하는 찬양을

드린다.

5.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서로와 거룩한 천사들과 지속적이고 방해 받지 않는 교통과 교제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을 성도들과 천사들의 대화가 무엇인지 상상을 시작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 그들은 계속하여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하고 대가 없는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하라. 천국에 가 있는 자들에 대하여 안심하라. 우리의 지치고 고난투성이의 삶이 곧 끝날 것임을 확신하라. 그것은 잘 끝날 것이다(고후 4:17-5:1).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속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대부분의 연약한 믿는 자가 육신의 타락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영광 안으로의 죽음을 통하여 쉽고 승리에 찬 변화를 줄 것이다(출 15:16-18).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마지막 일은 그 위대함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육신은 고통으로 몸부림 칠 것이며, 육체적인 무의식이 임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많은 영적 사투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 우리의 혼이 육신의 이 몸에서 자유롭게 되면, 우리는 이 죽을 상태에서 결코 갖지도 가질 수도 없었던 우리의 축복된 구원자를 보고 느끼고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행 7:55).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어 있는 죽은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전도서 4:1-2).

69.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마가복음 13:34-37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한다. 곧, 갈보리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사망에서 일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셨고, 찬양받으신 하나님-사람, 우리 주와 왕

이신 그 한 분께서 그분의 영광의 광채 안에서, 그분의 모든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그 완결된 영광에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옮기시며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타나실지 아무도 모르며 알 수도 없을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감추셨다. 아무도 정확한 시나, 날이나, 심지어 정확한 천 년을 알지도 알 수도 없다! 그렇지 않는 척하는 자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그 문제를 캐내려 한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마귀이다(마 24:36; 막 13:32; 살전 5:1; 행 1:7).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계시된 그것들을 우리는 알기를 추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집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그분의 교회와 왕국을 사람의 집에 비유하신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딤후 3:14-16). 모든 참된 복음 교회는 특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모인 몸에 대한 어떤 거의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 그 안에서 주 하나님께서 참되게 경배 받으시는 각 지역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거처이고 성전이 된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지역 교회를 “하나님의 집.....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2:22에서, 우리는 지역 교회, 각

참된 복음 교회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처소”임을 본다. 고린도전서 3:16에서는 어떤 주어진 장소에서 모이는 성도들에 관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8:20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라고 약속하신다. 이 예화에서 (막 13:34) 우리 구원자는 이 땅의 교회를 그분 자신의 집으로, 그분의 특별한 거처로 말씀하신다. —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교회는 반석이신 그분 위에 세워졌으므로 그분의 집이라고 불려진다. 그 기초 위에 놓인 건물의 각각의 돌처럼, 각기 믿는 자도 그리스도 위에만 놓여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위에 건축되는, 우리 혼의 확실한 기초인 반석이시다. 그는 “이스라엘의 반석”이다(창 49:24; 사 28:16; 행 4:11-12; 롬 9:33; 엡 2:20; 벰전 2:6-8). 만약 그것이 기초로 있지 않다면, 집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심판의 홍수와 재난의 바람이 그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로 쓸려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분께 뿌리를 박았으며, 그분을 기초로 하였고, 그분 위에 건축된다.

우리 주는 그분만이 그분의 집의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그분의 집이라고 의롭게 부르신다.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신실한 사람들은 더욱 아니며, 현대 종교의 위안과 계략과 속임수와 얼빠진 짓으로 세워진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스도만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신다(마 16:18). 건물의 각각의 돌은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그곳에 놓여졌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채석장에서 각각의 돌을 가져오셨다. 당신이 잘려진 그 바위를 보라, 그리고 패인 곳에 구멍이 있는 것을 보라. 우리는 모두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경건함이 없는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마치 채석장에 있는 바위가 단단히 박혀 있는 것처럼 박혀 있었다. 오직 전능하신 구원자의 손으로만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파내실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성의 구덩이로부터 각각의 돌을 파내서 기초 위에 놓으셨다. 일단 돌이 채석장에서 캐내지면, 그 스스로 들 수 없다. 옮겨질 필요가 있고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세울 수 없다. 우리는 그분 위에 건축되어야 한다. 쪼개진 돌은 위대한 주 건축장의 어깨로 옮겨져서, 은혜의 영원한 청사진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정된 장소에 놓여져야 한다. 그분의 집인 이 건물에 있는 각각의 돌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쪼개지고, 옮겨지고, 제자리에 놓여졌다. 이 집은 그분이 돌 하나 하나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 그분의 집이라고 부른다.

교회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의 집이다. 그분의 손으로 직접 그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혈로 사셨다(행 20:28).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합법적으로 사셨으며,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신성한 공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교회를 특별히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사셨다(엡 5:25). 그리고 우리 주께서 교회를 사심은 그 영원한 영광을 효험 있게 보증한다(엡 5:26-27).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가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의 집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의 가족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그의 가정이다. 어머니와 자매, 그리고 형제가 거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그의 가정이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집임에 분명한데, 그의 손을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뻗었으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마 12:50)고 하셨기 때문이다.

긴 여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도 같다(34절). 이 땅의 교회가 비록 그분의 집이고,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거하시지만, 우리 구원자는 육체적으로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일어나셨고, 승천하셨으며, 높여지셨으며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셨다.

그분은 우리 이름 가운데,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늘의 소유를 취하러 가셨다(히 6:20). 어떤 사람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소유를 사러 타국으로 갈 때, 그는 재산의 소유를 취하기 위하여 그의 가족에 앞서 먼 여행을 간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사시기 위하여 사셨으며, 죽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 소유를 취하기 위하여 하늘로 들어가셨다(히 9:12).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보증으로서 신뢰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만약 그렇다면, 천국은 이미 당신의 소유이다. 당신은 이미 당신 손에 그 재산 증서를 쥐고 있다. 당신은 그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으며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거기에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의 소유권을 취하셨다.

내 형제 자매여, 멀리 떨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땅에 계신 당신의 보증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1)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예정하심(엡 1:11)으로, 법적 구매로(히 9:12), 대리인에 의해서(히 6:20), 그리고 신성한 담보로(엡 1:11-14; 4:30)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시기 위하여, 보좌에서 우리의 사건을 변론하기 위하여 하늘로 가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잃어버린 양 떼와 그분의 가난한 가족을 위하여 중재하시기 위하여 가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은혜의 모든 축복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가셨다. 그분은 모든 하늘 위 멀리로 가셨는데,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보물을 내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죄짓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하기 위하여 영광 속으로 가셨다(요일 2:1-2).

우리 구원자는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셨다.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은,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하나난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계신다. 그곳에 우리는 곧 있게 될 것이다. 그곳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거처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의 종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땅 위에 남겨두심은, 그분의 종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집과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기 위함이다(34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그분의 종이다. 각각이 이 세상에 보내졌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두신 그 곳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보내졌다. —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목사와 장로와 선교사들(그들을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종들이며, 그들에게 지정된 그들의 일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집의 문을 가난하고 빈곤한 죄인들에게 열어 그들에게 “들어와라”고 부르는 문지기들이다. 그들은 또한 복음의 청지기들이고(고후 4:1-7), 그 집의 보화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자들이다.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은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는 자들이다(렘 3:15). 하나님의 집 위에 둔 그 사람들은 또한 파수꾼으로 시온의 벽 위에 둔 사람들이다(겔 33:1-11).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들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관중들의 경기가 아니다! 우리 본문을 보라. — “각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다.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우리 일이 있다. 나는 내게 지정된 내 일이 있다. 당신은 당신에게 지정된 당신의 일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게 하자.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그분은,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셨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당신의 모든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라.

당신 자신의 일을 지속하기를 배워라. 우리 각자는 할당된 자신만의 특정한 일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그분이 부르셨던 같은 부르심 가운데 거하도록 하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할 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이 내게 주신 기회와 할 능력이 해야 할 나의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지금 있는 곳에서 그분을 위하여 할 당신의 일이 있다. 가난과 병과 큰 시험의 시간 가운데 일지라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종이나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그분을 위해서 할 당신의 일이 있다. 가장 작게 반짝이는 별은 한낮의 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당신이 있는 곳에서 그를 섬기라. 그것이 당신의 섬김의 위치이다.

주께서 오심

우리의 복된 주께서 다시 오고 계시며, 우리는 그 때를 모른다. 주 예수 께서는, “주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주가 온다.” “보라, 그가 온다!”라고 선포하신다. 우리 주는 지금 오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35,36절).

그렇다, 우리 구속자께서 다시 오고 계신다. 성경 전체는 이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 집의 주인은 오랜 동안 여행을 떠났지만, 돌아올 것이다. 우리 주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 하늘에 오르셨을 때, 구름이 그들의 시야로부터 그분을 받았다. 그들이 승천하시는 주를 바라보았을 때,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천사가 이르되,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다(행 1:11). 그분은 구름 속으로 올라 가셨다. 그분은 구름 속에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알리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실 것이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은 “그 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눅 21:35-36) 올 것이다. —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살전 5:2) — “집 주인이 어느 때에 올

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막 13:35)

그분의 오심은 갑작스러울 것이며, 세상에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갑자기 오실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마 24:44)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 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막 13:35). 그러나 약속된 시간에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37절). 복음 전파자는 깨어 있어야 한다. 각자는 그 자신의 혼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는 신성한 섭리로 그분의 돌보심에 위임된 그 혼들을 지켜야 한다. 각각의 믿는 자는 또한 그 자신의 혼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가볍게 읽지 말라. — “깨어 있으라!” — 죄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 — 나태함과 냉담함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 — 불신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 — 세상적임 — 세상을 사랑함 — 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 — 그리스도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표적들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자를 바라보라. 그분을 섬기는 것을 당신의 일로 하려 할 때, 그분의 나타나심에 대한 복된 기대 속에서 믿음의 조심스러움으로 그렇게 행하라. —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딤후 2:13).

만약 아직도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이 글을 읽는다면, 주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서 울리도록 하라. — “깨어 있으라!” 아, 그리스도가 없는 혼들이여, 그대의 사건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사망이 당신을 갑자기 영원으로 데려갈지도 모른다! 얼마나 갑자기 그것이 자주 있는지. 회개할 시간이나, 기도하기 위하여 숨쉴 공간 조차도 없을지 모른다! 심판 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전히 더 갑작스러울 것이다. 당신은 그 날이나 시간을 알지 못한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 — 그리스도가 없다! — 속죄가 없다! — 의가 없다! — 평강이 없다!

— 소망이 없다! 아, 주의 격노한 분노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70. 예수께서 오시는 때

데살로니가전서 4:13-18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 축복된 사실을 붙잡고 그것을 깨달음과 확신 가운데 걸어가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그분의 백성

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치욕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그분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그분의 백성을 음부로부터 부활케 하며 그 땅 위에서 통치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은 우리 주께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 주어졌다. —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우리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딤후 2:13)에 대한 “확신”을 “바라고” 있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신 것을 들춰내려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의 왕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하여 계시된 것이 많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길 원한다.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다섯 가지 사실들이 여기 있다.

1. 우리 주께서 어느 순간에도 나타나실 수 있다(계 1:7).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그 시간은 가까이에 있다.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눅 21:28). 실로 성경의 뜻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속자가 현재 오고 계신다. 그는 지

금 오시는 중이다. 우리는 순간 순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
나실 기대 가운데 살아야 한다.

2. 우리 주께서 능력과 위대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살후 1:7-10). 성경은 이제 우리 주께서 교회가 들림 받게 하기 위하여 비밀스럽게 오심과 칠 년 후 심판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재림은 극적인 것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3. 우리 주께서는 실제 몸으로 오실 것이다(계1:7). 나는 그분의 몸의 영광이 어떤 것일지 말하려 하지 않겠지만, 두 가지는 분명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와 같은 몸인 물질적인 몸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몸은 매우 영광스럽고, 매우 빛나며, 매우 눈부실 것이므로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들이 그를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분 앞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4.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강력한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요 5:28-29). 그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가 없이 의롭게 된 자들인, 의로운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멸과 생명과 영원한 영광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육신의 몸은

흙으로부터 모아질 것이며, 그 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욘 19:25-27).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는 자들인, 불의한 자의 부활도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와 불신자도 또한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몸이 불멸하게 되며 그들의 혼과 결합하게 되어,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견뎌야 할 것이다.

5.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서, 이 세상은 파괴될 것이며 그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벧후 3:10-14; 롬 8:18-23). 하나님의 성도들은 공중에서 염소들처럼 떠다니며 영원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몸 안에서, 우리는 새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천국은 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의가 이곳을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낙원, 천국의 성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곳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두 번째 오심에 대한 가르침과 확신의 어떤 분명하고 간단하며 이해하기 쉬운 말들로 계속되는 모든 세대들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과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것을 계시 받았다. 데살로니가 전서 4:13-18은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복된 소망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다.

데살로니가는 크고 번창하는 상업 도시였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난 후 이 도시로 왔으며, 약 3 주를 머물며 안식일마다 설교 했다. 그 곳에서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어떤 유대인들과 많은 수의 이방인과 많은 여인이 회심하였다. 새로 회심한 자들의 이 무리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복음 교회의 시작이었다. 이들이 바울이 그의 이와 같은 첫 번째 계시의 편지를 보낸 자들이었다.

그 성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성공으로 매우 당황하여 성난 군중들을 일으켰고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의 집을 공격하였다. 바울과 실라는 밤에 탈출하였으며 베레아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그들은 아덴으로 왔다. 그러나 이 어린 교회의 안녕을 위하여 염려하였으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내어, 하나님의 성도들을 강하게 하여 건축하고 위로하도록 하였다. 그는 이 서신을 써서 그곳의 교회에 보냈으며, 고통과 고난들 가운데 그들을 격려하기를 소망하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복음의 규례 안에서 굳게 설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여기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있는 믿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다섯 가지 위로의 말씀이 있다. 우리의 신성한 위로자는 우리의 죽은 친구들 (13-15절), 우리 주의 다시 오심 (16절), 살아 있는 성도들 (17절), 우리의 영광스러운 재회 (17절), 그리고 우리의 최종 위치 (17절) 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기서 주고 계시다.

우리의 죽은 친구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죽은 친구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받았다 (13-16절). —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장례식장에 모두 있었다. 우리는 많은 수를 묘지로 데려갔다. 우리 모두는 믿음 가운데 죽은 많은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바울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우리에게서 데려간 자들에 대한 비탄 속에 있지 말 것을 훈계한다.

질문할 필요 없이, 사랑하는 자가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될 때 비통함이 있다. 믿는 자들은 느낌이 없는 스토아파들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떠난 자가 믿는 이라면, 그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그들이 소망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 가운데나, 비통함이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서 떠나간 자들에 대하여

무지하지 말라.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품에서 단지 잠들은 것이다(요 11:13; 행 7:54-60). 그것보다 무엇이 더 위로함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잠드는 그것은 실로 축복된 것이며, 갈망되는 것이다. 그것은 믿는 자가 오랜 시간 기다렸던 주와 함께하는 안식일이며, 그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계 14:13).

이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이해하라. 음부 속에서 잠든 것은 오직 몸뿐이다. 혼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사망 시에 혼은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활동 상태로 들어간다. 혼이 잠드는 것과 같은 것은 없다. 육신의 죽음에 즉각적으로 혼은 임시 상태, 중간 몸, 즉 혼이 사망과 부활 사이에 사는 상태로 들어간다(고후 5:1-10; 눅 16:31). 하나님의 자녀들은 즉시 하늘의 낙원 속으로 들어간다(눅 23:43; 빌 1:21-23; 계 7:15-17). 믿지 않는 자는 즉시 지옥으로 들어간다(눅 16:22-23).

하나님의 택정을 입은 자들 중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데려 가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까지 사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구원자께서 그들을 그분 자신에게 데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났다. 그들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으며, 생명나무를 먹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샘을 마시고 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여야 하는가?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의 육신은 무덤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그들이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할 것이다(실로 다만 찰라이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기다림이지만, 우리는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15-16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자신 있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가르치시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백성의 부활을 보증하였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째 열매라고 부르며, 죽은 자로부터 처음 난 자이다. 만약 그가 첫 번째라면, 적어도 두 번째 자가 있음이 확실하다. 몸의 부활은 우리가 소망하는 바 그것이다(고전 15:17-23; 52-54).

비록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날처럼 구약의 교회 가운데 아주 밝지는 않았으나,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조차 분명하게 계시되었다(시 16:9-11; 17:15; 73:24). 현자는,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잠 14:32). 이것이 내가 말하는 바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으로서 일어나셨고, 그가 확실하게 올라가신 것처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도 사망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골 3:1-4)

우리 주의 다시 오심

둘째,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하여 위로의 말을 우리에게 준다(16절). —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우리가 참여하는 복된 소망이다.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는 한 번 오셨으며 멸시 받으시고 사람에게 거절당하셨다. 그는 한 번 치욕과 비통함 가운데 고통 받고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통치하는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고 계신다. 이 땅 가운데, 전쟁으로 싸우고 승리자가 이겼던 곳에서, 왕이신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셔야 한다.

우리 위대한 왕께서는 승리와 정복의 호령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나팔소리가 위대한 왕의 오심을 알릴 것이다.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희년의 위대한 해를 소리 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 하다!) 나팔소리가 우리 왕의 위대한 정복을 알릴 것이다. 사망은 승리 안으로 삼켜져 버릴 것이다. 사탄은 불뭇으로 던져질 것이다. 모든 대적들은 그분의 능력의 몽둥이로 부서질 것이며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소멸될 것이다.

우리 주의 오심은 공개적이고, 가시적이며,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울려 퍼지는 소리가 우주를 통과할 것이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모두가 세상의 사방에서 그분께로 모여 들게 될 것이다. 악한 자는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할 것이며, 성도들은 기뻐할 것이다(살후 1:7-10).

이 위대한 날-우리 주, 우리 구속자가 다시 오시는 날-의 참여함에 소망과 기쁨으로 마음과 머리를 들어라! 그분은 그의 신부를 위해서 오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 오고 계신다. 그분은 곧 이제 오고 계신다! 그리스도, 곧 언약 가운데 나의 보증으로서 계셨던 그분이다! — 완전한 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사셨던 분이다! — 갈보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다! —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오고 계신다!

살아있는 성도들

여기 살아 있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있다(17절). —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다 변화되리라.” (고전 15:51). 이 땅에 살아 있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한 순간에, 눈 깜짝 할 사이에, 우리 모두는 들려 올라가서 변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엘리야처럼, 우

리는 완전한 행렬 안에서 영광 안으로 쏠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오늘 일어날 수 있다. 복된 생각이다! 복된 소망이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재회

넷째로, 여기 우리의 영광스러운 재회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있다(17절). —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공중은 성경 안에서 사단의 능력의 영역으로 언급된다. 그는 “공중 권세의 왕자”로 불린다.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자들의 변화와 재회는 사단의 영역의 중심 안에서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죽음 당한 어린양과 그의 택하신 많은 무리 가운데 모든 자는 승리할 것이며 사탄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패배당할 것이다. 그렇다, 지옥의 친구들은 짧은 기간 동안 패배 되어야 하지만, 그의 날들은 계수된다. 곧, 왕이신 예수께서 불못 한가운데로 옛 뱀을 던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영광스러운 재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는 연합될 것이다. 이것은 일들의 순서가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

1.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2.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3. 산 자들이 주를 만나기 위하여 위로 올려질 것이다.

4. 세상이 파괴되고 재창조될 것이다.

5.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여기서 번역된 말씀인, “만나다(meet)”는 단지 신약에서만 네 번 사용되고 있다(마 25:1, 6; 행 28:15). 그 말은 언제나 친구들의 재회에 적용되고 있다. 예전의 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 말의 용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왕이 성에 들어갈 때 귀족들이 그를 만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범죄자들은 갇힌 곳에서 그들의 심판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에 오는 것은 이런 방법 안에서 이다(계 21:1-5).

그 복된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혼의 고통을 보게 되실 것이며 만족하실 것이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분께 드러진 모든 자는, 갈보리에서 그분에 의해 구속 받았으며, 그분의 영에 의해 부름 받았고, 이 이천 년 동안 그가 행하신 중보를 받은 자들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곳에는 한 무리의 양떼와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일 것이다(요 10:16).

우리의 마지막 위치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마지막 위치에 대하여 위로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17절). —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라.” (계 22:3-5).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속 받았다. 우리는 그분 처럼 될 것이다(요일 3:2).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으며, 그분의 종보의 일이 완료되면 그분의 모든 택하신 자들은 구원 받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이 계신 곳에서 그분 자신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도 또한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의 위대한 기도가 응답 받을 것이다(요 17:24). 땅의 가장 큰 축복은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늘의 가장 큰 존귀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되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18절).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다.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우리를 떠난 친구들은 안전하다. 우리의 승천하신 주께서 다시 오고 계신다. 우리는 곧 변화 받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전 가족이 연합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71. 하늘 가운데 보상의 등급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21:4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하늘 가운데 보상의 등급이 있을까?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논쟁이 되어 왔던 것을 둘러싼 질문이다. 다른 분야에서 교리가 철저하게 성경적이었던 많은 사람이 보상에 대하여 심각한 오류 가운데 있어 왔다. 나는 이 짧은 공과에서 이 질문을 둘러싼 논쟁을 진정시키지 않을 것으로 안다. 그것은 내 목적이 아니다. 내 책임은 건전한 교리가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세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엡 4:14).

이 질문이 진정되어야 하는 문제는 매우 분명하다. —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인가, 아닌가? 만약, 성경이 도처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모두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이고, 우리의 행위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오직 그 구원의 성취라

면, 하늘에서 보상의 등급은 있을 수 없다.²¹

물을 필요도 없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 구원의 어떤 부분도, 어떤 정도이든 사람의 의지나 가치나 행위에 기여하지 않는다(딤후 1:9; 엡 2:8-9; 롬 11:6). 하늘에 속한 보상의 등급을 구원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늘에 속한 보상의 등급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쉬울 수 있다. 그러나 하늘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기업은 오직 구원의 성취이며, 따라서 하늘에서의 보상의 등급이 있다는 교리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또 다른 교묘한 방법이다! 구원과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리

하늘의 보상 등급을 가르치는 자들의 교리는 무엇인가? 하늘의 보상 등급이 있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교리는 같다. 나는 다른 자들이 말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선도적 지지자들의 어떤 사람의 말 가운데 있는 교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이다.

²¹ 구원은 죄인을 타락의 파멸들로부터 하늘의 영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그 모든 것이다.

“보상은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 이후 행해진 신실한 섬김을 기본으로 제공된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 받은 자의 신실한 섬김에 대한 보상을 주심은 성경으로부터 분명하다. 흔히 신학적으로 구원과 보상이 혼동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항목은 조심스럽게 구별되어야 한다. 구원은 대가 없는 선물이고 (요 4:10; 롬 6:23; 엡 2:8-9), 반면에 보상은 행위에 의해 얻는 것이다(마 10:42; 눅 19:17; 고전 9:24-25; 딤후 4:7-8). 보상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베풀어진다(고후 5:10; 롬 14:10). 보상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성한 은혜에 근거하여 구원 받은 혼은, 믿는 자의 편에 공로가 쌓일 여지가 전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그분 편에 있는 책무를 인지하신다. 아무것도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행위는 있을 수 없지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한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보상으로 그분의 위대한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인식하신다.” (Merrill F. Unger)

Mr. Unger가 천명한 바처럼, 하늘 보상의 등급이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 안에는 다섯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1. 구원은 회심에 있어서 최초의 체험에 한정된다. —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구원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결코 구별하지 않는다(마 10:22; 롬 8:28-30; 13:11; 고

후 2:10; 딤후 1:9; 벵전 2:4).

2.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 우리 주의 말씀에 이보다 더 상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눅 14:25-33을 보라). 그의 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함 가운데 살지 않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없다. 믿는 자들은 항상 신실하게 행동하지 않지만, 그들은 모두 신실하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성도(거룩하게 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 가운데 계수되는 자가 되는 것이다(엡 1:1).

3.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보상을 주실 책임 하에 하나님을 둔다. — 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말인가! 죄로 총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기란 불가능하지 않은가? 사소한 자가 전능하신 분을 강요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빛진 자들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채무자이지도 않고, 채무자가 되게 할 수도 없다!²²

4. 두 번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하나는 믿는 자들에 대한 날이며,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날이다. — 하나님의 말

²² 독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 “내가 전에 행했던 것, 생각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치조차 있는 것인가?” —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겸손하게 깨달은 것처럼, 만약 죄가 우리의 어둠함과 행하는 모든 것과 뒤섞인 것이며(요일 1:8-10) 우리의 바로 그 의가 무함히 거룩하신 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들이라면(사 64:6), 분명히 행위에 속한 것들로는 전능하신 분께 “강요” 할 수 없다.

씀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은 비밀스럽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혹은 두 번의 구별된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이라든지, 혹은 두 번의 다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어떤 암시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꾸며낸 말들은 그들의 신학적 체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는 시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발명에 지나지 않는다.

5. 믿는 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고통 받아야 한다!

— 하늘 보상의 등급에 대한 교리는 뻔뻔스럽게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겪으시고 그가 죄들을 없애 준 자들이 여전히 하늘에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도 고통을 받을 것이며, 더 큰 정도의 영광을 받은 자들, 곧 그들의 큰 선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기업을 주시도록 한 자들이 보는 앞에서 찢찢매매 하늘의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고통 받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주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죄로 인하여 책망하시지 않을 것을 선포하신다(롬 4:8; 8:32-34). 하늘 보상 등급에 대한 교리는 연옥에 대한 개신교 판에 지나지 않는다. 하늘에 속한 영광은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다.

영향

그런 교리는 피할 수 없는 영향이 없을 수 없다. 하늘 보상 등급

의 교리가 받아들여진다면 하늘의 영광은 은혜에 속한 보상이 아니라, 빛을 지불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하늘은 성경에서 말해진 바와 같이 순수한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과 비통함이 뒤섞인 곳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계 7:15-17; 21:1-5; 22:2-5). 만약 보상 등급의 교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신성한 계시의 가장 평범한 선포에 반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걸어갈 것들로부터 어떤 선한 것들을 억제하시고, 어떤 악이 공의 위를 덮을 것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시 84:11; 잠 12:21). 다시 말해서, 만약 하늘 보상 등급의 교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성경의 보편적 가르침, 즉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는 가르침에 반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하나님이 좋아하는 어떤 부분,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하고, —구원은 부분적으로 행위의 문제이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은사로 인함이 아니다. 이런 결론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심각한 모독인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하늘 보상 등급의 교리를 용인한다면, 그것들은 용납되어야 한다.

왜 이 문제가 그렇게 독단적으로 천명되고 있는가? 왜 내가 이것을 그렇게 꼭 집어서 다루었는가? 그것은 거의 혹은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릴 수도 있었다. 있다 해도 거의 아무도 그것을 생략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 내 결정의 다섯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

1.하늘 보상등급의 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초 되지 않았다. 단 한 단락도 하늘에서 어떤 성도들은 더 많이 받고 어떤 자들은 덜 받는다고 조금이라도 귀땀을 하는 이 교리를 지지하는 부분을 가리키지 않았다. 성경에서 언급된 왕관 가운데 단 하나도 어떤 특정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하지 않는다. 보좌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똑 같은 황금왕관을 받으며, 어린 양의 발 앞에 그 왕관을 기뻐하며 던질 것이다(계 4:10).

2.그것은 성경의 분명한 선포에 완전히 반대가 된다. 여기에 성경의 여덟 구절들이 있는데, 설명은 하지 않았고, 그 말씀들은 하늘 보상 등급의 어리석은 교리를 완전히 무효화 하는 구절들이다.

마태복음 20:1-6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2) 그가 하루에 일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 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세 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놓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5) 다시 그가 여섯 시와 아홉 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6) 또 열한 시쯤에 나가서 놓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놓고 서 있느냐? 하매 (7) 그들이 그

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8)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9) 열한 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일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10)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일 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11)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12)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13) 그가 그들 중의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일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네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15)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하므로 네 눈이 악하냐? (16)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8:17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29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에베소서 5:25-27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6)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27)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 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1-2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유다서 1:24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거룩함의 등급이나, 온전함의 등급이나, 무오함의 등급이나, 영화롭게 됨의 등급이 있을 수 있는가? 터무니 없다!

3.보상, 개인적 순종에 의해 받는 하늘에 속한 보상의 등급 교리는 그리스도를 섬김을 법적이고 보수를 바라는 것으로 만든다.

그런 교리는 교만을 야기시킨다. 만약 한 사람이 그의 행위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왕관이나, 더 높은 지위를 받거나,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는 바지 멜빵을 튕기면서, 하늘에서 서성거리며, 새 예루살렘의 뒷골목 빈민가에 살고 있을 불쌍하고 왕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신 앞에서 굽실거리게 만들 모든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 교리가 교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판을 위협한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우리가 기대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터전 위에 두기 위한 시도를 하며, 보상을 잃을 것과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위협할 것이다. 이 가공 할만한 교리는 심판의 험박과 보상의 약속으로 순종과 신실함을 고무하며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피고용인으로 만들 것이다. 나는 신약 안에서 구속 받

은 성도들을 향한 그와 같은 기초적이고 육신적인 위협의 단적인 예를 누구나 발견하게 되기를 권유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추측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대한 그 사랑과 그들의 마음의 염려로 동기를 부여 받지 못하고, 계시를 받지 못하고 통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리는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만큼 무례하다.

4. 하늘에서 받은 보상의 이 기초적이고 육신적인 교리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앗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 위한 인간 육신의 공간을 만든다.

만약 당신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도록 강요하도록 무언가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자랑할 권리를 갖게 된다. 만약 우리가 영광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표준을 자랑함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

5. 영광 안에서 등급의 교리는 그것에 대한 행위의 추악한 냄새를 갖고 있으며, 은혜의 왕국 안에서는 행위를 위한 여지가 없다. — 영광의 하나님께서 깎은 돌로 만든 제단 위에서는 경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출 20:25).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세운 제단 위에서 경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곧고 좁은 길 안에는 행위의 여행 가방을 위한

공간이 없다.

하나의 말씀

보상 등급의 교리를 파괴하는 동시에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영원히 충만한 모든 믿는 자를 확증하는 성경의 한 말씀이 있다. 내가 가리키는 그 말씀은 계시록 21:4이다. —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질문할 필요도 없이, 하늘로 가는 길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고통이나 슬픔에서가 아니라, 모든 저주와 정죄로부터 구출한다.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많이 있다. 세상은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비탄의 세상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가정 문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별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 땅에 속한 슬픔에 더하여, 세상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하여, 우리 눈에 눈물을 맺게 하는 많은 것이 있다. 우리는 내적 죄와 불신으로 지속적으로 분투한다. 우리 혼 안에는 전쟁이 있는데, 육과 영 사이의 전쟁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한 순간의 휴전도 결코 없을 전쟁이다.

요르단 강의 저편에서 마르게 될 우리가 여기서 흘렸던 소중한 눈물도 있다. 여기에 우리는 회개의 쓰디쓴 눈물을 흘렸지만, 영광 안에서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정하며 종종 눈물을 흘리지만, 영원 안에서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염려로 눈물을 흘리지만, 하늘에서가 아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명백한 임재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눈물로 인하여 눈이 붓지만, 우리의 기업의 땅에서가 아니다!

지금조차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더 마르게 하신다. 믿는 자의 생명은 우울하고, 슬픔으로 가득한 존재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슬픔들을 분명 갖고 있다. 하지만, 슬픔의 한 가운데에서조차도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신다(43:1-6). 우리의 날들이 요구하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자 은혜를 충분하게 주신다. —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정도 그분의 뜻에 포기함을 주신다. — 그분은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 —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 — 그분은 그분의 약속들을 기억하도록 하신다. — 그분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흥수지게 하신다(엡 3:19). — 그분은 그분의 임재를 인지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그분의 불의한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다(히 12:5-12). — 그리고 그

분은 우리의 마음을 더 나은 것들에 고정시키도록 하신다(골 3:1-3; 고후 4:15-18).

하지만,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실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기에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그 때가 오고 있고, 눈물 흘릴 이유가 더 없을 때가 오고 있다. 하늘은 확실하고 영원하며 영원히 증가하는 축복의 장소이며, 그 축복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늘은 슬픔이 없는 기쁨, 눈물 없는 기쁨, 고통 없는 즐거움의 장소이다. 하늘에는 후회도 없고, 뉘우침의 눈물도 없으며, 둘째 생각도 없으며, 좌절된 주의도 없으며, 어떤 종류의 비탄도 없다!

질문할 필요도 없이, 만약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지 않았다면, 하늘에는 많은 눈물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죄들로 인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잃어버린 회심하지 않은 혼들로 인하여, 낭비해버린 우리의 기회들로 인하여, 이곳의 형제들에게 불친절하고 사랑이 부족하였으므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속에 대한 끔찍한 대가로 인하여 영원히 울었을 것이다. 이것들과 많은 다른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울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내실 것이다. 기록되기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

라!”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가운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제하실 것이며,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제하실 것이고, 죄의 모든 악한 결과들로부터 우리를 제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비탄의 모든 이유로부터 우리를 제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마침내 완전한 구원의 온전케 함으로 옮기실 것이며 우리 마음의 모든 갈망이 완전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할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섬길 것이다! — 우리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안식할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만이 누릴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소유할 것이다!

당신은 구속된 자들의 복된 무리들 가운데 있을 것인가? 당신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인가? 당신은 만약 당신이 하늘에 있을 가치가 있어야만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치가 있게 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영원한 영광에 이를 가치가 있다면, 당신은 하늘 그 자체의 모든 영광을 아무런 등급이 없이 완전하게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보자이신 하나님-사람께 주셨던 바로 그 영광을, 위대한 종보자께

서 그 백성에게 주셨다(요 17:5; 22).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 이상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다!

72. 눈물이 마름 — 예외 없이

계시록 21:4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각각의 구원 받은 죄인은 요나가 고래의 배 속에서 배웠던 성령 하나님의 호험 있는 가르침에 의해 배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였던 각각의 죄인은 은혜의 구원하는 역사들로 요나와 함께,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라고 기뻐 고백한다. 믿는 남녀에게 있어서 은혜의 복된 그 사실과 성경의 그 우주적 선포는 더는 충분히, 자주, 혹은 강조하여 선포할 수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이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교리를 세우는 기초이다. 그것이 성경 가운데 놓여진 성경해석 원칙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

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해석 원칙이다.

구원은 은혜만으로 인함이며, 믿음만을 통해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한다. 구원의 어떤 부분도, 조금이라도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행위에 기인할 수 없다. 계시의 말은 이것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더 강조하여 분명할 수 없다(딤후 1:9-10; 엡 2:8-9; 롬 11:6).

구원이 포함하는 것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라. — 구원은 죄인은 타락의 파괴로부터 하늘의 영광 안으로 옮기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구원의 어떤 방면도, 덩어리의 어떤 부분도, 영원의 이 방면이든 다른 방면이든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좌우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정도든지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없다.

구원에 이르는 어떤 자들 중 하나님의 택하심은 은혜의 택하심이다. 신성한 미리 예정하심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으로”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우리의 구속은,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영원한 용서를 사들이고 확증한 구속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효험 있게 성취되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대가 없이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거듭 났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와 운행하심이다. 우리는 똑같은 대가 없는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 만약 우리가 종말까지 보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를 은혜와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며, “사들이신 소유를 구속하심에 이르게” 하시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활의 날까지” 일 것이다. 마침내,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자 구원자 앞에 설 때, 우리는 대가 없는 은혜로만 “하나님의 상속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들”로써 우리의 하늘에 속한 기업의 모든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자 구원자께서, “시간이 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떤 죄의 흔적도 없이 거룩하고 흠 없고 비난 받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타내게 하시고, 만유를 그분 자신을 위하여 머리 돌에 가져가사 영원히 미리 정하신 처소와 하늘과 땅과 지옥 앞에 영광스럽게 하실 때, 우리는 스룹바벨과 함께 외칠 것이다.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슥 4:6-7).

눈물이 마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속자들 모두에 의하여 동등하고 총만하고 완전하게 소유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

다. 매우 철저하고, 매우 완전하며, 매우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며, 이는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영원 가운데 결코 후회도, 슬픔도, 눈물도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붙잡기에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계시록 21:4). 이사야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한다.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5:8).

두 본문의 방법에 있어서 (같은 약속을 말함에 있어서) 아주 약간이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로 언급되고 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모든 자의 얼굴로부터 눈물을 씻기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한다. 그러나 계시록 21:4에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신성한 계시로 그는 더해진 은혜의 만짐을 준다.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

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두 본문을 함께 하면 당신은 모든 믿는 죄인들에게 전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는다. 그것은 단지 이것이다. — 우리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실 때, 그분은 너무도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분의 모든 백성을 죄와 죄의 악한 결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심으로 우리 눈에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누가 이 약속의 충만을 움켜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처럼 죽을 수 밖에 없는 두뇌에는 너무도 위대하고, 광대하며,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영광스럽게도 사실이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 가운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제하실 것이며, 우리로부터 모든 죄를 제하실 것이며, 우리를 죄의 모든 악한 결과들로부터 제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비탄의 원인으로부터 제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마침내 완전한 구원의 온전함 속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우리 마음의 모든 갈망은 완전하게 만족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도 완벽하고 완전하여 그분이 마치셨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아주 작은 일말의 슬픔조차도 갖지 않을 것이다.

암시

계시록 21:4는 하늘로 가는 길 가운데 많은 눈물 흘림이 있을 것

이고 있음을 분명하게 암시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모든 저주와 정죄로부터 옮기지만 고통과 슬픔으로부터는 아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지내며 고통을 받는 많은 것이 있다. 세상은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슬픔의 세상이다. 믿는 자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 가정 문제와 가슴 아픈 일, 경제적 손실, 사별과 많은 다른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고통을 받는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세상은 육과 영 사이에 우리 혼 가운데에서 분노하는 전쟁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내적 죄와 불신과 냉담함과 세상과 자아를 지나치게 사랑 함과의 싸움과 흐느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부족한 성별과 우리 구주에 대한 부족한 헌신과 축복된 성령의 가리키심에 부족한 순종 때문에 우리의 눈물로 지새는 밤과 비탄으로 가득한 낮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귀한 눈물도 있는데, 이는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마를 눈물을 이곳에서 흘렸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많은 눈물과 동정의 많은 눈물과 사람들의 혼과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한 많은 눈물과 그리스도의 체현의 임재를 갈망하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 모든 눈물도 우리가 죄와 비탄의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되기만 하면 영원

히 마를 것이다.

현재의 위로

내가 의미하는 바를 오해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시려고 많은 것을 하신다. 믿는 자들의 삶은 우울하고 비탄으로 가득한 존재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슬픔이 있다. 하지만, 슬픔 한 가운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신다(사 43:1-6).

“(1)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네 위로 넘쳐흐르지 못하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 나는 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네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하므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

리니 (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네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이곳에서 조차,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정도를 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에 대하여 일깨우신다(롬 8:28-21).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임재의 느낌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으로 넘치게 하신다(엡 3:19).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그분 자신의 사랑하는 손길임을 일깨우신다(히 12:5-12).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더 나은 위엣 것에 고정되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골 3:1-3; 고후 4:15-18).

우리의 기대

하지만,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기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결코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질 때가 오고 있다! 하늘은 확실하고, 영원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쁨의 처소이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늘은 슬픔이 없는

기쁨, 애통해 함이 없는 웃음, 고통이 없는 희락의 처소이다! 하늘 가운데에는 어떤 종류의 후회도, 뉘우침의 눈물도, 둘째 생각도, 잃어버린 이유도, 비탄도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지 않으신다면, 하늘 가운데 더 많은 애통해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지난 죄들과 지옥에서 영원히 앓은 바 된 우리의 사랑하는 회심하지 않은 자들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허비해 버린 기회들과 이곳에서 우리 형제들을 향한 불친절한 많은 행동과 우리의 구속을 위한 끔찍한 대가에 대하여 애통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그 모든 것을 닦아내실 것이다! 하늘 영광 가운데에는 다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 보내게 되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어떤 종류의 애통함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울부짖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어떤 종류의 고통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우리 위대한 하나님은 하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제하시고, 우리로부터 모든 죄를 제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의 악한 결과로부터 제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비탄의 모든 원인으로부터 제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마침내 완전한 구원의 온전케 함 안으로 우리를 옮기실 것이며 우리 마음의 모든 갈망이 완전하게 만

족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침이 없이 섬길 것이다. 우리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안식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만이 누릴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우리의 영존하는 체험이 될 것이며, 결코 방해가 없을 것이다!

73. 믿는 자들과 그들의 면류관들

계시록 4:4, 10, 11

“또 그 왕좌 둘레에 스물네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스물네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10)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冠)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11)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사후를 잠깐만, 아주 살짝 들여다 보기로 하자. 헛된 호기심이나 추측의 악이 없이, 믿음과 소망과 기대만 가지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유산에 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 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늘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영원한 기쁨에 대하여 거의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의 처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의 시간이 없을 때 거룩한 천사들이 거하게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하늘이 행복과 기쁨과 영광과 평화와 사랑의 처소이며, 완전한 의와 진리의 처소이고, 죄나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처소라는 것을 안다. 이것들 이상은 우리가 거의 아는 게 없다. 성령은 우리가 그곳에 이를 때까지 드러내기를 거절하며, 다음 세상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아껴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우리는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일지 모른다. 우리는 영원에 속한 증거들이 무엇일지 모른다.

우리는 하늘에 없을 것에 대하여 많이 안다. 질병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죄도 없을 것이다. 어두움도 없고, 실망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다. 타락도 없고, 염려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다.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으며, 눈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있을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거의 아는 게 없다. 지금에 있어서 무지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이다. 만약 우리가 하늘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좀더 알았더라면, 우리는 땅에 속한 책임들을 거의 무시하였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좀더 알았다면 아마도 현재를 무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 믿는 자들의 영원한 기업에 대하여 분명하게 계시된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계시된 그것들은 우리의 현재의 격려와 누림과 위로를 위하여 계시되어 있다. 이 장을 향한 본문은 우리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속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스물네 명의 장로들”은 하늘 가운데 있는 구속 받은 자들의 전체 무리를 대표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전체 무리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활 가운데 영광스럽게 된 모든 자를 대표한다. 이 이십사 장로들은 그들의 영광스럽게 된 상태에서 모든 성도들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들은 하늘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기쁨에 대한 일곱 가지 사항들을 계시한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실이 될 일곱 가지 사항들을 말해 준다.

1.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다. — 그리스도의 의.
2. 그들은 모두 어린양을 경배한다(5:8).
3. 그들은 모두 어린양의 피로 구속 받았다.
4. 그들은 모두 보좌 주변에 있다.
5.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6. 그들은 모두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7.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들의 머리 위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성경 안에서 주어진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늘의 영광이 시작될 때 그들의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있을 것이다.

이 면류관들은 무엇인가?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다섯 가지 분별되고 특정한 면류관들이 있다. 바울은 인내의 보상이 될 썩어지지 않을 면류관에 대하여 말한다(고전 9:24-27). 경주의 주자처럼, 믿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야 한다. 경주를 마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길가에서 그만두고 쓰러지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없다(빌 3:13-14; 히 12:1-3).

생명의 면류관은 주께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되어 있다 (계 2:10; 약 1:12). 시험하는 자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여 결코 어떠한 참된 믿음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시험 가운데 신실한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순수함을 입증한다.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바울은 그 자신을 격려하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보상인 그 의의 면류관에 참여하는 큰 위로를 발견하였다(딤후 4:6-8). 그는 영광 안에서 그가 이르러 그것을 기대 할 모든 이유를 갖고 있었다. 그는 신성한 영감으로 우리에게 이 의의 면류관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8 KRV). 하나님으로 난 자는 모두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요일 4:19; 고전 16:22; 딤후 2:11-14). 성경은 디모데후서 4:8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주의 종들(그분의 백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자들의 보상인 (살전 2:19-20) 기쁨의 면류관이 있다. “자식들의 자식들은 노인들의 화관(花冠)이요...” (잠 17: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영광 가운데 땅의 사방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오시며 그분은 그들 모두를, “또 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히 2:13)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과 그 몸인 교회의 총만 가운데 기뻐하시고 (엡 1:23), 우리도 그럴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회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전 3:7을 비교하라)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에 영광스러워 하고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 안에서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기쁨이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또한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보상인 영광의 면류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벧전 5:4).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2)라고 말씀하셨다.

이 다섯 가지 면류관은 신약 안에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 썩어지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들이다. 이 면류관들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28:5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전체 영감의 책의 가르침이 분명한 것을 가리킨다. 이 다섯 가지 면류관들은 하나의 면류관이며, 그 하나의 면류관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기록되기를, “그 날에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왕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것이요.”라 하였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하는 상이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쓰게될 면류관이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백성의 보상이다. 우리가 더 필요하거나 갈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 우리는 더 아무것도 원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영광이다. 그는 우리의 기쁨이다. 그는 우리의 의이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는 우리의 썩어지지 않을 면류관이다. 천국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누가 면류관을 쓸 것인가?

계시록 4장에서 제시된 이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를 보여준다. 그들은 모두 하나 같이 면류관을 쓰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면류관은 똑같다. — “황금 면류관”이다. 천국에서 구속 받은 자들 가운데 보상의 등급이 있고, 영광의 등급이 있으며, 기쁨의 등급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 교리는 완전히 성경 안에서 그 기초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여

기 기록되어 있고 적용되고 있다!

그것들의 바로 그 표면 위에 그런 교리는 분명 틀린 것이다. 그것은 빛의 보상을 약속한다. 그것은 교만과 자기의의를 조장한다. 그 교리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불하여야 할 임금으로서 사람의 행위로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받아들여지고 천국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 자신의 행위들에 좌우되게 만든다. 그것은 사람에게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준다. 이런 이단은 한번에 모두 뿌리 뽑히고 산산이 부서지게 하자!

하늘에서 보상 등급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복음 안에 아주 분명하게 계시된 모든 것에 반대가 된다(고전 4:7).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은 순수한 대가 없는 은혜의 문제이다(엡 2:8-9).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모두에게 주어졌다(엡 1:3; 딤후 1:9). 하나님은 온전함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온전함 외에 어떤 것도 받으시지 않고 보상도 전혀 없다. — 온전함은 완전한 보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받은 모든 자는 온전하다(골 2:10). 우리 주께서 우리의 보상은 우리의 섬김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은혜에 속한 계획에 기초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신다(마 20:1-16).

주 하나님 만이 하늘에 속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해야만 했던

것보다 무한히 적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유익하지 못한 종들이다. 어느 누구의 제정신인 사람이 그의 개인적인 공로에 따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을 정말로 원하고 있을 것인가?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가? —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로다.” (시 24:4).

우리는 소득을 얻기 위한 욕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 받으시도록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사랑과 감사로 동기를 강권 받으시도록 섬긴다(고후 5:14). 하나님은 결코 탐욕에 보상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기쁨과 영광과 행복과 보상은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들 안에서 모두에게 충만하게 동등할 것이다.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았다. 모두가 동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모두가 동등하게 은혜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상속자들이다(엡 2:11-13).

누가 황금 면류관을 쓸 것인가? — 모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아무도 어떤 하늘에 속한 축복이나 특권을 도둑맞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 면류관을 얻는가?

우리는 그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쓴 보좌 주위에 있는 이십사 장로들을 본다.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은 자들은 정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면류관을 받았다(엡 1:3). 그들은 상속 가문으로서 그들의 면류관을 받았다(롬 8:16-17).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외에는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정당한 상속을 받는다. 그들은 주권적인 예정하심으로 그들의 면류관을 받았다(엡 1:11-12). 그들은 정당한 주장으로 그들의 면류관을 받았다. 이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들을 대신 하여 사온 바 되었다. 그것들은 그들을 위하여 온전한 의의 성취 가운데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산 것이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분배 받은 그리스도의 의로 이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골 1:12; 엡 5:25-27).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이미 그 면류관들을 그분의 모든 백성의 이름으로 얻으셨다(히 6:20).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세상에서의 시험과 환란 앞에서 기뻐하고, 웃으라. 너희는 곧 면류관을 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것이다.

이 면류관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冠)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

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계 4:10-11).

주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관을 씌우시자마자 우리는 기꺼이 기쁘게 그것들을 우리 머리에서 벗고, 우리 하나님이신 구원자의 발 앞에 엎드려,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시 115:1)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주권적인 권능과 은혜의 보좌의 발에 면류관을 던질 것이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만이 존귀와 찬양과 영광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그가 우리를 보존하셨다. 그가 우리를 영광으로 옮기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께 대한 확고한 존경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을 그분의 보좌 앞에 던질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계신 그대로 바라 볼 것이며, 말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9).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고전 1:31). 우리가 진심어린 겸손의 깊은 느낌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의 관을 던질 것이다. 각자가 그 때를 알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며, 각자는 기뻐

고백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마 25:34-40).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우리가 그분께 깊은 감사의 느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을 그분의 보좌 앞에 던질 것이다. 우리는 그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것이다. —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고전 15:10). 간단히 말하여, 우리가 그분을 열렬히 사랑 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던질 것이다.

영광의 궁궐들 안에서 끝없는 희락으로,
하늘 가운데 너무도 밝히 계신 당신을 그토록 앙망할 것입니
다.

나는 노래할 것입니다, 나의 이마에서 반짝이는 관을 던짐으
로,
내가 당신, 나의 예수를 사랑하였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이 같은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영원한 영광으로 관 쓰게 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발에 당신의 면류관을 던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 찬양과 존귀를 드려라. 존경을 갖고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 앞에 당신 자신을 낮추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그리스도께 당신의 감사를 보이라. 그분께 대하여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섬김과 헌신으로 그리스도께 당신의 사랑을 보여 드려라. 곧, 아마도 아주 곧, 우리는 우리 구속자의 보좌 주변에서 만나게 될 것이며, 그분의 발에 우리의 면류관을 던질 것이며 말할 것이다. —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계 5:12).

74.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계시록 20:11-15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언제 심판의 날이 올 것인가? 누가 심판 받을 것인가? 누가 재판장이 될 것인가? 한 번의 심판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두 번의 심판이 있을 것인가?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죄들에 대한 심판과 둘째로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 이것들이 아주 불필요한 혼란에 대한 질문들이다. 심판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조심스럽게 연구하면 그 큰 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지면을 향하는 구절 보다 더 분명하게 그 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성경의 다른 말씀이 없다. — 계시록 20:11-15. 주의 깊게 읽어 보아라.

이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보여지게 될 심판의 보좌이다. 그것은 “크고 흰 왕좌”라고 부르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능력과 경건과 주권을 펼쳐 보이기 위함이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크고”라고 부른다. 그 보좌는 정결하고, 흠이 없으며, 의롭고 또 공의롭기 때문에 “흰” 것으로 부른다. 공의와 진리 말고는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없다. 그 자리에 앉으신 재판장이 거룩하고 주권적인 주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 앞에 모두 서야

하기 때문에 “왕좌”라고 부른다. 마지막 날, 곧 시간이 이제는 더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세 배로 거룩한 하나님의 엄격하고 틀림없는 의와 공의에 따라 심판 받을 존엄하고, 위대하며 흰 보좌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신성한 심판에 대한 공포에 대한 사악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대하여 경고하는 반면, 심판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 공포로서 혹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결코 묘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문제로 항상 제시되고 있다.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오판 받고 있다. 하나님의 종들은 무죄한 자들에 의해서 비난과 비방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큰 날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오명을 풀 것이며 그분의 종들의 오명을 풀어주실 것이다(고전 4:3-5).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날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날을 기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평강 가운데 그 날에 참여하려는 것을 보게 된다. 만약 믿는 자들로서,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주권적인 은혜와 속죄의 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성경이 그 큰 날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또한 그 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마음 속에 품고 성경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보기로 하자. 내가 예언자적 문제들에 대하여 전문가임을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나 일어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다섯 가지가 있음을 안다.

그리스도의 오심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고 계신다. 그 때의 표적에 대하여 스스로 상상하지 말며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것들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예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책을 연구하여 얻어지는 것들 가운데 영적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해도 거의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것들 모두는 예언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자마자 즉시 다시 써야만 한다! 우리는 결코 주님의 오심에 대한 표적을 기다리라고 명령 받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도록 명령 받았다!

이 한 가지 축복된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확고히 하라. —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격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행 1:9-11). 베들레헴에서 나신 바로 그 하나님-사람, 우리의 대표자로 사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속죄의 대속물로 죽으셨던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는, “내가 다시 와서” (요 14:3) 라고 하셨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살전 4:16)라고 하였다. 그는,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살후 1:7; 욥 19:25-27) 라고 하였다. 그분은 한 때 연약함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능력 가운

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한 때 굴욕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한 때 멸시 받으시려 오셨다. 그분은 정복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갑자기 예고 없이 뜻밖에 날씨처럼 있을 것이다(살전 5:2). 그분은,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 3:3)라고 하셨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환란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나, 유대 성전의 재건축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신다! 만약 당신이 표적들이나, 시기나, 계절을 기다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림을 언급한 유일한 것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살전 4:16)가 될 것이다. 아무도 우리 주의 오실 날이나 시간을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다(마 24:36; 막 13:32; 행 1:7). 만약 우리가 그 날이나 시간을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들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무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말라.

그분의 약속에 만족하며,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 예수께서 어떤 순간에 나타나실 것을 바라야 한다. “보라, 그가 오신다.” (계 1:7). 믿음과 기대의 발끝에서 그분을 바라

라.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자는 갑자기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던 데살로니가인들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 (살전 1:10). 믿음은 항상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딤후 2:13).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신다. 곧 그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를 위한 의와 불멸과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딤후 4:8; 약1:12).

일반적인 부활

둘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지금까지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자의 크고 일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계 10:13; 요 5:28-29).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부활 가운데 분명한 우선권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몸은 그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혼과 재결합 할 것이다(살전 4:13-18). 모든 구약의 성도와 이 시대의 모든 성도와 순교자, 예수 안에서 잠들은 모든 자는 그들의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난 후 즉시, 땅 위에 살아 있는 모든 믿는 자는 변화될 것이며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들려올

라 갈 것이다(고전 15:51-58). 그분의 둘째 재림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우리 주께서 내려오시므로, 그분께서 세상을 불사르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돌아가기 위하여 뛰어나갈 것이다. 그 얼마나 큰 날이 될 것인지!

그 후,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모든 속량 받은 몸을 모으신 후, 그분의 다시 오심의 광채로 모든 사악한 자를 멸하신 후, 모든 악한 자가 들림 받을 것이다. 악한 자들의 부활도 역시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 가운데 아무런 노래가 없다. 주님 그분 자신께서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호출 명령을 발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멸시하였던 그분의 은혜와 그들이 죄를 범하였던 분에 대하여 공포 속에 서게 될 것이다! 죄 가운데 지금 연합된 그 몸과 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두려움 가운데 연합 할 것이며 지옥에서 영원히 그분의 진노로 고통 받을 것이다!

심판

셋째, 부활 후 즉시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기록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심판 받아야 한다(계 20:12-13).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 9:27). 우리가 서야 하는 심판은 하나님 사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앞에서 이다(요 5:22; 행 17:31; 고후 5:10). 우리는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기록에 따른 책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책들이 열릴 때,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고 속죄가 없는 자들의 마음과 혼을 멈추게 할 것은 어떤 공포의 충격인지! 그 책들이 열림으로, 생각과 마음과 행위들 안에서 그들이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범죄와 모든 불법과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펼쳐 있더라.” (단 7:10).

나는 이것이 비유의 말로 인식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책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John Gill이 썼던 것처럼, “이 책들에 의한 심판은, 그리고 행위들에 따른 심판은 법정에서 법전에 명시된 것을 따라 정확하고 엄밀하고, 정의와 평등에 따라 보이도록 계획되어 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책들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종종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들에 따라 우리는 심판 받을 것이다.

그 책들은 무엇인가? — 신성한 전지의 책 (말 3:5) — 신성한 기록의 책 (말 3:16) — 창조자의 책 (롬 1:18-20) — 하나님의 섭리의 책 (롬 2:4-5) — 양심의 책 (롬 2:15) —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책 (롬 2:12) (이 율법의 책은 두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첫째 판은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포함한다(출 20:3-11). 둘째 판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모든 죄를 포함한다(출 20:12-17).) — 그리고 복음의 책 (롬 2:16).

그러나 범죄도, 죄들도, 범법함도 발견되지 않는 자들을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 자신의 전지하신 눈으로조차도 찾을 수 없는 자들이 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불법을 찾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내가 남겨 놓는 자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렘 50:20). 그들의 이름은 다른 책,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봉인하신 책이다.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부른다. 이 책에는 신성한 택정의 기록과 우리의 신성한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완전한 의의 기록 (렘 23:6, 참조 33:16) 과 완전한 만족의 기록 그리고 영생의 약속의 기록이 있다.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구원 받은 후 저지른 죄들과 불이행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심판의 날에 그것들을 드러내실 것인가?” 그 질문이 항상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많은 자가 연옥의 로마 교리의 자투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율법의 채찍과 공포 아래 붙잡아두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죄들의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죄들은 그리스도께 전가 되었으며 우리에게 결코 다시는 전가되지 않을 것이다(롬 4:8).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에 진 우리의 빚을 갚으셨고, 하나님은 결코 다시는 우리가 지불하도록 하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범죄한 것들을 지워버리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신다. 우리 죄들을 덮어주신 그분은 결코 그것들을 들추어내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결코 어떤 악을 행함이 아닌 오직 선한 것을 행한 것으로 드러진다(마 25:31-40).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에게 신음과 비탄의 날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은 혼인 잔치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 가운데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보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

넷째, 하나님 그분의 기록에 따라 완전하게 의롭고 의로운 자들로 발견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존하는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다. 선한 것, 오직 선한 것 외에 아무것도, 완전히 선한 것들만을 어떤 죄의 흠이나, 악행의 주름이나, 범죄의 흔적이 없이 행하였던 그들은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계 22:11).

누가 이 완전하게 의로운 자들인가?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다(고전 6:9-11; 롬 8:1, 32-34). 사악함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옥

에서 악한 자들에 대한 벌의 등급이 있을지라도, 구속과 의의 등급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보상과 영광의 등급은 없을 것이다.

천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얻어지고 사들여졌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우리의 기업을 받기 위하여 미리 예정되었다(엡 1:11).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선 주자로서 하늘의 영광의 소유권을 취하셨다(히 6:20).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들이다(롬 8:7).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의 모든 택하신 자에게 받아주신 모든 영광을 주셨다(요 17:5, 20).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다(골 1:12).

영화롭게 됨은 오직 구원의 완성이다.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만이다! 그것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모든 보상이다! 모든 영적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것이다(엡 1:3).

악한 자

다섯째, 그 심판의 크고 끔찍한 날 가운데 죄에 대하여 유죄임이 밝혀진 모든 자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며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치없는 진노에 고통 받도록 된다! 한 사람씩 하나님은 그의

보좌 앞에 악한 자를 불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저주 받은 너희는 죽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를 데리고 가라! 그를 결박하라! 그를 바깥 흑암 속으로 던져버려라!”

그 날에 악한 자들에게는 긍휼도, 동정도, 애처로움도, 소망도, 그리고 끝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지옥으로 가기에 합당하다! 그들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 그들은 지옥으로 결단코 갈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자들은 모두 조심하라. 당신이 그리스께로 피신하여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날에 당신을 그치게 하실 것이며 영원히 파멸시키실 것이다!

75. 네 가지 큰 위험들

고린도후서 11:2-3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천연적인 사람들,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칭 종교에 속한 자들은 때로는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흥분하고 열심이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종종 참된 믿는 자들이 하듯이, 혹은 어쩌면 그보다 더, 적어도 한동안은 은혜의 교리에 대하여 흥분하곤 한다. 그러나 잠시 후 은혜의 광채와 아름다움이 그들 눈에 희미해져 가면, 대속물의 영광은 그들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얼마 후 잃은 바 된 종교주의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식상하게 된다. 그는 어떤 새로운 것, 좀더 심오한 것, 어떤 신비스러운 것을 원한다.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천연적인 사람은 하늘의 만나에 대한 그의 혼 안에서의 실질적인 미각과 향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는 곧 이집트의 파와 양파를 그리워한다.

그런 사람들은 공개적이든 아니든 복음을 부인한다. 그러나 시간 가운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달콤한 말씀을 듣는 것을 싫증 내게 된다. 그들은 은혜에 대하여,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은혜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듣기를 피곤해 하게 된다. 나는 이것이 너무도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을 보아서 나를 놀라게 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 관해서였던 것처럼 두렵다(고후 11:2-3).

사탄은 교활하고 교묘하게 속이는 자이다. 그는 사람들이 기만

당하는 한 그들이 기만 당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관심하지 않는다. 그는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한, 당신을 당혹스러워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다. 지옥의 친구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든지 등을 돌리게 할 때, 그는 그 날 승리하였다. 그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

우리가 모두 자연적으로 영향을 받기 쉬운 네 가지 위험들, 많은 수가 속아왔던 사탄의 네 가지 덫들이 있다. 한 때 그토록 약속되고, 그토록 격려하며, 그토록 인상적이었던 많은 사람이 이 네 가지 사탄의 덫 가운데 하나로 인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렸다. 네 가지를 새겨서 경계토록 하라.

세속적

세속적인 것은 아주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가능한 한 제일 강한 말로 주의 할 것을 경고 받는다(마 13:22; 요 일 2:15-17). 이 세상의 염려와 부자들의 속임수, 세상을 사랑함(그부와 권세와 용납과 쾌락 등)은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언제나 이 잡초들은 그들의 역할을 천천히 행하지만, 효과적으로 행한다. 세속적인 것들을 경계하라!

아르미니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도 역시 우리에게 큰 위험인데, 우리는 본성적

으로 모두 교만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다. 우리가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자라고 아무리 철저히 확신한다고 할 지라도, 우리의 교만과 죄로 충만한 본성은 여전히 자유의지를 부르짖고 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손으로 경배할 제단을 쌓기를 원하고 있다(출 20:24-25). 우리 모두는 구원이, 적어도 구원의 어떤 부분이, 적어도 어떤 정도 가운데, 우리 자신의 행위에 속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많은 머리를 가진 괴물이다. 매번 그 추한 머리들 중 하나를 들어 올릴 때마다, 즉시 잘려 나간다.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어떤 생각이나 그의 영광의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어떤 생각을 한 순간이라도 참지 말라. — “구원은 주께 속하였도다!” —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롬 9:16).

주지주의

교만하고 오만한 벌레들이기에, 우리 모두는 또한 주지주의의 위험에 직면해야 한다. 사탄은 우리 모두가 아주 하찮은 두뇌로 얼마나 교만한가를 안다.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너무 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연구와 부단한 조사로 우리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상상을 한다. 우리는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상상을 한다! 나는 신성한 계기가 아니라

자신의 크고 뛰어나고 훈련된 연구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어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교만한 육신은 언제나 “새로운 어떤 것”을 연구하고 배우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의 질문에 답하고 나면, 다른 질문, 그리고 또 다른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얼마나 자주 개인들과 목사들과 교회들과 교파들이 예언과 교리와 도덕과 교회 질서와 정치적 문제와 가족 문제 등에 소모적이 되는지. 어리석은 질문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에 몰두하는 자들은 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걸가지로 만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교회나 사역 가운데 부수적인 것이 될 때, 사탄은 그 날에 승리하였다(딤후 1:4; 딤후 2:23; 딤후 3:9).

율법주의

우리는 또 율법주의의 지속적인 위험에 직면한다. 인간 본성의 그 어떤 다른 경향으로부터 보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때는 것이 더 어렵다. 노예와 율법의 영은 신약 가운데 다른 어떤 잘못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력하게 다룸을 받는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세상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그리고 주지주의는 모두 율법의 영 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아주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다. “율법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 나는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거

나, 자신을 위하여 행하는 어떤 것을 성화하고 거룩하게 하거나, 사람이 하나님을 그 자신에 대한 책무 아래 둘 수 있고 사람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어떤 교리나 종교적 체계를 가리킨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의 매임 밑으로 되돌리려 하는 어떤 시도이다.

이 율법의 마귀는 드러나야 하고 전멸되어야 한다. 성령은, “여자 노예와 그 아이를 내다 버려라.”고 말씀한다. 죄로 총만한 사람들이 어리석게 율법에 유착되는 것보다 더 해롭고 더 사망적인 것은 없다. 그것은 교만과 자기의의를 증진시킨다. 그것은 사람의 시각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자신으로 돌리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투쟁과 분열을 조장하며, 죄로 총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닐 때 어떤 것 인양 생각하게 만든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강과 확신의 모든 기초를 파괴한다. 그것은 성경이 가장 분명한 선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율법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정도에서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치된다. 율법과 은혜는 분명히 섞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우리는 어떤 의미로도, 어떤 정도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율법의 노예의 멍에 아래로 이끄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허락해서도 안 된

다(롬 6:15; 7:4; 10:4; 갈 3:1-3, 13, 24-25; 5:1-4; 6:12-13; 골 2:16-17; 딤편 1:5-10).

“율법에서 해방되니, 아 기쁜 조건이다!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 그리고 용서가 있다!
율법으로 저주받고 타락으로 상처를 받았네,
그리스도께서 한번에 모두를 구속하셨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충만케 하신 분을 믿음으로 율법을 충만케 한다(롬 3:3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아무런 저주를 받지 않는다(갈3:13).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아무런 약속을 받지 않는다(고후 5:14).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아무런 책무가 없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는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된다. 우리는 은혜로 성화된다. 우리는 은혜로 보호되고 보존된다. 우리는 은혜로 동기를 받는다. 우리는 은혜로 통치 받는다. 우리는 은혜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은혜의 집 안에는 율법의 채찍을 위한 자리가 없다.

나는 이해 받기 원하기 때문에 아주 솔직한 말을 하겠다. 사람들이 나를 역겨운 근본적 반율법주의자와 음란을 조장하는 자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주 큰 소리로 부른다. 나는 동요되지 않을 것이

다. 사라의 집에는 하갈을 위한 방이 없다! 시내의 어둡고 높은 산을 오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한 시온의 은혜의 언덕 위에서 안식할 수 없다. 이스마엘은 결코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은 은혜나 행위를 가질 수 있으나, 두 가지 모두 가질 수 없다. 모세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으나 둘 다 소유할 수 없다. 일 하든지 쉬든지 할 수 있으나, 둘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율법을 은혜와 섞는 것은 은혜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한 가지에 매달린다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없다! 기록되기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롬 11:6). 당신에게 강조한다. 누구든, 어떤 것이든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갈 5:1-4).

76.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을 때

이사야 45:20-25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

나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어,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한 사람이 말하기를, 분명히 주 안에서 내가 의와 힘을 소유하였으니 사람들은 바로 그분께 갈지로다. 그분을 대적하여 노하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되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되며 자랑하리라, 하리로다.”

여기에서 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기로 결정 되었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직접 죄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때 어떻게 그것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

이사야서 45:20에서, 주 하나님은 아무런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신”의 제단에서 경배하는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묘사하신다. —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

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사 45:20).

모든 사람은 종교적이다. 모두가 어떤 종류의 종교를 갖고 있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갖고 있으며, 어떤 형태의 종교적 믿음과 소망 갖고 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종교적이라는 것이다. 내가 한 순간이라도 그들이 영적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이다. 우리가 만나고 일을 같이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친척들은 우리 주님에 의해서 파멸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며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잠 16:25)로 걸어 들어갔다.

이사야서 45장의 이 20절에서, 주 하나님은 모든 잃어버린 거듭나지 않은 종교적 사람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

1. “그들은 지식이 없도다.”

우리는 그들이 약간의 지식이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식이 없도다.”라고 듣는다. 잃어버리고, 거듭나지 않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 지식이 없다. 그들의 무지는 그들의 입을 열 때마다 뻘뻘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이 그어떤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 나야만 한다(요 3:3-7). 그는 하나님

에 의해서 가르침 받아야 한다. 그는 거듭남 가운데 그에게 분배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고전 2:14-16).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가는 관계가 없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였으며 성경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한 것을 연구하였는가는 관계가 없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였든지 혹은 그들의 체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지는 관계가 없다. 천연적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한 구원에 대하여 무지하다.

2. 그들은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운다.”

그들은 모두 그들 자신의 타락한 마음의 어두운 숲 속에서 깎아 만든 신에게 경배하고 있다(롬 1:21-23). 나는 세련되고 개화되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나무 그루터기로 새긴 형상이나 돌을 깎은 형상이나 금이나 은을 부어 만든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그들 자신의 입으로 한 말과 세상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선언문들에 의해 심판하는)은 그들 자신의 좁고 땅콩 같은 생각으로 새겨 만든 하찮은 땅콩 같은 신, 하루살이보다 결코 성경의 하나님을 닮지 않은 신을 경배한다.

3. 그들은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섬기고, 경배한다.

이 시대의 신(당신이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은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위험한 때가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위험한 때에 사람들은 참 경건의 참 능력을 부인하면서 도처에서 “경건의 모양”(종교적 실행)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신다(딤후 3:1-5).

우리 주 예수께서 유대인과 종교지도자들에게 그분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 (마 22:29).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종교적 세상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이다.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주의자와 아르미니우스주의자, 자유의지자, 행위 종교를 “다른 복음,” 다른 신,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구원을 전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그것을 단지 “경건의 모양”인 종교라고 부르며,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복음이며, 그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잃어버린 종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부인한다! Henry Mahan 목사는 그의 게시판에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기사(The Thirteenth Street Baptist Church Bulletin, Ashland, Kentucky)를 수 년 전에 썼다. 그는 우리 시대의 종교가 단지 경건의 모양이라는

다섯 가지 영역을 열거하였다.

(1.) 경건의 모양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며 덧붙이기를,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그 마음을 그분께 열기 전에는 구원하실 수 없다.”고 한다.

(2.) 경건의 모양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며 덧붙이기를, “그러나 그분이 뜻과 길을 갖도록 그분을 허락해야만 한다.”고 한다.

(3.) 경건의 모양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담의 모든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지만, 그분의 피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덧붙이기를, “그러나 그분의 피는 사람이 그 피가 역사하도록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구원할 능력이나 효험이 없다.”고 한다.

(4.) 경건의 모양이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가서 역사하시기 위한 갈망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하지만, 능력을 부인하며 덧붙이기를, “그러나 당신이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한다.

(5.) 경건의 모양이 말하는 것은,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라고 하지만, 능력을 부인하며 덧붙이기를, “그러나 주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타락하여 멸망할 수 있다.”고 한다.

구원 할 수 없는 신은 결코 신이 아니다. 그런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받지 않는다. 그런 신을 전파하는 자는 누구나 거짓 예언자로 구별되어 낙인 찍힌다. 우리는 그런 종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인간의 혼이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고취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같은 자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

이사야서 45:21에서 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신들과 비교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그분 자신의 영광스럽고 구원하는 특징을 강조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실로 주권적이며 공의롭고 구원하심이다! —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

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라. 매우 흔히 우리는 익숙한 말씀을 너무 급히 읽고 가르치고 있는 전체적인 시야를 놓친다. 성경의 이 구절에서 주 하나님은 그분에 대하여 다섯 가지, 그분을 하나님을 규정 짓는 다섯 가지를 선포하신다. 만일 당신이 경배 드리는 신이, 당신이 기도 드리는 그 신이, 당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개념 중 다섯 가지 특징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신은 새긴 형상이며, 쓸모 없는 상상 속의 신에 불과하다. 이것이,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다.

1.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으로 불변하며 확실한 계획을 소유하셨다.

21절의 시작 부분에서, 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하찮은 신을 데려 올 것을 명령하시며 그들이 함께 권고를 받도록 하신다. 나도 여러분이 같은 것을 하기를 명령한다. 사람들의 모든 신, 침례 신, 물몬 신, 가톨릭 신, 신교도 신, 여호와의 증인 신, 힌두 신, 이슬람 신, 유대 신,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다른 신을 모으라. 그들이 모두 함께 권고를 받도록 하라. 고대로부터, 영원 전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선포하였고, 지금 있으며,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의 전체 다발에서 하나를 내게 찾아 주어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소유하셨다(사 14:24, 27; 46:9-11). 홀로 하나님이신 그분은 절대적

이며 변할 수 없는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행하신다.” (엡 1:11).

2.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며, 그분 스스로 “나는 주”라고 선포하신다.

당신은 그것을 아는가? 그는 어떤 주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주”이시다. 그분은 유일한 주이시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한 주시다. 그분은 완전히 우주를 통제하신다. 그분은 회오리 바람 속에서 그분의 길이 있으시다. 구름들은 그분의 발의 먼지이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 주사위를 굴리는 것, 그리고 바다 속의 물고기의 통로들은 그분의 전체적인 법칙 하에 모두 있다(사 45:5-7, 12; 시 76:10; 115:3; 135:6). 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가 경배 드리는 분은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우주의 군주이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주권적이다. 그분은 모든 우주의 사건들 위에 주권적이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구원 안에서 주권적이다.

3. 하나님이신 그분은 홀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아무도 그분과 아무도 없으며, 그분과 같은 자도 아무도 없고,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선포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로 범신론자들과 다신론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들

과 모든 자 가운데 계신다고 믿는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 각자의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것이 진정 하나님 곧, 불교신자, 모하멧 신자, 유대주의자, 가톨릭 신자, 몰몬 신자, 야만인들 그리고 침례교인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렸다.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

4. 하나님이신 그분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언급될 수 있고 언급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그것과 관련하여 단지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것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1.) 의로운 하나님은 모든 죄를 확실히 벌하시고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2.) 의로운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의 만족함이 없이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다. “공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잠 16:6), 그러나 다른 어떤 방법은 없다.

그분의 이름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귀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하게 되었다. 그분 안에서 인자와 진리가 함께 만났다.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춤하였다. 따라서 죄인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의 근거 위에, 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한 이 다섯 번째 것을 선포하신다.

5. 하나님이신 그분은 실로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 모두 이시

다.

그것은 정확히 주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 주셨을 때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분 자신에 대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3장에서 말한 것이다(출 33:19-35:5-7; 롬 3:24-26).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

이사야서 45:22에서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 모두이신 분은 우리에게 그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여주신다. 어떤 죄인이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다. 주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께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구원은 그리스도이다. 그분 홀로 사람들의 구원자이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모든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전 1:30-31).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늦 밤을 바라 보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죄인은 우리의 구원자

이신 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우리의 그 체험이 관련되는 한, 그리스도를 바라 보게 된다(사 45:22).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지속시킨다(히 12:2).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완결한다(요일 3:2).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

이사야서 45:23-25를 읽고 이것을 배워라. —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셨을 때, 누구나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한 사람이 말하기를, 분명히 주 안에서 내가 의와 힘을 소유하였으니 사람들은 바로 그분께 갈지로다. 그분을 대적하여 노하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되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되며 자랑하리라, 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그를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날의 마지막에 마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이집트의 모든 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들은 모두 그분을 몰랐지만, 그들은 모두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고레스(고레스 왕: 뜻 : 태양)를 일

으키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하여 그를 일으키셨으며, 6 절에서 천명된 이유로 인하여 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구하기 위함이었다. —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캄비세스 1세의 아들로 파사제국의 초대 왕(B.C 546-529)으로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 유대 백성의 귀국을 허락한 사람으로 B.C 549년 메대의 속박을 벗어나 BC 546년 리디아를 물리치고 동시에 그리스의 이오니아 제도시를 정복, 동으로 옮겨 인도 지경에까지 확장했다. 이사야는 고레스를 “기름부음 받은 자”로 보았다(사 44:27,28; 45:1-5).

고레스는 B.C 539년 10월 29일에 바벨론에 입성했으며, 자신을 백성들의 해방자로 자처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남겨 두었던 신상들을 원래 있던 성읍들로 되돌려 보냈으며, 포로된 사람들을 귀향시키는 인정어린 정책을 시행했다. 그의 온건한 정치는 자연히 히브리인에게도 파급되었다.

그는 이스라엘민족에게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권면했다(대하36:22, 23: 스1:1-6). 그는 아들 캄비세스에게 왕위를 물려준(BC 530) 후 원정을 나갔다가 그 해 가을 전투에서 전사했다(사

44:28,45:1, 대하 36:22, 스 1:1-8, 4:4, 단1:21,6:28, 10:1).

실로,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며, 배치하시는데, 이 한 가지 큰 이유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고 그 백성의 구원 가운데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 45:7-18). 그리고 그분께서 계획하셨던 그것을 그분은 행하실 것이다. 이 땅이나 지옥에든 아무것도 그것을 막거나 방해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 여기 주 하나님께서 집결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그분의 존엄하고 주권적이며 거룩한 보좌 앞에서 정확히 그분께서 행하시려 한 것을 선포하신다. 당신은 그것을 적어둘 수 있다. —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셨을 때, 이 다섯 가지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시려 맹세로써 스스로를 묶으셨다.

1. 그분을 주로써 인식하며 모든 무릎이 주 예수그리스도께 꿇어야 할 것이다(사 45:23; 빌 2:8-11).
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사람이 그분을 경배하고 영원히 섬기게 하실 것이다. — 이 세상을 향해 외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의와 능력이심을 고백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분명히 주 안에서 내가 의와 힘을 소유하였으니.” (24절).

3.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는 그리스도께로 나올 것이다. —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24절; 요 6:37-40).
4.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반역자, 인간과 악마 모두 완전히 부끄럽고 혼란스런 얼굴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육신을 핥을 것이다. — “사람들은 바로 그분께 갈지로다. 그분을 대적하여 노하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되”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어떤 자들은 그분의 은혜로운 능력으로 회개 가운데 무릎을 꿇을 것이며, 어떤 자들은 그분의 거룩한 공의의 보좌 앞에서 공포에 떨 것이다. 그러나 모두 엎드릴 것이다!
5. 모든 택함 받은 죄인은 구원 받을 것이며, 은혜로 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 안에서 영원히 모두 영화롭게 될 것이다 (롬 11:36; 렘 9:23-24; 고전 1:30-31). —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되며 자랑하리라, 하리로다.” (25절)

그 때, 그리고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한 가운데 서 계실 것이며,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계 21:5-6).

77. “마지막”

고린도전서 15:24-28

“그때에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 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마지막 것들에 이르고자 한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이 내가 그것을 마치기 전에 어떤 것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내가 내 글의 마지막을 말하기 전에 그것이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내 딸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는 내 딸에게 바로 그 순간을 위하여 행동이나 말을 절대 생각하지 말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가르쳤다. 나는 그녀가 그 가르침을 어린아이일지라도 중요함을 배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각적인 만족은 종종 고통이나 파멸로 끝난다. 즉각적인 고통은 마지막에 생명을 보존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약물 중독은 그 바늘에 즉각적인 만족을 찾게 되지만, 고통과 파멸이 그 마지막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암환자는 수술과 치료 가운데 즉각적인 고통을 갖게 되지만, 마지막에는 생명과 기쁨이 그 고통을 중요하지 않게 만든다.

천연적인 세상에서, 모든 것의 마지막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태도는 확실하고 불가피한 결과를 가진다. 만약 당신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한다면, 당신은 타 버리게 될 것이다. 만약 바람에 씨를 뿌린다면, 당신은 회오리바람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의 마지막은 그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

영적인 문제에서도 역시, 모든 것의 마지막은 그들의 시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모든 것이 그 예정된 과정을 거쳤을 때, 시간이 더는 없을 때, 이 땅이 불덩어리로 녹아내릴 때, 부활은 과거이며, 심판은 끝났고, 우리는, “그때에 끝이 오리니!”로 읽는다. 그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올 것이다. — “그러면, **마지막이다!**”

비록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죄가 그분의 일을 망쳐버렸지만, 여기의 비록 모든 것이 엄청난 혼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적그리스도가 경쟁상대가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바빌론(자유의지의 커다란 매춘부, 행위 종교)이 그녀의 간음 술로 세상 모든 것을 취하게 하였지만, 이렇게 부를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행 3:21)

비록 오늘날 세상 모든 것,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께 직접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만한 때의 경륜”이라 불리는 날이 올 것이며, 그 안에서 주께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엡 1:10) 하실 것이다.

비록 모든 사람이 천연으로 그분의 법을 멸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날이 있으며, 그때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10-11).

비록 모든 사람이 천연적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이지만, 비록 사탄과 지옥의 모든 마귀가 그분의 계획에 거스르지만, 비록 사람들과 마귀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삼일 하나님을 도둑질하려고 하나로 연합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골 1:20).

이사야서 45:20-25에서 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떻게 만물들이 마지막에 이를 것인가를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이 그 곳에서 주시는 은혜로운 결론을 경청하여야 한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사람과 천사들과 마귀들과 사탄 자신에 의한 크든 작든, 선하든 악하든 (모든 행위!) 행해진 모든 행위, 그리고 섭리에 속한 모든 사건은 우리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확대하고 존귀하게 하며 높이고 찬양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성경 교리에 대한 이 공과의 마지막에 이르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이해하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공과를 결론짓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시간과 느낌의 이 세상에 속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애통함과 비탄으로부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어려움과 실망으로부터 돌이키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과 이 짧은 존재의 쾌락과 기쁨과 안락들로부터조차도 멀리하게 하시

기를. 오소서, 아 하나님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 시간에 두도록 하며, 그것을 영원토록 “**마지막**”에 두도록 하라.

있을 모든 것이 있었던 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삼 일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갈망과 기쁨이 만유 안에서 만유 때문에 완전히 성취되고 총만하였을 때, 성경은, “그러면 끝이 오리라!”고 선포한다. “마지막”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섯 가지를 보여 주도록 하겠다.

모든 것은 일시적임

우리 마음을 지혜에 적용한다면, 이 첫 번째 사실에 대하여 배우고 지속해서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한다. —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곧 그 마지막에 이르러야 한다.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져 버린다.” (고전 7:29-31).

이곳의 모든 것이 단지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배울 것인지조차도 의심스럽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은 그 시작이 있었고 그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 모두 영원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명령에 따라 운명 지워지고 확정되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어떤 특정한 계획을 위하여 만드셨다. 우리에게 관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성취되었을 때,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기쁨이거나 영원한 비애가 될

것이다. 당신은 그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는가?

우리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지나가 버릴 세상 가운데 산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쇠퇴하고, 죽어가며, 종말에 이르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오직 순간임을 보지 못하는 자는 진짜 장님이 분명하다. 우리는 모든 것이 소멸하고 일시적이며 스러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죽지 않을 혼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 된 피조물들이다. 모든 재산, 모든 재능, 모든 관계, 모든 악, 모든 선, 모든 기회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일시적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우리의 죽지 않을 혼들을 만족하게 할 수조차 없다.

우리는 모두 모든 것이 영원한 세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언급된 바처럼, 당신과 나는 죽지 않을 혼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지속해서 변하는 세상 안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가고 있다. 무덤 뒤편에 놓인 그 크고 보이지 않는 세상, 무엇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영원하다(고후 4:18). 지옥은 영원하다. 천국은 영원하다(막 8:36-37). 이곳의 모든 것은 헛되다. 오직 영원한 그것만이 어떤 실질적 의미와 중요함과 결과와 가치에 속한다. 여러분의 혼을 위하여, 남겨 두어야 할 그날에 기대할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더 값어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지 말 것을 강조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곧 지나갈 것이다.
천국과 지옥만 영원할 것이다.
한 날의 사소한 것을 위하여, 당신은
영원히 난파되어 버릴 것인가?
영원한 혼들을, 그대는 볼 수 없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이 공허한 것을?
세상의 것을 쌓아 두었다 해서,
정말 당신의 혼에 가치가 있는가?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만 두어라
그분께서 행하셨던 역사를 신뢰하라;
그리고 이 세상이 사라져 버렸을 때,
결코 허물어지는 진흙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원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실 수 있다. 영원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나 비통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관계에 전적으로 달려있고 전적으로 결정될 것이다(요 3:36; 6:47; 요일 5:10). 오직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죄들을 씻어 버릴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게 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 우리 혼에 그분의 피와 의의 공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의해야 하는 필요보다 더 충분히 긴급함을 강조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 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막 4:19).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함

둘째,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만물의 시작과 성취와 마지막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배워야 한다. —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고후 5:18).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지옥에 있는 모든 것, — 모든 선한 것과 모든 나쁜 것, — 모든 기쁜 것과 모든 고통스러운 것, — 모든 일시적인 것과 모든 영원한 것, —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사 14:26-27, 45:2-13; 46:9-11; 롬 8:28; 11:36).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선한 기뻐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한 기뻐하심에 따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의 선한 기뻐하심을 따라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선한 기뻐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선한 기뻐하심에 따라 모든 것의 찬송을 받으신다(시 76:10; 잠 16:4; 엡 1:11).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셋째,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귀한 구원자께서 마지막이 올 때까지 통치하시리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 — “그가 반드시 통치하셔야 한다.” (고전 15:24-26). 우리의 중보자로, 보증으로, 대표자로, 그리고 대속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죽으셨던 그 사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옮기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중보자와 보증으로서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실 권한을 받으셨고, 그분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주의 주권적이 통치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절대적이고, 견줄 수 없고, 주권적인 통치권의 능력을 소유하셨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통치하셔야 한다. 통치하지 않는 신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시 115:3; 135:6). 그분의 통치권은 그분의 순종의 보상이므로 그분은 반드시 통치하셔야 한다(시 2:8; 14:9; 롬 14:9; 빌 2:9-11).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통치하셔야 한다(요 17:2-4). 아무도 그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통치하셔야만 한다.

우리의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자는 곧 모든 통치와 권위와 능력을 영원히 내려놓으실 것이다. — 모든 시민 통치와 권위와 능력, —

모든 세대 통치와 권위와 능력, — 모든 교회 통치와 권위와 능력, —
모든 사탄과 마귀와 지옥의 통치와 권위와 능력.

주 예수께서는 곧 모든 적(그와 우리의 적들)을 그분의 발아래
두실 것이다. 그분은 은혜롭고 호험 있게 그분의 모든 택하신 자의
마음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발아래 데려오셔서, 그분의 권능
의 날에 기꺼이 거기 있게 하실 것이며, 그분과 그들의 왕으로서 그
분의 흠에 복종하여 엎드리고 그분의 복음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은혜로 정복하지 않으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
의 진노로 정복하실 것이다. 모두 그분께 은혜로 구원받아 기꺼이 종
으로서든지 혹은 그들이 경멸한 그 왕의 의로운 통치권인 그 통치권
을 깨닫게 된 정복당한 노예로서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대적 또한 그분의 발아래 두실 것이다. 그리고 만
약 그들이 그분의 발아래 놓이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발아래 놓이게
된다. 그분의 모든 고통과 함께 죄는 곧 우리의 발아래 놓이게 될 것
이다. 곧 세상은 그 모든 세력과 함께 우리의 발아래 놓이게 될 것이
다. 사망은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형태 안에서 (법적 사망, — 영
적 사망, — 육체적 사망, — 둘째 사망) 우리의 발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사탄도 곧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발아래
에서 상하게 될 것이다(롬 16:20).

왕국을 바치게 됨

넷째, 마지막이 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이다. — “그때에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 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고전 15:24, 28).

그 두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그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성경이 여기서 아들이 왕국을 아버지께로 가져가실 것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며(딤후 3:15),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면에서 아버지보다 못하며(요일 5:7),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와 왕국 위에 예언자이고 제사장이며 왕이심을 그칠 것을(히1:8) 가르치고 제시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하나님, 심지어 아버지께 가져가실 것이며,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무슨 뜻인가? 부활이 끝나고, 크고 흰 보좌 심판이 끝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가 구원받을 때, 여호와 의 종이고 언약의 보증이며 증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셔야 할 한 가지 마지막 일 있을 것이다. 그분은 모든 택함 받은

자를 아버지께 거룩하고 흠이 없고 비난받지 않고 완전하게 드러질 것이다(요 10:16; 엡 5:25-27; 히 2:13; 유 24-25). — 목자는 그 양을 드릴 것이다. — 구원자는 그의 교회를 드릴 것이다. — 아들은 그 형제들을 드릴 것이다. — 왕은 그 왕국을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이신 분께 드릴 것이다.

“천국에 그 이름이 있는 셀 수 없는 친구들로 이루어진 왕국을 택한다. 그리고 그들의 수적인 총만함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위하여 인자가 되시기로 은혜로이 동의하였던 분이 아버지께 한 전체적인 영화로워진 몸 안에서 나타나실 것이다.” — (Augustus Toplady).

그 큰 날에,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이며 우리 아버지 앞에 옆에 그분의 모든 택하신 자들과 함께 그분의 거룩함의 온전함 가운데 서실 것이며, 말씀하실 것이다. “주여, 나와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모두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 “내 아버지여, 당신께서 택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자, 내가 구속할 것이라고 믿으셨던 모든 자, 그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약속하였던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비난받지 않게 나의 피로 씻었고, 내 의로 옷 입었습니다.” — “내가 구속한 모든 자, 모든 피로 산 혼이 여기 있습니다.” — “거듭나고 부름 받고 축복된 성령으로 인침 받은 모든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분은 계속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나의 아버지여, 은혜의 모든 계획이 충만 되었습니다. 평강의 모든 결정이 성취되었습니다. 언약 가운데 우리가 동의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예정하심 안에서 우리의 큰 계획이 이제 충만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은혜가 영생 안으로 의를 통하여 통치합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신 모든 것의 하나님

다섯째, 이것은 모든 것의 마침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분 자신이 영존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시고(사 63:12, 14),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탁월함을 받게 하시려고(골 1:18) 명령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사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 가운데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사랑받으시며, 경배받으시므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고린도 전서 15:28의 이 마지막 구절에 여러분이 보기를 바라는 세 가지 것들이 있다.

1. 삼일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엡 1:3-14; 2:4-7).

-
2.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큰 하나님이며 구원자께서 우리의 몸을 위한 모든 고기와 옷과 안식처, 우리 혼들을 위한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영광과 만족함, 그리고 모든 해와 달과 빛이 영원히 되실 것이다!
 3.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 삼일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 가운데 모든 자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 삼일 하나님은 모든 성도와 천사들의 모든 찬양 가운데 영원히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왕국에 속한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림이 그 마지막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통치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통치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이다. 신성한 인격으로, 그분은 항상 아버지와 하나가 되실 것이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사람으로서조차도, 그분은 영원히 계속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는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의 중보자 왕국의 영향은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사람이 버려지거나 그림자 속에 가려지는 때는 절대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그분보다 결코 더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이것이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목표인가? 이것이 우리 마음의 부담이며, 관심이고, 염려이고 기도란 말인가? —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다.” 우리 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않는가? 만약 이것이 실로 우리가 가장 열심히 수고하려는 것이라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두고 선한 용기를 가질 모든 이유가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전 15:58).

아멘.